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1)

- 현대 한옥미학의 기원 -

Exploring the Values of the Hanok in the Humanities:  
The Origin of Modern Hanok Aesthetics

이강민 Lee, Kang-Min  
박민정 Park, Min-Jeong

( a u r i

AURI-한옥-기본-2012-1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1) : 현대 한옥미학의 기원

Exploring the Values of the Hanok in the Humanities:

The Origin of Modern Hanok Aesthetics

지은이: 이강민, 박민정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5호

인쇄: 2012년 12월 26일, 발행: 2012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8,000원, ISBN: 978-89-97468-52-2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Ⅰ 연구책임            이강민 부연구위원

Ⅰ 연구진              박민정 연구원

---

Ⅰ 연구심의위원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김도경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배병선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장  
                             이희봉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최 일 목포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장



## 연구요약

### I. 한옥미학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한옥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인문학 연구를 통한 한옥 문화의 세계화는 동아시아 중세 문명의 정수로서 한옥 문화의 가치를 발굴하는 작업과 글로벌 시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한옥 문화의 우수성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발굴되는 인문학적 가치란 한옥 문화의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상징과 의미를 말하며, 한옥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 이론에 통섭의 방법론을 통해 역사학, 철학, 언어학, 문학,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을 결합시킴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이들은 한옥 문화 속의 종교, 신앙, 가치관, 상징 등의 세계관과 관련된 주제, 기후, 풍수, 입지, 친환경성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주제, 신분, 의례, 민속, 장인 등 사회제도과 관련된 주제 등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지식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기존 한옥 문화의 가치 서술을 재검토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매체에서 한옥이 다뤄지면서 한옥을 표현하는 어휘는 점차 늘어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증된 바 없는 술어들이 기계적으로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미사여구의 남발은 한옥 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근대 이후 본격적으로 서술되기 시작한 한옥 혹은 한국건축의 가치 서술은 기본적으로 근대 미학의 범주에 속하는 작업이다. 건축 문화의 가치 판단은 진리의 규명이나 윤리적 판단보다는 감각적, 심리적 효과에 기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학적 판단인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근대 이후 약 100여 년간 한옥의 미학적 가치를 서술하는 술어를 추출하여 각각의 사상적 배경과 물리적 근거를 추적하고자 한다.

## II. 현대 한옥미학 서술의 분포

본 연구는 한옥미학을 구성하는 술어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한옥미학의 술어는 한옥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나 예술성의 본질을 철학적 혹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해석한 어휘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출하는 술어는 한옥 및 그 구성요소에 대해 미학적 가치판단을 하고 있거나 그것을 민족성과 결부된 고유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

한편 한옥미학의 구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술어뿐만 아니라 술어의 배경이 되는 사상 및 근거로 삼고 있는 건축특성이나 사례를 함께 추출하여 정리해야 한다. 사상 배경은 술어들의 발생 배경이 되는 학문적 바탕으로서 기사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대개는 저자의 교육과정이나 학문 교류의 이력을 추적하여 판단하게 된다. 건축적 근거는 기사에서 술어들이 지시하는 사례들로 구체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적 건축의 유형, 개인적인 건축경험의 과정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형화시켜 세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옥미학의 술어를 추출하기 위한 매체로는 주로 20세기 약 100여 년 동안의 한옥 관련 단행본, 보고서, 논문, 신문, 잡지를 수집했다. 주요 단행본과 논문은 미술사학과 건축사학 등 관련 학문의 연구사를 참조하여 미학적 가치판단이 뚜렷한 기사를 선별했다. 또 신문과 잡지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키워드 검색을 실시했다. 이 때 검색어로서 한옥뿐만 아니라 가옥, 조선집, 주가, 주거, 주택 등 주택관련 어휘와 경복궁, 남대문, 불국사 등 주요 문화재를 포함하는 다양한 검색어를 통해 누락되는 기사의 수를 줄였다.

한옥 미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주요 저술들은 크게 학문 영역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일제시기에는 근대적 학문방법에 따른 최초의 한옥미학 서술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건축사학자로서 조선의 건축유적을 조사한 세키노 타다시(関野貞), 민예학을 개창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를 비롯하여 서양인으로서 조선의 건축미술에 매료되었던 에카르트(Eckardt A.) 등이 최초의 한옥미학을 기술하였다. 이들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현대 한옥미학의 형성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일제시기 한국인으로서 한옥미학 서술에 중요한 인물은 고유섭이다. 고유섭은 서구미학을 최초로 수용했다는 점과 그것을 기초로 한국미학의 주요개념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한국미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으며, 한옥미학의 주요 술어 역시 고유섭의 글에서 유래한 단어들

이 상당하다.

해방 이후 미술사학과와 고고학계에서는 고유섭을 계승 혹은 비판하면서 한국미의 특징을 정립해나갔다. 고유섭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탁월한 문장과 표현을 개발한 최순우를 비롯해서 한국미술에서의 자연주의를 강조한 김원룡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야나기 무네요시 등의 민예학은 민속학 또는 인류학으로 발달하였다. 또 전통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논하는 학문 특성은 지리학에도 내재된 것이었다. 민속학의 분야에서는 김광언 등이 전국적인 한옥 주거의 생활 관습을 논했고, 지리학의 분야에서는 장보웅 등이 한옥 주거의 지역적 분포를 확인했다. 이들은 한옥을 미술작품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의 일종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미학 서술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특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학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었다.

한옥 건축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인 건축사학과 문화재학 분야에서는 해방 이후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장기인, 윤장섭, 정인국 등의 학자가 용어를 재정비하고 합리적 방법론에 입각한 통사 서술을 시도했으며, 임천, 김동현, 김정기 등의 학자는 문화재의 해체수리, 복원 영역에서 활약했다. 이 분야에서는 한옥의 주요한 특징들이 정리되었으며, 미술사학의 한국미와 건축사학의 공간론이 연계되고, 건축설계술의 일환으로 한옥의 구성이 해석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건축가들은 보다 실천적인 필요에 의해 한옥미학을 고민하게 되었다. 전통의 계승과 민족적 정체성의 구현이라는 과제는 항상 창작과 모방의 경계에서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건축가들에 의한 한옥미학의 재해석은 공간의 체계와 구성, 자연과의 관계, 전통적인 세계관의 교훈 등 형태로부터 추상화된 정신적인 부분을 지향했으며, 보편적인 설계원리와 한옥미학을 결부시키는데 일조했다.

대중매체는 한옥미학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건축 관련 잡지에 나타난 한옥미학은 건축에서 한국성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천착하고 있다. 조선과 건축 등 1920년대에 창간된 초기의 잡지들에서는 답사의 대상으로서의 고적, 개량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에 한정된 한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글로 쓰여진 잡지는 1955년 대한건축학회의 「건축」, 1966년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등이 먼저 발간되었고, 특히 1966년에 창간된 「공간」은 초기에 한옥미학을 정립하고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순우, 신영훈, 김동현, 안영배 등의 연재물은 한옥의 지적기반 및 해석방식을 제공하였고, 한국

성 혹은 전통과 관련된 특집 논쟁들은 한국 건축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1977년에 창간된 「꾸밈」에서는 당시 소장층 학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성 논의를 확장시켰다. 1980년대에 「건축문화」, 「건축과 환경」 등이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한옥 관련 특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이상건축」, 「건축세계」 등의 잡지가 가세하면서 담론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고건축 강좌, 답사기, 한국성 논쟁 등 익숙한 주제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논의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일제시기의 신문 기사 역시 당시 잡지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옥과 관련된 최초의 연재기사는 1922년 동아일보에 실린 야나기 무네요시의 “장차 일케된 조선의 건축을 위하여”이며, 대중들을 위한 신문기사에서는 주로 팔도 순례를 통해 고적을 답사하는 내용을 연재하였다. 6개월 이상 연재된 기사들은 1960년대 동아일보의 “국보순례”, 1970년대 경향신문의 “한국의 재발견”, 1980년대 경향신문의 “그터 최영희 교수의 한국사 기행”, 1990년대 조선일보의 “우리문화 이웃문화”, 경향신문의 “문화재는 살아있다”, “문화재를 찾아서” 등이 대표적이다.

### Ⅲ. 현대 한옥미학의 주요 개념

한국미학과 건축사학 등의 주요 저작의 분석을 통해 추출한 한옥미학의 술어에는 몇 가지 주요한 어휘가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세키노 타다시로부터 유래한 섬세미, 섬약미 계통의 술어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비애미를 거쳐 고유섭의 적조미로 이어졌다. 쓸쓸한 느낌의 술어들은 조형미를 설명할 때 면과 색보다는 선의 미학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유연한 곡선을 사례로 들면서 율동성을 또 하나의 미학술어로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고유섭에 의해 강조되었던 소박미, 순박미 계통의 술어는 한국민족에 대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이 반영된 미학개념으로서 어리숙하고 둥근 모습과 통했으며, 최순우에 의해 둥글고 너그러운 익살의 미학으로 발전했다.

고유섭의 무기교의 기교는 한옥미학의 생산사적 특징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초석이 되었다. 안영배가 구체화시킨 한옥공간의 내부공간이면서 외부공간인 특징, 한옥 배치의 대칭적 비대칭성 등은 모두 무기교의 기교 혹은 무계획의 계획에서 발전한 개념이



라 할 수 있다. 또 아담하면서도 격조를 갖는 건축적 특징은 윤장섭 등에 의해 인간적 척도로 정의되었으며, 자연에 순응한 결과로 이해되었다.

자연과의 조화는 초기 한옥미학으로부터 중요시되었던 개념으로서 무기교의 기교가 한국미의 특징이 되어야했던 더욱 근원적인 기초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김원룡은 이를 미추의 세계를 이탈한 미 이전의 미로 파악했으며 한국미의 특색으로서 자연주의를 정의했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 인위적인 기교를 적게 쓰는 시공방식 등은 한옥미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한편 에카르트(Eckardt A.)의 평가처럼 한국미술의 단순하고 견실한 아름다움은 고전적이라는 술어로 표현되었다. 단순하고 견실한 아름다움은 소박미, 순박미 계통의 미학과 통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절제, 절도의 강직함으로 이어졌으며, 유학적 세계의 선비 정신과 통할 수 있는 검박함의 미학으로 발전했다.

이들 어휘를 학제적 계통에 따라 구분해보면, 크게 현대미학에서 추출된 어휘와 건축이론에서 추출된 어휘, 한국어의 전통에서 추출된 어휘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들이 서로 조합되면서 다양한 의미로 확장·전이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특히, 현대미학의 주요개념에 대응하기 위해 혹은 현대미학이 포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고유어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구수한’, ‘어리숙한’ 등의 형용사라든지 ‘맛’, ‘멋’ 등의 어휘가 대표적이다.

위와 같은 술어들은 한옥미학을 구성하는 기초 어휘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해왔다. 그러나 개별 한옥을 설명하기 위해 이들 술어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화재 등 한옥미학의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는 술어들은 대체로 정해져 있으며 일부만이 사용된다. 그러므로 현대 한옥미학의 대상별 술어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곧 한옥미학 술어의 영향력, 다시 말해 한옥미학을 특징짓는 성격의 강도를 측정해볼 수 있다.

신문 기사에 수록된 한국 전통건축의 명칭을 조사해보면, 남대문, 경복궁, 종묘, 창덕궁, 불국사, 해인사 등의 순서대로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미학적 서술이 존재하는 기사로 범위를 좁히고, 전문가에 의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사례로 한정하면, 부석사, 불국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쇄원 등이 한옥미학의 명작으로 손꼽을 수 있는 사례가 된다.

위 5건의 사례를 기술한 단행본과 신문기사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보면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서술이 가장 많았고, 동적 균제, 공간 전개, 구조, 곡선 등 건축미학에 관한 다양한 술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을 지시하는 대상에 따라 구분해보면 크게 ‘자연’, ‘공간’, ‘형태’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이란 지형, 풍경, 좌향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한국건축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항목이다. ‘공간’은 3차원적 동적 요소에 대한 서술로, 대칭과 비대칭, 축을 이용한 공간전개의 극적인 효과, 중첩에 의한 입체적 공간감, 공간 사이의 연결관계 등에 대한 서술이 해당된다. ‘형태’는 2차원적 정적 요소에 대한 서술로, 곡선미, 구조미, 비례 및 스케일 등과 관련된 서술이 해당된다.

이들 카테고리에 따라 대표 건축물의 서술을 분석하면, 한옥미학 서술에 있어서 ‘자연’과 ‘공간’은 필수 항목인데 반해 ‘형태’는 사례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형태’에 해당하는 곡선미, 구조미 등은 건축물 자체의 조형적 완결성을 강조하는 어휘인데 이는 건축에서 한국성을 정의할 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병산서원, 도산서원, 소쇄원의 사례에서처럼 건축물의 형태보다는 자연과의 조화와 공간적인 연결 특성이 한옥미학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 IV. 현대 한옥미학의 계통

이 장에서는 현대 한옥미학 술어의 계통을 정리·분석하기 위해 한옥미학의 주요 개념들을 형식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미학술어는 저자의 인명, 건축적 근거가 되는 대상과 함께 관계도로 도식화되어 술어와 술어의 관계, 술어와 건축적 근거의 관계가 정의된다. 이렇게 문헌별로 정의된 도식들을 결합해나가면 한옥미학지도가 구성된다.

한옥미학지도는 방대한 양의 문헌의 상호관계를 통합하는 도구로서 한옥미학의 계통 분석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각화되는 한옥미학지도의 기본형태는 크게 유기적 형태와 위계적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유기적 형태에서는 관계성이 집중되는 술어가 중앙에 위치하게 되며, 위계적 형태는 상위개념과 파생개념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한옥미학지도를 통해 술어의 위상학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한 술어로부터 상위 단계 혹은 하위 단계의 술어로의 브라우징이 가능하며, 건축사례를 중심으로 술어들을 모

아볼 수도 있다. 특히 노드가 집중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개념의 집중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술어들의 개념적 크기, 즉 내용의 풍부함을 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이웃한 유사 개념들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고유섭, 주남철, 안영배, 윤장섭, 김성우, 김병운, 장경호, 김동현, 우경국 등 9인의 저술에 근거한 한옥미학지도에서 독보적인 비중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자연과의 조화’와 ‘비대칭성 균형’이다. 이 두 술어는 한옥미학의 근간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제3장의 대상별 서술 분석에서 구분한 범주인 ‘자연’과 ‘공간’에 해당하는 특징이며,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조형적 형태를 강조하는 서술어는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 두 술어 또한 높은 비중으로 등장하는 것일 뿐 한옥미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는 없다.

한옥미학지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한옥미학 술어의 전개 방향은 먼저 동의어 및 유사어로 확장되어 나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균제성’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확장되어 ‘비대칭성 균형’과 연결된다. 다음으로 ‘자연과의 조화’와 ‘인간적 스케일’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단아한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처럼 끊임없이 생성되는 열린 체계이다. 이는 ‘순후’와 ‘질박’이 결합하여 ‘순박’을 생성하고, ‘순박’이 ‘구수한 큰 맛’의 ‘구수한’을 대체하면서 ‘순박한 큰 맛’이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한옥미학을 표현하는 문장들은 하나의 술어로 완결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술어가 서로 만나 해체되고 결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각각의 술어들은 공통적인 종착점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술어으로써 한옥미학의 본질을 확신하고 모든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초월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옥미학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한옥미학지도에 표현된 각각의 술어는 그 근거사례들의 실존을 통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이들 술어는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 스스로 설명이 미치지 못하는 사례에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된 의미 네트워크는 항상 열려있는 체계로서 건축에서의 한국성을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옥미학은 가족유사성의 확장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유사성이란

모두가 공통되는 특징은 없지만 서로 교차한 유사성 때문에 그들을 가족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을 가리킨다. 한옥미학에 적용해보면, 건축에서의 한국성은 본질적 정의가 불가능하지만 그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들의 유사성에 의해서 정의가 가능하며, 그 유사성을 대표하는 술어들의 집합이 곧 한옥미학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옥 미학의 기원과 전개는 초기의 선구자들의 초석이 가족유사성의 기초를 형성하고 후학들의 해석이 보태지면서 대마로 발전해가는 바둑 대국으로 비유될 수 있다. 각축을 거듭하는 술어들의 경쟁은 미학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로 일부 수렴되었고, 건축적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는 비대칭적 균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한편 한옥미학 논의를 지속해 온 가장 큰 원동력은 현재적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발생 이래 국가적, 민족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동되어 온 전통의 계승이라는 명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굴레였으며, 특히 제국주의와 반민주독재 치하를 겪어 온 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강령으로 군림했다.

건축가들은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수주하기 위해, 또한 자기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옥미학의 추종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기와지붕이라든지 목구조, 담장 등을 직접 차용하는 전통의 계승에는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가를 작가로 간주하고 건축물을 작품으로 정의하는 근대 작가주의의 사고 아래 건축물은 건축가의 창의력이 십분 발휘된 독창적인 작품이어야 했는데, 관습적인 형태와 기법을 가지고 있는 한옥은 건축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졌다. 더구나 독재정권의 대규모 건축사업이 전통의 직접 모방을 강요하면서 그 반발은 더욱 심화되었다.

건축학자들 역시 한옥미학에 일정한 거리감이 있었다. 실증주의 학문방법론이 우세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만 건축물이 기술되었고, 미학적 가치 서술은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서 건축적 본질에서 떨어진 것으로 기피되었다. 또한 국제주의 건축사조에 대비되는 토속건축의 미학을 논하는 것이 각광받는 일이 될 수는 없었다.

위와 같은 건축계의 입장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개발될 수 있었던 한옥미학은 형태를 철저하게 무시한 한없는 추상화의 방향으로만 전개되었다. 전통논쟁의 효시가 되었던 강봉진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김기웅의 독립기념관, 김석철의 예술의 전당, 승효상의 수졸당, 우규승의 환기미술관, 조성룡의 이응노기념관에 이르

기까지 한국 현대건축에서의 한국성 논의는 시각적 형태와 추상적 공간구조의 논쟁으로 압축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추상적 공간구조의 우위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우세했다. 건축가들에 의해 한옥건축은 ‘텅 빈’ ‘무용의 공간’이면서 ‘청빈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정의되었고, 나지막하게 배치되거나 매스를 분절하거나 마당을 만드는 행위들은 모두 한옥 미학을 계승한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구체적인 질감이나 형태가 드러나는 경우는 점점 더 배제되어 왔다.

## V. 한옥미학의 외연과 참조

마지막으로 한옥미학의 외연을 탐색함으로써 민족미학의 구성원으로서 한옥의 위치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먼저 한국문화 전반에서의 한국미 논의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미학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적인 어휘들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며, 한옥미학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일부 제기되었던 미학 어휘의 번역문제가 다시 등장한다. ‘미’라고 하는 어휘 자체가 서양어의 번역어로서 새로 만들어진 말이고 동양 문화의 특성을 정확히 지칭하기에 부족한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본에서 네덜란드어를 번역할 때부터 대체어를 찾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도 멋, 고움, 아름다움 등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서양의 ‘자연’ 개념과 동양의 ‘자연’ 개념 역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다 혹은 자연과의 조화라는 명제 역시 지속적인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고유성이 제시한 ‘무관심성’이라는 어휘 또한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미학 개념으로 발생했을 때의 의미와는 크게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현대 미학이 동아시아에 번역되어 도입되면서 의미의 중첩과 혼재를 통한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는 모습은 매우 일반적이다. 특히 기존에 통용되던 한자어 혹은 한국어가 그 번역어로 채용되면서 의미의 이중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어들은 우월한 근대 신문물과 함께 전파되는 것으로서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어떠한 말이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을 것만 같은 느낌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현상인 소위 카세트 효과는 초기 한국미학의 확산과 정착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을 통해 수입된 미학은 해방 후 정규교육과정으로 미학과가 설치되고 한국미학회 등 관련 학회가 창립됨으로써 자기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국미의 탐구를 목적으

로 하는 한국 미학은 그 대상을 크게 확대해서 외교관계, 제천의식, 춤과 굿, 전통사상 등으로 해석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멋’, ‘신명’, ‘한’, ‘해학’, ‘풍류’ 등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한층 풍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음악, 한국무용, 한국의상, 한국무술, 한국음식 등 문화예술계에서도 각각 한국미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들 영역에서의 활발한 한국성 논의는 결과적으로 한옥미학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이 되며, 이를 통해 더욱 공고하고 광범위한 미학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한국음악과 무용에서의 곡선성, 즉흥성, 표현성 등은 한옥미학에서의 곡선의 아름다움과 통하는 미학개념으로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족건축미학의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옥미학 전개의 방향성 설정의 참조점을 삼고자 했다. 일본의 경우, 초기의 근대적 건축교육에서 전통건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브루노 타우트 등에 의해 일본 전통건축이 서구의 모더니즘과 통하는 근대성이 담겨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건축에서의 전통성 계승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신사, 주택, 다실 건축은 합리주의나 선과 면에 의한 구성 등 당시 모더니즘의 문맥으로 재해석되어 일본건축의 정수로 평가받게 되었다. 거대한 지붕을 얹는 등 형태에서 일본 취향을 드러내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절충양식으로서의 테이칸 양식은 2차 대전 패전과 함께 민족주의적 요인이 부정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일본적 근원의 공간 안에서 근대 건축의 원칙을 재현하는 것은 이후 세대의 목표가 되었다. 1950년대 초에 이르러 철골과 RC의 아키텍토닉은 일본 전통적인 목가구조의 비례체계로 순조롭게 옮겨졌고, 근대적 디자인 원리에 바탕을 두었지만 노출된 기둥과 보를 이용한 일본 전통적인 구성방식을 통해 입체적인 볼륨을 형성함으로써 건축적으로 일본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중국 현대건축에서의 전통미 논의는 초기 건축가들의 활동과 관련이 깊다. 1920~1930년대 미국에서 보자르식 교육을 받고 귀국한 중국의 건축가 첫 세대는 보자르 양식의 방법론을 중국의 전통건축 양식에 대입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도는 중국의 전통건축과 유럽의 시스템이 비교적 무난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보자르식 건축은 형태적으로 정형적이고 돔 형태를 갖췄으며 정면계획에 비중을 두는 등 중국건축과 유사한 특징을 지녔으며, 장엄한 외관 등이 중국건축의 엘리트적 특성과 잘 부합했기 때문에

중국이 큰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건축양식이었다.

영국에서는 유럽대륙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식민지 경영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영국성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론적인 대륙의 관점에 대해서 경험적인 감각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영국미의 특징을 정의하고자 했다. 나아가 러스킨은 미술가의 국적이 곧 그 감각을 결정한다는 주장으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펄스너는 영국성의 기저에 시대정신과 국가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들이 통합되고 분리되는 모습으로 영국성이 발현된다고 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 VI. 한옥문화 세계화의 인문학적 기반

한옥문화의 세계화란 결국 한옥문화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어 그 정신과 생활양식이 널리 공유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검증과 반성을 통해 한옥문화 자체를 정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오히려 공감을 얻고 수요를 촉발하는 계기는 후자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한옥문화를 둘러싼 막연한 감상이나 과장된 신화는 벗기되 문학적이고 낭만적인 정서는 보존하는 것, 또한 풍부한 스토리텔링으로써 다양한 장점들을 포괄하는 것은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첩경이 된다.

현대 한옥미학의 기원과 전개를 검토하는 연구는 이와 같은 한옥문화의 인문학적 가치 발굴 작업의 첫걸음으로 적절하다. 한옥미학의 연구는 한옥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 지점을 검출해내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며,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정제된 한옥미학의 기초 개념들은 향후 한옥문화의 서술에서 주요한 술어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한옥미학, 한옥문화, 한국미, 서술어**





# 차 례

<b>제1장 서론</b>	<b>1</b>
1.1 한옥문화의 인문학적 연구	1
1) 한옥문화의 인문학적 가치 발굴의 필요성	1
2) 한옥문화 세계화의 방향 설정	3
1.2 한옥문화의 가치서술과 한옥미학	4
1) 한옥문화 서술의 현황과 문제점	4
2) 한옥문화 서술과 미학의 관계	5
3) 한옥미학 체계화의 기대효과	6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선행연구 고찰	7
2) 연구의 범위	10
3) 연구의 방법	12
4) 연구의 흐름	13
<b>제2장 현대 한옥미학 서술의 분포</b>	<b>15</b>
2.1 한옥미학의 구성	15
1) 한옥미학을 구성하는 술어	15
2) 한옥미학에서 가치판단의 사상배경과 건축적 근거	17
3) 한옥미학의 매체	18
2.2 현대 한옥미학 서술의 저자와 영역	21
1) 일제시기의 저술	21
2) 미술사학 및 고고학	22
3) 민속학 및 지리학	23

4) 건축사학 및 문화재학 .....	23
5) 건축가와 비평가 .....	24
2.3 대중매체 속의 한옥미학 .....	26
1) 잡지 기사 .....	26
2) 신문 기사 .....	42
2.4 소결 .....	48

### 제3장 현대 한옥미학의 주요개념 .....51

3.1 초기 한옥미학의 어휘와 갈래 .....	51
1) 초기 한옥미학 어휘의 실례 .....	51
2) 초기 한옥미학 어휘의 갈래와 특징 .....	67
3.2 현대 한옥미학의 대상과 성격 .....	70
1) 현대한옥미학의 주요대상 .....	70
2) 현대한옥미학 서술의 실례 .....	71
3) 현대한옥미학 구성의 성격 .....	99
3.3 소결 .....	103

### 제4장 현대 한옥미학의 계통 .....105

4.1 현대 한옥미학지도의 작성 .....	105
1) 한옥미학의 도식화 방법론 .....	105
2) 한옥미학 도식의 사례 .....	107
3) 한옥미학지도의 구성 .....	118
4) 한옥미학지도의 활용 .....	121
4.2 현대 한옥미학의 계통 분석 .....	125
1) 한옥미학지도의 시안 .....	125
2) 현대 한옥미학 개념 확장의 유형 .....	126
3) 현대 한옥미학 전개 특징 .....	129
4.3 한국 현대건축과 한옥미학 .....	131
1) 건축계에서의 한국성 논의의 특징 .....	131
2) 한옥미학이 적용된 현대건축의 사례 .....	145
4.4 소결 .....	175

**제5장 한옥미학의 외연과 참조 .....179**

5.1 한국문화 분야에서의 한국미 논의 .....	179
1) 미학 개념어의 번역과 발굴 .....	179
2) 한국 미학의 모색 .....	184
3) 문화예술계에서의 한국미 논의 .....	193
5.2 민족건축미학 서술의 해외사례 .....	199
1) 일본건축과 일본성 논의 .....	199
2) 중국건축과 중국성 논의 .....	206
3) 영국건축과 영국성 논의 .....	212
5.3 소결 .....	218

**제6장 결론 .....221**

6.1 현대한옥미학의 기원과 전개 .....	221
6.2 한옥미학 서술의 어휘와 특징 .....	225
6.3 한옥미학 서술의 새로운 방향 .....	227

참고문헌 .....	235
------------	-----

Summary .....	249
---------------	-----

부록 1. 한옥미학 잡지기사 목록 .....	255
--------------------------	-----

부록 2. 한옥미학 신문기사 목록 .....	305
--------------------------	-----

부록 3. 한옥미학 어휘 분류 .....	313
------------------------	-----

부록 4. 한옥미학지도 시안 .....	317
-----------------------	-----

## 표차례

[표 1-1] ‘한국성’ 공간 디자인 개념 추출 .....	4
[표 2-1] 술어의 근거와 배경 추출 사례 .....	17
[표 2-2] 한옥미학 서술 매체의 종류 .....	18
[표 2-3] 신문 검색에 활용한 키워드 .....	19
[표 2-4] 수집 대상 잡지 .....	26
[표 2-5] 연도별 잡지 기사 분포 .....	27
[표 2-6] 「공간」 연재 및 특집 기사 목록 .....	30
[표 2-7] 「꾸밈」 연재 및 특집 기사 목록 .....	32
[표 2-8] 「건축문화」 연재 및 특집 기사 목록 .....	33
[표 2-9] 「건축과환경」 연재 및 특집 기사 목록 .....	35
[표 2-10] 「이상건축」 연재 및 특집 기사 목록 .....	36
[표 2-11] 「건축세계」 연재 및 특집 기사 목록 .....	37
[표 2-12] 주요 건축잡지 중 한옥미학 관련 연재 및 특집기사 분포 .....	38
[표 2-13] 잡지기사 분포를 통해서 본 한옥미학 주요 저자 통계 .....	39
[표 2-14] 잡지기사 분포에 따른 주요 저자 및 해당 저자의 주요 기사 .....	40
[표 2-15] 주요 저자 및 해당 저자의 주요 연재기사 분포 .....	41
[표 2-16] 수집 대상 신문 .....	42
[표 2-17] 연도별 신문 기사 분포 .....	43
[표 2-18] 한옥 및 문화재 관련 주요 연재 기사 .....	44
[표 2-19] 주요 신문 중 한옥미학 관련 연재기사 분포 .....	47
[표 3-1] 신문 데이터베이스 키워드 검색 결과 .....	70
[표 3-2] 현대한옥미학 서술 실례조사 참고 저서 .....	71

[표 3-3] 부석사 서술의 주요 키워드 .....	72
[표 3-4] 불국사 서술의 주요 키워드 .....	79
[표 3-5] 도산서원 서술의 주요 키워드 .....	86
[표 3-6] 병산서원 서술의 주요 키워드 .....	90
[표 3-7] 소쇄원 서술의 주요 키워드 .....	95
[표 3-8] 한옥미학 서술의 세 가지 유형 .....	99
[표 3-9] 고건축 서술항목 분류 .....	100
[표 3-10] 고건축 서술항목 별 표현 어휘 .....	101
[표 4-1] 한옥미학 도식화 대상 문헌 .....	107
[표 4-2] 전통을 모티브로 한 주요 공공건축물 사례 .....	133
[표 5-1] 해방 이후 미학교육과 학회의 움직임 .....	185
[표 5-2] 한국미 모색을 주제로 한 한국미학예술학회 학술대회 .....	186
[표 5-3] 「민족미학의 기초개념 연구-한국미의 범주 체계론」 연구 성과물 .....	188
[표 5-4] Beaux-Arts와 중국 전통건축의 유사점 .....	208
[표 6-1] 한옥미학지도를 통해 유추한 쌍계사와 석굴암의 관계 .....	231

## 그림차례

[그림 1-1]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시리즈 예시 .....	2
[그림 1-2] 한옥 세계화의 두 가지 층위 .....	3
[그림 1-3] 연구의 흐름 .....	13
[그림 3-1] 주요 술어의 발전 과정 .....	68
[그림 3-2] 한옥미학 술어의 학제적 계통 분포 .....	69
[그림 4-1] 단어의 구분 .....	106
[그림 4-2] 단어 사이의 관계 표현 .....	106
[그림 4-3] 고유섭(1940), “조선 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 「한국미술사급미학논고」 ..	108
[그림 4-4] 윤장섭(1973), “건축의장계획의 특성”, 「한국건축사」 .....	110
[그림 4-5] 안영배(1975),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8”, 「공간」 .....	111
[그림 4-6] 주남철(1979), “한국건축의 특성”, 「한국건축의장」 .....	112
[그림 4-7] 김동현(1983), “한국건축의 조형”, 「건축사」 .....	113
[그림 4-8] 장경호(1987), “한국의 전통건축”, 「건축사」 .....	114
[그림 4-9] 김성우(1987), “동양건축에서의 집과 사람”, 「공간」 .....	115
[그림 4-10] 김병윤(1990), “건축원류의 대상규명을 위한 논의”, 「건축문화」 .....	116
[그림 4-11] 우경국(1990), “개념으로 본 전통주택과 나”, 「건축문화」 .....	116
[그림 4-12] 안영배(1990), “한국전통주택의 이미지”, 「건축문화」 .....	117
[그림 4-13] 문헌의 결합 과정1(고유섭, 안영배) .....	118
[그림 4-14] 문헌의 결합 과정2(고유섭, 안영배) .....	119
[그림 4-15] 문헌의 결합(고유섭, 안영배)_위계적 형태 .....	119
[그림 4-16] 문헌의 결합(고유섭, 안영배)_유기적 형태 .....	120
[그림 4-17] 한옥미학지도 시안_위계적 형태 .....	121

[그림 4-18] 한옥미학지도 시안_유기적 형태 .....	122
[그림 4-19] ‘단아한 아름다움’ 선택 .....	123
[그림 4-20] ‘인간적 스케일’ 선택 .....	123
[그림 4-21] ‘숙연미’ 선택 .....	124
[그림 4-22] ‘불국사’ 선택 .....	124
[그림 4-23] 한옥미학지도 시안_Orthogonal Layout_Node Box Style .....	125
[그림 4-24] 동의어 및 유사어로 확장 .....	126
[그림 4-25] 상위·하위 개념어의 생성 .....	127
[그림 4-26] 해체와 대체를 통한 새로운 개념어의 생성 .....	128
[그림 4-27] 한옥미학 어휘의 발달과정의 한 사례 .....	130
[그림 4-28] 주한 프랑스대사관 .....	145
[그림 4-29] 고 국립중앙박물관 .....	147
[그림 4-30] 세종문화회관 .....	149
[그림 4-31] 국립청주박물관 .....	151
[그림 4-32] 독립기념관 .....	154
[그림 4-33] 수졸당 .....	156
[그림 4-34] 환기미술관 .....	160
[그림 4-35] 국립국악중고등학교 .....	164
[그림 4-36] □자집 .....	167
[그림 4-37] 이응노기념관 .....	169
[그림 4-38] 금산주택 .....	173
[그림 5-1] 카츠라리큐 .....	200
[그림 5-2] 테이칸 양식으로 지어진 도쿄 국립박물관(1931) .....	201
[그림 5-3] 오카다저택(岡田邸) .....	202
[그림 5-4] 이세진구(伊勢神宮) .....	203
[그림 5-5] 日泰文化會館 1등 당선안, 丹下健三 .....	204
[그림 5-6] 日泰文化會館 2등 당선안, 前川國男 .....	204
[그림 5-7]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広島平和記念資料館), 丹下健三, 1949 .....	205
[그림 5-8] 중국 국립미술관 (The National Art Museum of China, 1959) .....	209

[그림 5-9] 국립국부기념관(National Dr. Sun Yat-sen Memorial Hall, 1972) .....	210
[그림 5-10] Analysis of Beauty, William Hogarth .....	213
[그림 5-11] The Painter and His Pug, William Hogarth .....	213
[그림 5-12] Analysis of Beauty, William Hogarth .....	214
[그림 6-1] 한옥을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김영석, 미야지마 타츠오, 2012) .....	224
[그림 6-2] 시맨틱 웹의 개념 .....	231
[그림 6-3] 검색 시스템의 발달 .....	231
[그림 6-4] 국가한옥센터 포털사이트의 구성 .....	232



## 제1장 서론

1. 한옥문화의 인문학적 연구
2. 한옥문화의 가치서술과 미학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한옥문화의 인문학적 연구

#### 1) 한옥문화의 인문학적 가치발굴의 필요성

한옥의 활성화·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옥의 물리적 보급 활성화에 중점을 둔 연구와 더불어 그 내면의 가치를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옥문화가 학문 분야를 넘어서서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옥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인문학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란, 한옥문화의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상징과 의미를 말한다. 한옥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이론에 통섭의 방법론을 통해 역사학, 철학, 언어학, 문학,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을 결합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발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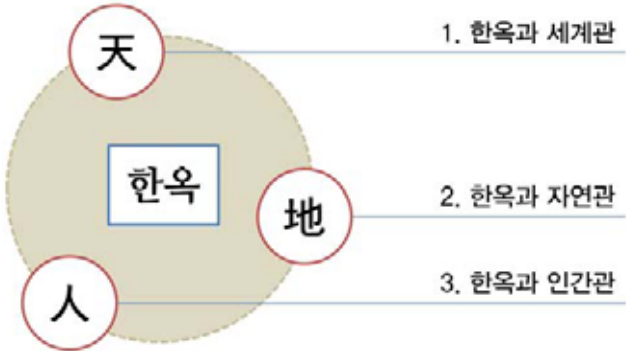
#### ■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

용도와 대상 : 한옥문화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에 필요한 상징과 의미

발굴 방법 : 한옥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이론에 통섭(consilience)의 방법론을 통해 역사학, 철학, 언어학, 문학,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을 결합

한옥문화에 결부된 세계관, 자연환경, 사회제도의 고찰을 통해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를 정리하고 세계화를 위한 지식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통적 세계관에 따라 주제를 구분해보면, 먼저 하늘 [天]에 해당하는 세계관에 따라 종교, 신앙, 가치관, 상징 등이 한옥에 발현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땅 [地]에 해당하는 전통 자연관을 탐구함으로써 기후와 입지 등에 대응하는 한옥의 풍수이론과 친환경성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 [人]에 해당하는 전통 인간관은 한옥의 정감과 공동체성을 밝히는데 주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시리즈	소제목	내용
1	天 : 한옥과 세계관	종교, 신앙, 가치관, 상징 등
2	地 : 한옥과 자연관	친환경, 기후, 풍수, 입지 등
3	人 : 한옥과 인간관	신분, 의례, 민속, 비례, 장인 등

[그림 1-1]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시리즈 예시

## 2) 한옥문화 세계화의 방향 설정

한옥문화의 세계화는 동아시아 문명 차원에서의 통합, 세계 건축문화의 차원으로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층위로 이루어진다. 실천적 견지에서 볼 때, 동아시아 중세문명의 정수로서 한옥문화의 가치를 정리하는 작업과 글로벌 시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한옥문화의 우수성을 정리하는 작업을 과제로 한다. 즉, 한옥문화의 세계화는 반드시 한옥문화의 외부세계를 의식하는 진행되는 작업으로서, 이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또한 그 출발부터 ‘비교연구’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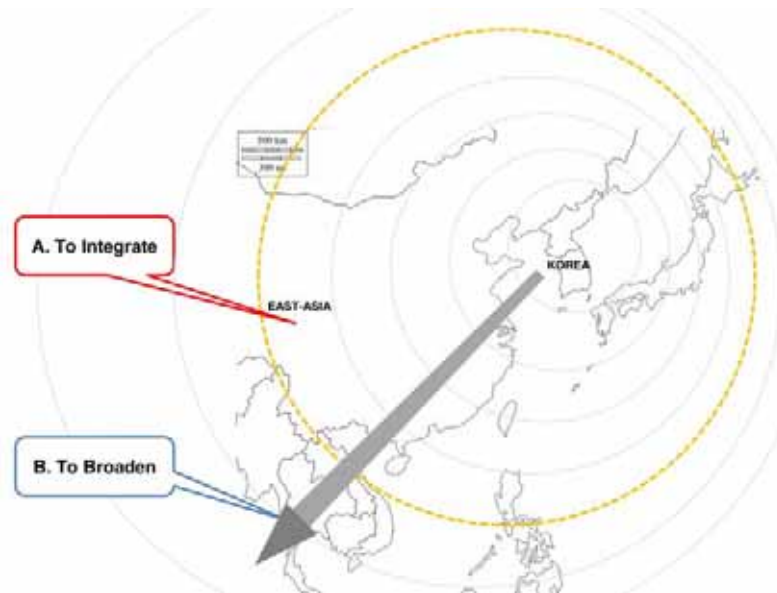
### ■ 한옥 세계화의 두 가지 층위

#### 1) 통합(to integrate)의 차원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일

#### 2) 확장(to broaden)의 차원

한옥을 다른 세계의 건축과 비교하여 보편적인 건축이론으로 확장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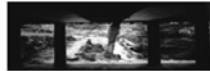




[그림 1-2] 한옥 세계화의 두 가지 층위

## 2. 한옥문화의 가치서술과 한옥미학

### 1) 한옥문화 서술의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매체에서 한옥이 다뤄지면서 한옥을 표현하는 어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어휘에 대한 검증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바가 없다. 마찬가지로 한옥 가치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건축·도시 이외의 분야에서도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옥의 가치를 표현하는 어휘는 비판적인 검토 없이 종래의 술어를 기계적으로 반복 재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옥을 서술하는 관점과 용어는 시대별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그 시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역사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통용되는 한옥문화서술들은 다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선학들의 연구성과가 무비판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표 1-1] ‘한국성’ 공간 디자인 개념 추출

디자인 개념	특성	이미지
자연과의 조화 (Harmony with nature)	한국성 디자인 개념들의 기본 원리로서 작용한 개념들 중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연과의 조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인간과 지구, 우주는 하나라는 생각은 한국 전통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동양사상의 음양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인간은 소우주이며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인 통합체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변형시키기 보다는 자연에 순응하여 자신을 적응시켜야 한다. 한국의 전통 건축의 디자인은 이러한 사상이 기초되어서 인간과 주위를 둘러싼 자연환경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꾀하고자 하는데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관련된 구성요소의 디자인 개념: 다양한 중정 마당, 모퉁이가 열린 공간, 회색 공간, 접어 들게 벽, 틀 안의 경치, 상호 침투적 공간)	 소쇄원, 광동재(출처:권영길, p.140)
유기적 상호 관련성 (Organic interrelationship)	유기적 상호 관련성이라는 개념은 한국 전통 사상의 전반에 나타나는 것으로, 우주의 모든 객체들은 일대 일의 관계가 아니라 그물망 적인 관계로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새로운 통일체를 형성하며 각 개체들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건물, 건물과 건물 등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 이런 사상적 특성은 건축 공간 디자인에서 원리로 작용하면서 모든 한국 전통 건축공간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인간, 건축물이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도록 디자인 되었다. (관련된 구성요소의 디자인 개념: 홀론적 공간구성, 전이적 공간, 연속적 공간, 회색 공간, 변화 가능한 공간, 다양한 중정 마당, 모퉁이가 열린 공간, 겹 구성된 경치, 유동체성, 상호 침투적 공간)	 병산서원(출처:류경수, p.249)
상호보완적 이중구조 (Complementary Dual Structure)	주요한 한국의 전통사상인 음양이론에 따르면, 모든 우주는 남과 네, 하늘과 땅,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음극과 양극의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성질을 의미하는 음과 양의 서로 대립되는 것들의 대립 및 조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균형을 이루며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 즉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성질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우주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이런 사상은 전통건축 공간에 상호보완적 이중구조라는 원리로 작용되었다. 한국의 전통공간에는 자연과 인공, 부분과 전체, 대칭과 비대칭, 긴장과 이완,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폐쇄공간과 개방공간,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 등의 대립적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들 간에 상호 역동적인 작용에 의해 공간의 다양함과 연속성을 느끼도록 한다. (관련된 구성요소의 디자인 개념: 홀론적 공간구성, 연속적 공간, 변화 가능한 공간, 겹 구성된 경치)	 연경당, 안종문(출처:주남철, p.100)
공간의 시간성 (Temporal change of space)	한국전통 건축공간에는 완성된 정지된 개념이 아니라 진행 과정상(process)에 있는 움직이고 있는 시간성의 개념이 중요한 원리로서 작용하였다. 이것은 전통건축공간에 원리로서 적용된 사상인 음양 오행론이 우주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존재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음양의 상보적 이원구조의 개념 역시 미완결의 상태에서 상호역동적인 작용에 의해 완결의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관련된 구성요소의 디자인 개념: 전이적 공간, 프라이버시의 점이성, 회색 공간, 연속적인 장면, 변화 가능한 공간)	 연경당(출처:주남철, p.126)
위계적 질서 (Hierarchical order)	상하관계의 위계적 질서를 중요시 여겼던 유교사상은 전통 건축 공간디자인에서 원리로 작용되어, 건축 공간에 위계적 질서가 존재한다. 전통 건축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체들은 그 중요성에 따라 각기 다른 비중을 갖고(주 공간, 부 공간) 일정한 축(axis)을 따라 질서 있게 배치되며, 특히 바닥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각 체들(단위 공간들)의 위계성을 표현했다. (관련된 구성요소의 디자인 개념: 바닥 차이에 의한 위계, 프라이버시의 점이성).	 부석사 안양루(출처:임석재, p.204)

출처: 유영희(2005), “실내건축공간에 ‘한국성’ 적용을 위한 디자인개념 추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14(5)

## 4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1) - 한옥미학의 기원 -

## 2) 한옥문화 서술과 미학의 관계

### □ 한옥의 가치를 표현하는 “술어”의 체계화

근대 이후 약 100여 년간 한옥의 가치를 서술하는 “술어”를 추출하여 각각의 물리적 근거와 사상적 배경을 추적하고자 한다.

### □ 한옥문화의 가치서술과 미학의 관계

한옥 문화 가치 서술은 기본적으로 근대 미학(美學, Aesthetics)의 범주에 속한다. 한옥의 가치 판단은 진리의 규명(철학, 과학)이나 윤리적 판단(윤리학, 종교)보다는 감각적·심리적 효과(미학)에 기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미학이란, 자연, 인생이나 예술 작품이 가진 아름다움의 본질이나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연이나 인간의 생각 따위를 감각적 또는 감정적 효과의 면에서 매기는 가치 미와 예술을 대상으로 한다. 미(美)는 진(眞)·선(善)과 더불어 인간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로, 예술이 과학이나 도덕과 구별되는 고유한 가치의 활동이라는 가정 하에 성립된 근대적 사고의 소산이다. 따라서 한옥 문화 가치 서술의 술어를 추출하여 각각의 근거와 배경을 추적하는 작업은 곧 한옥미학의 기원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 ■ 미학(美學, Aesthetics)

“자연, 인생이나 예술 작품이 가진 아름다움의 본질이나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자연이나 인간의 생각 따위를 감각적 또는 감정적 효과의 면에서 매기는 가치 미와 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미(美)는 진(眞)·선(善)과 더불어 인간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로, 예술은 과학이나 도덕과 구별되는 고유한 가치의 활동이라는 가정 하에 성립된 근대적 사고의 소산.

### □ 한옥미학의 확장 가능성 모색

본 연구에서는 한옥뿐만 아니라 타 전통문화 영역에서의 한국성 서술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옥미학 서술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중국·영국 등 해외 전통건축의 민족적 가치 서술을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3) 한옥미학 체계화의 기대효과

#### □ 문화로서의 한옥 정의를 위한 지적 기반 마련

현재 통용되는 한옥의 정의는 정책적 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정의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벚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을 말한다.<sup>1)</sup> 그러나 한옥은 문자 그대로 ‘한국영토’ 혹은 ‘한민족’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축 유형일 뿐, 물리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건축법 정의의 마지막 부분,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이라는 부분은 단순한 형태나 재료만으로 해석하기에 무리한 지점이 된다. 넓은 견지에서 한옥은 문화로서 정의되어야 하며, 이때 한옥미학 탐구를 통한 한국성의 규명은 한옥의 정의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

#### □ 한옥의 가치를 둘러싼 신화 제거

한옥의 우수성 혹은 가치에 관한 논의는 자칫 민족주의와 연계되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명보다는 맹목적이고 교조적인 신념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옥 문화 가치 서술의 기원을 밝히는 작업은 한옥을 둘러싼 불필요한 신화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가치를 발굴하는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 타 전통문화와의 접점 확인

한옥미학의 체계를 정리함으로써 ‘한국성’으로 매개되는 한국문학, 한식, 한복, 한국음악, 한국공예 등 전통문화와의 접점을 찾고, 이들의 종합적인 관계로서 드러나는 ‘한국문화’의 특질을 규명할 수 있으며, 한옥을 한국문화의 그릇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 □ 한옥문화 홍보를 위한 언어DB의 구축

한옥미학 서술의 기초어휘들을 수집하고 핵심개념들을 정리하는 일은 향후 한옥문화 서술 및 홍보를 위한 언어 DB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리·응용된 내용을 통해 공식적인 국내외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009년)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선행 연구 고찰

선행연구는 한옥미학의 키워드 추출과 관련한 연구와 민족성과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① 한옥미학의 키워드 추출과 관련한 연구

한옥미학의 키워드 추출과 관련한 연구로는 권영걸의 「한·중·일의 공간조영: 우리의 공간유전자를 찾아서」(2006)가 있다. 한국·중국·일본의 전통공간의 상호비교를 통해 공간조영 ‘정신’과 ‘방법’상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밝히기 위해 삼국을 대표하는 표본공간을 비교분석의 중심대상으로 삼고, 이를 통해 중심어를 도출, 비교표로 정리하고 있다. 한·중·일의 문화와 전통공간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성과 차별성을 도출하고, 각각 특징이 되는 중심어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저자가 선정한 표본공간이 각국의 대표건축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중심어로 선정된 단어에 대한 언어학 및 역사학적 분석이 결여된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옥 가치 서술의 술어가 근대 이후 발명된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발명의 경위를 추적하는 메타비평의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로는 오양진의 “한국 미(美)의 술어들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sup>2)</sup>(2006)이 있다. 권영필 외(2005)의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에 서술된 한국미 술어를 대상으로, 기호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미의 핵심 가치들과 가체 체계를 도출한 연구이다. 결론에서 한국미의 가치 체계를 소박미와 화려미, 풍아미와 풍류미의 의미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문헌의 술어들을 대상으로 한국미의 가치체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대상이 같지만, 술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술어들 간의 상호관계를 계통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옥미학의 술어가 지시하는 구체적 대상을 고려하며, 술어들 간의 확장·결합·의미전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오양진(2008), “한국 미(美)의 술어들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국제어문」, v.37

## ② 민족성과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

1980년대에 이르러 민족과 전통을 하나의 발명품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면서 많은 연구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연구로 에릭 홉스봄(Hobsbawm E., 1917-2012)의 「만들어진 전통」(2004)<sup>3)</sup>, 베네딕트 앤더슨(Anderson B., 1936-)의 「상상의 공동체」(2002)<sup>4)</sup> 등이 있다.

「만들어진 전통」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오랜 전통’의 허상을 폭로하며, 국가 및 민족을 둘러싼 ‘전통 창조’의 거대 담론을 보여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 전통의 창조가 ‘현재’의 필요를 위해 과거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예들을 추적한다. 「상상의 공동체」에서 앤더슨은 민족을 왕조국가가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특정한 ‘문화적 조형물’로 보고 이를 ‘상상의 공동체’로 명명한다. 사회적 실재는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경험되는 시·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인류학적인 명제, 즉, ‘상상의 공동체’는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된 역사적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 밖에 건축에서 ‘역사적 기념비(문화재)’의 발명사를 정리한 연구<sup>5)</sup> 등은 전통의 발명이 정치·사회적 필요에 따라 민족성과 가치를 묶어내는 일종의 상징조작으로, 전통을 새롭게 포장하고 만들어내는 행위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전통문화 관련 가치의 서술은 대부분의 경우 국민국가<sup>6)</sup>의 성립과 함께 탄생하고 있다. 일본의 무사도(武士道) 사례를 들어보면, 20세기 이전까지 일본의 어떤 기록에도 무사도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사도는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 1862-1933)<sup>7)</sup>의 발명으로 가장 서양적인 사람에 의한 가장 일본적인 가치의 발굴이다. 서양의 기사도를 모델로 무사도를 설명한 그의 저서 *Bushido: The Soul of Japan*<sup>8)</sup>(1900, Malvern)를 통해 ‘서양에 기사도가 있다면 일본에는 무사도가 있다’고 전파, 이를 전후해 서양인은 물론 일본인 스스로도 무사도를 일본 고유의 도덕규범이나 미덕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그 밖에

3) 에릭 홉스봄 외(2004), 「만들어진 전통」, 박지향 역, 휴머니스트

4) 베네딕트 앤더슨(2002), 「상상의 공동체」, 윤형숙 역, 나남출판

5) Françoise Choay(2001), *The Invention of the Historic Monu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국민국가[國民國家, nation-state] 공통의 사회·경제·정치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국가

7)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 1862-1933) : 1862년 모리오카 번 하급무사의 아들로 태어나 도쿄대 교수, 국제연맹 사무차장을 지냄.

8) [www.sacred-texts.com/shi/bsd/index.htm](http://www.sacred-texts.com/shi/bsd/index.htm)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1861-1930)는 *Japan and the Japanese*(1894)에서 전형적 사무라이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8-1877)의 충성, 용기, 결단력, 헌신을 일본 민족의 대표적 덕목으로 설정하였고,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 1856-1944)의 「武士道」(1901, 東京, 兵事雜誌社)는 무사도를 일본정신의 다른 이름으로 파악하고 일본사를 관통하는 핵심적 국민도덕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르자면, 한옥 문화의 가치 서술은 세계화의 결과로서 타자(타문명, 타국)의 존재와 이에 따른 민족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근대적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옥 문화 가치 서술은 한국성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근원적인 고유성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황이다.

카라타니 코진(柄谷行人, 1941-)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sup>9)</sup>에서 강력한 ‘국가’ 형성에 대한 욕망과 함께 시작된 근대에 있어서 ‘근대적 주체 의식’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었으며 그러한 의식에 문학이 어떻게 가담했는지를 설명한다. “풍경의 발견”, “내면의 발견”, “고백이라는 제도”, “병이라는 의미”, “아동의 발견” 등 근대적 사고가 일본인의 삶에서 가치를 발견해내는 과정을 세밀하게 고찰하였다. 탐구하는 대상이 문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오늘날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는 문학적 개념들이 메이지시대에 받아들인 서양 사상에 의한 새로운 발견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9) 柄谷行人(2005),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도서출판b

## 2) 연구의 범위

### ① 용어의 정의

#### □ 한옥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한옥이란 “한국인의 민족성(한국성)이 투영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건축물”로 정의한다. 건축법 시행령의 정의(‘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을 말한다)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근대 석조건축 및 조경, 현대건축 중에서도 한국성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건축물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킨다. 특히 건축가들에 의한 한국성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현대건축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한옥미학의 인식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대건축물을 포함한다.

#### □ 미학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미학이란 “어떤 사물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나 예술성의 본질을 철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해석한 가치 체계”로 정의한다. 학계에서 “미학은 아름다움과 예술을 철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본질 인식과 함께 현상들에 대하여 이해하려는 이론체계”로서 미와 미적 경험 및 예술현상들에 대한 철학적 탐구로 용인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름다움의 대체어로서의 미학, 혹은 삶의 숨은 지혜라는 의미에서의 미학 등 종종 사용되는 일상적인 정의는 배제한다. 김문한은 ‘절망의 미학’, ‘침실의 미학’, ‘통속적인 대중미학’, ‘스크린 이미지의 감각적인 미학’ 등 일상의 여러 분야에서 ‘미학’이라는 술어가 연구영역이나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미학의 처참한 운간상태’라는 표현으로 그 무분별한 양상을 환기시키기도 했다.<sup>11)</sup> 이와 같은 소위 ‘생활미학’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파악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대상이지만, 가치 서술의 술어를 고찰하는 본 연구의 성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

10) 장미진(2005), “한국의 미학과 한국미학의 방향성”, 『미학·예술학연구』, v.21, p.9

11) 김문한(1985), 『현대미학의 방향』, 열화당, p.24

## ② 지역 · 시대적 범위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근대적 학문방식 및 사고를 바탕으로 한 건축 가치 서술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부터 20세기 후반까지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개항 이후로부터 1990년대 건축계에서 한국성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까지이며, 이 때문에 매체의 언어는 국문뿐 아니라 일본어 문헌도 포함한다.

참조 국가의 민족성 논의의 시대적 범위는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 이후 건축학과 미학을 수입해서 일본성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활발했던 시기, 중국은 1930년대 이후 미국 유학을 다녀온 중국인 건축가들이 활동하면서 전통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로 한정한다. 영국은 1950년대 중반 니콜라우스 페브스너에 의한 건축에서의 영국성 논의와 관련된 문헌에 한정한다.

## ③ 매체별 범위

매체별 범위는 미술사학, 건축학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다음과 같은 초기 주요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 전통건축의 특징 혹은 한국미의 원형을 밝히고자 시도했던 주요 논저들
- 건축 전문 잡지의 주요 연재기사 및 특집기사
- 건축학회, 미술사학회 등의 한국미학 관련 심포지움 기사
- 기존 한국미 개념의 비평 및 맥락을 해석한 논저들
- 기타 주요한 건축적 사건을 둘러싼 논쟁들

### 3) 연구의 방법

#### □ 문헌조사

한옥미학 서술의 분석을 위해 다양한 매체와 분야의 문헌을 수집하여 한옥의 미학적 가치를 표현하는 “술어”를 추출하고 그 물리적 근거와 사상적 배경을 정리한다. 대상으로는 학술문헌, 신문 및 잡지 등 대중매체, 문학작품 등 다양한 유형의 매체가 해당되며, 각각의 매체에서 한옥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조사, 수집한다. 수집 문헌으로부터 추출한 한옥미학 술어는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서술이 이루어진 시대적, 사상적 배경과 물리적 근거, 서술자의 학문적 배경 등 매체별, 저자와 영역 별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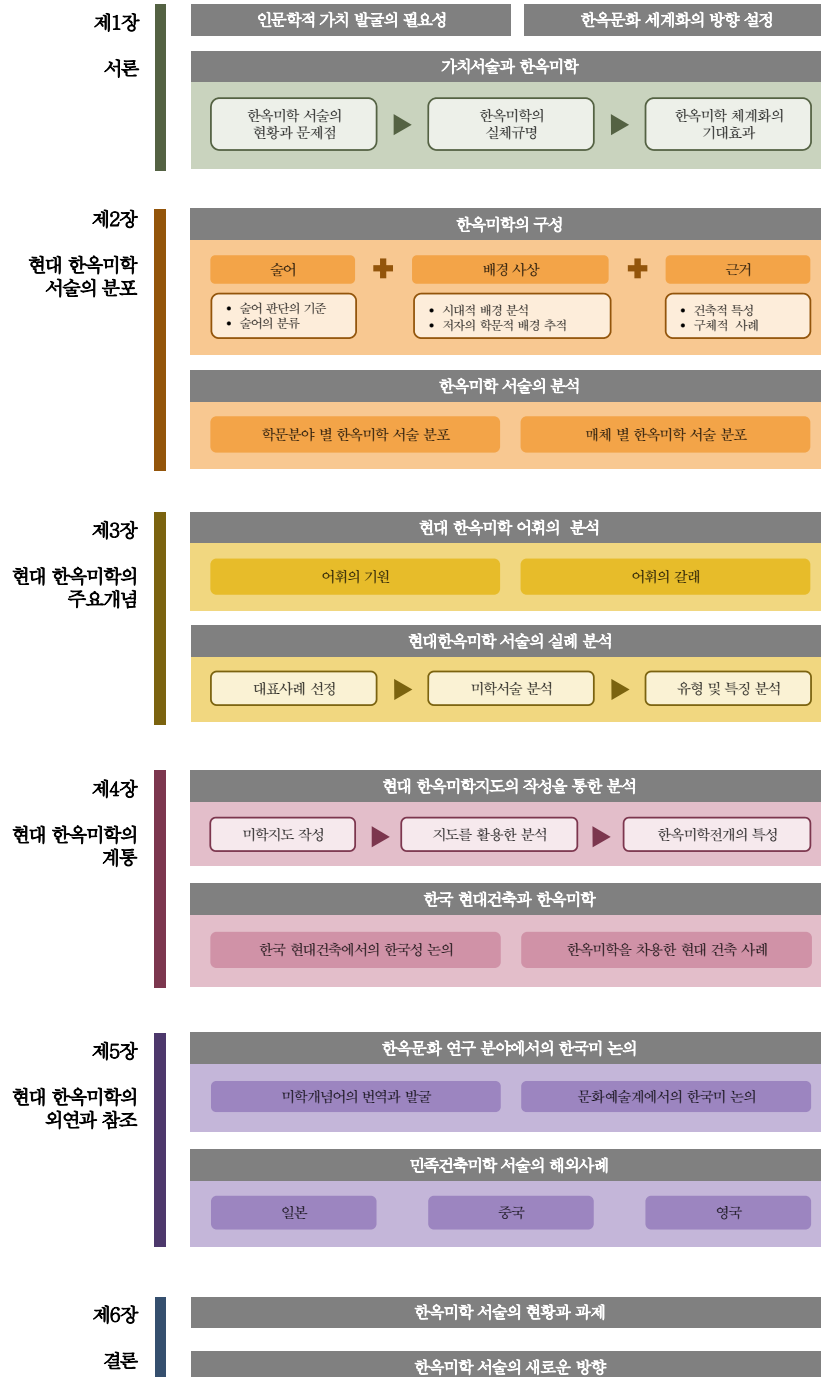
#### □ 관계도 작성

수집된 문헌을 ‘저자-미학술어-근거사례’의 관계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한옥미학지도’ 작성을 통해 한옥미학 서술의 종합적 체계를 구축한다. 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온톨로지(Ontology) 등 인공지능 분야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수의 단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상호 관계를 정의한다. 이는 계속해서 발굴되는 새로운 문헌의 추가가 가능해 연구 성과의 정리 및 DB화가 용이하며, 시맨틱 웹 기술의 활용 및 연구 성과의 시각화 등 웹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관계도를 활용하여 미학 술어들의 계보 및 특징 분석과 한옥 서술의 시대별 변화 관찰을 통해 현대 한옥 미학의 기원을 탐구한다.

#### □ 비교연구

한국미술, 국문학, 한식, 한복, 한국음악, 한국공예 등 타 전통문화 분야에서의 한국성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한옥미학 서술의 외연 확장시키는 한편, 일본, 중국, 영국 등 민족성과 건축의 관계를 서술한 해외문헌 분석을 통해 한옥미학 서술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비교연구의 방법론은 향후 한옥문화의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의 한 축을 형성하는 주요한 관점으로서, 한옥문화의 외부 참조점의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중시되어야 할 지점이다.

#### 4) 연구의 흐름



[그림 1-3] 연구의 흐름



## 제2장 현대 한옥미학 서술의 분포

1. 한옥미학의 구성
2. 한옥미학 서술의 저자와 영역
3. 대중매체 속의 한옥미학
4. 소결

### 1. 한옥미학의 구성

#### 1) 한옥미학을 구성하는 술어

##### □ 한옥미학 술어

술어란, 명제(판단)에 있어서 주어에 대해 주장되는(긍정 또는 부정하는) 개념이다. ‘인간은 동물이다’, ‘장미는 아름답다’에서는 ‘동물’, ‘아름답다’ 등이 술어에 해당된다.

한옥미학의 술어는, 한옥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나 예술성의 본질을 철학적 혹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해석한 가치 체계에 대한 주장이다. 이때 술어는 대상에 대해 미학적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민족성과 결부된 고유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품사별로는 주로 형용사, 명사 등이 해당되며, 내용별로는 묘사, 비유, 차용 등의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어 외에 일본어, 영어 등 외국인에 의해 서술된 술어도 찾아볼 수 있다.

##### □ 술어 추출의 유의점

실제로 서적, 기사 등의 문헌으로부터 한옥미학 서술을 찾아보면, 각 품사가 독립적으로 술어를 이루는 경우도 있는 한편, ‘형용사 + 명사’와 같이 서로 결합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최순우의 어휘<sup>12)</sup> 중 ‘선의를 가득 찬’, ‘의젓한’, ‘무심스러운’, ‘너그러운’,

‘익살의’, ‘분수에 맞는’ 등의 형용사는 ‘아름다움’이라는 명사와 결합되고, ‘어리송하게 생긴’, ‘둥근’ 등은 ‘맛’과 결합되며, ‘생동하는’, ‘서민적’ 등은 ‘의지’와 결합된다. 이들 형용사 중 일부는 명사형으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뒤에 결합되는 명사가 교체되기도 한다.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용어에 미학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현대 건축이론에서 사용되는 ‘척도’, ‘비례’, ‘장식’ 등의 어휘는 건축물을 설명할 때 별도의 형용사 없이도 미학적 가치를 드러낸다.

---

12) 권영필 외(2005),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에서 추출



## 2) 한옥미학에서 가치판단의 사상배경과 건축적 근거

한옥미학의 구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술어뿐만 아니라 술어의 배경이 되는 사상 및 근거로 삼고 있는 건축특성이나 사례를 함께 추출하여 정리해야 한다.

사상 배경은 술어들의 선택 혹은 창작의 배경이 되는 학문적 바탕이다. 기사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저자의 교육과정이나 학문 교류의 역사를 추적하여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즉시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건축적 근거는 기사에서 미학술어들이 적용되는 사례로 들고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구체적 건물 명칭, 구체적 건물의 일부분, 일반적 건축의 일부분, 건축경험의 과정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유형화시켜 세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2-1] 술어의 근거와 배경 추출 사례

■ 고유섭 (1963: 1993), 「한국민술사급미학논고: 고유섭전집3」, 동방문화사		
사상 배경	술 어	건축적 근거
<p><b>民藝</b></p> <p>조선민족은 핏박의 역사로 점철된 슬픔의 민족이고 그 애상이 선의 예술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p> <p>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 『朝鮮とその藝術』(叢文閣, 1922); 야나기 무네요시 저, 이길진 역, 『조선과 그 예술』, 신구문화사, 2006</p>	<p><b>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b> (pp.16-17) ※미술이 아닌 민예</p> <p><b>질박한 맛, 순후한 맛, 순진한 맛</b> (p.18) ※음악적, 율동적, 선적 → 어른같은 아이 / 맵자한 양태(いきな姿)</p> <p><b>비균제성(애심메트리)</b> (p.19) ※공상적, 환상적, 음악적</p> <p><b>무관심성</b> (pp.20-21) ※자연에의 순응</p> <p><b>구수한 큰 맛</b> (pp.21-22)</p>	<p>석굴암의 건축과 조각</p> <p>불국사의 배치 민가 제도 창호, 영창</p> <p>경주 동경관</p>

### 3) 한옥미학의 매체

#### □ 한옥미학 서술 매체의 수집

한옥의 가치를 평가한 문헌을 수집하고 그 문헌을 바탕으로 한옥미학 술어를 분석함으로써 한옥 가치 담론의 진원을 파악할 수 있다. 대상 문헌으로는 주요 단행본 및 논문, 보고서와 함께 신문, 잡지 등의 대중언론을 포함한다.

[표 2-2] 한옥미학 서술 매체의 종류

구분		자료명	수집형태
단행본	연구사	민족건축미학연구회(1993), 「한국건축사문헌목록」 한국건축역사학회(2003), 「한국 건축사 연구 1」 등	도서 및 PDF
	미술사	柳宗悅(1922), 「朝鮮の美術」 Eckardt A.(2003), 「조선미술사」, 권영필 역 고유섭(1993), 「고유섭 전집」 최순우(1992), 「최순우 전집」 등	
	건축사	藤島亥治郎(1930), 「朝鮮建築史論」 윤장섭(1972), 「한국건축사」 신영훈(1975), 「한국고건축단장」 안영배(1978), 「한국건축외부공간」 등	
	기타	關野貞(1904), 「한국건축조사보고」 김원룡(1978), 「한국미의 탐구」 등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웹 DB
잡지		대한건축학회지 「건축」 한국건축가협회지 「건축가」 공간, 꾸밈, 건축문화, 건축과환경 등	복사 및 PDF

단행본 및 논문, 보고서는 건축사학과 미술사학 등 관련 분야의 연구사를 중심으로 문헌을 수집하였다. 「한국건축사문헌목록」(민족건축미학연구회, 1993) 등의 문헌 목록집과 「한국 건축사 연구 1」(한국건축역사학회, 2003) 등의 연구사 정리자료 등을 1차적으로 참고하였으며, 외국학자들에 의한 초기 학술서적과 「한국건축조사보고」(關野貞, 1904) 등의 지표조사 자료, 「한국고건축단장」(신영훈, 1975), 「한국미의 탐구」(김원룡, 1978) 등의 미학 분야 서적 등을 조사하였다.

학술성격의 문헌 외에 각종 기행문 및 고적 소개류의 문헌도 한옥미학 서술 분석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판단되어 신문 및 잡지 등 대중을 상대로 한 언론매체와 그 밖에 한국 미학 및 한국미 관련 문헌, 한옥 및 전통건축과 관련된 주요 건축적 사건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 문헌 등도 자료수집 대상에 포함시켰다.

## □ 자료수집의 범위 및 방법

자료수집의 시대적 범위는 근대적 학문방식 및 사고를 바탕으로 한 건축 가치 서술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부터 20세기 후반까지로 한정하는 한편, 시대적 특성상, 당시 발행된 일본어 문헌도 수집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대중언론매체는 검토 대상 자료가 방대하여, 원문 자료를 공개하는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키워드 검색 형식으로 자료를 추출하였다. ‘한옥’은 1970년대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로, 그 이전 시대의 문헌에서 한옥 관련 서술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에 한옥을 지칭하던 어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옥’을 한국인의 민족성(한국성)이 투영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건축물로 정의함에 따라, 당시의 주택 관련 어휘 및 주요 문화재를 키워드를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문의 경우 특정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 및 검색된 기사와 관련이 있는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에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조선일보 아카이브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표 2-3] 신문 검색에 활용한 키워드

주택 관련 어휘	가옥, 조선집, 주가, 주거, 주택, 한옥 등
주요 문화재	경복궁, 남대문, 불국사 등
기타	마을, 부락 등

잡지의 경우 신문에 비해 데이터베이스가 미약하여 1차적으로 검토 대상 잡지의 각 호의 목차를 수집한 후, 2차로 게재된 기사 제목을 참고하여 한옥 관련 기사를 추려내고, 3차로 기사 내용을 확인, 한옥미학관련 서술을 확보하였다.

## □ 자료수집의 한계

건축사 및 미술사 등 다양한 분야와 단행본, 신문 및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걸쳐 조사하였으나 전문적인 학술문헌 위주라는 점에서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다. 소설, 기행문, 수필 등 문학 장르의 문헌에서의 한옥미학 서술은 전문 학술서적에 비해 더 많은 대중들이 접하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대중언론매체인 신문과 잡지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으나, 잡지 역시 건축전문잡지 조사에 한정되고 말았다는 한계가 있다. 근대기 잡지에 대해서는 「조선」, 「삼천리」 등의 대중잡지도 검토대상이었으나, 그 당시에는 한옥미학 관련 서술이 현저하게 적어 유의미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전문잡지 중에서도 건축에 한정되어 인테리어 분야가 누락되었으며, 주택 및 인테리어 관련 기사가 많이 게재되는 여성지, 취미·실용지 등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신문의 경우 대중성 측면에 있어서 다른 매체에 비해 다양한 접근이 가능했다. 그러나 조사 범위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일부 과거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는 신문에 그쳤다는 점과 방대한 기사 중 한옥미학 관련 서술 추출을 위해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옥’이 지금처럼 사용되기 이전 시대의 문헌 검색에 이를 대신할 용어로 ‘가옥’, ‘주가’, ‘조선집’ 등과 주요 문화재를 키워드로 활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은 기사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연재기사를 별도로 검토하였다.

## 2. 현대 한옥미학 서술의 저자와 영역

### 1) 일제시기의 저술

일제시기에 많은 저술을 남긴 학자로는 세키노 타다시(関野貞, 1867-1935),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1889-1964), 에카르트(Eckardt A., 1884-1974), 고유섭(1905-1944) 등이 있다.

아직 학문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았던 이 시기에 외국인에 의해 한국미술사 최초의 통사가 쓰여졌고, 이어서 서양식 근대교육을 받은 한국인 학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외국인학자에 의해 주도된 이러한 흐름은 한옥미학의 특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국인이라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띄고 있으며, 처음부터 보편적, 세계적 관점에서 고차원적 학문수준으로 관찰되었다는 등의 장점을 띤다. 반면 언어의 문제와 이로 인한 자료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등 심층적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학자에 의한 서술은 학문에 앞서 침략국가의 입장개입이 따르는 등 식민국가로서의 한계도 있었다.

일본인 관학자로 여러 차례 조선의 유적조사에 참여한 세키노는 「한국건축조사보고」(1904)를 비롯해 많은 조사보고서를 남겼으며, 지리적 여건, 국민성, 기후, 역사적 배경 등을 근거로 조선의 건축을 줄악, 왜소, 등의 단어로 묘사하는 한편, 일본건축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신라시대 이전 건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야나기와 에카르트는 조선미술의 아름다움에 빠져 전국의 문화유적과 미술품을 접하고 다녔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서에서 한국미의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 야나기의 비애미, 민예미로 대표되는 한국미론은 고유섭, 최순우, 김원룡 등 이후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1929)는 한국미술에 관한 최초의 통사임과 동시에 한국미술을 세계미술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양식적으로 분석하고 한국미의 특징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sup>13)</sup>, 여기서 그는 한국미술의 가장 기본적 특징을 단순성, 고전성에서 찾고 있다.<sup>14)</sup>

고유섭은 서구미학을 최초로 수용했다는 점과 그것을 기초로 한국미학의 바탕을 일

13) 권영필 외(2005),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 p.29

14) 상계서, pp.40-41

귀농했다는 점에서 한국미론의 선구자로 꼽히며<sup>15)</sup>,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구수한 큰 맛’ 등의 어휘를 통해 한국미의 특질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경성제국대학 재학시절 독일에서 미학을 연구한 우에노 나오히로(上野直昭, 1882-1973), 동양미술사 전공의 다나카 토요조(田中豊蔵, 1881-1948)에게 미학·미술사학을 배웠으며, 야나기의 미론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 2) 미술사학 및 고고학

고유섭의 영향을 받아 미술사에 입문한 최순우(1916-1984)는 순리의 아름다움, 간박 단순한 아름다움, 고요와 익살의 아름다움, 담담한 색감의 해화미 등<sup>16)</sup> 탁월한 문장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스승 고유섭의 미론을 이어받아 한국미술사 미론을 펼쳤다.<sup>17)</sup>

반면, 김원룡 (1922-1993)은 시대와 지역을 무시하고 한국 미술의 특색을 공식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조선시대의 미술을 염두에 둔 당시 한국 미술사학 관련 저술을 비판, 한국미에 대한 논의는 시대별 특징과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각 시대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대를 통관하는 공통적 특성이 있어 ‘한국미술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은 자연주의’<sup>18)</sup>라며 한국의 미에 처음으로 자연의미를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가 되면서 문명대 등의 미술사학자가 본격적으로 식민사학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일제시기 미술사학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요람기’로 규정하였으며,<sup>19)</sup> 야나기와 고유섭의 미술사학을 정체성(停滯性), 개조론(改造論)과 같은 성격을 지닌 식민사학의 하나라고 비판하였다.<sup>20)</sup> 안휘준 역시 식민시기 미술사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세키노와 야나기는 물론이고, 고유섭조차 산문수준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일제시기 학자들과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대신에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김재원과 김원룡을 내세워 ‘일본미술사학의 극복과 서구 양식사학의 정립’이라는 새 시대 미술사학의 목표를 제시하였다.<sup>21)</sup>

15) 권영필 외(2005),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 p.54

16) 조요한(1999), “한국미의 탐구를 위한 서론”, 『미학·예술학연구』, v.9, p.22

17) 권영필 외(2005),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 p.220

18) 김원룡(1968), 「한국미술사」, p.4

19) 문명대(1971), “한국미술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1969-1972”, 『역사학보』, v.50 · 51, pp.49-60; 문명대(1978), 「한국미술사학의 이론과 방법」에서 재인용

20) 최열(2010), 「한국 근현대 미술사학」, p.276

21) 상게서, p.279

### 3) 민속학 및 지리학

민속학 및 지리학 분야에서는 한옥을 민가연구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해방 이전 조선총독부에 의해 주도된 민가연구는 식민통치에 의한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민가조사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조선부락조사는 일본인 관학자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오다우치 미치토시(小田内通敏, 1875-1954)는 이 조사의 예찰보고(1923)<sup>22)</sup>와 조사보고(1924)<sup>23)</sup>를 통해 대상 부락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과 각 지역의 대표평면을 정리하였다. 콘 와지로(今和次郎, 1888-1973)는 민가의 구조와 평면 배치 및 쓰임새, 실내 가구 등에 대해 민속학적 측면에서 접근했고, 당시 일본 내지식 주택을 접해 개량을 더해가는 민가의 변화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sup>24)</sup> 이들이 정리한 민가의 유형분류와 지리적 분포는 해방이후 민가연구에 지표가 되었으며, 지리학 분야에서는 장보웅(1936-)이 「한국의 민가연구」(1986)를 통해 문화지리학 관점에서의 민가연구 방법론을 확립시켰다. 민속학은 해방이후에도 고고학이나 주거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는 총독부에 의한 조선부락조사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학술조사사업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1969년부터 1981년까지 각 시도별로 총 12편의 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보고서 역시 민속학 고유의 시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었으며, 김광연(1939-)의 「한국의 주거민속지」(1988)에 이르러서야 민속학 고유의 관점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 4) 건축사학 및 문화재학

전쟁으로 인해 끊겼던 학문의 흐름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건축사학 분야에서는 장기인(1916-2006), 윤장섭(1925-), 이광노(1928-) 등의 학자가 용어의 재정비, 우리의 시각에서 다시 검증한 통사서술을 시도하였으며, 문화재학 분야에서는 임천(1908-1993), 김동현(1937-), 김정기(1930-) 등의 학자가 문화재의 발굴, 보존, 복원에 힘썼다. 장기인은 해방직후 조선건축기술단(현 대한건축학회)에서 건축용어 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으로 각종 건축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sup>25)</sup>, 윤장섭은 국내 최초로 한

22) 조선부락조사에찰보고(1923): 부락조사부락의 고찰

23) 조선부락조사보고(1924): 화전민 및 내주 중국인 주거

24) 조선부락조사특별보고(1924): 구조 관련 고찰, 평면배치 관련 고찰, 내지인과 교섭 가능한 민가

25) 대한건축학회(2006), “고 장기인 대한건축사협회 전임회장을 추모하며”, 『건축』, v.50(2), pp.105-110

국전통건축의 역사를 개척하여 정리했다.

6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축에 있어서의 전통계승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한국건축 특성의 규명, 계승 방법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남철은 한국건축의 특성을 중심축, 음양, 목구조, 기단, 기둥, 포작, 기와, 창호, 자연과의 조화 등에서 찾았고<sup>26)</sup>, 윤장섭은 「한국건축연구」(1983)에서 한국 전통건축 의장계획의 특징으로 ‘인간적 척도’와 ‘자연과의 조화’를 우선으로 꼽는<sup>27)</sup> 등 대부분 이전 시대 학자들과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 5) 건축가와 비평가

건축계에서의 한국성 논의는 1966년의 국립중앙박물관(현 국립민속박물관) 현상설계 공고와 1967년에 일어난 부여박물관 왜색시비를 계기로 촉발되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당선안을 놓고 건축전문잡지 「공간」에서는 특집을 기획하여<sup>28)</sup> 정인국(1916-1975), 이정성(1919-2009)을 비롯해 건축가뿐 아니라 문화계 및 언론계 인사 22명의 비평을 게재하였고, 동아일보를 통해 김종업(1922-1988)과 김수근(1931-1986)이 부여박물관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펼쳤다.<sup>29)</sup>

1970년대 후반 이후 건축전문잡지들의 창간이 이어지면서 「공간」 이외의 잡지에서도 한국성, 전통성 관련 주제가 특집을 다루어 더 많은 건축가와 비평가가 전통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현상설계 당선자인 강봉진(1917-1998)은 전통의 계승은 사실에 충실해야하며 임의의 창조를 불허한 양식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sup>30)</sup>, 정인국은 세계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전통을 계승한 개성적, 독창적 건축을 지향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형식상 또는 표현상의 전통 추구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고, 한국미의 특색을 추상적 문구로 묘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sup>31)</sup>

이러한 논의는 민현식(1946-), 이상해(1948-), 김성우(1950-) 등에 의해 198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었으며, 전통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재된 정신에

26) 주남철(1975), “건축에 있어서 전통계승”, 「공간」, 1975.05

27) 김경수(2003), “전통건축의 이론화화 현대화”, 「한국건축사연구2 이론과 쟁점」, 한국건축역사학회, 발간

28) 공간(1967), “한국현대건축을 위한 SYMPOSIUM”, 「공간」, 1967.02

29) 정인하(1999), 「김수근 건축론」, 시공문화사, pp.74-75

30) 강봉진(1975), “한국건축의 전통과 계승에 관한 소고”, 「대한건축학회 창립30주년기념 논문집」

31) 정인국(1975), “한국건축의 전통문제”, 「대한건축학회 창립30주년기념 논문집」, p.41



서 비롯되는 것이며, 물리적 형태를 따른 외관보다는 내면에 축적된 것이 현대적 양식과 어우러져 창조적 표현으로써 나타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990년대에는 물리적 형태 논의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관계, 공간 배치 및 전개 수법 등 한옥에 내재된 추상적인 세계관 및 가치관을 현대건축으로 끌어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3. 대중매체 속의 한옥미학

#### 1) 잡지기사

국내에서 건축으로서 학문이 자리 잡기 이전에는 일본에 의한 건축전문 잡지 및 일반 대중 잡지를 통해 한옥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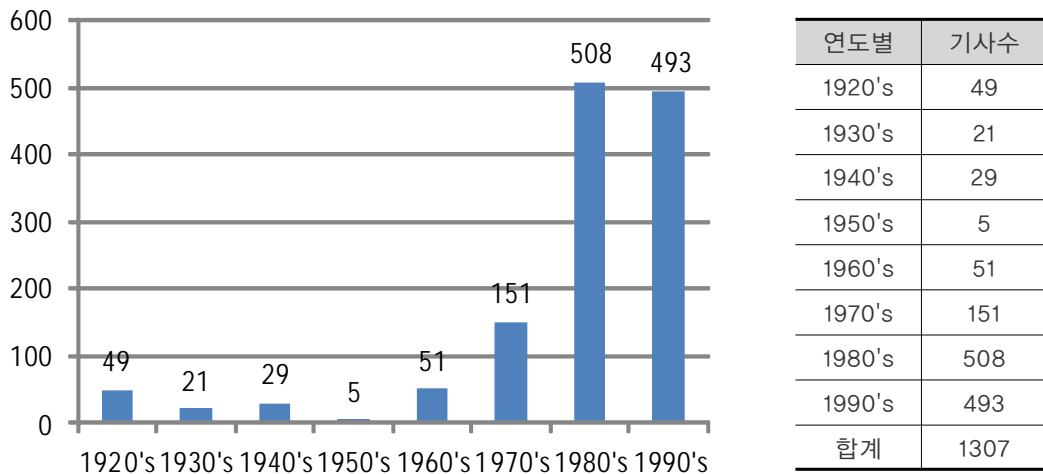
1920년대에는 「개벽」, 「조선」, 「별건곤」, 「조선과건축」, 「삼천리」 등의 잡지가 창간되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건축학회에서 발간한 「조선과건축」은 일본어로 구성된 건축분야 전문지로, 한국 및 일본의 건축전문가가 저술자로 활동하였다.

서양식 건축교육이 시작되고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협회 등의 학·협회가 설립되면서 1955년에는 대한건축학회 「건축」이, 1966년에는 한국건축사협회의 「건축사」가 창간되었다. 건축분야 전문 잡지로는 1966년, 국내 최초의 건축 전문잡지인 「공간」이 창간되었으며, 1977년에는 「꾸밈」, 1980년대에 들어서는 「건축문화」, 「건축과환경」, 1990년대에는 「건축세계」, 「이상건축」 등 많은 건축지가 발간되었다.

[표 2-4] 수집 대상 잡지

	잡지명	간행 시기	수집 기사 수	
근대기 잡지	조선급만주	1908.03 ~ 1941.01	2	101
	개벽	1920.06 ~ 1949.03	4	
	조선	1920.07 ~ 1944.12	16	
	별건곤	1926.11 ~ 1934.06	2	
	조선과건축	1922.06 ~ 1942.12	63	
	삼천리	1929.06 ~ 1942.02	4	
	기타	-	10	
학·협회지	건축	1955.06 ~	162	342
	건축사	1966.07 ~	180	
전문 잡지	공간	1966.11 ~	223	864
	꾸밈	1976.00 ~ 1991.02	107	
	건축문화	1981.06 ~	211	
	건축과환경	1984.09 ~	191	
	이상건축	1992.09 ~ 2005.01	59	
	건축세계	1995.06 ~	73	

[표 2-5] 연도별 잡지 기사 분포



1940년대까지는 20~40여건의 기사가 꾸준히 게재되다가 1950년대에는 5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1960년대에 들어 사회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면서 종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는 「건축사」, 「공간」, 「꾸밈」 등 학협회지와 전문지의 등장으로 기사 수가 3배로 증가하였고, 1980년대 이후로는 다양한 건축전문지가 창간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시대의 특징으로는 특정 주제를 다룬 특집과 연재물에서 한옥 관련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집기사는 당시 사회 전반적 관심사였던 우리의 전통 찾기를 주제로 기획된 경우가 많았으며, 연재기사는 건축사나 양식, 의장을 다루거나 답사기 형식을 띠며, 짧게는 3회, 길게는 6~7년에 걸쳐 30~60회 이르기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잡지는 크게 발간 시기와 내용에 따라 근대기 잡지, 학·협회지, 건축전문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근대기 잡지

「조선과건축」, 「개벽」, 「별건곤」, 「삼천리」 등의 잡지가 1920년대에 창간되었다. 「조선과건축」을 제외하고는 일반 대중잡지로, 건축분야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개벽」은 3·1운동 이후 천도교단에서 민족문화실현운동의 일환으로 창간된 월간 종합잡지로 창간 당시부터 그 배경으로 인해 총독부의 탄압을 많이 받았던 잡지이다. 「개벽」의 뒤를 이어 같은 개벽사에서 출간한 「별건곤」은 「삼천리」와 함께 취미잡지로서 당시 대중지의 쌍벽을 이루었다. 두 잡지 모두 대중들의 호기심을 끌만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문화·예술분야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당대 주요 문인들의 글이 게재되었다. 이러한 대중지에서 한옥미학 혹은 건축과 관련된 기사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으나, “문화생활과 주택”<sup>32)</sup>과 같이 변화하는 시대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계몽 성격을 띤 기사, “일천년 역사를 말하는 불국사”<sup>33)</sup>,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횡으로 본 조선의 미”<sup>34)</sup> 등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는 기사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과건축」은 1922년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전문 월간지로 조선건축학회에서 발행하였다. 일본인 학자에 의한 학술문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간혹 박길룡 등 한국학자의 문헌도 찾아볼 수 있으나 전문 일본어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구조, 정책, 기행 등 한국건축을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일본 현지의 상황과 더불어 서양건축 이슈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 ② 학 · 협회지

1945년에 설립된 대한건축학회에서는 1955년에 학회지 「건축」을 창간하였다. 「건축」은 1985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아 논문집을 별도로 분리해서 발간하기까지 학술논문이 주 내용을 이루는 등 학술지 성격을 강하게 나타냈다. 학술지 성격을 띤 초창기에는 주로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으며, 학술지와 분리된 이후로는 건축용어, 연구동향, 기행 및 답사 등과 관련된 특집 및 연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서는 실측보고가 주를 이루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공간 및 조형에 대한 문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창기에 다뤄지던 내용이 궁궐, 사찰 등 기념비적 건축물이었다면, 1970년대

32) 김유방(1923), “문화생활과 주택”, 「개벽」, 1923.02

33) 박석규(1927), “일천년 역사를 말하는 불국사”, 「조선농민」, 1927.08

34) 박돌이(1928),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횡으로 본 조선의 미”, 「별건곤」, 1928.05

말에 이르러서는 서민 주공간, 민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물들이 다뤄지기 시작했다. 1985년, 논문집과 별도로 간행 되면서 건축사학의 연구과 교육, 전통성과 상징성 과 같은 주제로 특집이 기획되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 용어 해설, 지방 건축 기행 등의 연재물이 게재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설립 이듬해인 1966년, 협회지 「건축사」를 창간하였다. 「건축」과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연구문헌과 협회 소식이 주를 이루다가, 90년대 이후부터는 회원 작품 소개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1960~1970년대 초반에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연구문헌이 주를 이루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건축문화의 특징, 고건축의 아름다움 등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전통양식의 계승,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조화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는 주거 생활, 주택, 민속, 등의 주제가 등장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양식, 조형과 관련된 문헌이 많이 게재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건축작품 소개가 잡지의 중심을 이루게 되자, 조선시대의 건축, 유교건축의 재조명,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등 기획 연재가 연구문헌을 대신하게 되었다.

### ③ 건축전문잡지

1966년 공간사의 「공간」 창간을 필두로 1970~1990년대에 걸쳐 다양한 건축전문잡지가 잡지가 출판되었다. 1970년대에는 「꾸밈」, 1980년대에는 「건축문화」, 「건축과환경」 등의 건축전문잡지가 등장하였고, 1990년대에는 「이상건축」, 「건축세계」 등의 잡지가 새롭게 창간되었다.

## (1) 공간

「공간」은 국내 최초의 월간 예술종합지로 건축, 도시,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을 주제로 창간되었다. 창간인 김수근은 “한국에도 ‘건축’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외부에 소개하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라고 밝힌바 있다.<sup>35)</sup> “우리 전통의 반추”(최순우), “고건축단장”(신영훈, 김동현) 등 창간 초기부터 전통과 관련된 연재 기사를 선보였으며, “고건축단장”은 1967년부터 1973년까지 6년에 걸쳐 게재되었다. 그 밖에 유명한 연재물로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안영배), “한국 옛 건축의 향기”(신영훈) 등이 있다. 또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특집을 기획하였는데, 1970년대 중반에는 당시 불어온 전통성 논란과 관련하여 전통의 계승을 주제로 특집이 구성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성의 재발견”과 같은 기획이 시리즈로 이어졌다.

[표 2-6] 「공간」 연재 및 특집 기사 목록

	특집/연재명	총 편수	연재기간	저자		
1	특집	한국현대건축을 위한 SYMPOSIUM	3	1967.02	정인국	편집부외
2	연재	고건축단장	34	1967.09 1973.02	신영훈	김동현
3	연재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8	1974.02 1975.04	안영배	
4	특집	건축에 있어서 전통계승	5	1975.05	김원용 민현식	주남철 김종성 김홍식
5	연재	한국 옛 건축의 향기	12	1975.10 1977.07	신영훈	
6	특집	전통계승과 한국현대건축의 반성	3	1978.05	김홍식 토론1 소흥렬 이구열 토론2 윤승중 이규목	김원 강신표 김남현 조창걸
7	특집	제3회공간대상(건축상) 우리의전통정신을살린현대주거는 어떤것인가	11	1978.12	민현식 송광섭 이희봉 · 유재현 김용철	이강현 이상해 우제상 신영용 정의용 박용규

35) 김수근문화재단(2006), 「당신이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 입니까」, p.206

		특집/연재명	총편수	연재기간	저자		
					토론 소흥렬 김수근	윤승중	원정수
8	연재	한국의 폐사	27	1981.02 1983.07	이재준		
9	특집	한국전통주택의 구성방법	8	1984.11	임충신 안영배 · 김광현 김홍식	박언곤 임승빈 김광언	김일진 최창조
10	특집	한국성의재발견① 한국성의 본질과 원형	4	1987.06	소흥렬 한재수	김성우	이상해
11		한국성의재발견② 한국성 탐색의 현재	1	1987.09	편집부		
12		한국성의재발견③ 한국성 표현의 실제	8	1987.11	강혁 민현식 조성용	임창복 이한기 송명규	김기석 이문보
13	특집	전환시대의이념과논리를찾아서① 한국성의모색과상황의논리	2	1988.07	김복영 좌담 김병중	이종상	심광현
14		한국의근대화과정과환경문화② 쇄신과 수용의 과제: 올림픽과 도시 · 건축	6	1988.08	최상철 류춘수	노태욱 우규승	류동주 오학선
15		한국의근대화과정과환경문화③ 전통사회의문화와문화적전통	5	1988.09	양병이 이상해	김성우 김병중	정무웅
16		한국의근대화과정과환경문화④ 전통사회의문화와문화적전통	6	1988.10	이규목 황기원	정충식 장성준	한재수 이정근
17	연재	한국건축사	28	1989.07 1991.12	신영훈		
18	특집	전통과창조 일본의경우를통해본 현대건축의전통성	6	1997.1	이영일 마츠모토타다시 쿠마켄고	가와무카이마사토 요네다아키라 이이지마요우이치	

## (2) 꾸밈

1977년에 창간한 「꾸밈」은 건축, 환경, 가구, 패션, 미술 등 디자인 전반에 관한 종합 디자인지로, 한국 고유의 미와 세계적인 디자인의 보편화, 산업생산과 생활문화의 질적향상을 위한 디자이너의 창의력 도모에 그 목적을 두었다.<sup>36)</sup> 창간 초기에는 조형, 모듈, 설계 등의 주제가 중심으로 다뤄졌고,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민가, 향교건축을 다루는 연재가 게재되는 한편, 전통성, 한국성 관련 논의를 담은 특집이 기획되었다. 한국성 탐구는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와의 비교연구, 보존 및 이용과 관련된 연구도 소개되었다. 1991년 폐간되었다.

[표 2-7] 「꾸밈」 연재 및 특집 기사 목록

	특집/연재명	총편수	연재기간	저자		
1	특집	현상설계	9	1983.08	최창규	편집부
2	연재	한국의 민가	8	1983.10 1984.12	김홍식	
3	특집	건축에 있어서의 모듈	3	1984.12	성인수	김동욱 장석하
4	특집	한국건축성의 발견	8	1986.10	한재수 김성우	이정근 김란기 김중현
5	특집	제3회 꾸밈건축평론상	6	1987.04	김진현 이공희	박순관 박소현 박대준
6	특집	한국건축성의 흔적: 근원과 변이	4	1987.06	조영무 박명덕	한재수 富井正憲
7	특집	한중일 근대건축의 비교연구	4	1987.08	김정동 곽중단	니시자와 김병윤
8	특집	모색의 끝-한국건축 2000년	3	1987.12	조영무	김병윤 김순일
9	특집	신세대의 한국건축	4	1989.06	김병윤	이대준 김정동
10	특집	동아시아의근대건축(Ⅰ)	6	1989.08	윤인석 후지모리테루노부 무라마쯔신	장후우흐어 리치엔랑 다쿠다오미카엘
11	특집	80년대 한국건축의 쟁점과 과제	9	1989.12	임창복 양윤재 최병두	임서환 장기철 이일훈 함인선 류춘수 김홍기

36) 「매일경제」, (1977.01.08), “디자인지 꾸밈 창간”



12	특집	전통 민속마을의 보존과 이용	11	1990.04	김왕기 김왕직 장순용 김영돈	유승용 김봉렬 윤홍로 김성기	이정근 이응묵 이동식
13	특집	동아시아의근대건축(Ⅱ)	7	1990.06	김정동 관원왕 윤인석	케리맥퍼슨 로버트호움	다쿠다오미카엘

### (3) 건축문화

1981년 창간한 「건축문화」는 창간취지를 석유문명에서 탈피하려는 범세기적인 노력이 국내외 건축분야에 새로운 자재, 새로운 공법의 발상, 활용으로 구현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한 것<sup>37)</sup>이라고 밝히고 있어 현대건축에 중심을 둔 잡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민족의 주거”(김정기), “한국고건축강좌”(박언곤), “한국건축사 개설”(김정기) 등 창간이래로 꾸준히 전통건축에 대한 연재를 게재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전통성 논의, 현대건축의 반성 등 특집도 기획되었다.

[표 2-8] 「건축문화」 연재 및 특집 기사 목록

	특집/연재명		총편수	연재기간	저자		
1	연재	한민족의 주거	34	1981.11 1984.08	김정기		
2	연재	한국고건축강좌	10	1982.01 1982.10	박언곤		
3	연재	내가 본 한국의 민가	3	1982.06 1982.10	김홍식		
4	연재	한국 건축사 개설	59	1984.09 1989.07	김정기		
5	특집	독립기념관	6	1987.07	김기웅 이범재	한도룡	최기원
6	특집	설계원점으로서의 한국전통건축	4	1990.02	안영배 우경국	송광섭	장순용

37) 「동아일보」, (1981.06.20), “월간 건축문화 창간”

7	특집	가회동 11번지 주거계획	17	1991.07	김광현 강병기 김인철 백문기 우경국 조성룡	승효상 임창복 송인호 양윤재 유재현 이광일	장세양 이종상 동정근 이희봉 권영덕
8	특집	한국현대건축의 반성과 발전	16	1992.01	성인수 방철린 임창복 배병길 김진애 정명원	장세양 승효상 조건영 박연심 우경국	김병윤 김기석 백문기 김성래 최영집
9	특집	한국현대건축의원점: 김중업과김수근	16	1993.04	성인수 안병의 승효상 우경국 이범재 김석재	배병길 김원석 윤승중 민현식 우시용	곽재환 김효일 최동규 이상해 김병윤
10	특집	근대이후의 건축: 이론과 역사	6	1994.06	임석재 이호정	구영민 전봉희	최윤경 정인하
11	연재	가든한 마을으로 옛집 둘러보기	7	1996.11 1997.05	고성룡		

#### (4) 건축과환경

「건축과환경」은 전문건축인, 건축학도, 시공자, 건축주 등을 독자층으로, 의식 있는 건축비평의 기틀을 다져 건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의의로 삼고 1984년에 창간되었다.<sup>38)</sup> 마루, 민가 등 특정 대상에 대한 특집, “한국현대건축에 있어서 전통표현의 문제”(1988년 4월), “역사의 계승과 박물관의 역할”(1993년 11월) 등 전통성 관련 특집도 수차례 기획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지방의 유명한 사적, 문화재, 민가 등 개별 건축물을 소개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면, 1980년대 말부터는 전통의 수용, 건축과 민주화, 다시 보는 고전 등 전통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성, 전통성, 고전읽기와 같은 주제의 기사는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38) 「경향신문」, (1984.09.12), \* 「건축과환경」 창간'

[표 2-9] 「건축과환경」 연재 및 특집 기사 목록

	특집/연재명	총편수	연재기간	저자		
1	특집 건축사의건축이론(Ⅲ)	4	1988.04	신재순 이상해	배형민	강혁
2	특집 한국현대건축에 있어서 전통표현의 문제	7	1988.06	이상해 김광현 안영배	정무용 정진수	김기웅 임창배
3	특집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	3	1988.09	한재수	정기철	김란기
4	특집 동양 속의 한국건축사	2	1989.03	이강근	김봉렬	
5	특집 한국건축계의해체와재구성 -민주화를위한대전제	6	1990.09	신기철 최창규	조건영 함인선	전영일 정기철
6	특집 90한국건축가	6	1991.02	이상해 박길룡	김문덕 송인호	김경수 김병윤
7	특집 현황과 전망	6	1991.09	김홍식 김기환 좌담 김동욱 김홍식	성인수 김란기 박언곤	최명철 이상해
8	특집 한·일국제연구집회 역사문화환경보전과목조건축	6	1992.06	김동현 김정기	이상해 장경호	김동욱 강병기
9	특집 전통건축기행1992: 안동의건축역사문화	2	1992.06	양윤식	방명덕	
10	특집 이 시대 우리의 건축 - 4.3그룹 건축전	15	1993.01	김인철 곽재환 김병윤 도각 동정근	승효상 우경국 이성관 이일훈 이종상	민현식 방철린 백문기 조성룡 성인기
11	특집 건축가 김석철	2	1993.02	김석철	김경수	
12	특집 건축가 유걸	4	1993.06	유걸 김기웅 대담 유걸	이상해 박순관	김경수
13	특집 질곡의건축문화그반성과전망 -서울시청사설계경기에앞서	14	1993.07	김영섭 길성호 최문규 송성진 정한수	김우성 김정철 이정덕 이정근 김창수	김진균 최동규 정기용 김수근
14	특집 역사의 계승과 박물관의 역할	5	1993.11	강내희 김승희	김용승 최문규	신바나윤

	특집/연재명		총편수	연재기간	저자		
15	특집	창간10주년기념특별기획: 21세기고전을향하여	10	1994.09	박순관 김봉렬 김관석 김종규	김홍일 김홍수 이종호	김준성 조병호 최욱
16	특집	건축가 김태수	4	1995.01	김태수 대담 김태수	황두진 이강현	토마스피셔
17	특집	창간10주년기념특별기획: 고전과나	2	1995.03	김경수	김봉렬	

##### (5) 이상건축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간행된 「이상건축」은 부산의 지역건축잡지로 출발하여, 1999년 편집부를 서울로 옮기기 전까지 부산 또는 부산 건축에 관한 칼럼, 특집, 좌담 등을 게재하였다.<sup>39)</sup> 경남지역의 전통건축을 소개하거나, 경주 관련 특집을 기획하는 등 부산의 지역건축 잡지다운 내용을 다루는 한편, “우리건축되찾기”(김봉렬)에서는 전국 곳곳의 전통건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표 2-10] 「이상건축」 연재 및 특집 기사 목록

	특집/연재명		총편수	연재기간	저자		
1	특집	한국인의 주의식	3	1992.12	조성기	신용재	박인석
2	연재	이상건축기행	4	1993.01 1993.04	김봉렬	김화봉	
3	특집	전통과현재: 건축에 있어서 한국성 탐구	6	1994.01	성인수 한국건축연구소	임충신	이정근
4	특집	새로운목조건축의세계: 그현황과전망	4	1994.04	김란기 김홍식	강혁	정연근
5	특집	역사도시 경주의 현재와 미래	6	1994.07	이상해 한삼건	이강근 김경대	홍과표 김봉렬
6	특집	역사도시경주의현재와미래(Ⅱ)	5	1994.08	김경대	허만형	곽동석
7	연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	26	1995.11 1997.12	김봉렬		

	특집/연재명		총편수	연재기간	저자		
8	특집	동서양건축문화비교국제심포지엄 “건축, 인간, 그리고정주”	15	1999.11	타이켄순 김석철 야마모토리켄 우규승 프랑코만쿠조 이상해	김성아 이승복 타카마츠신 루쥬 강혁	리차드로호베인 앤드류자고 삐에르글레망 신용학
9	특집	20세기 건축: 성찰과 반석	5	1999.12	이정근 류전희 좌담 김봉렬 최갑수	김봉렬 김원갑 양우현	이상해 김성홍 정인하

## (6) 건축세계

1995년 창간된 「건축세계」는 건축가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잡지로<sup>40)</sup>, 5년이라는 수집기간 내에서도 많은 한옥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창간이래 2000년도까지 계속 되었던 “참 건축 담론”에서는 현대건축과 더불어 전통건축, 전통성 논란이 일었던 현대 건축, 민속마을 등을 소개하였으며, “고건축 디테일”(심대섭, 김도경),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장산객) 등 다른 잡지와 차별화된 연재도 기획되었다.

[표 2-11] 「건축세계」 연재 및 특집 기사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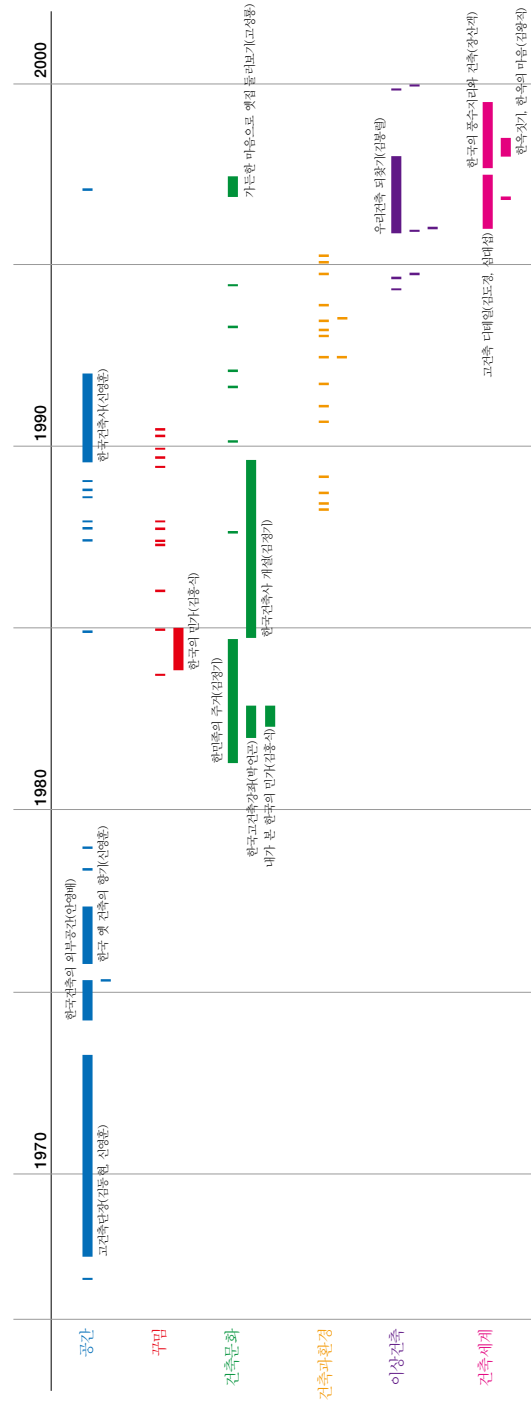
	특집/연재명		총편수	연재기간	저자	
1	연재	고건축 디테일	18	1996.01 1997.06	심대섭	김도경
2	연재	건축가의집이야기: 목수고택영의 한평생조선택집고산이야기	2	1996.09 1996.10	김란기	
3	연재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20	1997.09 1999.06	장산객	
4	연재	건축가의집이야기: 한옥짓기, 한옥의마음	6	1998.01 1998.06	김왕직	

39) 백효경 우신구(2005), “지역 건축 잡지에 나타난 부산성 논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21(6)

40) 「경향신문」, (1995.05.31), “월간 「건축세계」 창간”

□ 주요 건축잡지 중 한옥미학 관련 연재 및 특집기사 분포

[표 2-12] 주요 건축잡지 중 한옥미학 관련 연재 및 특집기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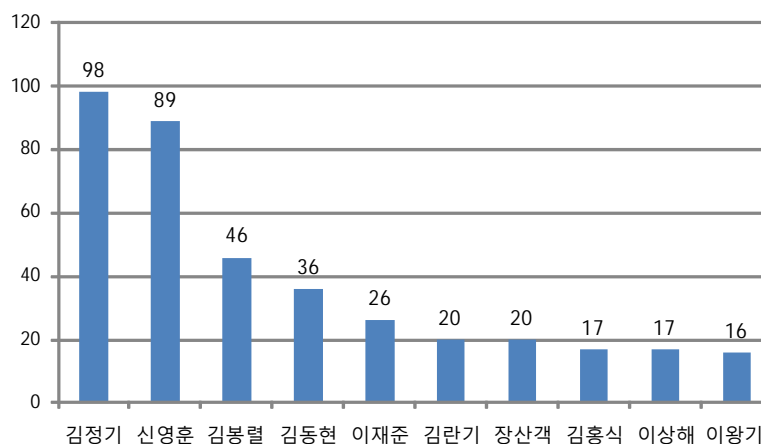
주요 건축전문잡지에서 추출한 한옥미학 관련 연재 및 특집기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른 잡지들이 창간되기 이전인 1970년대까지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한옥과 관련된 기사를 선보이고 있고,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꾸밈」, 「건축문화」, 「건축과환경」 등의 잡지들 역시 초창기부터 연재 및 특집이 기획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잡지기사 분포를 통해서 본 한옥미학의 주요 저자

앞서 살펴본 여섯 종의 건축전문잡지에서 1990년대까지 게재된 한옥미학서술 관련 기사 수를 바탕으로 한옥미학의 주요 저자를 조사해보았다. 관련 분야 전체가 아닌 특정한 여섯 종의 잡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문헌 조사 과정에 있어서 누락된 기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게재 기사 수의 총합을 통해 주요 저자를 추렸으나, 연재, 특집 등 기사의 분량과 성격에 차이가 있어 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통계 수치는 참고 자료일 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저자들이 한옥미학 서술을 주도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표 2-14]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김정기, 신영훈, 김봉렬, 김동현 등 수십 건의 기사를 게재한 저자들의 공통적 특징은 한국건축사 혹은 양식사와 관련된 장기 연재 기사를 기고했다는 점이다. 저자 별로 연재가 게재된 잡지에도 특징이 있다. 대부분 같은 저

[표 2-13] 잡지기사 분포를 통해서 본 한옥미학 주요 저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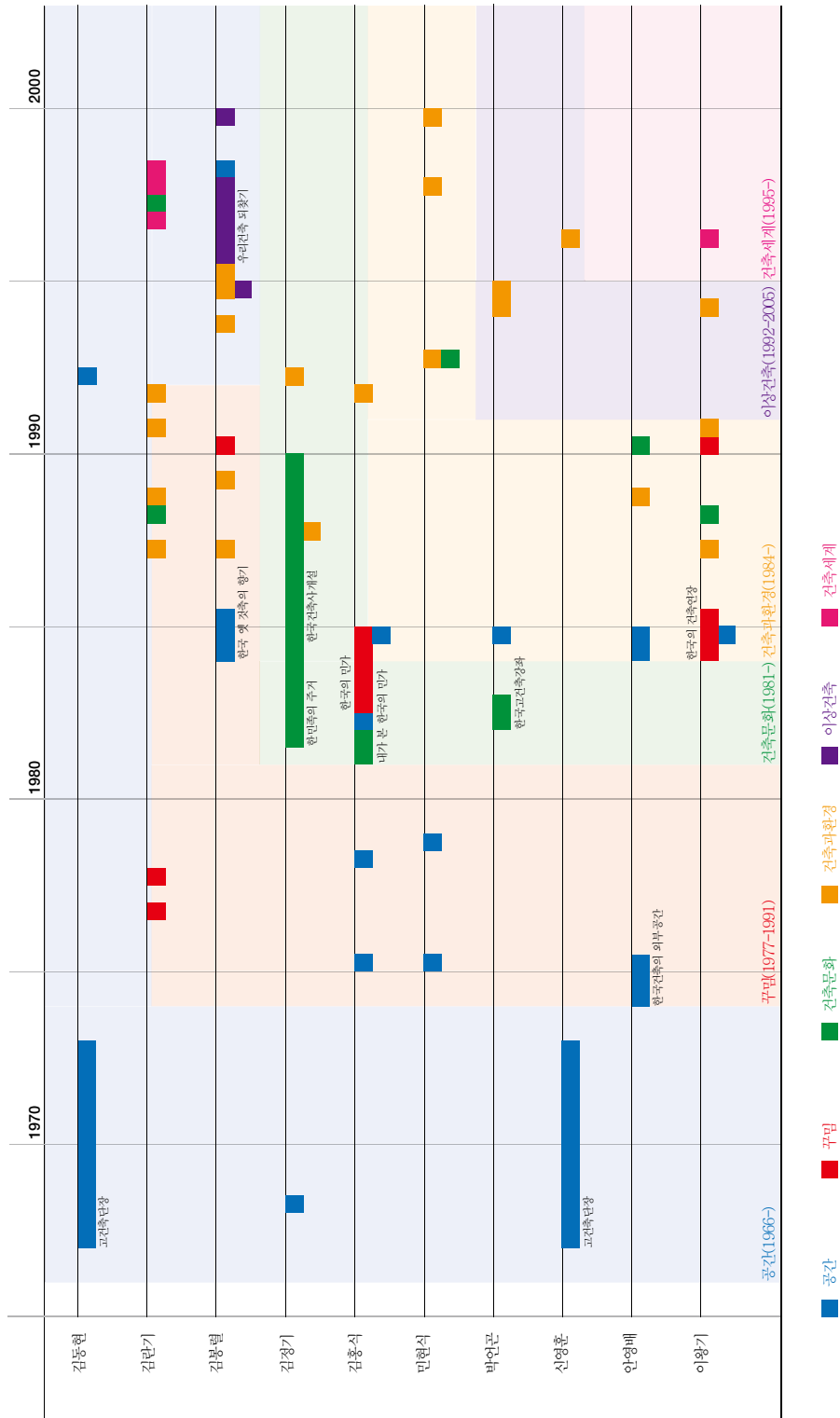
자의 장기 연재는 동일한 잡지를 통해 간행되는 경향이 있어, 김정기의 경우 「건축문화」를 통해 “한민족의 주거”(총 34회) 연재가 끝난 후 이어서 “한국건축사 개설”(총 59회)을 기고했고, 신영훈도 “고건축단장”(총 34회), “한국 옛 건축의 향기”(총 12회), “한국건축사”(총 28회) 등의 연재를 계속해서 「공간」에 게재하였다.

[표 2-14] 잡지기사 분포에 따른 주요 저자 및 해당 저자의 주요 기사

No.	저자	기사수	주요 연재 기사
1	김정기	98	한민족의 주거(34회, 건축문화), 한국건축사 개설(59회, 건축문화)
2	신영훈	89	고건축단장(34회, 공간), 한국 옛 건축의 향기(12회, 공간), 한국건축사(28회, 공간)
3	김봉렬	46	이상건축기행(4회, 이상건축),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26회, 이상건축)
4	김동현	36	고건축단장(34회, 공간)
5	이재준	26	한국의 폐사(27회, 공간)
6	김란기	20	건축가의 집이야기(2회, 건축세계)
6	장산객	20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20회, 건축세계)
8	김홍식	17	한국의 민가(꾸밈), 내가 본 한국의 민가(3회, 건축문화)
8	이상해	17	—
10	이왕기	16	연장과 기재(꾸밈), 안동지방 반가 실측조사(3회, 건축문화)
11	박언곤	13	한국고건축강좌(10회, 건축문화)
12	박명덕	12	안동지방 반가 실측조사(3회, 건축문화)
12	안영배	12	한국건축의 외부공간(공간),
14	심대섭	11	고건축 디테일(18회, 건축세계)
15	김도경	9	고건축 디테일(18회, 건축세계)
15	장순용	9	한국고건축(건축문화)
기타	민현식, 조영무, 김왕직, 김경수, 김병윤, 김지민, 우경국, 한재수 등		



[표 2-15] 주요 저자 및 해당 저자의 주요 연재기사 분포



## 2) 신문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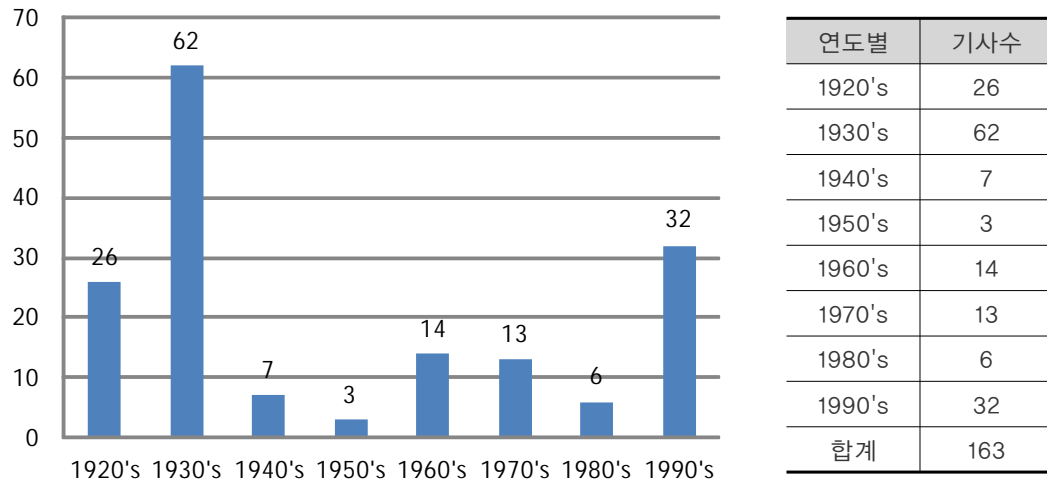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총 21종의 신문을 검토한 결과, 이미 폐간된 근대기 신문과 현재도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는 현대 신문으로 나뉘지는 경향을 보였다. 현대 신문 중에서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근대기 신문과 비슷한 시기에 창간되었으나 내용면에 있어서 한옥관련 기사도 꾸준히 게재되는 등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

[표 2-16] 수집 대상 신문

	신문명	DB구축 대상 시기	DB	수집 기사 수
근대기 신문	대한매일신보	1904.07.18~1910.08.28	한국언론진흥재단	—
	독립신문	1896.04.07~1899.12.04		—
	매일신문	1898.04.07~1899.04.03		—
	매일신보	1910.08.30~1945.08.14		26
	한성순보	1883.10.31~1884.10.09		—
	한성주보	1886.01.25~1888.03.12		—
	황성신문	1898.09.05~1910.09.14		—
	공립신보	1905.11~1909.0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부산일보	1914.12~1957.12		—
	시대일보	1924.04~1926.07		1
	신한민보	1909.02~1945.12		—
	자유신문	1945.10~1961.08		1
	조선시보	1914.11~1940.08		—
	조선중앙일보	1933.03~1936.09		2
	중앙일보	1931.11~1933.03		1
	중외일보	1926.11~1931.06		5
	신문스크랩자료 <sup>41)</sup>	1928.04~1940.12		—
	조선일보	1920.02.17~	조선일보아카이브	24
	동아일보	1920.04.01~1999.12.31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81
	경향신문	1946.10.06~1999.12.31		13
	매일경제	1966.03.24~1999.12.31		4
	한겨레	1988.05.15~1999.12.31		5

41) 1928~1940년 조선에서 발간되었거나 배포된 신문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서 30여개의 주제로 분류해

[표 2-17] 연도별 신문 기사 분포



1920~1930년대 기사는 주택개량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 주택의 비위생성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일본 및 서구의 주택을 소개, 미래의 주거상을 제시하는 등 계몽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한편, 온돌, 대청 등의 장점을 열거하며 우리 고유의 주거문화를 지켜야한다는 주장도 보이고 있다. 1960~1970년대에는 문화재를 포함한 기념비적 건축물을 소개하는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시기에 “국보순례”, “한국의 재발견”, “한국의 얼굴” 등 기념비적 건축물을 다루는 연재가 다수 게재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살림집, 민속마을 등 일상생활에 근접한 한국적 건물이 다뤄지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보존,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조화와 관련된 기사가 등장하였다.

시대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이가 있으나 한옥의 가치 혹은 특성을 다루는 기사는 기획성 특집이거나 연재물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한옥과 관련된 최초의 연재는 1922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장차 일케된 조선의 건축을 위하여”라는 기사로 총 6회 시리즈로 기획되었으며, 당시 철거위기에 처했던 광화문을 안타깝게 여기며 광화문의 아름다움과 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 1920년대에는 조선일보에서 “고적순방, 찬란한 신라문화”, “조선 미술을 찾아, 팔도건축순례” 등이 연재되었다.

스크랩한 자료로,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음

1930년대에도 계속해서 순례 형식의 연재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나, 기존 가옥의 개선, 개량, 일본식·서양식 주택의 소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류의 연재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 모든 신문에서 공통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잡지와 같이 특정 전문가의 기고 형식을 띠고 있다. 김윤기, 박길룡, 박동진 등 건축전문가 외에 일반가정주부, 여류명사라고 소개된 가사와 교사 등을 중심으로 한 당시 신여성들이 주요 기고자로 활동하였다.

1940~1950년대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관련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다시 문화재 등 기념비적 건물의 소개하는 취지의 연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보순례”(동아일보)는 1962년부터 약 6개월간 116회에 걸쳐 각 지역의 문화재를 소개했고, 그 밖에 6개월 넘게 연재된 기사로는 1970년대에 “한국의 재발견”(경향신문), 1980년대에 “그터 최영희교수의 한국사 기행”(경향신문), 1990년대에 “우리문화 이웃문화”(조선일보), “문화재는 살아있다”(경향신문), “문화재를 찾아서”(경향신문)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절이나 특정 지역을 주제로 한 한 달 가량의 짧은 연재도 많이 나타났다.

[표 2-18] 한옥 및 문화재 관련 주요 연재 기사

	신문명	연재명	총편수	연재시기	저자
1	동아일보	장차 일케된 조선의 건축을 위하여	5	1922.08.24 1922.08.28	柳宗悅
2	조선일보	고적순방, 찬란한 신라문화	8	1928.11	
3	조선일보	조선 미술을 찾아, 팔도건축순례	57	1929.10.20 1929.12.27	
4	매일신보	하로밧비 곤쳐야 할 조선가옥제도 능률이 나고 위에 조코 아름답게	4	1930.04.06 1930.04.10	한봉순 장금산 유령숙 전혜원
5	동아일보	유일한 휴양처 안락의 흙은 어떠하게 세울가	7	1930.09.30 1930.10.11	김윤기
6	동아일보	우리주택에 대하여	16	1931.03.14 1931.04.05	박동진
7	매일신보	조선가옥에 개선에 대하여	3	1931.05.19 1931.05.21	森悟一
8	매일신보	구식가옥과 그 개량	5	1932.01.01 1932.01.12	전지자 송금선 송경애 김현실 최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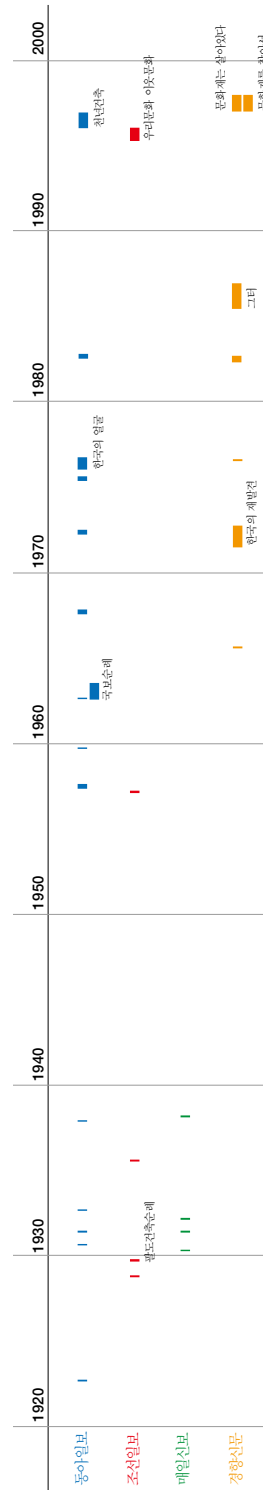
	신문명	연재명	총편수	연재시기	저자
9	동아일보	주에 대하여	6	1932.08.08 1932.08.14	박길용
10	조선일보	경성고적 소순례	10	1935.05.09 1935.05.19	
11	조선일보	고건물 순례	18	1935.07.06 1935.08.04	
12	동아일보	가옥건축의 필수상식	6	1937.11.12 1937.11.18	
13	매일신보	우리들의 주택은 이러케 개량하십시오	6	1938.01.01 1938.01.07	이천승
14	조선일보	우리문화의 재인식. 먼저 우리의 얼을 찾자	2	1957.01.01 1957.01.03	김재원
15	동아일보	시내명소 순례	20	1957.06.14 1957.10.13	
16	동아일보	명승고찰 중추순례	6	1959.09.27 1959.10.09	
17	동아일보	하늘에서 본다	14	1962.09.25 1962.10.16	
18	동아일보	국보순례	116	1962.11.14 1963.05.15	
19	경향신문	가을의 고궁	5	1965.09.17 1965.09.22	
20	동아일보	사상의 고향	16	1967.09.26 1967.12.16	
21	동아일보	한성과 서울	12	1972.02.05 1972.04.22	
22	경향신문	한국의 재발견	84	1973.06.02 1974.09.04	
23	동아일보	시원한 성하	17	1975.07.03 1975.07.31	
24	동아일보	한국의 얼굴	35	1976.01.01 1976.09.21	
25	경향신문	흙내음 가득한 내 고향 한여름	35	1976.07.02 1976.08.20	
26	경향신문	이 산하 하늘에서 다시 본다	22	1982.04.02 1982.09.27	
27	동아일보	화폭에 담은 내고향 여름 절경	10	1982.07.19 1982.08.17	
28	경향신문	그터 최영희 교수의 한국사 기행	68	1985.06.06 1986.12.18	

	신문명	연재명	총편수	연재시기	저자
29	조선일보	우리문화 이웃문화	39	1995.03.07 1995.12.26	
30	동아일보	천년건축	29	1996.01.04 1996.12.26	
31	경향신문	문화재는 살아있다	25	1997.01.01 1997.12.30	
32	경향신문	문화재를 찾아서	48	1997.01.04 1997.12.13	

#### □ 주요 신문 중 한옥미학 관련 연재기사 분포

신문에서의 한옥미학 관련 연재기사 분포를 살펴보면, 1930년 전후와 1990년대 후반에는 모든 신문사에서 많은 연재가 기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통해 장기적인 연재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초창기 연재기사는 매일, 혹은 격일 등의 짧은 주기의 집중적이고 단기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반해, 1960년대 이후 나타나는 대부분의 기사들을 주 1회의 칼럼형식을 띠고 장기적으로 기획되고 있다. 이는 기행, 답사, 유적지 및 건축물 소개와 같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연재기사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2-19] 주요 신문 중 한옥미학 관련 연재기사 분포



#### 4. 소결

본 연구는 한옥미학을 구성하는 술어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한옥미학의 술어는 한옥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나 예술성의 본질을 철학적 혹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해석한 어휘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출하는 술어는 한옥 및 그 구성요소에 대해 미학적 가치판단을 하고 있거나 그것을 민족성과 결부된 고유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

한편 한옥미학의 구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술어뿐만 아니라 술어의 배경이 되는 사상 및 근거로 삼고 있는 건축특성이나 사례를 함께 추출하여 정리해야 한다. 사상 배경은 술어들의 발생 배경이 되는 학문적 바탕으로서 기사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대개는 저자의 교육과정이나 학문 교류의 이력을 추적하여 판단하게 된다. 건축적 근거는 기사에서 술어들이 지시하는 사례들로 구체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적 건축의 유형, 개인적인 건축경험의 과정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형화시켜 세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옥미학의 술어를 추출하기 위한 매체로는 주로 20세기 약 100여 년 동안의 한옥 관련 단행본, 보고서, 논문, 신문, 잡지를 수집했다. 주요 단행본과 논문은 미술사학과 건축사학 등 관련 학문의 연구사를 참조하여 미학적 가치판단이 뚜렷한 기사를 선별했다. 또 신문과 잡지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키워드 검색을 실시했다. 이 때 검색어로써 한옥뿐만 아니라 가옥, 조선집, 주가, 주거, 주택 등 주택관련 어휘와 경복궁, 남대문, 불국사 등 주요 문화재를 포함하는 다양한 검색어를 통해 누락되는 기사의 수를 줄였다.

한옥 미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주요 저술들은 크게 학문 영역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일제시기에는 근대적 학문방법에 따른 최초의 한옥미학 서술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건축사학자로서 조선의 건축유적을 조사한 세키노 타다시(関野貞), 민예학을 개창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를 비롯하여 서양인으로서 조선의 건축미술에 매료되었던 에카르트(Eckardt A.) 등이 최초의 한옥미학을 기술하였다. 이들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현대 한옥미학의 형성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일제시기 한국인으로서 한옥미학 서술에 중요한 인물은 고유섭이다. 고유섭은 서구미학을 최초로 수용했다는 점과 그것을 기초로 한국미학의 주요개념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한국미



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으며, 한옥미학의 주요 술어 역시 고유섭의 글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상당하다.

해방 이후 미술사학과와 고고학과에서는 고유섭을 계승 혹은 비판하면서 한국미의 특징을 정립해나갔다. 고유섭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탁월한 문장과 표현을 개발한 최순우를 비롯해서 한국미술에서의 자연주의를 강조한 김원룡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아나기 등에 의한 민예학은 민속학 또는 인류학으로 발달하였다. 또 전통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논하는 학문 특성은 지리학에도 내재된 것이었다. 민속학의 분야에서는 김광연 등이 전국적인 한옥 주거의 생활 관습을 논했고, 지리학의 분야에서는 장보웅 등이 한옥 주거의 지역적 분포를 확인했다. 이들은 한옥을 미술작품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의 일종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미학 서술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특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학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었다.

한옥 건축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인 건축사학과 문화재학 분야에서는 해방 이후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장기인, 윤장섭, 정인국 등의 학자가 용어를 재정비하고 합리적 방법론에 입각한 통사 서술을 시도했으며, 임천, 김동현, 김정기 등의 학자는 문화재의 해체수리, 복원 영역에서 활약했다. 이 분야에서는 한옥의 주요한 특징들이 정리되었으며, 미술사학의 한국미와 한옥미학이 연계되고, 건축설계술의 일환으로 한옥의 구성이 해석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건축가들은 보다 실천적인 필요에 의해 한옥미학을 고민하게 되었다. 전통의 계승과 민족적 정체성의 구현이라는 과제는 항상 창작과 모방의 경계에서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건축가들에 의한 한옥미학의 재해석은 공간의 체계와 구성, 자연과의 관계, 전통적인 세계관의 교훈 등 형태로부터 추상화된 정신적인 부분을 지향했으며, 보편적인 설계원리와 한옥미학을 결부시키는데 일조했다.

대중매체는 한옥미학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건축 관련 잡지에 나타난 한옥미학은 건축에서 한국성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천착하고 있다. 조선과 건축 등 1920년대에 창간된 초기의 잡지들에서는 답사의 대상으로서의 고적, 개량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에 한정된 한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글로 쓰여진 잡지는 1955년 대한건축학회의 「건축」, 1966년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등이 먼저 발간되었고, 특히 1966년에 창간된 「공간」은 초기에 한옥미학을 정립하고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순우,

신영훈, 김동현, 안영배 등의 연재물은 한옥의 지적기반 및 해석방식을 제공하였고, 한국성 혹은 전통과 관련된 특집 논쟁들은 한국 건축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1977년에 창간된 「꾸밈」에서는 당시 소장층 학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성 논의를 확장시켰다. 1980년대에 「건축문화」, 「건축과 환경」 등이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한옥 관련 특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이상건축」, 「건축세계」 등의 잡지가 가세하면서 담론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고건축 강좌, 답사기, 한국성 논쟁 등 익숙한 주제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논의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일제시기의 신문 기사 역시 당시 잡지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옥과 관련된 최초의 연재기사는 1922년 동아일보에 실린 야나기 무네요시의 “장차 일케된 조선의 건축을 위하여”이며, 대중들을 위한 신문기사에서는 주로 팔도 순례를 통해 고적을 답사하는 내용을 연재하였다. 6개월 이상 연재된 기사들은 60년대 동아일보의 “국보순례”, 70년대 경향신문의 “한국의 재발견”, 80년대 경향신문의 “그터 최영희 교수의 한국사 기행”, 90년대 조선일보의 “우리문화 이웃문화”, 경향신문의 “문화재는 살아있다”, “문화재를 찾아서” 등이 대표적이다.

## 제3장 현대 한옥미학의 주요개념

1. 초기 한옥미학의 어휘와 갈래
2. 현대 한옥미학의 대상과 성격
3. 소결

### 1. 초기 한옥미학의 어휘와 갈래

#### 1) 초기 한옥미학 어휘의 실례

한옥미학 서술의 실례를 잡지, 신문 등의 대중매체와 단행본을 통해서 수집하고, 내용 분석을 통해 주요 술어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술어를 유사한 의미의 어휘끼리 카테고리화 하여 각 어휘군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 자료는 개항이후로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신문 및 건축 잡지, 단행본 등으로 일본인 학자 및 초기 한국미술사 토대를 닦은 고유섭, 최순우 등의 저서를 포함한다. 한옥미학을 서술한 어휘들은 크게 ㉠자연스러움, 자연과의 조화 ㉡소박함, 구수함, 인간적 척도 ㉢곡선미, 울동미 ㉣비애미, 섬약미 ㉤고전미, 단순미, 절제미 ㉥장중미, 경쾌미 ㉦친근함, 너그러움, 익살 ㉧무기교의 기교, 대칭적 비대칭 ㉨공간의 연속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미학 개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 한옥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한옥미학 어휘의 실례들을 살펴보면 한옥미학의 주요특징과 개념어 상호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㉔ 자연스러움, 자연과의 조화

- 조선의 정원에는 그러한 **부자연함이 한군데도 없다**. 중국식 정원처럼 그렇게 야단스럽지도 않고 일본식 정원처럼 그렇게 밍글 밍글하고, 밝고 맑고 아취 있는 것이 우리 조선의 정원인 것이다. (김용준, 김용준 전집 3, 2001, pp.184-185)
- **호젓한 자연풍**의 옛모습 (이구열, 한국의 숙제(7) 문화재 보존, 경향신문, 1965.04.05, 4면)
- **자연에 순응**하여 조형된 건축이기 때문에 자연의 양상 그대로 무질서하게 보이나 법칙성과 질서체계를 발견하게 된다.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1974, p.14)
- **자연과 융합**하려는 소박한 국민성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 공간, 1974.03)
- **자연을 존중하여 적응 조화**하도록 많은 배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 공간, 1974.03)
- **자연과 유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화**된 건축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 공간, 1974.03)
- 무관심을 마침내 **자연에 순응하는 심리로 변화** (고유섭, 조선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 문제, 춘추, 1941.07)
- **자연과 잘 조화**되어 무기교의 자연미를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외관은 간소, 소박하고, 어느 면으로는 조야하고 겸허한 맛을 풍기기도 하는 것 (윤장섭, 한국건축사, 1975, p.22)
-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킨 심미적 결구 (신영훈, 한국 옛 건축의 향기 1, 공간, 1975.10)
- 의지적 기교가 너무나 지나친 중국식 지붕이나 일본식 지붕이 멋없이 단조로움에 비해 한식기와지붕은 어디까지나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김영기, 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꾸밈, 1977.06)
- 실내공간은 **자연공간의 연장**으로서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닌 자연그대로의 개념이 실내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념적이고, 애매하며, 자연적이며 순수하고 기교가 없는 우리의 의식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만곡선의 개념이 이를 통해 지각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김영기, 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꾸밈, 1977.06)
- 미추의 세계를 완전 이탈한 미가 **자연의 미**다. 한국의 미에는 이러한 미 이전의 미가 있다. (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1978, pp.47-48)
- 한국 고미술은 특색은 (중략)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재현하려는 **자연주의요**, 철저한 아의 배제이다. (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1978, pp.31-32)
- 언제 먹어도 맛있는, 본래 무미의 흰 쌀밥 같은 **자연의 맛**, 그것이 바로 한국의 미가 아닌가, (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1978, p.50)

- **자연을 거역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연에 젖어들어 동화된 듯한 일체감** (정충식, 한국 전통조경 문화의 특징과 변천 및 계승, 공간, 1988.10)
- 전통주택은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을 준다 (우경국, 개념으로 본 전통주택과 나, 건축문화, 1990.02)
- 한국건축의 특징 중의 하나는 건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토지형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던 것 같고, 건축집합이 토지형국에 대한 것을 끌고가는 힘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건축이나 일본건축, 그리고 이탈리아의 중세도시들에 비해서 우리의 건축은 **자연을 포괄하는 특성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김석철, 건축가 김설철의 ‘서울, 건축과 도시’, 건축과환경, 1993.09)
- 건물과 하늘은 지붕으로 이어지고 곡선의 지붕은 건물의 일부인 **동시에 하늘의 일부인 셈** (안병의, 김중업의 작품과 건축관에 대해, 건축문화, 1993.04)
- 우리나라 지붕은 건물에 속하면서도 **하늘을 거부하지 않는다** (안병의, 김중업의 작품과 건축관에 대해, 건축문화, 1993.04)
- 하늘과 땅과 마주한 정자 부용정은 겸손하게 **자연에 순응하는** 복종이 아닌가. (박언곤, **자연과 하나되는** 선경의 건축, 부용정, 건축과환경, 1994.06)
- (동춘당) 고고한 선비의 자태와 같이 단아하며 품위가 있다. 여느 지방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요란함과 호화로움이 없고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려하지 않은 검소함이며, 자연과 동화하려는 공간의 심성은 곧 기호학맥의 본연인 듯싶다. (박언곤, 자연과 하나되는 선경의 건축, 부용정, 건축과환경, 1994.06)
- 인위적인 기교를 많이 쓰지 아니하였으며, 시공방법에 있어서도 기교가 적은 **자연미**를 나타내도록 배려 (윤장섭, 한국의 건축, 1996, p.26)
- 한국건축의 아름다움은 **자연과 교감하는** 배치, 절제된 구조형식, 그리고 직선의 부재가 모여 이루는 유기적 질서의 미학에 있다 (김석철, 건축가 김설철씨가 본 ‘무량수전’, 동아일보, 1996.12.22, 13면)
-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순응하였던** 우리 민족은 건축의 외부공간구성에 있어서 대단히 우수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8)
- **지형에 따라** 독특한 창의력이 발휘되어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10)
- **자연과 융합된** 유기적인 건축공간에 대한 의지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10)
- 수덕사에서는 (중략) 건물축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것이 **꽤 자연스럽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50)
- 건물도 **대자연의 일부처럼** 보인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15)

-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여** 건축을 여기에 조화시킨 것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15)
- 작은 건축규모에서 오는 공간형성의 보완을 **자연의 힘을 빌어** 이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역으로 자연지형에 따라 건축의 규모가 적절하게 조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15)
- 건물의 전면을 잘 보이게 건물배치를 약간씩 트는 시각적 고려와 주요건물에서 전면으로 튀어진 **전망과 향의 고려** 등을 참작하여 건물의 방향을 조절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19)
- 전반적 배치는 하나의 큰 기본원칙에 따르되 개개의 건물은 그 **주변의 지형에 따라** 조금씩 자연스럽게 변화되며 조화되는 건축의 질서는 비단 건축 뿐만 아니라 무용이나 전통음악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서도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19)

#### ⑥ 소박함, 구수함, 인간적 척도

- **어수룩한 면도 있겠으나 순박한 면이** 있어 매우 친근감을 주는 것 (柳宗悅, 朝鮮の木工品質, 朝鮮とその芸術, 1922; 윤장섭, 한국의 건축, 1996, p.27에서 재인용)
-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보다 더 평이한 기물은 없을 것이다. **극히 평범한 모습**이다. 무엇 하나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며, 어디 하나 기교가 있는 것도 아니다, 평범함에 서 이것보다 더 평범한 것이 있겠는가. (야나기 무네요시, 조선을 생각한다, p.313)
- 구수하다는 것은 **순박, 순후**한 데서 오는 큰 맛이요, 예리, 규각, 표렬, 이러한 데서는 오지 않는 맛이다. 그것은 심도에 있어 입체적으로 온축 있는 것이며 속도에 있어 질속과 반대되는 완만한 데서 오는 맛이다. 따라서 알상긋고 천박하고 경망하고 교혜로운 점은 없다. (고유섭, 조선미술문화의 몇날 성격, 한국미술문화사논총, 1974, pp.20-21)
- **질박한 맛과 둔후한 맛과 순진한 맛**에 있어 우승하다 (고유섭, 고유섭전집3, 1993, p.18)
- **소박하고, 아담하고, 청초한** 문화적인 특성을 형성 (윤희순, 조선미술사연구, 1946, p.27; 윤장섭, 한국의 건축, 1996, p.19에서 재인용)
- 우리의 미술에는 **소박과 정숙과 아취**가 깃들인 선의에 가득찬 의젓한 아름다움이 담백 실려져 있다. (최순우, 우리나라 미술사 개설, 개벽 신년호, 1955, p.87)
- 조선조의 목공예품과 더불어 조선조 자기는 정말 **착실하고 의젓하며 또 소박하게** 아름답던 조선의 마음씨 그대로 엮던 것 (최순우, 최순우 전집 5, 1992, p.32)
- **순박한 질감과 담소한 색감 속에서 겸허와 아침을 모르는 솔직하고도 순정적인 표현**에 (최순우, 최순우 전집 2, 1992, p.14)

- **단순하고 질소하며 순정적인** 한국 미술감각 (최순우, 최순우 전집 2, 1992, p.75)
- **소박과 정숙과 아취**가 깃들인 선의가 가득찬 의젓한 아름다움 (최순우, 우리나라 미술사 개설, 새벽, 1955.)
- **건실하고 소박하고** 용도에 충실하고 또 민중적인 아름다움을 건강하게 성립시킨 것 (최순우, 최순우 전집 4, 1922)
- 색채나 의장이 **담소하고 순정적이며 아침이 없다** (최순우, 최순우 전집 2, 1922)
- **겸허와 실질과 소박의 아름다움** (최순우, 최순우 전집 2, 1922)
- 꾸밈새나 잔재주가 적고 **은근한 정감이 스며있으며 순직하고 성실 간소한 기능미**를 으뜸으로 삼게 된 것 (최순우, 최순우 전집 2, 1992, p.71)
- **단순과 질박미** (최순우, 최순우 전집 5, 1992)
- **온아와 간소미에** 빛나는 세련된 아름다움 (최순우, 우리의 미술, 한국미 산책, 최순우 전집 5, 1992, pp.58-59)
- **겸허와 실질과 소박의 아름다움** (최순우, 최순우 전집 2, 1992)
- **간박한 단순미** (최순우, 우리의 미술, 한국미 산책, 최순우 전집 5, 1992, pp.58-59)
- **질소미** (최순우, 우리의 미술, 한국미 산책, 최순우 전집 5, 1992, pp.58-59)
- **어리송하게 둥근 맛 . . . 어리숙하면서도 순진한 아름다움**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1994, p.283)
- 한국 사람들의 **청초한 색감**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소박하고 온화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 (윤장섭, 한국건축사, 1972, p.25)
- 단아한 아름다움과 **순박한 큰 맛**을 겸하여 갖고 있다 (윤장섭, 한국건축사, 1972, p.26)
- 교헤스럽지 않고 과장하지 않으며 **겸허하고 어리숙한 졸박한 멋** (윤장섭, 전통과 한국건축, 대한건축학회 30주년기념 논문집, 1975)
- 고유섭씨는 한국미술의 성격으로 첫째 멋이 부려져있는 작품, 둘째 구수한 기질을 들었다. 여기서 멋이란 ‘멋부린다’ 내지 멋쟁이란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맛이라고 표현하였다. **구수한 기질은 순박한데서 오는 큰 맛**이요 예의 규각 연예와 같은데서 오지 않는 맛이다. 그것은 완만한데서 오는 맛이다. 그렇기 때문에 색채에 있어서는 다양적이어서도 안되고 그것은 무기교의 기교라야 한다. (김영기, 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꾸밈, 1977.06)
- 전통주택은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을 준다 (우경국, 개념으로 본 전통주택과 나, 건축문화, 1990.02)
- (동춘당) 고고한 선비의 자태와 같이 단아하며 품위가 있다. 여느 지방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요란함과 호화로움이 없고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려하지 않은 검소함**이며, 자연과 동화하려는 공간의 심성은 곧 기호학맥의 본연인 듯싶다. (박언곤, 자연과 하나 되는 선경의 건축, 부용정, 건축과환경, 1994.06)

- **질박한 외양**과는 달리 서까래, 처마 밑 등의 내부 장식이 섬세하고 화려하다 (윤승아, 문화재를 찾아서(16) 경북 예천 권씨 종택, 경향신문, 1997.05.03)
- 구형(構形)의 뚜렷하고 꾸밈이 없는 **솔직함과 간결함**이 건축개념의 순수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7)
- 조선 전기 사대부집의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맛이 한껏 배어있다 (윤승아, 문화재를 찾아서(16) 경북 예천 권씨 종택, 경향신문, 1997.05.03)
- **소박 간결한 유교적 건축미**를 보이고 있다 (이연재, 문화재를 찾아서(19) 소수서원, 경향신문, 1997.05.24.)
- **장중한 중에도 아담한** 맛이 떠도는 것이 이 탑파의 예술적 감흥이다. (고유섭 전집 2, p.52; 권영필 외,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 2005, p.70에서 재인용)
- 외관이 아담하고 친근감이 가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생각할 때 대부분의 한국건축은 **인간적 척도**를 가지는 건축 (윤장섭, 한국건축사, 1975, p.20)
- **공간의 인간적 스케일**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2)
- **찌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으면서 답답하지도 호들갑스럽지도 않은 크기로** 너그러운 아름다움과 멋의 본보기 (최순우, 최순우 전집 2, 1922)
- **아담한 초가와 오밀조밀한 돌담길**이 포근한 옛정취를 듬뿍 풍겨줘 마치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은듯한 느낌을 주는게 민속마을 찾는 맛 (김양삼, 전통미 배우며 옛정취 즐긴다, 경향신문, 1989.02.23, 8면)

#### ◎ 곡선미, 율동미

- 선의 **아름다움**은 실로 사랑에 굶주린 그들 마음의 상징 (柳宗悅, 朝鮮人を想う, 1919.5, 전집 6, p.27)
- **은일적 소유기분의 곡선**이요 **강개적 유연한 기분의 곡선** (고유섭, 한국건축미술사 초고, 1964, p.18)
- 정세한 중에 창경함을 잊지 아니하고 **장중한 속에 운율**을 잊지 아니한다. (고유섭 전집 2, pp.313-317)
- **무애자재의 유창한 선**을 기조로 하여 구성된 청초한 자태 (윤장섭, 한국건축사, 1975, p.24)



- 한국미는 정지된 아름다움이기보다는 **움동성**을 나타내는 **곡선의 아름다움** (조요한, 한국미의 조명, 1999, 열화당, p.23)
- **유려하고 나는 듯한** 아름다운 지붕형태 (윤장섭, 한국의 건축, 1996, p.26)
- **날아갈 듯한 처마의 곡선**이며 묵직함을 느끼게 하는 대문들, 그리고 중세 양반 집들에서 볼 수 있는 담장이 한껏 고풍스러워 보인다. (고태우, 개성의 민속마을, 건축세계, 1995.08)
- 추녀와 그 주변에 부채살처럼 펼쳐진 선자서까래가 이루어 내는 **곡선과 움동미의 조화** (장순용,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건축과환경, 1993.05)
- **웃깃의 곡선**이 지붕처마의 곡선과 유사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처마의 곡선은 부드럽게 하늘로 뻗어 올라감으로써 내부공간이 외부로 확산해서 연장되어 나가는 반면에 무한한 외부공간이 내부로 유연하게 스며들고 있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8)
- **백제 건축의 곡선**은 가장 경쾌한 것이었으며 신라 건축의 곡선은 경쾌하면서도 무게가 박힌 것이었고 고려와 리조건축의 곡선은 이것을 전승하면서도 더욱 장중한 느낌을 주게 된 것과 같은 것이다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1956, p.36)
- 실내공간은 자연공간의 연장으로서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닌 자연그대로의 개념이 실내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념적이고, 애매하며, 자연적이며 순수하고 기교가 없는 우리의 의식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만곡선의 개념**이 이를 통해 지각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김영기, 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꾸밈, 1977.06)
- 건축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대한 **지붕의 구조는 마치 비상하려는 느낌**을 준다. 처마 끝의 무게를 분산시키고 있는 공포는 **떠있는 구름의 이미지**들로 형상화하고 있다. 사랑채의 난간은 물 위에 **떠있는 연꽃의 상징**들이라든가 궁궐을 오르는 돌계단의 구름무늬들이 비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동정근, 상징체계를 찾아서, 건축과환경, 1993.01)
- **지붕의 날개를 펴고 있는 활기찬 모습**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7, 공간, 1975.03)
- **사뿐한 지붕** (임응식, 종묘, 공간, 1966.11)
- **날씬한 추녀 끝**이 정원 위에 멋진 곡선을 그려준다 (임응식, 낙선재, 공간, 1966.12)
- 겹겹이 교차하는 **지붕들의 멋떨어진 곡선** (임응식, 낙선재, 공간, 1966.12)
- **처마의 우아한 곡선미**는 우리의 독특한 맛이 있고 그 **고상한 기풍**은 이저지지아니 하는 것이다 (박동진, 우리 주택에 대하여(9), 동아일보, 1931.03.27, 4면)
- 직선의 목재가 모여 이룬 **곡선의 미학**은 한국예술의 정수인 기하학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다 (김석철, 건축가 김설철씨가 본 ‘무량수전’, 동아일보, 1996.12.22, 13면)
- 조선의 건축물은 거의 **레외 없을만큼** 이러한 완만한 곡선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곡

선은 이른바 “정중동(靜中動)”의 “멋”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절약된 동작과 유양(悠揚)한 리듬**을 표현하는 조선의 다른 예술과도 통하는 특징으로 된다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1956, p.34)

- 지붕의 곡선은 그 어느 곡선임을 불구하고 모두 **굵직하고 묵직**하여서 그 완만한 곡선과 더불어 **경쾌하면서도 자못 장중한 느낌**을 준다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1956, p.34)

#### ㉔ 비애미, 섬약미

- 家屋は小規模且低矮 (関野貞, 朝鮮の建築と芸術, 1941, p.5)
- 美術も亦小規模で繊巧華縟 (関野貞, 朝鮮の建築と芸術, 1941, p.6)
- 雄大剛建の氣象に乏しく, 其作り出せる美術も規模狭小にして **纖弱** (関野貞, 朝鮮の建築と芸術, 1941, p.5)
- 조선의 역사는 그 예술에다 남모르는 쓸쓸함과 슬픔을 아로새긴 것 . . . **비애의 미** (柳宗悅, 朝鮮の友に贈る書, 柳宗悅全集6, 1981, pp.42-43)
- 우아로 통하는 섬약미는 색채적으로 단조로운 것과 곁들여 **적조미**를 구성하고 있는데, (고유섭, 조선 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 한국미술문화사논총, 1974, p.6)
- 담백하고 유난하여서 어딘지 모르게 현세에 집착하지 않은 적요한 아름다움, 즉 **적조미** (윤장섭, 한국건축사, 1975, p.26)
- **어리석은 듯하면서도 따스하고, 쓸쓸한 듯하면서도 멋진 점** (최순우, 한국미술사, 경기도 지, 1957, p.154)
- 나는 조선의 예술, 특히 그 예술의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 선의 아름다움은 실로 그들이 사랑에 굶주린 마음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답고 길고길게 굽는 조선의 선은 실로 **연연하게 호소하는 듯한 그들의 마음**, 바로 그것인 것이다. 그들의 원한도 그들의 기도도 그들의 희구도 그들의 눈물도 그 선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늘어난다. (중략) 그 씩씩한 심정과 무엇인가에 동경하는 고뇌스러운 정을 아름답게도, 또 알맞게도 그렇게 길다랗고 우아한 선에 여미어 넣었던 것이다. (유종열, 조선인을 생각함. 요미우리신문, 1919.05.20-24; 김종헌, 전통성 표현에 관한 해석-지붕, 꾸밈, 1986.10에서 재인용)
- 말하기 어려운 온갖 **원망이나 슬픔, 그리고 동경**이 얼마만큼이나 은밀히 그 선을 따라 흐르고 있을 것인가 그 민족은 그럴듯하게도 선의 은밀한 의미에 그러한 심정의 표현을 의탁한 것이었다. (유종열, 조선의 친구에게 보내는 글, 개조, 1920; 김종헌, 전통성 표현에 관한 해석-지붕, 꾸밈, 1986.10에서 재인용)

- 변화하며 복잡하고 강인한 면이 비교적 적으며, **담백하고 유연하여서** 어딘지 모르게 **현세에 집착하지 않은 적요한 아름다움, 즉 적조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윤장섭, 한국건축사, 1972, p.26)
- 일본은 합리적, 지적인, 인위성을 보이거나 한국은 이와는 정반대의 개념을 나타낸다. **자연적이고, 감정적이고, 관념적이고 우울하고 점잖고, 관용적이고, 비기교적인 의식**이 한국공간의 특성이라고 여겨진다. (김영기, 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꾸밈, 1977.06)
- 적막감이 감도는 무아의 경지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2, 공간, 1974.04)
- 적요와 명량이라는 두 개의 모순된 성격이 동시에 성립 (고유섭, 조선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 춘추, 1941.07)
- 자금성에 있는 태화전보다는 약간 작지만 선조의 **섬세함**과 형태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훨씬 우수하다. (중략) 조선 건축물의 특징인 섬세하게 잘 계산된 지붕의 경사, 또 상부 구조의 조화를 도모하여 배치된 무수한 공포나 첨차의 장식에 의해 시원스레 뻗어 나온 지붕과 기단의 연결, 이러한 것은 동아시아의 어느나라에서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다. (에카르트, 권영필 역,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2003, pp.52-53)
- 형태가 형태로서 완형을 이루지 못하고 음악적이고 율동적이고 선적인 점에, 우아에 통하는 **섬약미**가 있고, 다시 또 생동성이 있다. (고유섭, 조선 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 한국미술문화사논총, 1974, p.6)
- (석복헌) 좁은 공간을 지나치지 않고 문양을 베푸는 **꼼꼼함**이 다른 장소에서 보이는 대범함과 조화되는 한국 특유의 멋이 아닐 수 없다. (장순용, 세월의 뒤편길에 선 낙선재, 건축과환경, 1994.05)
- (석복헌) **작은 것으로 전체를 인상지우는** 공교함 (장순용, 세월의 뒤편길에 선 낙선재, 건축과환경, 1994.05)
- 질박한 외양과는 달리 서까래, 처마 밑 등의 내부 장식이 **섬세하고 화려하다** (윤승아, 문화재를 찾아서(16) 경북 예천 권씨 종택, 경향신문, 1997.05.03)

㉔ 고전미, 단순미, 절제미

- 조선의 경우, 중국 여성의 전족, 일본의 분재와 같은 불구의 미를 이상으로 삼지 않고, 항상 아름다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각**을 지녀 **고전적**으로 표현한다. (에카르트, 권영필 역,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2003, p.20)
- 이 조선 탐<sup>42)</sup>은 **구조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고, 사방의 입구가 **힘찬 부조**로 장식돼 있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에카르트, 권영필 역,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2003, pp.106-107)
- 조선의 청자, 특히 상감이 되어 있는 것은 다시금 고귀한 선과 변화가 풍부한 형식, 명확하지만 억제된 장식에 대한 섬세한 감각, 색조의 **품위 있는 절제** 및 훌륭한 시술 등의 관점에서 두드러진다. (에카르트, 권영필 역,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2003, p.375)
- 고려도자를 뛰어나게 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장식의 사용에 **유례 없이 절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전적인 양식의 완전함과 표현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다. (에카르트, 권영필 역,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2003, p.293)
- **단순하고 수려한** 그 모습에는 실로 의지의 미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가, (중략) 그 얼마나 **단순하고도 태연한** 모습으로 땅 위에 가로 놓여 있는가. (야나기 무네요시, 조선을 생각한다, p.199)
- 옥개의 완만한 경사는 **강경미**를 갖고 비례 좋은 중층은 건물 전체에 매우 **안정한 맛**을 가하였다. (고유섭, 한국건축미술사 초고, pp.163-164)
- 찼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으며 답답하지도 호들갑스럽지도 않은 크기도 **너그러운 아름다움과 멋의 본보기** (최순우 전집 5, p.23)
- **간박 단순한 아름다움** (최순우; 조요한, 한국미의 탐구를 위한 서론, 미학·예술학연구 (9), 1999, p.22에서 재인용)
- 답답한 색감의 해화미 (최순우; 조요한, 한국미의 탐구를 위한 서론, 미학·예술학연구 (9), 1999, p.22에서 재인용)
- **단순하고 건실한** 맛의 주심포 (강봉진, 한국건축의 전통과 계승에 관한 소고, 대한건축학회 30주년기념 논문집, 1975)
- **지붕의 단소로움**에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섬세한 구성미를 연출 (김희춘, 한국의 건축적 전통, 대한건축학회 30주년기념 논문집, 1975)
-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보여주는 듯한 은은한 멋 (장순용, 설계원점으로서의 한국전통주택, 건축문화, 1990.02)
- **단조롭고** 선명하여 건축적 표현에서는 현대건축방식이 다분히 가미되어 있다 (임응식,

42) 분황사 석탑

종묘, 공간, 1966.11)

- **고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임응식, 낙선재, 공간, 1966.12)
-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보여주는 듯한 은은한 멋 (장순용, 설계원점으로서의 한국전통주택, 건축문화, 1990.02)
- **단순하고 단엄한 그 자태**에는 의지의 미가 표현되어 잊지 아니한가 (柳宗悅, 장차 일케 된 조선의 한 건축을 위하여(1), 동아일보, 1922.08.24)
- 대지에 누을 **건고하고 안전한 미** (柳宗悅, 장차 일케 된 조선의 한 건축을 위하여(1), 동아일보, 1922.08.24)
- 그다지 끈덕지지도 기름지지도 않으며 그다지 나약하지도 거만스럽지도 않다. (최순우, 최순우 전집 2, 1992)
- 표현이 정력적이라기보다는 온전 **소직**하고 호들갑스럽다기보다는 **은근**해서 꾸밈새가 적다. (최순우, 최순우 전집 2, 1992)
- 조촐한 꽃처럼 연연하면서도 **맵자한** 앳된 맵시 (최순우, 최순우 전집 2, 1992)
- **고담한 맛** - 그렇다, 조선인의 예술에는 무엇보다 먼저 고담한 맛이 숨어 있다. (중략) 호방한 기개와 웅장한 화면이 없는 대신에 가장 반도적인, 신비적이라 할 만큼 청아한 맛이 숨어 있는 것이다. (김용준, 회화로 나타나는 향토색의 음미<하>, 동아일보, 1963.05.06)
- 비원의 가장 아름답고 이조시대의 고급생활주택 구조를 **풍아하게** 보여주는 연경당 풍경 (이구열, 한국의 속제(7) 문화재 보존, 경향신문, 1965.04.05, 4면)
- 한국건축은 주요건물들이 모두 독립되어 있고 평면이 모두 장방형의 **정연한 형태**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7)

#### ① 장중미, 경쾌미

- 백제 건축의 곡선은 가장 경쾌한 것이었으며 신라 건축의 곡선은 경쾌하면서도 무게가 박힌 것이었고 고려와 리조건축의 곡선은 이것을 전승하면서도 더욱 **장중한** 느낌을 주게 된 것과 같은 것이다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1956, p.36)
- 옥개의 완만한 경사는 **강경미**를 갖고 비례 좋은 중층은 건물 전체에 매우 **안정한** 맛을 가하였다. (고유섭, 한국건축미술사 초고, p.164)
- **웅장하고 당당한** 기분을 준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2, 공간, 1974.04)
- **장대한 광화문** (柳宗悅, 장차 일케 된 조선의 한 건축을 위하여(1), 동아일보, 1922.08.24)

- 광화문이며 **웅대하도다** (柳宗悅, 장차 일케된 조선의 한 건축을 위하여(1), 동아일보, 1922.08.24)
- **거대하고 견고한** 화강석으로 넓히 축조하얏으며 그 우에 전통을 잘 직히는 중층의 건물 (柳宗悅, 장차 일케된 조선의 한 건축을 위하여(1), 동아일보, 1922.08.24)
- 경주의 문화가 당조(唐朝)의 모방에서 훨씬 더 나서 조선 특유의 **우려전아(優麗典雅)**한 예술역에 잇그러내인 창작임을 볼때에, 누가, 남대문의 **웅려한 위관**을 대할적에나 불국사의 배치와 그 석원(石垣)에서 석굴암의 “돔” 안에서도 우리의 위대한 건축가를 부인할 수 잇스라 (박동진, 우리 주택에 대하여(6), 동아일보, 1931.03.20, 4면)
- **장중한 외관**은 당시 찬란했던 고려건축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말하여 주는 듯하다 (김재섭, 국보순례(50) 부석사 무량수전, 동아일보, 1963.01.21, 6면)
- **경쾌하면서도 장려하고**, 번잡한 듯 하면서 균형을 이룬 그 모습 (한허주, 국보순례(60) 불국사 다보탑, 1963.02.07, 5면)
- **장중하고 우아한 건축미**에서 이들은 조상들의 슬기와 기개를 새삼 느끼곤 한다 (박연섭, 한국의 얼굴(6) 국보 제1호 남대문, 동아일보, 1976.02.03)
- 지붕의 곡선은 그 어느 곡선임을 불구하고 모두 **굼직하고 묵직**하여서 그 완만한 곡선과 더불어 **경쾌하면서도 자못 장중한 느낌**을 준다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1956, p.34)
- (화엄사, 해인사)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층단 위에 세움으로써 밑에서 보는 **건물의 위용**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다. (중략) 석계와 층단의 석축구조가 건물과 별개가 아닌 하나의 연관된 유기적 구조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밑의 공간에서 건물을 쳐다보면 층단 앞의 넓은 공간을 인식하지 못하며 웅장한 건물로 보인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57)
- 한국건축의 이미지는 **중후한 지붕**에서부터 시작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8)

#### ㉠ 친근함, 너그러움, 익살

- **흰 빛깔**과 공예미술에 표현된 **둥근 맛**은 한국적인 조형미의 특이한 체질의 하나 (최순우, 최순우 전집 5, 1922)
- 조선조 조경문화의 **담백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윤선도의 세연정지와 양산보의 소재원 등 (정충식, 한국 전통조경 문화의 특징과 변천 및 계승, 공간, 1988.10)
- 우리 주가의 외관은 그야말로 너무나 **“로맨틱”** 하다 (박동진, 우리 주택에 대하여(9), 동아일보, 1931.03.27, 4면)

- 건물 하나하나를 보면 독립된 정연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사람이 손을 뻗어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인접된 상호건물은 돌출된 지붕에 의해서 공간의 격화감(隔和感)과 건축형태의 시각적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8)
- 그것은 **친근함**의 작품이다. 사랑을 그리워하는 작품이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언제나 부르고 있다, 사람의 정을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중략) 그것은 정의 아름다움이 낳은 예술이다. 친근감, 그것이 그 미의 본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柳宗悅, 朝鮮の友に贈る書, 柳宗悅全集6, 1981, p.45)
- 우리 건축의 민족적 특색을 한마디로 말하여 토실토실한 것을 요구한다, 단정하고 아담한 것을 요구한다, **토실토실하고 단정하고 아담하다**는 특색은 형태상으로는 곡선, 혹은 의취로 나타나고, 양적으로는 묵직한 맛이 있고, 규모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멋없이 커 보이거나 왜소한 것이 아니라 크거나 작거나 짜임새가 있어 보이는 인상을 갖게 한다. 이리하여 우리 건축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연환경에 알맞게 아늑하고 따뜻한 맛을 주게 되는 것이다. (김용준 전집 5, pp.174-175)
- **친근감을 주는 척도개념** (윤장섭, 한국의 건축, 1996, p.24)
- 사물 표현에서 대담한 생략과 왜곡과 과장을 자연스럽게 다룬 솜씨와 둥근 것이 지니는 좌우대칭에 대한 무신경, 그리고 이지러진 **둥근 맛이** 주는 공간미 등은 한국 공예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익살**의 세계이다. (최순우, 최순우전집 1, 1992)
- **너그러움과 익살** (최순우, 최순우전집 1, 1992)
- 고요한 **익살**의 아름다움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1994)
- 한국건축의 미적 특징을 논할 때 **세부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인 미적 구성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였다고** 정의한다. (윤장섭, 한국건축사, 1972)
- 한국건축이나 한국의 조형 등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아류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중 몇 가지는 상당히 뛰어난 것들도 있습니다. **전체가 있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거대한 실체**, 즉 미립자 속에 우주의 모습이 담겨 있듯이 건축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철, 토론:건축가 김석철의 현실과 이상, 건축과환경, 1993.09)
- 세부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인 미적 구성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큰 맛을 나타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입체적인 깊이 있는** 것이며, 천박하고 경망한 것과 교혜로운 점이 없다 (윤장섭, 한국건축사, 1972, p.26)

## ㉞ 무기교의 기교, 대칭적 비대칭

-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보다 더 평이한 기물은 없을 것이다. 극히 평범한 모습이다. **무엇 하나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며, 어디 하나 기교가 있는 것도 아니다, 평범함에** 서 이것보다 더 평범한 것이 있겠는가. (야나기 무네요시, 조선을 생각한다, p.313)
-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고유섭, 고유섭전집 3, 1993, p.17)
- 적요와 명량이라는 두 개의 모순된 성격이 동시에 성립되어 (중략) 질박, 둔후, 순진이 형태의 파조라는 것을 통하여 ‘**어른 같은 아해**’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고유섭, 조선 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 한국미술문화사논총, 1974, p.7)
- **정제된 중에 창경함을 잊지 아니하고 장중한 속에 운율을 잊지 아니한다.** (고유섭 전집 2, 1993, p.313)
- **어리석은 듯하면서도 따스하고, 쓸쓸한 듯하면서도 멋진 점** (최순우, 한국미술사, 경기도지, 1957, p.154)
-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 (최순우, 우리나라 미술사 개설, 새벽, 1955.)
- **비균형적인 건물의 배치**는 중국의 방사형과는 매우 대조적이며 한국의 독특한 양식 (임응식, 낙선재, 공간, 1966.12)
- **내부공간의 외부공간**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78)
- **대칭적 비대칭성**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78)
- (안영배) 한국의 공간은 **정조의 격조와 산조의 서정**이 함께함을 주목한다, 그래서 한국의 공간은 용의주도한 흐트러짐, ‘+ 산조’라는 것이다. (박길룡, 한국현대건축의 유전자, 2005, PP.163-165)
- 심리적인 풍성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며, 이점을 ‘미완성의 미’라 표현하기도 하나 그보다는 ‘**단순함 속의 자유분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 (장순용,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건축과환경, 1993.05)
- (낙선재)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는** 절제된 구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장순용, 세월의 뒤안길에 선 낙선재, 건축과환경, 1994.05)
- 중국의 지붕이 장중하리만치 무겁고 일본의 경우 곡선이라기보다는 끝에서 약간 치켜올린, 좀 암체스러운 곡선인데 비해 우리의 고전은 알맞은 곡선으로 바로 **중용의 미덕** (안병익, 김종업의 작품과 건축관에 대해, 건축문화, 1993.04)
- 한국의 실내곡선은 직선의 범주 안에 속하면서도 직선이 아니며 곡선이면서도 뚜렷한 곡선이 아닌 **모순성과 애매성**을 갖고 있다. (김영기, 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꾸밈, 1977.06)
- 배치의 **불규칙적인 질서**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18)



- **내부공간적 외부공간**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0)
- 주요공간이라고 불리우는 공간은 모두가 내부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외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원성**이 있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0)
- 중정은 각 방을 이어주는 **매체공간**이면서 내부공간인 대청마루와 함께 주택의 주요공간으로서 이것은 단순히 건물 밖의 외부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공간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0)
- 대칭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비대칭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1)
- **대칭이면서 비대칭**이고, 반대로 **비대칭이 되는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1)
- 건축의 실용적 기능과 자연의 형이하학적인 **비대칭적 요소가 대칭을 지향하려는 형이상학적 건축개념**과 타협하며 이루어진 **중용적 사상**의 결과가 아닌가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1)
- **개방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지닌 함축성 있는 공간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54)
- **정제성과 비정제성의 병존** (임승빈, 정원구성, 공간, 1984.11)
- 균형미의 원천을 자연에 두고 있는 동양인중 중국인은 형태미를 일부러 균형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찾았고, 한국인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으로 **균형의 파괴를 형태미의 불가결한 요인으로 보았다** (강병근, 동양인의 세계관과 한국인의 건축관, 건축세계, 1995.07)

#### ① 공간의 연속

- **연속적 공간체계와 위계성**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16)
- 하나의 방향성을 이루어 그 축선에 따라 연속적으로 공간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건축의 **심연성과 신비성**을 높이는 방법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16)
- 공간의 **연속성**과 함께 깊이 들어갈수록 공간은 점차 위로 흐르면서 건물들의 레벨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건물의 레벨이 높아지고 이것으로 건물의 **위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16)
- **선형적 공간형식과 연역적 사고**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17)
- 한식주택의 중정은 확실히 지붕은 없으나 내부공간으로 쓰였으며 이 공간은 창문이 없는 대청마루까지 깊숙이 **침투**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6)
- 지붕의 깊은 처마는 **공간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데 큰 구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6)

공간, 1998, p.27)

- 양면으로 개방된 대청마루를 통하여 중정과 후원이 동시에 보이면서 두 공간이 **내부공간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한국건축의 특성 중 하나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27)
- 유인감을 느끼게 되며 변화되며 진입하는 과정이 전혀 **지루함이 없이 즐겁게 전개**되는 것이 과정적 공간의 특색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38)
- **매채공간**이라고 하면 (중략) 통로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주요한 공간 속의 일부로서 융합되어 있으면서 단조롭기 쉬운 주요공간에 유연한 탄력을 부여**하면서 공간의 유기적 결합에 더 큰 역할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38)
- 부정형한 공간은 **자극적이면 동적**이어서 정연한 공간과 공존할 경우 **지루한 감을 없애고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50)
- 시점의 이동으로 공간의 중심이 이동될 때 공간은 **유동성**을 띄게 되며 아울러 **다양성**도 느끼게 된다. 시각적으로 은폐된 공간은 미지의 공간으로서 미지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공간의 여백**이기도 하다. 여백은 **풍요성과 탄력감** 마저 느끼게 하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건축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음악 그리고 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52)
- (경복궁, 불국사) 잘록하게 이어지는 절점을 계기로 공간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절도있게 이어진다**. 이 절점을 통해 들어가면 갈수록 공간은 **심연함**을 느끼게 된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56)
- (경복궁 교태전, 강녕전)내외공간의 **엇물림**은 건축적 공간성을 높여주는 우수한 방법이며 좁고 한정된 **내부공간을 외부에까지 확장**시키거나 **외부공간이 내부에까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의 신축성 또는 탄력성**을 부여 (중략) **완충적** 공간은 내부에서 외부로 또는 외부에서 내부로 이전할 때 중간과정의 역할을 하므로 **전이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60)
- (해인사, 도갑사)건물군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축에 의하여 상호간의 연관성**을 이루고 있다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98, p.70)
- 세부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인 미적 구성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큰 맛을 나타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입체적인 깊이 있는** 것이며, 천박하고 경망한 것과 교혜로운 점이 없다 (윤장섭, 한국건축사, 1972, p.26)

## 2) 초기 한옥미학 어휘의 갈래와 특징

### □ 주요 술어의 기원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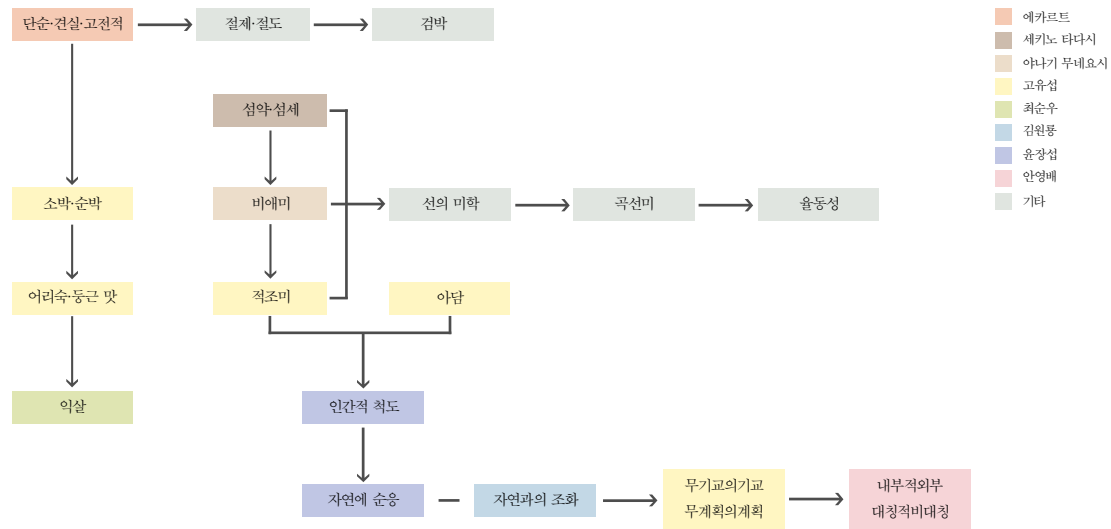
주요 저작의 분석을 통해 추출한 한옥미학 주요 술어에는 몇 가지 주요한 개념들이 특징적으로 드러났으며, 서술의 흐름에 따라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의미가 이동·확장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세키노 타다시(関野貞)로부터 유래한 섬세미, 섬약미 계통의 술어는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의 비애미를 거쳐 고유섭의 적조미로 이어진다. 쓸쓸한 느낌의 술어들은 조형에서 면과 색보다는 선의 미학을 설명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유연한 곡선을 사례로 들면서 율동성을 또 하나의 미학술어로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고유섭에 의해 강조되었던 소박미, 순박미 계통의 술어는 한국민족에 대한 따뜻한 긍정적인 시선이 반영된 미학개념으로서 어리숙하고 둥근 모습과 통했으며, 최순우에 의해 둥글고 너그러운 익살의 미학으로 발전했다. 고유섭의 무기교의 기교는 한옥미학의 생산사적 특징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초석이 되었다. 안영배가 구체화시킨 한옥공간의 내부공간이면서 외부공간인 특징, 한옥 배치의 대칭적 비대칭성 등은 모두 무기교의 기교 혹은 무계획의 계획에서 발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 아담하면서도 격조를 갖는 건축적 특징은 윤장섭 등에 의해 인간적 척도로 정의되었으며, 자연에 순응한 결과로 이해되었다.

자연과의 조화는 초기 한옥미학으로부터 중요시되었던 개념으로서 무기교의 기교가 한국미의 특징이 되어야했던 더욱 근원적인 기초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김원룡은 이를 미추의 세계를 이탈한 미 이전의 미로 파악했으며 한국미의 특색으로서 자연주의를 정의했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 인위적인 기교를 적게 쓰는 시공방식 등은 한옥미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한편 에카르트(Eckardt A.)의 평가처럼 한국미술의 단순하고 견실한 아름다움은 고전적이라는 술어로 표현되었다. 단순하고 견실한 아름다움은 소박미, 순박미 계통의 미학과 통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절제, 절도의 강직함으로 이어졌으며, 유학적 세계의 선비 정신과 통할 수 있는 검박함의 미학으로 발전했다.



[그림 3-1] 주요 술어의 발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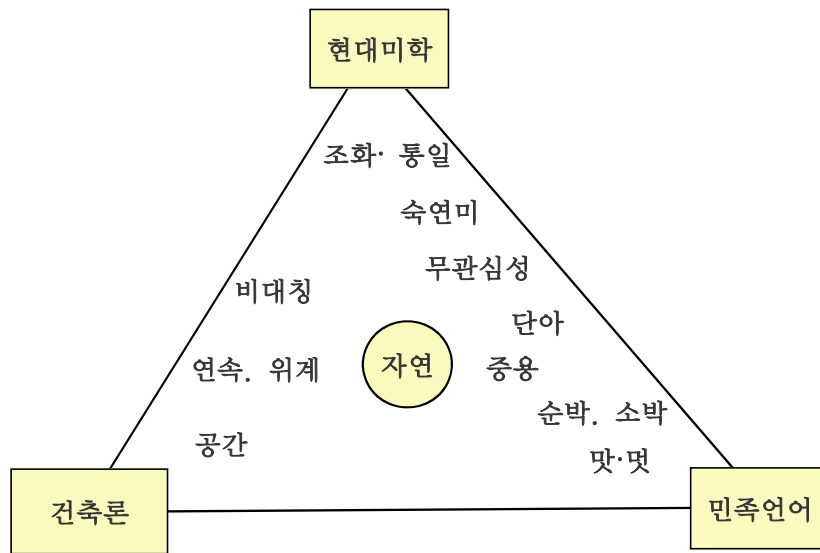
#### □ 학제적 계통에 따른 어휘의 분포

한옥미학 술어의 학제적 계통을 검토해보면, 크게 현대미학에서 추출된 어휘와 건축 이론에서 추출된 어휘, 한국어의 전통에서 추출된 어휘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들이 서로 조합되면서 다양한 의미로 확장·전이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현대미학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미적 범주에는 ‘숭고 le Sublime’, ‘비장 le Tragique’, ‘골계 le Comique’, ‘우미 le Grâce’, ‘미 le Beau’, ‘추 le Laid’ 등이 있다. 이들은 다양하게 번역되거나, 대응하는 고유어로 대체된다.

현대건축론의 어휘는 미적인 특징을 곧바로 드러내기 보다는 미적인 특징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구성’, ‘형태’, ‘리듬’, ‘조화’, ‘척도’ 등 현대미학의 대상이 되는 어휘들이 사용되어 그것의 유무로써 미적 가치를 판단한다. 특히 건축에서는 ‘공간’의 특질을 언급하는 서술이 발달되어 있다.

현대미학의 주요개념에 대응하는 고유어로서, 혹은 현대미학이 포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고유어를 활용한다. ‘구수한’, ‘어리숙한’ 등의 형용사라든지 ‘맛’, ‘멋’ 등의 어휘가 대표적이다.



[그림 3-2] 한옥미학 술어의 학제적 계통 분포

## 2. 현대 한옥미학의 대상과 성격

### 1) 현대 한옥미학의 주요대상

한옥미학 서술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에서 추출한 한옥미학술어가 실제로 유효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해보았다.

분석 대상으로는, 국보로 지정된 건축물 23개와 앞서 진행한 문헌 조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서술빈도가 높고 학술적으로 분석 가치가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는 객관적 조사가 가능한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상 건축물명을 키워드로 노출빈도를 분석하였으며, 조사에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는 「동아일보」(1920년 창간)와 「경향신문」(1946년 창간)이다. 노출빈도 분석은 대표적 건축물명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창간 이후로부터 1999년까지이다.

[표 3-1] 신문 데이터베이스 키워드 검색 결과

통합검색		제목검색		제목검색 > 섹션 지정(사회, 생활/문화)		제목검색 > 섹션 지정 > 기사 내용 검토	
대상	합계	대상	합계	대상	합계	대상	합계
(남대문)	20054	(남대문)	1516	(남대문)	604	부석사	11
경복궁	5798	경복궁	465	경복궁	260	불국사	9
종묘	4358	종묘	378	종묘	233	소쇄원	7
창덕궁	2535	해인사	278	해인사	185	법주사	5
불국사	2505	불국사	261	불국사	174	경복궁	4
해인사	2392	창덕궁	234	창덕궁	148	(남대문)	4
통도사	1161	법주사	124	통도사	80	수덕사	3
송광사	902	송광사	118	송광사	74	종묘	3
법주사	798	통도사	116	법주사	65	화엄사	3
창경궁	726	창경궁	88	창경궁	52	금산사	2
화엄사	643	금산사	72	도산서원	48	병산서원	1
수덕사	596	부석사	66	부석사	46	도갑사	1
금산사	471	화엄사	66	화엄사	36	봉정사	1
도산서원	372	도산서원	56	금산사	33	송광사	1
부석사	346	수덕사	53	수덕사	30	송례문	1
송례문	235	송례문	30	소쇄원	22	창덕궁	1
봉정사	101	소쇄원	22	송례문	17	통도사	1
은해사	98	화암사	11	화암사	7	도산서원	0
도갑사	97	도갑사	8	도갑사	6	무위사	0
소쇄원	89	봉정사	7	은해사	6	은해사	0
무위사	89	은해사	6	봉정사	5	창경궁	0
화암사	84	무위사	4	무위사	4	해인사	0
병산서원	59	병산서원	2	병산서원	2	화암사	0

통합검색 결과, 건물명이 포함된 주변 공공시설 관련 기사 및 사건·사고, 주변 행사 등 건축물 자체가 대상이 아닌 기사가 대부분으로 분석에 필요한 기사 추출을 위해 상세 검색단계를 거쳤다. 첫 단계로 건물명을 키워드로 통합검색을 실시하고, 그 후 제목검색, 섹션 지정 검색의 순으로 범위를 좁혀갔다. ‘사회’, ‘생활/문화’ 섹션으로 검색 범위를 좁혀도 문화재, 도난, 비리, 권력 갈등 등 사건·사고 관련 기사가 주류를 이루어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사 내용을 검토하였다. 내용 검토를 거친 대상 중, 전문가에 의한 서술 및 평가 문헌이 풍부하고, 학술적으로도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로 부석사, 불국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쇄원 총 5개의 건물을 선정하였다.

## 2) 현대 한옥미학 서술의 실례

선정과정에서 수집한 신문기사와 한국의 주요 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서술한 저서를 중심으로 앞서 선정한 5개의 건축물에 대한 한옥미학 서술을 분석하였다. 신문은 “국보순례”(동아일보), “한국의 재발견”(경향신문) 등 고건축 관련 연재를 많이 다룬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저서는 안영배, 유홍준, 김봉렬, 김개천 등의 저서를 참고하였다.

기사 및 저서 내용을 바탕으로 미학적 가치 판단이 들어간 서술을 추출한 결과, 각 건축물의 특징이 주요 키워드로 정리되었다.

[표 3-2] 현대한옥미학 서술 실례조사 참고 저서

저자	저서명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1978) 「흐름과 더함의 공간」(2008)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1994-1997)
김봉렬	「한국건축의 재발견」(1999)
김개천	「명목의 건축」(2004)

## ① 분석사

[표 3-3] 분석사 서술의 주요 키워드

주요 키워드	내용	
자연과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세, 지형과의 조화</li> <li>• 차경</li> <li>• 경관의 극적 전개</li> </ul>	
	어휘: 통창, 송고, 고요, 지고, 아늑, 쾌적	
구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가구의 구조미</li> <li>• 돌 쌓는 솜씨와 목조건물의 조화</li> </ul>	
	어휘: 정제, 경쾌, 간결, 웅결, 장중, 의젓, 단정, 깨끗, 능률, 완박, 우아	
곡선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렵한 처붕 처마</li> <li>• 직선 부재를 통해 곡선의 아름다움 표현</li> </ul>	
	어휘: 날렵, 단아, 유연, 우아, 절제, 율동	
공간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하게 변화되는 공간전이</li> <li>• 가까이 갈수록 조금씩 무량수전이 모습을 드러내는 일종의 암시 효과</li> </ul>	
	어휘: 치밀, 유연, 통쾌	
중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절된 축으로 두 건물이 겹쳐 입체적 중첩 효과</li> </ul>	
	어휘: 입체, 활력	
비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솟음, 안솔림 등 착시 현상까지 배려한 비례</li> <li>• 황금비, 완벽한 비례</li> </ul>	
	어휘: 정미, 치밀, 안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적균제</li> <li>• 선(禪)적 건축</li> <li>• 무량수전의 건축적 성격은 '완결성' 과 '절제'</li> </ul>	출처 1. 김봉렬(1999), p.78 2. 안영배(2008), p.115 3. 안영배(2008), p.107 4. 안영배(2008), p.99



## [자연과의 조화]

- 풍요로운 자연의 서정과 빈틈없는 인공의 질서를 실수없이 읽어내고, 무량수전 안양루에 올라 멀어져가는 태백산맥을 바라보면 소스라치는 기쁨과 놀라운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 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p89
- 부석사의 아름다움은 모든 길과 집과 자연이 이 무량수전을 위해 제자리에서 제 몫을 하고 있는 절묘한 구조와 장대한 스케일에 있는 것, 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p89
- 부석사 돌출대는 자연과 인공을 하나로 융화시킨 더 높은 원융의 경지, 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p97
- 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구성,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64
- 자연지세를 시지각적 경험으로 연계시킨 위계적 질서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건축물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전체를 구축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69
- (안양루) 산과 함께 측면에서 보게하여 편안하게 응시할 수 있는 웅대한 건물 이 되어 스스로 크고 화려하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69
- 숭고하며 고요하고 지고의 자연미와 본연의 실상으로 천지와 통한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73
- 주변의 자연지형과 함께 조화,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93
- 극적으로 전개되는 아름다운 건축경관,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93
- 안양루 밑의 긴 누하계단을 올라 무량수전 앞뜰에서 맞이하게 되는 장쾌한 자연경관,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93
- 무량수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영역이 동쪽에 보이는 석탑과 우거진 숲까지 확대되면서 안양루 밑의 넓은 뜰을 포근히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99
- 주변 지형에 부드럽게 융화되는 서정적이고 유연한 여성미가 느껴진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16
- 그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일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함께 활력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19

- 대자연 속에 이렇게 아늑하고도 눈맛이 시원한 시야, 최순우(2002)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pp78-79
- 안양루의 전망은 홀연히 심심 모두가 해방의 기쁨을 느끼게 한다, 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2」 p65
- 수려한 경관과 함께 무량수전 앞뜰에서의 차경효과를 극대화시킨 건축의도,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20
- 주변의 자연 지세가 아늑하고 쾌적한 공간을 형성,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21
- 불교의 이상경과 한국의 자연, 그리고 돌 쌓는 솜씨와 목조건물이 오묘하게 조화된 한국미의 극치, 경향(1985.10.24) “그 터<18> 자연미 그대로 살리 태백산 부석사”
- 다듬지 않은 부조화속에 자연미를 내는 한국미의 극치, 경향(1985.10.24) “그 터<18> 자연미 그대로 살리 태백산 부석사”
- 자연과 인공이 완벽한 조화, 동아(1996.12.12) “천년건축(28) 부석사 무량수전”
- 자연을 살리되 인간의 치밀한 계산과 완벽한 구조로 효과를 극대화한 가람배치, 동아(1996.12.12) “천년건축(28) 부석사 무량수전”
- 인공을 넘어서 자연과의 합일을 이뤄낸 고도의 기법, 동아(1996.12.12) “천년건축(28) 부석사 무량수전”

#### [구조미]

- 범종루와 안양문이 하늘로 날아가듯 날개를 펴고 있다,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174
- 거목으로 착재 없이 면을 골라 쌓은 석축단은 웅장하여 보는 이를 감동케 한다,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174
- 주심포집인데 공포장치는 아주 간결하고 견실하게 짜여있다, 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p98
- 길고 굽은 나무와 짧고 아기자기한 부재들이 중첩하면서 이루는 변화있는 조

화로운 구성에서 눈밖은 사람들은 선율을 읽는다, 장과 단의 울동이 거기에 있다, 신영훈;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p99

- 정제된 구조적 아름다움,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64
- 여러 단의 석단으로 나뉘어 구축,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71
- 정제된 구조미,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93
- 중후한 지붕을 사뿐히 받들고 있는 목가구의 경쾌하고 간결한 구조미,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15
- 우아한 양식, 동아(1967.11.18) “사상의 고향(9) 부석사”
- 공포 장치 역시 간결 견실하다, 동아(1996.12.12) “천년건축(28) 부석사 무량수전”

#### [곡선미]

- 기둥에는 현자한 배흘림이 있어 규모에 비해 흰칠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p98
- 날렵한 지붕 처마의 곡선미,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15
- (무량수전) 단아한 곡선과 늠름한 기품, 경향(1996.10.31) “테마여행/27 천년고찰 부석사 무량수전”
- 붉은 노을을 타고 흐르는 유연한 곡선이 마치 자비로운 부처님 마음 같아, 경향(1996.10.31) “테마여행/27 천년고찰 부석사 무량수전”
- 절제된 곡선미, 동아(1996.12.12) “천년건축(28) 부석사 무량수전”
- 직선의 부재를 통해 곡선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동아(1996.12.12) “천년건축(28) 부석사 무량수전”
- 곡선의 환상적인 울동은 한순간 보는 이의 넋을 빼앗아가기에 충분, 동아(1998.03.04) “직선의 목재로 빛은 곡선의 미학”

#### [공간전개]

- 여러 구성 요소에서 치밀한 시각적 조정,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71

- 천왕문을 들어서면 무심한 듯 정교한 돌길과 장대한 석축 위의 회전문 터가 적조의 빈 공간으로 다가온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69
- 다양하게 변화되는 공간전이,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93
- 안양루를 지나 동선이 오른쪽으로 유도되면서 유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자연스러운 공간 유도 방식,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14
- 수많은 석단들로 인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진입 과정이 이곳 경관을 더욱 통쾌하게 만들고 있음,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20
- 가까이 갈수록 조금씩 무량수전이 모습을 드러내는 일종의 암시 효과, 동아(1996.12.12) “천년건축(28) 부석사 무량수전”
- 계단 자체를 독립적인 요소로 취급하는 한편, 폭을 점점 좁히는 미세한 기법으로 안정성을 부과,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83

#### [중첩]

- 안양루와 그 뒤에 본전인 무량수전이 하나의 건물처럼 겹쳐서 아름답게 보인다,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174
- 무량수전과 안양루가 중첩된 빼어난 장면,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64
- 평면적으로 굴절된 축과 함께 단면적으로 조성된 대석단이 아래위 두 절을 입체적으로 중첩시키는 효과,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80
- 안양루와 무량수전이 이루는 건축경관은 참으로 환상적이다,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봉황새가 언덕 위에서 하늘 위로 날아갈 듯이 활개치고 있는 듯한 모습,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98
- 건물들이 입체적으로 보여 건축공간의 활력을 느끼게 한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99
- 범종루와 안양문이 하늘로 날아가듯 날개를 펴고 있다,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174

## [비례]

- 건물의 비례나 디테일의 아름다움,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174
- 무량수전은 귀솟음, 안솔림 등의 착시 현상까지 배려한 비례와 정미한 형태로 의도,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71
- 아름답고 예민한 비례감각,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15
- 간결한 구조미와 착시 조정 그리고 황금비로 분할되는 아름다운 비례감각,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16
- 완벽한 비례와 조화, 기능과 구조의 아름다움,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91




## [기타]

- (안양루와 무량수전 사이) 안정(安靜)되고 친근한 공간감,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174
- 동적인 균제,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174
- 아름답다는 형용사로는 분석사의 장쾌함을 담아내지 못하며, 장쾌하다는 표현으로는 정연한 자태를 나타내지 못한다, 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p89
- (조사당) 단칸 맞배지붕 주심포집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p108
- (응진전과 자인당) 번잡하고 수다스러운 모습,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89
- (조사당) 단아하고 정제된 조사당의 감각,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89
- 무량수전의 건축적 성격은 ‘완결성’과 ‘절제’로 요약,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91
- (안양루) 시선도 가지 않을 듯한 박미로 무한을 발현하는 누마루 아래의 화엄세계,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70
- (안양루는) 고유의 존재성은 사라지고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 이 존재하는 명백한 선(禪)적 건축,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71
- 안양루는 그 모든 의지에서 벗어나 평안과 화평 그 자체,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71
  - 동적균제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99
  - 완박코 응결함, 동아(1937.10.30) “이일소선기 부석사 탐승(중)”
  - 안계의 통창함, 동아(1937.10.30) “이일소선기 부석사 탐승(중)”
  - 참으로 엄청난게 장엄한 건물, 동아(1937.11.02) “이일소선기 부석사 탐승(하)”
  - 장중한 외관, 동아(1963.01.22) “국보순례(50) 부석사 무량수전”
  - 의젓한 모습, 동아(1965.06.17) “부석사”
  -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나아가 조화의 차원을 넘어서 아름다움, 동아(1996.12.12) “천년건축(28) 부석사 무량수전”
  - 더하고 뺄 것 하나 없는 완벽함, 동아(1998.03.04) “직선의 목재로 빛은 곡선의 미학”
  - 얼른 보면 단정하고 깨끗할 뿐 특별한 화려함이나 기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 동아(1998.03.04) “직선의 목재로 빛은 곡선의 미학”

## ② 불국사

[표 3-4] 불국사 서술의 주요 키워드

주요 키워드	내용	
구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구조와 석조구조의 조화</li> <li>• 입체감을 가진 조소적 구성</li> <li>• 운제의 조형성</li> <li>• 재료의 한계를 극복한 목구조의 석조 변환</li> <li>• 아랫단은 자연미나게, 윗단은 인공미나게 쌓은 석축</li> <li>• 자연미로부터 인공미에로의 체계성 있는 변화</li> </ul>	
	어휘: 순수, 풍요, 장엄, 화려, 입체, 웅장, 순박, 구수, 조화, 질서, 안정, 율동, 해화	
곡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구조 공포) 마치 하늘위로 날아갈 듯 활개 치는 새의 날개깃</li> <li>• (돌계단 소맷돌 측면) 옷깃의 선맛, 소매 끝 곡선</li> <li>• (지붕) 상큼하게 반전한 맵시</li> </ul>	
	어휘: 화려, 우아, 견실	
공간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친 형태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li> <li>• 공간의 드라마틱한 전환을 위한 석계 설치</li> </ul>	
	어휘: 안정, 친밀, 승화, 드라마틱, 상쾌, 쾌적	
동적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칭적 비대칭</li> <li>• 계단, 석탑의 대칭적 균형</li> <li>• 실제 좌우대칭이 아니나 모든 시점에서 변화하는 대칭적 형태</li> </ul>	
	어휘: 안정, 장대	
자연과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 인공을 대비하면서 조화</li> </ul>	
	어휘: 공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케일</li> <li>• 비례</li> </ul>	<p>출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영배(2008), p.182</li> <li>2. 유홍준(1997), p.295</li> <li>3. 안영배(2008), p.169</li> <li>4. 유홍준(1997), p.275</li> </ol>

## [구조미]

- 석조구조도 잘 다듬어서 목구조를 본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부의 목구조와 잘 조화되며 층단이 완전히 건축화되어 밑에서 보면 굉장히 웅장한 건물처럼 보인다,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160
- 산비탈을 평지로 환원하기 위한 엄청난 축대를 쌓아야 했다. 그것이 불국사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아름다움,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285
- 불국사 건축의 아름다움은 석축으로부터 시작된다,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286
- 석축은 대단히 복잡한 구성이어서 현란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복잡하고 현란한 구성이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정연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286
- 불국사는 목구조를 석조로 변환해 표현함으로써 신선한 아름다움을 얻었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1」 p29
- 회랑 밑으로는 석단과 운제가 화려하게 구축되어 있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65
- 범영루 지붕을 쳐다보면, 지붕의 윗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화려한 목구조의 공포가 마치 하늘 위로 날아갈 듯이 활개치고 있는 새의 날개깃처럼 보인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73
- 불국사 석단의 구조미(중략)와 함께 금당원에 이르는 진입과정에서 훌륭한 건축 파사드를 충분히 잘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간이 유도되고 있다 (중략) 건축공간의 구성적 측면에서 볼 때 높이 평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p175-176
- 석단 구조에는 의장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화려한 부조나 장식적 문양이 거의 가미되지 않았다. 순수한 구조적 표현만으로도 풍요로운 건축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불국사의 조형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76
- 불국사가 다른 사찰에 비해 유달리 장엄하면서도 화려해 보이는 것은 저면의 높은 석단 구조물 때문,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77



- 석단구조의 결구방식이 상부 목구조와 유사하여 상하부가 조화를 잘 이루므로써 불국사의 건축미가 높이 평가되는 중요한 요인,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77
- 운제가 불국사 건축에서 지니고 있는 조형성은 대단히 높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79
- (연화교, 칠보교) 상부 구조물인 안양문에 비해 운제의 총 높이가 약간 낮고 규모도 작아서, 두 구조물이 이루는 정면 파사드는 친근감과 안정감을 주는 매우 우아한 구성,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71
- (석단) 순박하게 쌓아올린 크고 작은 갖가지 돌이 서로 구수한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 돌을 이용한 건축의 멋을 한껏 돋보이게 하고 있다, 동아(1976.03.16) “한국의 얼굴<11>호국의 절 불국사”

#### [곡선]

- 대웅전 정면으로 오르는 돌계단의 소맷돌 측면의 살짝 공그른 곡선의 아름다움이다. 마치 옷깃의 선 맛을 낸 것 같고, 소매 끝의 곡선 같기도 한데 그 날카로운 듯 부드러운 아름다움엔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일고, 그런 미세한 아름다움을 구사한 옛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놀라움이 일어난다,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p295-296
- 석가탑은 무엇보다도 지붕돌이 상큼하게 반전한 맵시가 일품,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296

#### [공간전개]

- (청운교, 백운교) 이 사이의 계단 참 부분은 옆으로 넓직한 여유있는 공간을 두어 위의 계단부분에 안정감을 주었으며,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160
- 대웅전 앞의 석등이 맨 먼저 친밀하게 전면으로 다가서나다, 지붕이 안보이고 건물의 밑 부분만이 개구부에 딱 차게 보이기 때문에 내부공간으로 연결된 듯해서 더욱 친밀감을 주는 것 같다,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160
- 독자적이면 폐쇄적인 부분 영역들은 자체적으로 완결된다.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부분들은 다시 불교의 거대한 교리적 우주관에 의해 위계가 결정되고 관계가 설정된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1」 p48

- 거친 형태로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연지에 비친 물밑의 하늘로도 뻗은 견고한 대지의 장엄한 석조 기반으로, 위와 아래로 오를수록 날아오를 듯 승화되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적 해법,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209
- 서쪽 진입로를 따라 한참 걷다보면 건축경관이 활연히 전개된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68
- 백운교와 청운교를 올라가 자하문에 이르는 공간은 진입과정에서 공간전이의 절정을 이루는 곳이다. 공간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전환되도록 운제라는 높은 석계를 설치한 것이다, (중략) 종교적인 의도와 함께 최종 단계로의 공간전이 감을 최고조로 높이려는 건축적 의도,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74
- (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단참이 양옆으로 확장되어 이에 대한 시각적 인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긴 계단 형태에 변화를 줌으로써 단조로움을 크게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중략) 널찍한 석단구조물이 전면의 벽 밖으로 돌출되고 이곳에 공간영역이 형성됨으로써 공간성이 높아지고 불국사 정면에는 기복이 있는 입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중략) 정면의 회화적 구성이 입체감을 가진 조소적 구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면 광장의 공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81
- (금당원) 지반면보다 층단을 높게 조성하면 시야가 넓게 트여 상쾌하고 쾌적한 공간감을 느끼게 된다. (중략) 공간의 위계도 훨씬 높아지고 아울러 불국토를 뜻하는 종교적 상징성도 높아졌다. 또한 이곳에서는 낮은 층단 위에 형성된 건축공간에서 느끼기 힘든 별천지 같은 공간감을 느끼게 된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84
- 화랑 안 공간에서 두 개의 석탑으로 다양하게 연출되는 건축경관의 효과는 대단히 크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89

#### [동적균제]

- 자하문 밑을 지나서면 대웅전의 현판과 지붕이 차차 전체 모습을 나타내며 양

옆의 두 개의 큰 석탑이 추녀 밑으로 보여 금당원의 안정된 공간을 의식하게 된다. 이 두 전의 석탑은 자하문 옆의 두 익루와 함께 대칭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어 더욱 안정감을 준다,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160

- 참배객들은 실제 좌우대칭이 아니나 모든 시점에서 변화하는 장대하고 완전한 대칭적 형태를 보게 된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213
- (쌍탑) 배치 상으로는 대칭이지만 형태가 다르다는 비대칭적 요소도 함께 있으므로 ‘대칭적 비대칭’이라고 볼 수 있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91

### [자연과의 조화]

- 부석사는 자리 앉음새가 뛰어나고, 선암사는 건물과 건물 간의 공간 운영이 탁월하며, 불국사는 돌축대의 기교와 가람배치의 묘가 압권,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274
- 불국사처럼 자연과 인공을 대비하면서 조화를 구한 절은 달리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본,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p274-275
- 경사지를 두 개의 단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석축을 쌓았는데 아랫단은 자연미나게 쌓았으며 윗단은 다듬은 돌로 모두 인공미나게 쌓았다. 그리하여 단순한 가운데서 변화를 주며 또 자연미로부터 인공미에로의 체계성있는 변화를 안겨 오게 하였다,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 제1권」 p286
- 크고 작은 자연괴석들과 잘 다듬어진 장대석들을 자유롭게 다루면서 장단 맞춰 쌓아올린 이 석단의 짜임새를 바라보면 안정과 율동, 인공과 자연의 멋진 해화에서 오는 이름 모를 신라의 신비스러운 정서가 숨 가쁘도록 내 가슴에 즐거운 방망이질을 해주는 것이다, 최순우(1994)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pp287-288
- 나지막한 두 산의 중간에 터를 잡아 유난히 수평적이며 수직적인 확장이 두드러진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209
- 자연 그대로의 큰 돌로 쌓아올린 아랫단과 이마돌을 끼워 다듬은 돌로 쌓은 윗단의 이중적 석단은 자연과 인공의 신비로운 조화에 앞서 석단 위의 누각과 상의적 관계에 있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209

## [기타]

-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금당원이 (중략) 가장 훌륭한 주요공간이다. 이 중정의 크기는 약 24x40m이며 짧은 축이 약 80척이 약간 넘는데도 크게 친밀감을 주는 것은 대웅전의 지붕높이는 약 13m이므로 자하문과의 거리의 비는 1:2 정도이기 때문이고 또 건물의 추녀가 깊은 것과 주열이 있는 회랑, 그리고 양옆의 두 개의 큰 탑이 적당한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160
- (다보탑과 석가탑) 그 균형잡힌 스케일 때문에 대웅전의 주요공간을 활기차게 충만시키고 있다,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p160-161
- 한국사람은 부석사의 호방스러운 기상을, 일본사람은 선암사의 유현한 분위기를, 서양사람은 불국사의 공교로운 인공의 멋을 높이 평가,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274
-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에서 인공미를 최대한 구가했는가 하면 크고 잘 생긴 듬직한 자연석을 그대로 기반부로 삼는 대담한 여유를 보여주기도 했다,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p286-287
- 정연한 비례관계 때문에 불국사에서는 어느 절에서 볼 수 없는 정연한 기품이 살아나고 있는 것,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294
- 석가탑의 아름다움은 바로 우아한 부드러움이 있으면서도 견실한 힘이 느껴지는 이런 디테일의 묘에 있는 것,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297
- 재료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미학을 창출,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1」 p29
- 대웅전 일곽은 규모도 가장 크고 호화롭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1」 p48
- 중문 위치에서 보이는 대웅전과 쌍탑에 대한 시지각적 배려가 잘 되어있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186
- 이번 복원공사로해서 그 찬연한 빛은 더하게 되었다, 경향(1972.11.15) “불국사의 복원을 보고”
- (연화교·칠보교)청운교·백운교가 장대한테 비하여 빈약한듯하나 오히려 우아하다, 동아(1963.02.15) “국보순례(63) 불국사 연화교·칠보교”

- 중창 당시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동도에서 제일이라고 하였다, 동아 (1976.03.16) “한국의 얼굴(11) 호국의 절 불국사”
- 단아하면서도 종교적 장엄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건축물, 동아(1996.05.24) “천 년건축(14) 경주/불국사”

### ③ 도산서원

[표 3-5] 도산서원 서술의 주요 키워드

주요 키워드	내용	
자연과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위적 질서체계보다는 자연지형에 대한 적응성과 건물의 좌향을 우선</li> </ul>	
	어휘: 고담, 정심	
이중적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중축으로 인한 시각적 입체감</li> <li>서당-사당 공간의 서로 다른 이중적 성향</li> </ul>	
	어휘: 검소, 소박, 조출, 조용, 의젓, 존엄	
동적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움직이는 가운데 정한 중의 모습</li> <li>대칭으로 보이기도 하고 비대칭으로 보이기도 하는 평면구성</li> <li>건물 단독으로 보면 무게 중심이 치우쳐 보이나, 전체를 연관시켜보면 동적 균제 이룸</li> </ul>	
공간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폐와 구부러져 들어가는 진입으로 극적 효과</li> <li>축과 진입로를 비틀어 시각적 입체감 확보</li> </ul>	출처 1. 안영배(1978), p.218 2. 안영배(2008), p.25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식과 채색이 없는 검소하고 소박한 건물</li> </ul>	

#### [자연과의 조화]

- 다리 건너 비탈진 산에는 사군자가 있어 자연과 친화하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143
- (연못, 담장) 고담(枯淡)하나 정심(精深)한 노(老)의 경지로 자연을 담고, 집은 작으나 무궁하여 육체와 정신이 자유로운 천방을 불러일으킨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145
- 각 건물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방위도 각기 다르고 지형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질서 없이 다소 산만하게 배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변의 지형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중략) 각기 격리되어 있는 것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방위가 제각기 다른 것은 등고선에 따라 그곳에서의 조망과 통풍에 유리하도록 배치하였기 때문,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p272-273

- 건물을 배치할 때 축선을 설정하거나 방위를 일정하게 하는 등의 인위적 질서 체계보다는 자연지형에 대한 적응성과 각 건물의 좌향을 더 우선한 것,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273

### [이중적 성향]

- 도산서당 시절 건물은 (중략) 위쪽 서원 건물들과는 달리 검소하고 조촐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183
- 서원영역은 아래쪽 서당 영역과는 달리 기둥이 곧고 집의 형태가 의젓하며 사당에는 단청까지 칠하여 그 존엄성을 더하고 있다,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184
- 전교당 앞마당은 사면이 모두 건물들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안정된 공간을 이루고 있다. (중략) 안정된 공간이라고 해서 정적이고 위요성 높은 것만은 아니다, 전교당 좌우로 시야가 트여 있으며, 특히 오른쪽으로는 앞마당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작은 마당이 보이면서 빗방향으로 공간의 흐름이 유발되고 있다. 전교당을 주축으로 하는 강학공간에는 이와 같이 이중적 성향이 공존하고 있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p277-278
- (전교당) 대청으로 보이기도 하고 비대청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279
- 전교당과 그 앞의 통로가 모두 이중성을 지님으로써 전교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학공간도 이중적 성향을 지니게 된 것,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280
-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축선을 다르게 구성함으로써 기념성과 실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었던 것,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282
- 강학공간의 이중적 성향은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우수한 수법으로 인정할 만하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283
- 강당을 주축으로 하는 강학공간 일곽은 주변 건물이 모두 대청으로 정연하게 배치되어 격식과 규범을 중요시 하는 강학공간으로서의 품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277
- (도산서당) 3칸 집이나 4.5칸으로 변화하는 파격적이면서도 단순한 평면은 정

조의 두 가지 면을 성인이 다 가지듯 알게 보는 자유로움과 깊게 느끼는 온후 함으로 마주하는 아름다움으로 장치되어 있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145

#### [동적균제]

- 전체적인 비대칭의 구성은 모든 건물이 각기의 위치에서 주체가 되게 하여 대응수작하는 경의 공간을 실현,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147
- 마치 살아있는 듯 주객체가 바뀌어서 움직이고, 움직이는 가운데 정한 중(中)의 모습이 되어 분리되지 않고 혼용하여 도산서원을 둘러 흐른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147
- 건물 전체 구조나 기단 앞에 대칭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계단을 보면 대칭성이 느껴지는데, 평면 구성은 대칭이 아니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279
- 전교당 건물을 단독으로 보면 건물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편재되어 보이지만, 오른쪽으로 보이는 상덕사의 내삼문과 그 앞의 뜰을 함께 연관시켜 보면 동적균제를 이루고 있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279
- 전교당과 도산서당은 모두 평면 구성이 비대칭이고, 대청마루가 동쪽에 편재되어 있는 점에서 공간구성 상 유사성을 느낄 수 있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280

#### [공간전개]

- 도로에서 불과 100여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이지만 앞의 언덕에 의하여 은폐되어 있고, 길을 구부러져 들어감에 따라 보이게 함으로써 건물을 보는 극적 효과는 유달리 크다,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216
- 건물군이 주위의 언덕에 의하여 완전히 감싸여져 있고 주위를 울담으로 둘러싼데다가 건물마다 그 앞이 에워싸여진 작은 뜰을 가짐으로써 여러 겹으로 싸여진 공간의 중첩성을 느끼게 한다,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216
- 기존 서당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길어진 진입부를 5개의 낮은 단으로 나누어 깊이감을 더욱 강조,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p228-229




- 중심축과 진입로를 약간 비틀어 놓아서 미묘한 시각적 입체감 확보,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229
- 변화가 극심한 공간 속에 입체적인 질서를 부여했고, 그 질서가 워낙 강렬해서 기존 서당부와 신설된 서원부의 영역적 차이를 느낄 틈이 없게 된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229

#### [기타]

- 모두 장식이나 채색이 되지 않은 검소하고 소박한 건물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260
- (전교당) 높은 기단 위에 세워져서 규모에 비해 위엄성이 돋보인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277
- 도산서당의 완락재 1칸 방과 암서헌 마루와 끊어진 담과 작은 연당은 줄박순소하나 범상하지 않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143
- (퇴계의) 철학이 미로 발휘된 듯 씻은 듯이 느껴지는 청결한 쾌는 검박하고 고요한 그 이상의 정서를 주재한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145
- (도산서당)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작은 건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건축적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고 다양하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213

#### ④ 병산서원

[표 3-6] 병산서원 서술의 주요 키워드

주요 키워드	내용	
자연과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풍경과 건축공간의 융합</li> <li>• 경관을 끌어들이는/ 끌어안는 공간</li> </ul>	
	어휘: 수려, 우아, 상생, 융합, 평화, 무한, 조화, 통일	
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어있음으로 가득할 수 있는 프레임</li> <li>• 만대루 = 매개체, 투명구조물</li> </ul>	
공간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과 건물의, 건물과 마당, 건물과 자연의 중첩이 연속적으로 펼쳐짐</li> <li>•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연속적, 중첩적 형태</li> <li>• 공간의 트임과 닫힘</li> <li>• 긴장과 이완</li> <li>• 축소와 연장</li> <li>• 단절과 연결</li> <li>• 폐쇄와 개방성</li> </ul>	 
	어휘: 패적, 단순, 단절, 독립, 연속, 중첩, 대칭, 비대칭, 긴장, 이완, 축소, 연장, 질서, 구속, 연결, 폐쇄, 개방, 평온, 포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로운 무형의 질서</li> <li>• 질서는 있으나 구속은 없는</li> </ul>	출처 1. 유홍준(1997), p.152 2. 김봉렬(1999), p.51 3. 안영배(2008), p.364
	어휘: 외향성, 연속, 중첩	

#### [자연과의 조화]

- 입교당에서 보면 양 옆의 두 건물 사이를 완전히 막으면서 이 건물의 지붕과 지동사이로 넓게 퍼져 모이는 전방의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226
- 누상 공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서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매체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p226
- 건축 그 자체로도 최고이고, 자연환경과 어울림에서도 최고이며, (중략) 거기

에 다다른 진입로의 아름다움에서도 최고이다,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 p148

- 빼어난 강산의 경관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며 배치했다는 점에서 건축적·원림적 사고의 탁월성을 보여준다,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153
- 건축적 장치를 해야 이 자연공간이 건축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 만대루이다,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153
- 주변의 경관과 건물이 만대루를 통하여 혼연히 하나가 되는 조화와 통일이 구현된 것, 유홍준(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p156
- 자연환경과 환경에 대한 탁월한 대응, 범상한 건물들이 모여 이루는 공간의 긴장과 흐름, 그리고 단순한 구성이 엮어내는 다양한 장면들에서 건축적 가치를 찾아야 할 것,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15
- 병산서원 전체를 주변 자연과 맺어주는 매개체는 다름 아닌 만대루의 존재,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25
- 입교당이라는 강당 대청마루에 앉아서 병산 쪽을 바라볼 때, 만대루와 함께 이루는 경관이 참으로 인상적,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57
- 건축물과 자연풍경을 별개로 분리해서 보면, 그렇게 뛰어난 자연풍경도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경관도 아니다. 그런데 이 두 요소가 서로 교묘하게 만남으로써 자연풍경도 더욱 수려해 보이고 건축경관도 유달리 우아하게 돋보인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58
- 건축공간과 자연풍경의 이러한 만남은 단순히 조화의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상생적 융합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58
- 자연풍경과 건축공간의 융합을 주도하고 있는 매개물이 만대루,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58
- 전방을 가로막고 있던 병산을 만대루가 안산이 됨으로써 좀 더 멀리 보이는 조산이 된 셈,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60
- 만대루는 시야를 가로막는 구조물이 아니라, 있되 있는 것이 아닌 투명구조물 같은 존재,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p360-361

- (만대루) 만대루 밖의 무한한 자연공간과 만대루 안의 건축공간을 구분하는 구조물로서 양자 사이에서 공간의 흐름을 유발시키고 있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61
- 만대루는 자연공간과 건축공간을 융합시키는 중요한 매개체,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61
- 만대루 누상은 공간의 유한함과 무한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곳,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62
- 병산서원에서 보는 경관은 평화롭고 무한한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63
- 만대루가 들어섬으로써 공간의 트임과 닫힘이 적절히 공존하는 쾌적한 공간이 되었고, 만대루 너머로 보이는 자연경관과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공간이 될 수 있었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72
- 이곳의 건축공간은 완전한 기하학적 공간이 아니다, 완결된 건축공간을 지향하되, 자연환경과 융합하는 비완결의 건축공간인 것,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73
- 사방이 툇 터진 이 공간은 개방과 함께 병산이 자연경관을 누다락의 시각적 틀을 통해 한번 걸러 서원 내부로 끌어들이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경향(1994.09.02) “문화유산의 재발견(10) 경북안동 병산서원”

#### [비움]

- 만대루는 외부 경관에 대한 시각적 틀이다. (중략) 만대루 자체만 보면 공허한 건물이지만, 자연과 인공의 관계 속에서 비어 있음으로 가득할 수 있는 프레임이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51
- 동서재의 뒷마루와 만대루의 수평으로 긴 빈 공간은 무한공간이 되어, 그 사이로 보이는 병산을 없는 듯 비어있게 하여 산음으로 시야를 맑게 띄운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27

#### [공간전개]

- 건물과 건물이 중첩되며,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각 때문에 건물과 마당이 중첩

되고, 다시 바깥의 자연경관이 중첩되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펼쳐진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27

-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형태는 매우 단절적이며 독립적이지만,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형태는 연속적이며 중첩적이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27
- 병산서원의 집합적 형태는 외향적이다,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건축 형태를 가진 것이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27
- (강당군) 마당의 3면을 감싸다가 전면 만대루를 통해 완전히 개방하는 수업은 하나의 공간에 긴장과 이완을 함께 붙여넣고 있다. 팽팽히 조여진 공간적 긴장감은 만대루의 프레임 안으로 빠져나가면서 발산되는 것,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p40-41
- (강당군) 이 영역을 엄격하면서도 평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은 적절히 구사된 스케일 (중략) 축소와 연장, 유한과 무한의 스케일들이 되면서 강당 마당에 복합적인 성격을 부여,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41
- 세 공간(강학공간, 제향공간, 주소공간)의 구성축은 제각기 조금씩 틀어져 있다, (중략) 그림에도 전혀 산만해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매우 유연하게 배치된 공간구성으로 보인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65
- 복례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비어 있고 양옆으로도 연속적 허의 체계를 이룩하여 속박하는 체계를 느낄 수 없다. 그러나 입교당에 이르는 질서적 위계는 스스로 다잡는 긴장을 낳는다. (중략) 입교당 사각마당의 공간적 틀은 점차 낮아지므로 거스름이 없고, 허만 남은 마당에선 밝은 빛이 나와 황량한 우주를 평온하게 포용한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28
- 누마루 밑을 통해 올라가는 극적효과가 내포된 누하진입, 경향(1994.09.02) “문화유산의 재발견(10) 경북안동 병산서원”
- 공간의 단절과 연결, 폐쇄와 개방성이라는 대립적 의도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엄숙하면서도 더없이 활달하고 풍요로운 공간감을 연출, 경향(1994.09.02) “문화유산의 재발견(10) 경북안동 병산서원”

## [기타]



- 매우 평범한 건물에 불과하다, 병산서원의 가치는 건물의 구조나 형태에 있지

않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15

- 전체 영역군은 비대칭의 형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세 영역은 모두 개별적으로 거의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 (중략) 병산서원이 갖는 가장 뛰어난 점은 바로 대칭적인 부분들을 비대칭적으로 집합시켰다는 것이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3」 p38
- (만대루) 좌우대칭의 위계이나 끝없이 비어있어 자유로운 무형의 질서,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20
- (만대루) 질서는 있으나 구속은 없고 좌우로 멀리 있는 산을 긴 건물로 가까운 듯 아득하게 품는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24
- 병산서원은 구속함으로써 오히려 소리조차 없는 자유를 안겨준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28
- (만대루) 정면에서는 강직하나 측면에서는 곡직한 기둥만으로 모든 것을 포섭하여 균등하게 나눈 듯한 예목의 공간,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27
- 평범한 형태와 색칠 없는 목재의 순수성은 푸른 하늘의 밝은 해처럼 감추어진 것이 없는 명확한 구도와 같고 (중략) 무색의 질료성은 오히려 청빈하나 범접할 수 없는 성인을 마주한 듯하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29
- 만대루 지붕면의 두께는 좌우에 있는 동서재의 지붕면보다 얇고 양자 간의 비례도 매우 적절하다, 이 지붕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길어서 수평성이 충분히 강조되지만, 좌우 건물 아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녀선이 이러한 특징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71
- (만대루) 짙은 회색의 기와 질감으로 중후함이 느껴지면서도 누상공간이 트여있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매우 경쾌해 보인다, 안영배(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p371
- 한국 서원건축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미를 보여주는 곳, 경향(1994.09.02) “문화유산의 재발견(10) 경북안동 병산서원”
- 복례문을 들어서면 7칸의 누다락인 만대루가 압도하듯 늘어서 있다, 경향(1994.09.02) “문화유산의 재발견(10) 경북안동 병산서원”

## ⑤ 소쇄원

[표 3-7] 소쇄원 서술의 주요 키워드

주요 키워드	내용	
자연과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 소리를 활용한 청각적 정원</li> <li>• 밝음과 어두움, 빛과 그늘의 반복과 조합</li> <li>• 청각을 얻기 위한 물길은 지극히 인공적</li> <li>• 인공을 가하여 자연과 인공의 조화공간 창출</li> <li>• 지형의 수직적 효과 잘 활용</li> </ul>	
	어휘: 유현, 청명, 깨끗, 시원, 침잠, 고담, 선명, 명징, 고요, 담백, 청정 수려, 겸손	
통합과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평적으로 전개되는 동적 레벨과 정적 레벨을 수직적으로 통합</li> <li>• 면을 나누는 개방적 단면으로서의 담장</li> <li>• 스크린과 오브제 역할을 동시에 충족하는 담장</li> <li>• 외부와는 차단하고 내부에는 아늑한 공간 창출</li> </ul>	
	어휘: 아늑, 온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적 시각구조</li> <li>• 연속적이며 상호 투시적인 치밀한 구성</li> </ul>	출처 1. 김개천(2004), p.158 2. 김봉렬(1999), p.62

### [자연과의 조화]

- 청각적인 정원이며,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입체적인 정원이며, 궁극적으로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적 정원,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52
- 담장이 인공적인 중심요소라면, 물은 자연적인 중심요소,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74
- 소쇄원의 물은 소리로 듣는 물 (중략) 이러한 청각 효과를 얻기 위해 소쇄원의 물길은 지극히 인공적,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74
- (광풍각)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는 공간으로 탈절범속하고 유현한 청명함이 물 소리와 함께 차올라 모든 공간을 적셔온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163
- (광풍각) 소쇄함이 주는 깨끗하고 시원한 쾌한 맛이 두드러진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163

- (광풍각) 마치 선비의 의연한 마음으로 들어가 앉은 듯 단정하여 모든 맑은 소리에서 고요히 침잠함이 고답하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164
- 지극히 자연스러워 자연의 광영 속에서 통연자득하게 하는 이 정원은 사실 치밀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진 인공으로 조형한 정원,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167
- 자연의 풍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곳곳에 인공을 가하여 자연과 인공의 행복한 조화공간을 창출, 유홍준(199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p344
- 인공의 정성과 공교로움을 다하고 있지만 사람의 손길들은 자연을 정복하거나 자연을 경영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 속에 행복하게 파묻히고자 하는 온정을 심어놓은 모습, 유홍준(199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p346
- (담장) 절묘한 개방성이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인공의 겸손, 유홍준(199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p346
- 경관이 빼어난 계곡을 중심으로 주위를 한바퀴 돌 수 있도록 터를 잡고 대문이 없는 흙돌담을 쌓아 외부와 차단하고 내부에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다, 경향(1994.04.29) “한국의 정원(3) 전남 담양 소쇄원<상>”
- 수려한 자연·겸손한 인공미, 경향(1997.07.19) “문화재를 찾아서(27) 담양 소쇄원”
- 자연과 인공의 빼어난 조화로 조선중기 민간 정원의 백미를 자랑, 경향(1997.07.19) “문화재를 찾아서(27) 담양 소쇄원”
- 인공미를 최대한 자제하고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려고 애쓴 곳, 경향(1998.11.04) “대숲·자연의 별유천지 ‘소쇄원’”
- 정자와 사랑채 등이 산만하거나 호사스럽지 않고 자연스럽다, 경향(1999.09.29) “송각 정철 가사문학의 고향 소쇄원”
- 어느것 하나 빠지면 안되도록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아(1983.07.14) “옛멋이 물씬 전통 정원 소쇄원”
- 정자가 운치있고 북쪽 토담을 뚫고 흘러내리는 물이 이루는 작은 폭포와 연못, 계류가 항상 상쾌하다, 동아(1992.09.30) “조선시대 정통민간정원 담양 소쇄원”



- 경사면의 적절한 계단식 처리, 기능적인 공간구획, 변화있는 담장의 선 등 장식적이면서도 자연의 멋을 살린 조경, 동아(1992.09.30) “조선시대 정통민간정원 담양 소재원”

## [통합과 분리]

- 6개의 많은 영역들로 구성된 치밀함이 돋보이며, 각 영역들을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상호 투시적,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65
- 어느 부분에서도 전체를 인식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부분 영역의 경관과 행위를 즐길 수 있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65
- 지극히 입체적인 정원으로 수직적 레벨을 절묘하게 이용,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65
- 순환적 구성을 위해 우선 자연 계곡에 거의 같은 높이의 석축을 쌓아 현재의 중간단을 만들었다. (중략) 이른바 ‘건축적 산책로’인 셈이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65
- 아랫단이 동적인 행위의 레벨이라면, 윗단은 정적인 관조의 레벨이다. (중략) 그 가운데를 중심 통로가 지나가면서 아래위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다양하고 연속된 경관들이 수평적으로 전개될 뿐 아니라, 수직적으로 분화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p66-67
- (제월당과 광풍각) 극단적인 두 채의 건물을 하나의 경관 속에 통합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들을 분리하는 담장의 솜씨는 더욱 놀랍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68
- 수직적으로 구성하는 요소가 석축이라면, 수평적인 구성 요소는 담장이다. 담과 단에 의해서 소재원의 6개 영역들은 구획되며 동시에 연속된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70
- ‘면을 나누는 개방된 단면’으로서의 담장,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73
- 담장들은 스크린과 오브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73
- 전체의 영역을 나누고 연속시키며, 외부의 다양한 공간들을 만드는 것은 마치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자율적인 벽면’들이다. 소쇄원은 ‘담의 건축, 벽면의 건축’이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73

- (담장) 소쇄원과 지식마을을 갈라놓은 경계 구실을 하고 있지만, 안에서 바라볼 때는 소쇄원을 더없이 아늑한 공간으로 감싸주는 기능, 유홍준(199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p346
- (담장) 외부공간과의 차단, 온화한 내부공간의 조성, 자연에 가한 인간의 손길이라는 3중효과, 유홍준(199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p346

#### [기타]

- ‘기다림’의 염원은 소쇄원 전체 구성에도 중요한 건축적 개념으로 등장한다. (중략) 진입 방향의 근경과 이에 직각 방향을 이루는 원경을 동시에 바라보도록 이중적인 시각 구조를 갖는다. 배치 계획뿐 아니라, 시각 구성도 방문하는 손님의 동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p61-62
- 소쇄원의 공간 구성 수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 빛과 그늘의 적절한 반복과 조합이다, 그 음영의 효과는 공간의 크기 변화에 따라 증폭된다. (중략) 지형의 수직적 효과를 잘 활용한 결과다, 김봉렬(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2』 p78
- 제월당과 광풍각과는 대조적인 이미지로 배치,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164
- (제월당) 어둠과 밝음을 함께 지닌 선명한 명징함으로 높고 고요하며 담백하여 청정하다,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p164
- 제월당은 밝은 사생활 공간이고 사랑방격인 광풍각 주변의 계원은 어둡고 낭만적이면 동적이다, 경향(1994.05.13) “한국의 정원(4) 전남 담양 소쇄원<하>”

### 3) 현대 한옥미학 구성의 성격

#### □ 서술 유형의 분류

대표건축물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옥미학 술어는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서술이 가장 많았으며 모든 건축물에서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었다. 그 밖에 공간 전개, 구조, 곡선 등에 관한 서술이 다양한 술어를 동반하여 표현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서술 유형을 각 특징에 따라 분류해보면 크게 ‘입지’, ‘공간’, ‘형태’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표 3-8] 한옥미학 서술의 세 가지 유형

입지	자연과의 조화, 지형 및 지세에 따른 배치, 풍수, 차경 등과 관련된 서술
공간	대칭적 비대칭, 공간전개, 중첩, 공간의 연결 등 동적요소 즉 3차원적 요소에 관한 서술
형태	곡선, 구조, 비례, 스케일 등 정적요소 즉 2차원적 요소에 관한 서술

#### □ 한옥미학 서술의 특징

각 건축물에 대한 서술을 ‘입지’, ‘공간’, ‘형태’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분석한 결과, ‘입지’와 ‘공간’에 관한 서술은 다섯 가지 사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반면, ‘형태’와 관련된 서술은 부석사, 불국사에서만 나타났다. 한옥미학 서술에 있어서 ‘입지’와 ‘공간’은 필수 항목인데 반해 ‘형태’는 사례에 따라 생략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곡선, 구조, 비례, 스케일 등 건물의 자체의 완결성을 표현하는 ‘형태’ 서술은 한옥미학 표현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아니며, ‘입지’와 관련된 서술과 더불어 축을 활용한 공간 전개, 중첩에 의한 입체적 효과, 대칭적 비대칭 등 움직이면서 보여지는 ‘공간’에 대한 서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표 3-9] 고건축 서술항목 분류

대분류	소분류	부석사	불국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쇄원
입지	지형	●		●	●	●
	풍경	●			●	●
	좌향			●	●	
	재료		●			
공간 (동적요소)	대칭/비대칭	●	●	●		
	축(극적효과)	●	●	●		
	중첩(입체)	●		●	●	●
	연결	●			●	●
형태 (정적요소)	곡선	●	●			
	구조미	●	●			
	비례	●	●			
	스케일		●			

한편, 각 항목을 서술하는데 있어 사용된 어휘를 살펴보면, ‘입지’ 카테고리에서는 ‘풍경’과 관련된 어휘가 풍부한 반면, ‘좌향’이나 ‘재료’의 경우 미적 평가가 미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를 표현하는 어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공간’ 카테고리에서도 ‘연결’과 관련된 어휘는 많은 반면, ‘대칭/비대칭’, ‘축’, ‘중첩’과 관련된 어휘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반면 ‘형태’ 카테고리의 경우 전반적으로 표현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풍경’, ‘연결’, ‘곡선’, ‘구조미’ 등 표현 어휘가 다양하게 붙을 수 있는 항목과 ‘좌향’, ‘재료’, ‘대칭/비대칭’, ‘축’ 등 표현 어휘가 제한적인 항목으로 나뉘지는데, 후자의 경우 해당 요소를 서술하는데 있어 별도의 수식어 없이 항목명 그 자체가 술어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10] 고건축 서술항목 별 표현 어휘

대분류	소분류	표현 어휘				
입지	지형	웅화	서정	유연	여성미	아늑
		쾌적				
	풍경	장쾌	봉황새가 날아갈 듯 활개치는	활력	아늑	시원
		수려	차경	통창	우아	상생
		융합	평화	무한	조화	통일
		청결	검박	고요	고담	정심
		유현	청명	깨끗	시원	침잠
		통쾌	웅대	화려		
	좌향					
	재료					
공간 (동적요소)	대칭/비대칭					
	축(극적효과)	활연	장대			
	중첩(입체)	활력	연속	긴장	흐름	
	연결	포근	유한/무한	유연	트임/담힘	단절/연결
		폐쇄/개방	풍요	활달	치밀	상호 투시
		동적/정적	통합/분리	독립/개방	스크린/오버제	단절/연속
		독립/중첩				
	배치(구성)	유연	단순	정연	위엄	자유로움
		온후				
	기타	활력	쾌적	유한/무한	긴장/이완	예묵
		상쾌	아늑	안정	소쇄	깨끗
		시원	단정	고요	담백	청정
		온화				
형태 (정적요소)	곡선	날렵	단아	유연	절제	윽동
		옷깃의 선 맛	소매 끝 곡선	날카로운 듯 부드러운	미세	상큼
	구조미	정제	간결	착시조정	웅장	정교
		절묘	견실	선율	윽동	단아
		화려	친근	안정	우아	순수
		풍요	장엄	신선	조화	승화
		현란	정연	자연미	인공미	여유
		해화	질서	구수		

대분류	소분류	표현 어휘				
	비례	예민	황금비	안정	친근	치밀
		안정	정미	현칠	정연	
	스케일	장대	균형	활기	친밀	
	기타	날아갈 듯 날개를 펴고	완결	절제	박미	평안
		화평	송고	고요	장쾌	정연
		현칠	완박	웅결	장엄	의젓
		단정	깨끗	중후	경쾌	호화
		우아	부드러움	견실	장려	번잡
		균형	간소	장중	장대	다양
		질서	조화	웅장	화려	단아
		검소	소박	줄박순소		

### 3. 소결

한국미학과 건축사학 등의 주요 저작의 분석을 통해 추출한 한옥미학의 술어에는 몇 가지 주요한 어휘가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세키노 타다시(関野貞)로부터 유래한 섬세미, 섬약미 계통의 술어는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비애미를 거쳐 고유섭의 적조미로 이어진다. 쓸쓸한 느낌의 술어들은 조형에서 면과 색보다는 선의 미학을 설명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유연한 곡선을 사례로 들면서 울동성을 또 하나의 미학술어로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고유섭에 의해 강조되었던 소박미, 순박미 계통의 술어는 한국민족에 대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이 반영된 미학개념으로서 어리숙하고 둥근 모습과 통했으며, 최순우에 의해 둥글고 너그러운 익살의 미학으로 발전했다.

고유섭의 무기교의 기교는 한옥미학의 생산사적 특징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초석이 되었다. 안영배가 구체화시킨 한옥공간의 내부공간이면서 외부공간인 특징, 한옥 배치의 대칭적 비대칭성 등은 모두 무기교의 기교 혹은 무계획의 계획에서 발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 아담하면서도 격조를 갖는 건축적 특징은 윤장섭 등에 의해 인간적 척도로 정의되었으며, 자연에 순응한 결과로 이해되었다.

자연과의 조화는 초기 한옥미학으로부터 중요시되었던 개념으로서 무기교의 기교가 한국미의 특징이 되어야했던 더욱 근원적인 기초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김원룡은 이를 미추의 세계를 이탈한 미 이전의 미로 파악했으며 한국미의 특색으로서 자연주의를 정의했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 인위적인 기교를 적게 쓰는 시공방식 등은 한옥미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한편 에카르트(Eckardt A.)의 평가처럼 한국미술의 단순하고 견실한 아름다움은 고전적이라는 술어로 표현되었다. 단순하고 견실한 아름다움은 소박미, 순박미 계통의 미학과 통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절제, 절도의 강직함으로 이어졌으며, 유학적 세계의 선비 정신과 통할 수 있는 검박함의 미학으로 발전했다.

한편 이들 어휘를 학제적 계통에 따라 구분해보면, 크게 현대미학에서 추출된 어휘와 건축이론에서 추출된 어휘, 한국어의 전통에서 추출된 어휘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들이 서로 조합되면서 다양한 의미로 확장·전이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특히, 현대미학

의 주요개념에 대응하기 위해 혹은 현대미학이 포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고유어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구수한’, ‘어리숙한’ 등의 형용사라든지 ‘맞’, ‘멋’ 등의 어휘가 대표적이다.

위와 같은 술어들은 한옥미학을 구성하는 기초 어휘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해왔다. 그러나 개별 한옥을 설명하기 위해 이들 술어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화재 등 한옥미학의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는 술어들은 대체로 정해져 있으며 일부만이 사용된다. 그러므로 현대 한옥미학의 대상별 술어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곧 한옥미학 술어의 영향력, 다시 말해 한옥미학을 특징짓는 성격의 강도를 측정해볼 수 있다.

신문 기사에 수록된 한국 전통건축의 명칭을 조사해보면, 남대문, 경복궁, 종묘, 창덕궁, 불국사, 해인사 등의 순서대로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미학적 서술이 존재하는 기사로 범위를 좁히고, 전문가에 의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사례로 한정하면, 부석사, 불국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쇄원 등이 한옥미학의 명작으로 손꼽을 수 있는 사례가 된다.

위 5건의 사례를 기술한 단행본과 신문기사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보면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서술이 가장 많았고, 동적 균제, 공간 전개, 구조, 곡선 등 건축미학에 관한 다양한 술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을 지시하는 대상에 따라 구분해보면 크게 ‘자연’, ‘공간’, ‘형태’의 세 가지 카테고리 나눌 수 있다. ‘자연’이란 지형, 풍경, 좌향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한국건축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항목이다. ‘공간’은 3차원적 동적 요소에 대한 서술로, 대칭과 비대칭, 축을 이용한 공간전개의 극적인 효과, 중첩에 의한 입체적 공간감, 공간 사이의 연결관계 등에 대한 서술이 해당된다. ‘형태’는 2차원적 정적 요소에 대한 서술로, 곡선미, 구조미, 비례 및 스케일 등과 관련된 서술이 해당된다.

이들 카테고리에 따라 대표 건축물의 서술을 분석하면, 한옥미학 서술에 있어서 ‘자연’과 ‘공간’은 필수 항목인데 반해 ‘형태’는 사례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형태’에 해당하는 곡선미, 구조미 등은 건축물 자체의 조형적 완결성을 강조하는 어휘인데 이는 건축에서 한국성을 정의할 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병산서원, 도산서원, 소쇄원의 사례에서처럼 건축물의 형태보다는 자연과의 조화와 공간적인 연결 특성이 한옥미학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 제4장 현대 한옥미학의 계통

1. 한옥미학지도의 작성
2. 현대 한옥미학의 계통 분석
3. 한국 현대건축과 한옥미학
4. 소결

### 1. 한옥미학지도의 작성

#### 1) 한옥미학의 도식화 방법론

앞서 조사한 문헌자료에서 추출한 한옥미학 서술어를 바탕으로 술어들 간의 상호 관계, 또 술어와 건축적 근거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관계도를 작성했다. 술어의 도식화는 술어와 술어, 술어와 건축적 근거의 관계 정의를 명료하게 정리함으로써 수많은 술어들 간의 관계를 하나의 틀로 엮어낼 수 있다.

관계 설정 방식은 온톨로지 방법론에 근거해서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다. 온톨로지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한 상호 간 소통을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모델이다. 한옥미학 술어의 분석은 분석대상 문헌의 개수가 많고 사용되는 단어의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적인 비교의 누적으로 전체를 해석하는 작업이 난해하다. 따라서 이 모델에 근거한 관계도 작성은, 수많은 술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점을 정의하기 위해 그 과정의 의미, 지식의 쓰임새 등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 또한 한옥미학 술어의 관계를 또한 새로운 문헌이 추가할 경우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으며, 향후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시맨틱 웹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 온톨로지(Ontology)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이룬 바를 개념적이고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모델로, 개념의 타입이나 사용상의 제약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기술이다.<sup>43)</sup> 주로 인용되는 정의는 ‘어떤 관심 분야를 개념화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정형화한 명세서’<sup>44)</sup>이다. 즉, 각 사물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를 하나의 집합 또는 범주로 나타내기 위해 의미, 지식의 쓰임새 등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 □ ‘미학술어’와 ‘대상·사물’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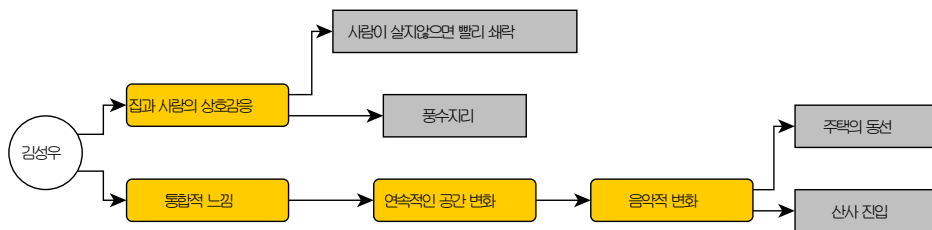
‘미학 개념어’는 한옥의 미적 가치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대상·사물’은 그 가치와 특징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리킨다.



[그림 4-1] 단어의 구분

### □ ‘미학술어’와 ‘대상·사물’사이 관계의 표현

이는 각 기사의 미학적 서술을 논리구조로 변환시키는 작업으로서, 각 기사별 관계도는 한옥미학지도 작성의 기초단위가 된다.



[그림 4-2] 단어 사이의 관계 표현

43) [http://en.wikipedia.org/wiki/Ontology\\_\(information\\_science\)](http://en.wikipedia.org/wiki/Ontology_(information_science))

44) “An ontology is an explicit and formal specification of a conceptualisation of a domain of interest,” Thomas R. Gruber, A Translation Approach to Portable Ontology Specifications, Knowledge Acquisition, 5(2):199–220, 1993. 그루버에 의한 온톨로지 정의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했다.  
<http://www-ksl.stanford.edu/kst/what-is-an-ontology.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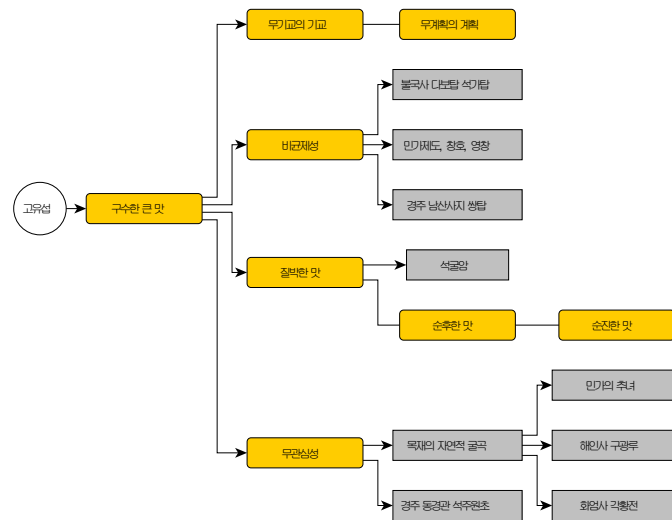
## 2) 한옥미학 도식의 사례

앞에서 서술한 방법론에 근거한 개념어의 관계도를 몇 가지 한옥미학서술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해보았다. 단행본 및 잡지 기사를 대상으로 저자의 미학적 분석이 명확하게 드러난 열 가지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일제강점기로부터 1990년대까지 기사를 고르게 선정하였고, 한국 건축사학의 주요 저자들의 글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일부 건축가의 글도 포함하였다.

[표 4-1] 한옥미학 도식화 대상 문헌

	저자	제목
1	고유섭	“조선 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 『한국미술사급미학논고』, 1940
2	윤장섭	“건축의장계획의 특성”, 『한국건축사』, 1973
3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8”, 『공간』, 1975.04
4	주남철	“한국건축의 특성”, 『한국건축의장』, 1979
5	김동현	“한국건축의 조형”, 『건축사』, 1983.11
6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건축사』, 1987.07
7	김성우	“동양건축에서의 집과 사람”, 『공간』, 1987.06
8	김병윤	“건축원류의 대상규명을 위한 논의”, 『건축문화』, 1990.02
9	우경국	“개념으로 본 전통주택과 나”, 『건축문화』, 1990.02
10	안영배	“한국전통주택의 이미지”, 『건축문화』, 1990.02

① 고유섭(1940), “조선 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 「한국미술사급미학논고」



[그림 4-3] 고유섭(1940), “조선 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 「한국미술사급미학논고」

고유섭(1940)은 ‘무기교의 기교’, ‘질박한 맛’, ‘비균제성’, ‘무관심성’, ‘구수한 큰맛’을 조선미술의 특색으로 꼽았다.

‘무기교의 기교’는 ‘무계획의 계획’과도 이어지는 개념으로, 자각되거나 의도된 기교, 계획이 아닌 구상적 생활 그 자체가 본연적 양식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개성적 미술, 천재주의적 미술, 기교적 미술이라는 것이 발달되지 않고 일반적 생활에서의 생활 미술, 즉 민예가 발달했다고 보았다.

민예로서의 미술은 감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종교이자 생활의 일부였다. 정치하거나 정돈된 맛이 부족한 대신, ‘질박한 맛’, ‘순후한 맛’, ‘순진한 맛’이 뛰어나, 형태가 완형을 이루지 않고 음악적 율동성을 띤 왜곡된 파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 이는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가 조선 예술을 선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도 이어지며, 우아로 통하는 섬약미, 색채적으로 단조한 것들과 곁들여 적조미를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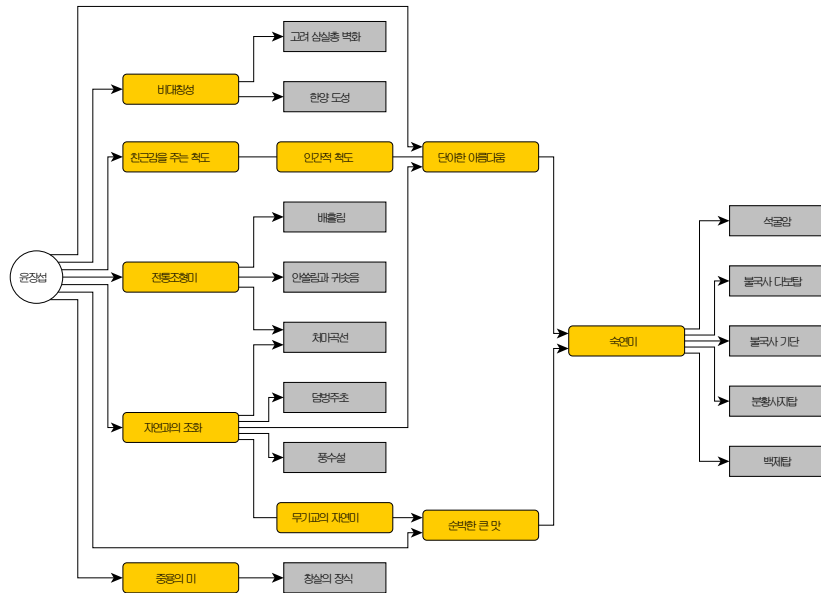
‘비균제성’은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남산사지의 쌍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하나 좌우가 규칙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다보탑과 석가탑의 경우 배치 상으로는 좌우 대칭이나 탑과 그 자체는 서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

성은 ‘민가’나 ‘목공예’에서도 나타나며 이를 공상과 환상의 자유발휘라 불렀다.

‘무관심성’은 건축에서 목재가 원래의 굴곡을 그대로 가진 채 사용되거나, 열주가 부식 되는대로 석주원초로 보강하여 그 길이가 제각각인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가의 추녀’에서 기교적으로 깎아내지 않은 자연대로의 굴곡진 목재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엄사 각황전’, ‘해인사 구광루’ 등에서도 다듬지 않은 본모습 그대로의 목재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무관심성’이 마침내 자연에 순응하는 심리로 변하는 것이라 하였다.

‘구수한 큰 맛’은 조선미술의 상반된 모순의 미를 표현한 특색이다. 작은 맛과 큰 맛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작은 데서 오는 예술성이 ‘단아’라면 ‘큰 맛’은 단아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 조선미술에는 ‘단아’와 ‘큰 맛’이 공존한다. 이러한 모순의 유래에 대해서 고유섭은 ‘단아’는 자연의 제약에서 오는 면이고 ‘큰 맛’은 생활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였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뤄 ‘구수한 큰 맛’을 이루는 것이며, 이러한 모순의 공존은 적조와 유머가 합치되어 있는 것과도 상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② 윤장섭(1973), “건축의장계획의 특성”, 『한국건축사』



[그림 4-4] 윤장섭(1973), “건축의장계획의 특성”, 『한국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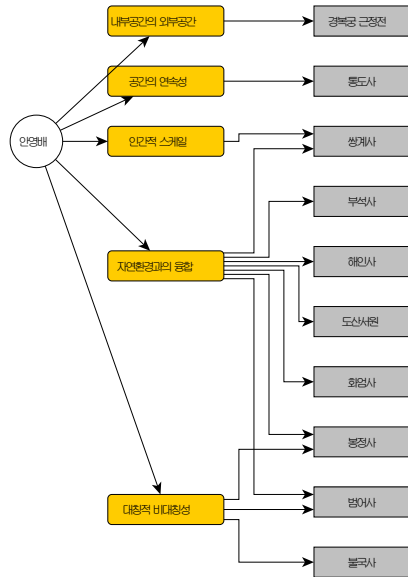
윤장섭(1973)은 한국건축의 특성을 ‘친밀감을 주는 척도’, ‘자연과의 조화’, ‘전통조형미’, ‘비대칭성’, ‘중용의 미’, ‘단아한 아름다움’, ‘순박한 큰 맛’에서 찾고 있다.

‘친밀감을 주는 척도’란 곧 ‘인간적 스케일’을 가진 건축이란 뜻이며, 중국의 장대한 규모에 비해 아담하여 친근감을 가질 수 있으며 ‘단아한 아름다움’과도 상통하는 특성이다.

‘자연과의 조화’는 한국건축이 자연을 존중하며 지세에 순응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처마 곡선’이나 ‘담청주초’에서 볼 수 있듯이 기교없는 자연미를 통해 간소, 질박하고 겸허한 맛을 풍기고 있다. ‘배흘림’, ‘안솔림과 귀솟음’, ‘처마곡선’은 건물에 안정감을 주고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린 ‘전통조형미’의 예이다.

작은 규모에서 비롯되는 ‘단아한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축에는 ‘순박한 큰 맛’이 있는데 이는 순박하고 순후한 생활의 태도와 자연에 순응하는 무기교, 그리고 세부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인 미적 구성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인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담백하고 유연하면서 현세에 집착하지 않은 적요한 아름다움, 즉 ‘적조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안영배(1975),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8”, 「공간」, 197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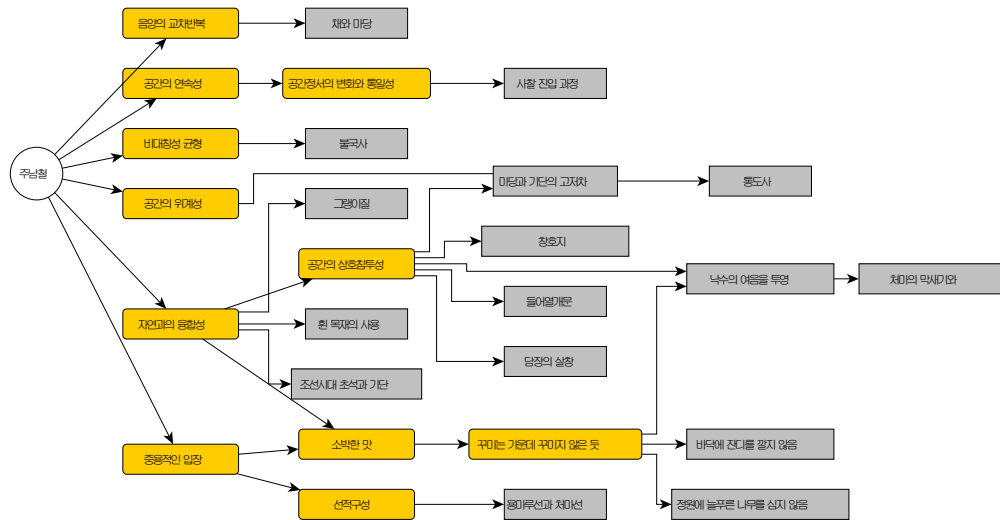
[그림 4-5] 안영배(1975),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8”, 「공간」, 1975.04

안영배(1975)는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의 특성을 ‘공간의 연속성’, ‘자연환경과의 융합’, ‘인간적 스케일’, ‘내부공간의 외부공간’, ‘대칭적 비대칭성’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도 ‘자연환경과의 융합’이 가장 많은 사례를 대표하는 특성으로 꼽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한 입지선정을 한 예로 해인사, 범어사, 옥산서원, 쌍계사 등이, 건물 진입과 전망을 고려한 건물 배치를 한 예로 해인사, 봉정사, 부석사, 범어사, 화엄사, 쌍계사 등이 있다. 건물과 자연이 서로 침투되어 일부가 되는 유기적 건축 구현을 한 예로는 봉정사와 도산서원을 들었다. 그 밖에, 쉬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은 연속성 속에 다양한 공간의 변화가 존재한다면 ‘공간의 연속성’을 가진 사례로 통도사를, 범어사, 봉정사, 불국사는 대칭적 형식을 취하면서도 약간의 변화를 주어 비대칭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칭적 비대칭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에 따르면 쌍계사는 ‘인간적 스케일’과 ‘자연환경과의 융합’이라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갖춘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봉정사와 범어사는 ‘자연환경과의 융합’을 이루는 한편 ‘대칭적 비대칭성’을 지닌 사례로 볼 수 있다.

④ 주남철(1979), “한국건축의 특성”, 「한국건축의장」



[그림 4-6] 주남철(1979), “한국건축의 특성”, 「한국건축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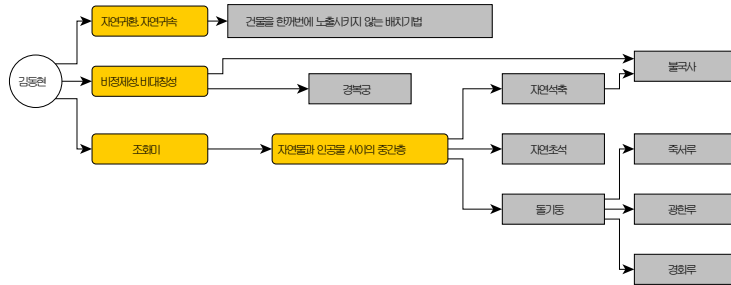
주남철(1979)는 ‘중용적인 입장’, ‘공간의 연속성’, ‘음양의 교차반복’, ‘비대칭성 균형’, ‘공간의 위계성’, ‘자연과의 융합성’에서 한국건축의 특성을 찾고 있다.

한옥은 건물과 마당, 대문, 담장 등의 구성을 통해 ‘공간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으며, 건물 배치에 있어서는 ‘비대칭성 균형’을 이룬다. 공간은 연속성을 지니는 한편, ‘위계성’도 지닌다. 한국건축은 작은 구름이 기복한 준평원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아 마당 간의 높이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간의 위계는 이러한 ‘마당과 기단의 고저차’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또한, 동양사상의 음양론에 입각하여, 채와 마당이라는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을 교차시키면서 ‘음양의 교차 반복’을 이룬다.

‘자연과의 융합성’은 건물과 마당, 마당과 마당 등이 서로 침투하여 마치 하나의 공간처럼 느껴지는 ‘공간의 상호침투성’에서 찾을 수 있고, 재료를 본래의 형태를 활용하여 사용하거나 바닥에 인위적으로 잔디를 깔지 않는 등 ‘꾸미는 가운데 꾸미지 않은 듯’한 배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⑤ 김동현(1983), “한국건축의 조형”, 「건축사」, 1983.11



[그림 4-7] 김동현(1983), “한국건축의 조형”, 「건축사」, 198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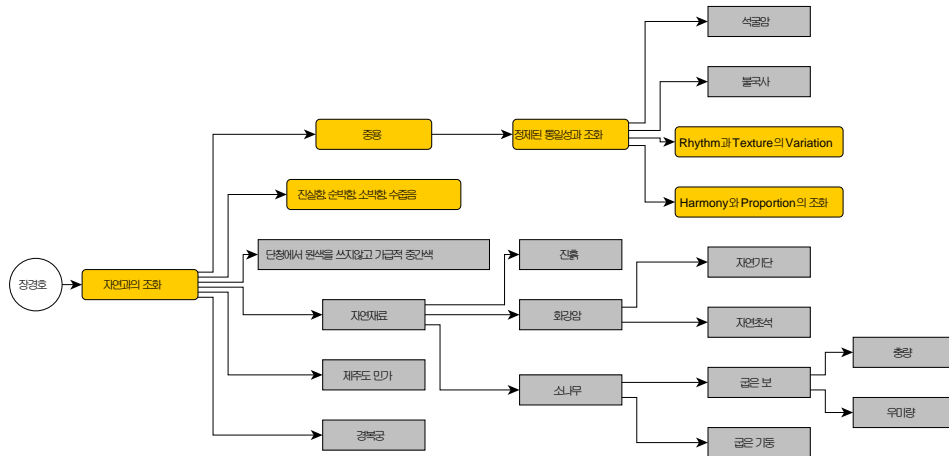
김동현(1983)은 한국건축의 조형미를 ‘자연귀환·자연귀속’과 ‘비정제성, 비대칭성’, ‘조화미’에서 찾고 있다.

‘자연귀환·자연귀속’이란 사찰건축에서 일주문으로부터 정전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문을 지나야 한다거나, 주택에서 대문과 중문의 축을 일직선상에 놓지 않는다거나, 대문에서 안채가 들여다보이지 않게 하는 등의 건축적 장치를 일컫는 것으로 ‘건물을 한꺼번에 노출시키지 않는 배치기법’을 말한다.

‘비정제성, 비대칭성’은 건물의 배치에서 뿐만 아니라 건물의 입면, 그리고 자연과 건축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사례로 ‘불국사’를 들면서 불국사의 대칭인 듯하면서 비대칭인 평면 배치와 대웅전 앞에 놓인 다보탑과 석가탑의 균형을 언급했고, ‘경복궁’에서는 건물 지붕마루선 처리의 수평성과 주산인 백악의 수직성이 대비를 통한 조화있는 공간처리라 하였다.

‘조화미’는 자연과 인공물 사이의 조화를 칭하는 것으로 ‘자연물과 인공물 사이의 중간층’에 들어가는 부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땅과 건물이 만나는 ‘석축’, ‘초석’ 등이 그러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불국사’의 경우 자연물인 대지와 인공물인 건축물 맞닿는 석축을 대지와 가까운 아랫단은 자연석의 형태 그대로를 활용하여 쌓고, 건축물과 가까운 윗단은 반듯하게 손질한 인공석의 형태로 쌓아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경회루’, ‘광한루’, ‘죽서루’ 등 돌과 나무가 만나는 누각건물에서는 이질적인 두 재료의 조화를 위해 위층의 나무기둥과 맞춰 아래층에 ‘돌기둥’을 사용하는 예를 보이고 있다.

⑥ 장경호(1987), “한국의 전통건축”, 「건축사」, 198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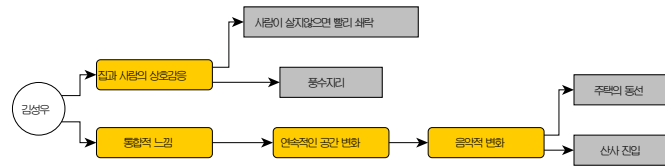


[그림 4-8] 장경호(1987), “한국의 전통건축”, 「건축사」, 1987.07

장경호(1987)은 전통건축의 ‘자연과의 조화’라는 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농가에서 ‘진실함과 소박함 그리고 수줍음’이 나타나며, ‘제주도 민가’에서는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한 돌담, 한라산을 닮은 초가의 형태와 그 곡선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단청에 원색을 사용하지 않고 중간색을 사용한다는 점, 자연재료를 사용한다는 점 등을 들어 ‘자연과의 조화’를 설명하고 있다. ‘재료’의 소재뿐 아니라 가공형식에 있어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다고 보는데, 나무의 본래 형태를 살려 굽은 채로 사용하거나, 돌을 다듬지 않고 초석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고 있다.

이렇듯 인위적 자극을 피하는 특성을 ‘중용’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지로 보았으며, 이러한 의지가 중국건축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다르게 ‘정제된 통일성과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석굴암’, ‘불국사’ 등을 통해 ‘Harmony와 Proportion의 조화’, ‘Rhythm과 Texture의 Variation’ 등 현대건축에서 논의되는 건축기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⑦ 김성우(1987), “동양건축에서의 집과 사람”, 「공간」, 198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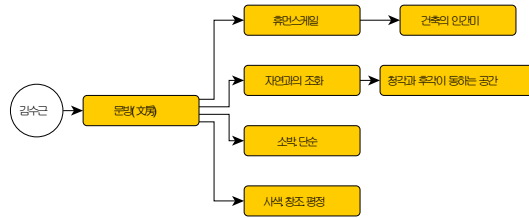
[그림 4-9] 김성우(1987), “동양건축에서의 집과 사람”, 「공간」, 1987.06

김성우(1987)는 한국건축의 특성을 ‘집과 사람의 상호감응’과 ‘통합적 느낌’에서 찾고 있다.

‘집과 사람의 상호감응’이란 집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역동적이고 상호교감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동양적 집의 개념이며, 이는 삶의 내용과 질을 사람과 그 주변 환경의 감응의 정도와 질에서 찾는다는 더 적극적인 자세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풍수지리’를 중시하는 선조들의 건축관과도 이어지며,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빨리 쇠락’한다는 말과도 통한다고 보고 있다.

‘통합적인 느낌’이란 서양에서 건축을 회화와 조각과 같은 미술품처럼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각예술의 한 형식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동양에서는 건축경험이 시각예술로 한정지어질 수 없는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느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일컫는다. ‘통합적인 느낌’은 상태의 지속이 아닌 느낌 자체가 생성적이고 변화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공간 변화’로 이어지며, 연속적인 공간 변화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음악적 변화’의 구조를 갖는 건축경험의 형태가 동양에서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건축경험의 예로 ‘산사의 진입’과정과 주택의 동선처리를 들고 있다.

⑧ 김병윤(1990), “건축원류의 대상규명을 위한 논의”, 「건축문화」, 1990.02



[그림 4-10] 김병윤(1990), “건축원류의 대상규명을 위한 논의”, 「건축문화」, 1990.02

김병윤(1990)은 김수근이 문방(文房)을 통해 찾아낸 한국건축의 특성을 정리하고 있다. 문방은 ‘사생, 창조, 평정’이 있는 공간이며, 쓸데없이 크지 않고 ‘소박, 단순’하며, ‘자연과의 조화’가 있는 ‘휴먼 스케일’을 가진 공간이라며 네 가지의 특성을 꼽았다. 나아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은 ‘청각과 후각이 동하는 공간’이며 ‘휴먼스케일’을 통해 ‘건축의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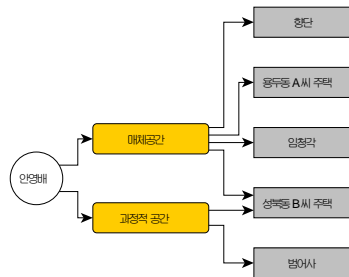
⑨ 우경국(1990), “개념으로 본 전통주택과 나”, 「건축문화」, 1990.02



[그림 4-11] 우경국(1990), “개념으로 본 전통주택과 나”, 「건축문화」, 1990.02

우경국(1990)은 전통주택의 개념을 ‘안과 밖’, ‘마당’, ‘허와 실’, ‘사이’에서 찾고 있다. ‘안과 밖’은 ‘채’와 ‘담장’을 이용해 경계를 영역지음으로써 내부는 개방적이고 외부로부터는 폐쇄적인 내향성의 개념이며, ‘마당’은 건물의 중심을 비워 그 비워진 공간으로 모든 실이 열린다는 ‘안과 밖’ 개념과도 연결되는 개념이다. ‘허와 실’은 채움과 비움의 조화를 뜻하며, ‘사이’개념은 몸채를 여러 채로 나뉘서 발생하는 ‘칸’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사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빛과 길을 전통주택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① 안영배(1990), “한국전통주택의 이미지”, 「건축문화」, 1990.02



[그림 4-12] 안영배(1990), “한국전통주택의 이미지”, 「건축문화」, 1990.02

안영배(1990)는 한국의 전통주택에서 ‘과정적 공간’과 ‘매체공간’이 가장 인상 깊은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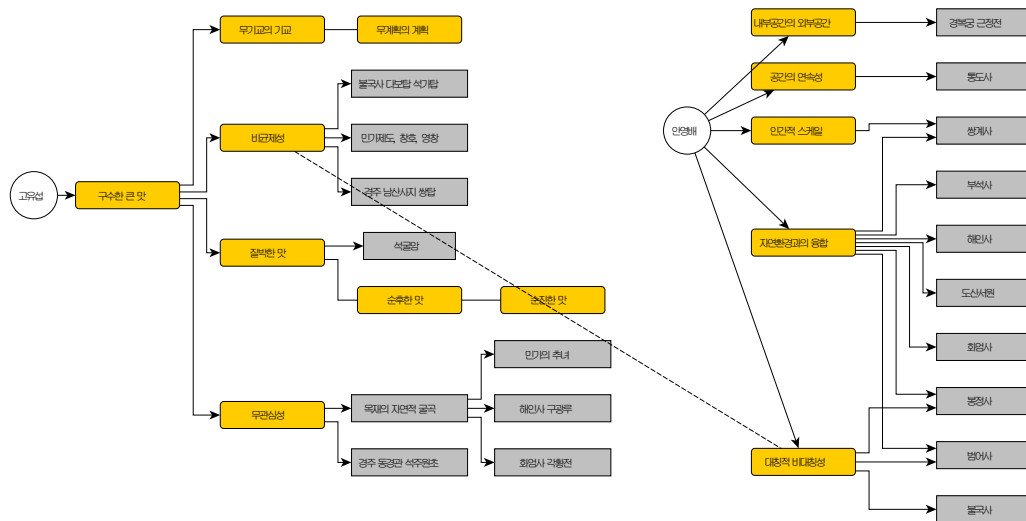
‘과정적 공간’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범어사’와 본인이 설계한 ‘성북동 B씨 주택’을 들었다. ‘범어사’는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과 불이문을 거쳐 대웅전에 이르는 과정의 진입 공간이 깊으면서도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성북동 B씨 주택’에서도 비탈진 지형을 이용해 이러한 수법을 활용했다고 한다.

‘매체공간’은 공간의 연계수법과 관련된 요소라 할 수 있다. ‘임청각’의 내실 옆 대청 마루와 그 앞뜰 사이의 ‘기단’과, 그 앞뜰과 후면의 안뜰 사이의 ‘통로’가 매체공간 구실을 하여 두 공간을 유연하게 이어주고 있다고 하였다. ‘향단’에서는 내실 앞의 작은 뜰이 외부공간이지만 톱라이트가 드는 내부공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이 공간이 동서방향으로는 사랑방 대청과 내실을, 남북방향으로는 대분과 부엌을 이어주는 매체공간으로 보았다.

### 3) 한옥미학지도의 구성

각각의 개별 문헌을 ‘인명’, ‘미학 개념어’, ‘대상 및 사물’로 구분하여 도식화한 상태로는 해당 문헌에서의 논리적 관계 밖에 볼 수가 없다. 다양한 저술자에 의한 수많은 한옥미학 술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하나의 큰 관계도로 엮어내야 한다. 서로 다른 문헌이 하나의 관계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공통 요소가 필요하다. 공통 요소를 통해 나머지 다른 요소들이 그 요소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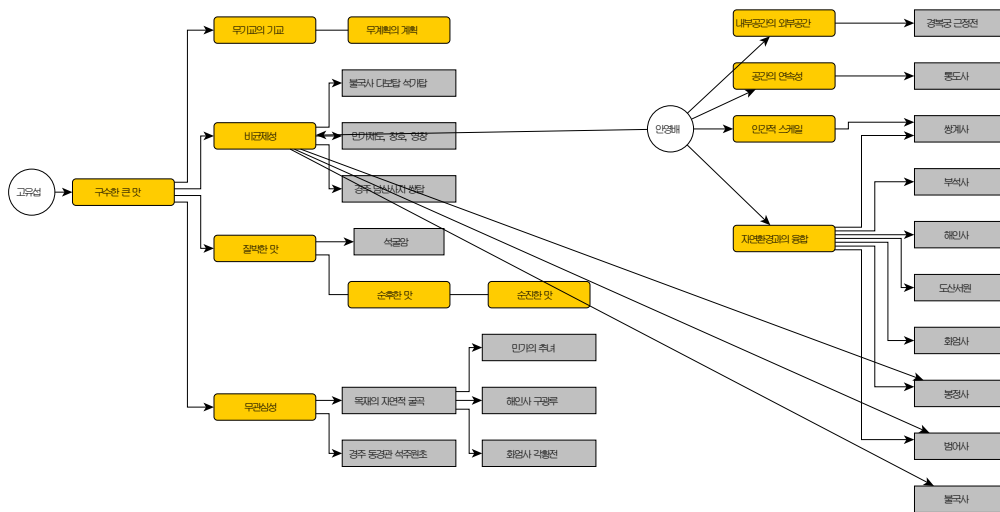
예를 들어 앞서 작성한 고유섭(1940)과 안영배(1975)의 관계도의 경우, 고유섭 문헌에서의 ‘비균제성’과 안영배 문헌에서의 ‘대칭적 비대칭성’이 두 문헌 사이의 공통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다른 어휘를 사용했지만 ‘비균제성’과 ‘대칭적 비대칭성’은 문맥 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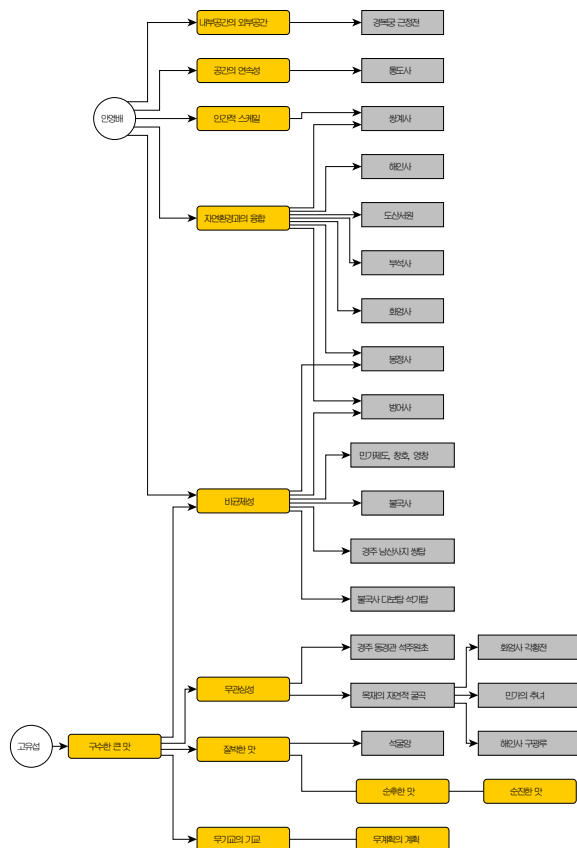
[그림 4-13] 문헌의 결합 과정1(고유섭, 안영배)

공통 요소를 찾은 다음으로는, 두 어휘 중 대표 어휘를 결정하고 두 개의 셀을 하나로 통합한다. ‘비균제성’을 대표 어휘로 선정할 경우, 안영배 문헌의 ‘대칭적 비대칭성’이 ‘비균제성’으로 대체되면서 고유섭 문헌의 ‘비균제성’ 셀로부터 안영배 문헌의 ‘봉정사’, ‘범어사’, 불국사’로 화살표가 뻗어나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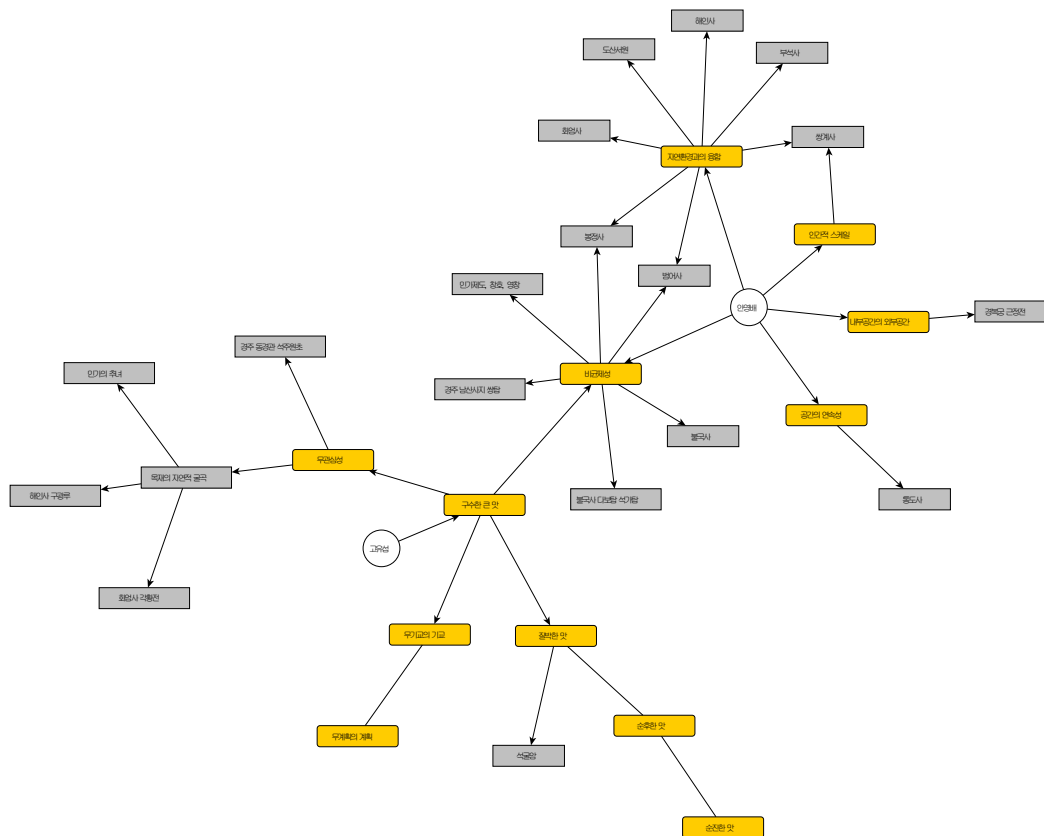
수정된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도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도가 생성된다.



[그림 4-14] 문헌의 결합 과정2(고유섭, 안영배)



[그림 4-15] 문헌의 결합(고유섭, 안영배)\_위계적 형태



[그림 4-16] 문헌의 결합(고유성, 안영배)\_유기적 형태

관계도는 도식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앞서 정리한 [그림 4-15]는 위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방법이고, [그림 4-16]의 형식을 통해서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헌들 사이의 공통 요소를 매개로 여러 한옥미학 서술을 하나의 관계도로 결합하면 어휘들 사이를 연결하는 화살표의 방향과 개수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화살표가 많이 물리는 어휘는 한옥미학 서술에 있어서 높은 빈도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술어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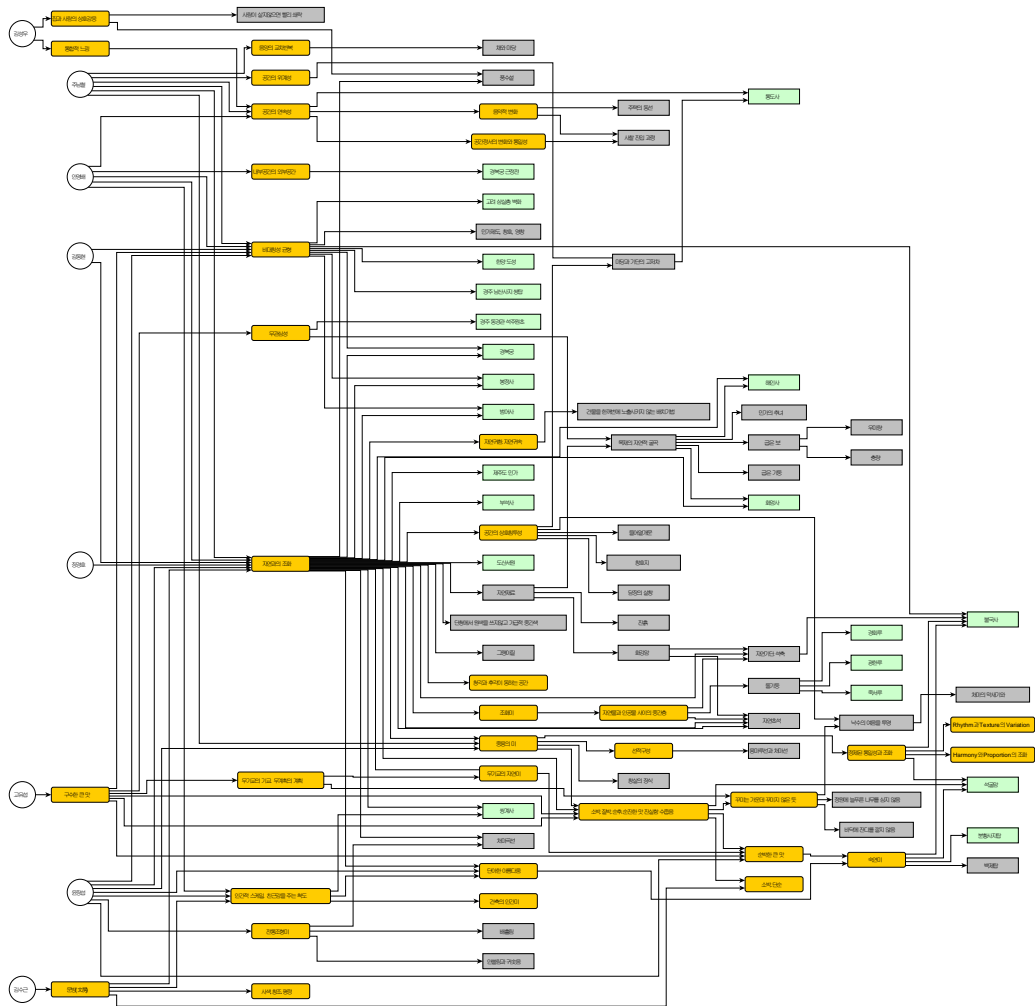


#### 4) 한옥미학지도의 활용

##### ① 한옥미학 술어 간의 상관관계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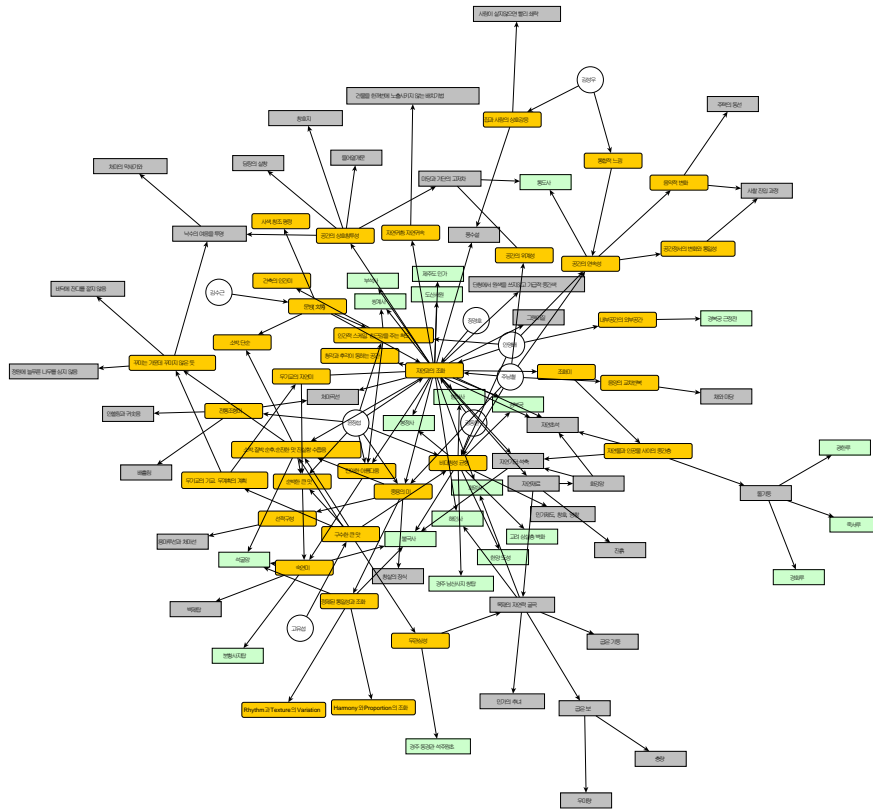
한옥미학지도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위계적 형태(Hierarchical Form)와 유기적 형태(Organic Form)가 있다.

위계적 형태는 각 관계도의 위계를 유지하면서 결합된 지도로서 상위개념과 파생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특히 한옥미학 술어들이 파생·결합하는 과정을 고찰할 때 도움이 된다.



[그림 4-17] 한옥미학지도 시안\_위계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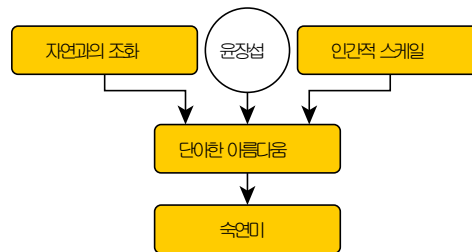
유기적 형태는 술어들 간의 관계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평면상에 전개한 것으로 그림에서 중앙 부분에 올수록 관계성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8인의 관계도를 결합한 시안을 예로 살펴보면, 지도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술어는 ‘자연과의 조화’이다.



[그림 4-18] 한옥미학지도 시안\_유기적 형태

## ② 술어의 위치 파악 Neighbor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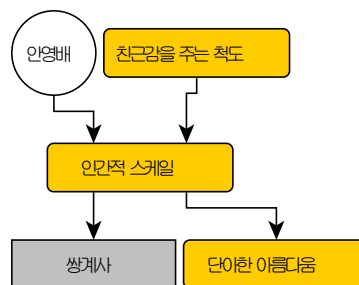
각 술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먼저 한옥미학 술어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단아한 아름다움’을 선택하면, ‘단아한 아름다움’은 윤장섭의 조어이며, ‘자연과의 조화’, ‘인간적 스케일’을 통해 도출되는 개념으로서, ‘숙연미’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4-19] ‘단아한 아름다움’ 선택

## ③ 상위 단계로의 브라우징 Predecess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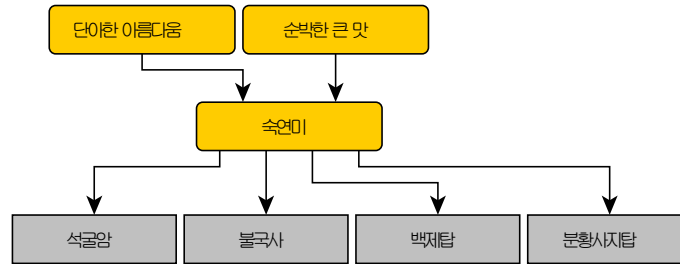
선택한 술어의 상위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예로 살펴본 ‘단아한 아름다움’은 ‘자연과의 조화’, ‘인간적 스케일’이라는 상위개념을 갖는다. 그 중 ‘인간적 스케일’을 선택해보면, ‘인간적 스케일’은 안영배의 조어이며, ‘친근감을 주는 척도’와 연관되는 개념이며, ‘쌍계사’의 사례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0] ‘인간적 스케일’ 선택

#### ④ 하위 단계로의 브라우징 Success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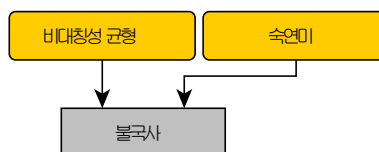
반대로 하위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단아한 아름다움’에서 도출되는 개념인 ‘숙연미’를 선택한다. ‘숙연미’는 ‘단아한 아름다움’의 하위개념임과 동시에 ‘순박한 큰 맛’의 하위개념이기도 하다. 즉, ‘단아한 아름다움’과 ‘순박한 큰 맛’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석굴암’, ‘불국사’, ‘백제탑’, ‘분황사지탑’ 등에서 발견되는 미학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21] ‘숙연미’ 선택

#### ⑤ 건축 사례 중심의 브라우징

미학 개념어뿐만 아니라 해당 술어의 구체적 대상이 되는 건축 사례와의 관계도 관찰할 수 있다. ‘숙연미’의 사례로서 ‘불국사’를 선택한다. ‘불국사’는 ‘숙연미’뿐만 아니라 ‘비대칭성 균형’의 사례로도 설명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22] ‘불국사’ 선택

#### ⑥ 한옥미학 계통 분석의 도구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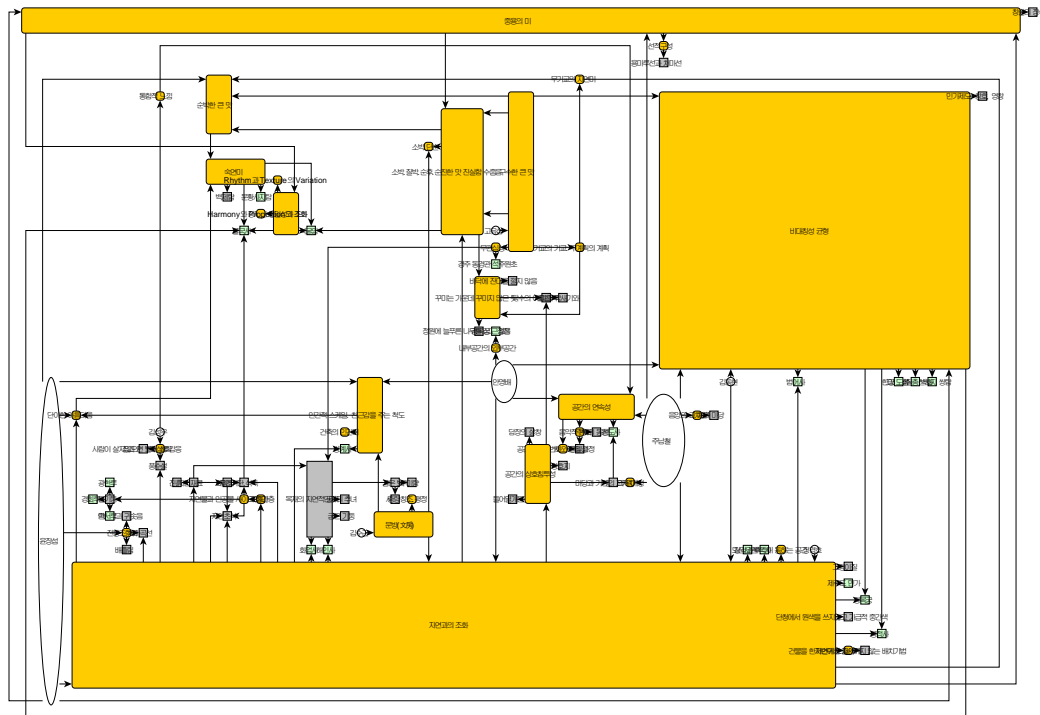
한옥미학지도는 방대한 양의 문헌의 상호관계를 통합하는 도구로써 한옥미학 계통 분석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노드가 집중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개념을 추출하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술어들의 개념적 크기, 즉 내용의 풍부함을 검출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한 파생개념들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 2. 현대 한옥미학의 계통 분석

### 1) 한옥미학지도의 시안

고유섭, 주남철, 안영배, 윤장섭, 김성우, 김병운, 장경호, 김동현 8인의 저술에 근거한 한옥미학지도에서 독보적인 비중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자연과의 조화’와 ‘비대칭성 균형’이다. 이 두 술어는 한옥미학의 근간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제3장의 대상별 서술 분석에서 구분한 범주인 ‘자연’과 ‘공간’에 해당하는 특징이며,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조형적 형태를 강조하는 서술어는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 두 술어 또한 높은 비중으로 등장하는 것일 뿐 한옥미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는 없다.

8명의 관계도를 결합한 한옥미학지도 시안(Orthogonal Layout\_Node Box Style)에서 가장 크게 주목되는 부분은 우측 상단에 자리잡은 ‘비대칭성 균형’과 하단에 넓게 자리잡은 ‘자연과의 조화’이다.



[그림 4-23] 한옥미학지도 시안\_Orthogonal Layout\_Node Box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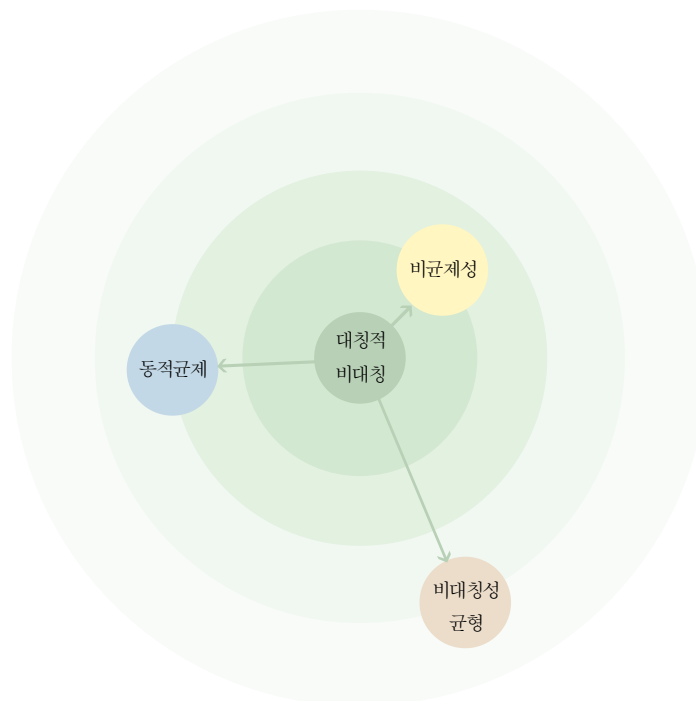
## 2) 현대 한옥미학 개념 확장의 유형

한옥미학지도의 분석 결과, 한옥미학 술어의 전개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동의어 및 유사어로 확장, 둘째, 상위·하위 개념어의 생성, 셋째, 해체와 대체를 통한 새로운 개념어의 생성이다.

### ① 동의어 및 유사어로 확장

한옥미학의 서술은 하나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의어 및 유사어가 그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서술어휘가 확장되며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칭적 비대칭’이라는 술어는, 대칭을 이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비대칭이거나, 작게 보면 비대칭이지만 크게 보면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처럼 대칭과 비대칭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현상은 ‘대칭적 비대칭’ 외에 ‘비균제성’, ‘비대칭성 균형’, ‘동적균제’ 등의 술어로도 서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한옥미학 술어는 한 가지로 수렴되지 않고 서술자에 따라 다양한 어휘로 전개되면서 점차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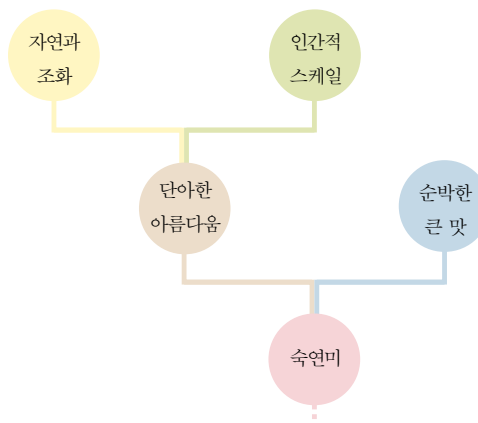


[그림 4-24] 동의어 및 유사어로 확장

## ② 상위 · 하위 개념어의 생성

한옥미학 술어는 특정 현상을 묘사하는 서술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술어와 만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술어를 생성해 간다.

윤장섭(1973)은 한옥의 특징으로 ‘비대칭성’, ‘조형미’, ‘중용의 미’, ‘자연과의 조화’, ‘인간적 스케일’을 꼽은 바 있다. 이 중 ‘자연과의 조화’와 ‘인간적 스케일’이 만나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아담하고 친근감이 있는 스케일을 가진 ‘단아한 아름다움’이라는 하위 개념어를 생성하였고, 또 다시 ‘단아한 아름다움’은 ‘순박한 큰 맛’이라는 술어와 만나 작은 아름다움 속에서도 세부에 연연하지 않고 전체적 미적 구성을 중시하는, 현세에 집착하지 않는 적요한 아름다움 ‘숙연미’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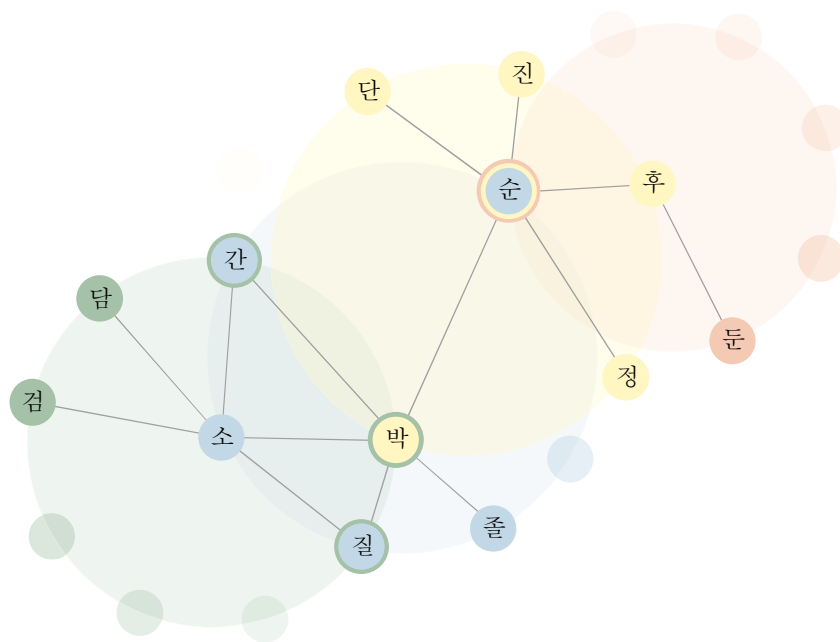


[그림 4-25] 상위 · 하위 개념어의 생성

### ③ 해체와 대체를 통한 새로운 개념어의 생성

한옥미학 서술 어휘에는 한자어로 구성된 어휘가 많다. 각 음절에 의미가 담긴 한자의 특성 상, 한자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술어의 경우, 그 조합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술어가 생성된다.

‘순박’이라는 단어의 조합을 해체하면, ‘순’과 ‘박’은 각각 서로를 대신하는 단어를 찾아 새로운 단어로 결합될 수 있다. ‘순’은 ‘순박’ 이외에 ‘순후’, ‘순진’, ‘순정’과 같은 단어와 결합될 수 있고, ‘박’은 ‘질박’, ‘간박’, ‘줄박’과 같은 단어와 결합될 수 있다. 윤장섭의 ‘순박한 큰 맛’은 ‘순후한 맛’, ‘순진한 맛’, ‘질박한 맛’을 조합하여 ‘순박’이 만들어지고, 이에 ‘구수한 큰 맛’을 더해져 만들어진 말이다.



[그림 4-26] 해체와 대체를 통한 새로운 개념어의 생성



### 3) 현대 한옥미학 전개의 특징

#### □ 열린 네트워크로서의 한옥미학

한옥미학을 표현하는 문장들은 하나의 술어로 완결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술어가 서로 만나 해체되고 결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각각의 술어들은 공통적인 종착점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술어으로써 한옥미학의 본질을 확신하고 모든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초월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옥미학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한옥미학지도에 표현된 각각의 술어는 그 근거사례들의 실존을 통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이들 술어는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 스스로 설명이 미치지 못하는 사례에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된 의미 네트워크는 항상 열려있는 체계로서 건축에서의 한국성을 구성하고 있다.

#### □ 가족유사성의 확장 체계

한옥미학은 가족유사성(Familien Ähnlichkeit)<sup>45)</sup>의 확장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유사성이란 모두가 공통되는 특징은 없지만 서로 교차한 유사성 때문에 그들을 가족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을 가리킨다. 한옥미학에 적용해보면, 건축에서의 한국성은 본질적 정의가 불가능하지만 그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들의 유사성에 의해서 정의가 가능하며, 그 유사성을 대표하는 술어들의 집합이 곧 한옥미학인 것이다.

가족유사성의 확장 체계에서 각각의 술어는 그 근거사례들의 실존을 통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이들 술어는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 스스로 설명이 미치지 못하는 사례에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된 의미 네트워크는 항상 열려있는 체계로서 건축에서의 한국성을 구성하고 있다.

---

45) 가족유사성은 원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개념이다. '나는 이러한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란 낱말에 의해서 말고는 더 잘 특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몸집, 용모, 눈 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등 한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사성들은 그렇게 겹치고 교차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나는 "놀이들"은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Wittgenstein L.(1994), 「철학적 탐구」, p.60.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한 성질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사람인 A, B, C, D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와 B가 특징1이 닮았고, B와 C가 또 특징2가 닮았고, C와 D가 특징3이 닮았고, A와 D가 특징4가 닮았다면 모두가 공통되는 특징은 없지만, 서로 교차한 유사성 때문에 그들을 가족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유사성이 바로 가족 유사성이다.

The diagram illustrates a semantic network with 25 nodes. The nodes are arranged in a hierarchical and interconnected manner. The central nodes are '和合' (red), '狷' (red), '澹' (red), '素' (red), and '拙' (red). These nodes are connected to various peripheral nodes, which are mostly yellow. The connections are as follows:

- '和合' is connected to '親', '同', '謙', '謙', '調', '單', '眞', '厚', '鈍', '拙', '質', '儉', '尚', '高', '貴', '色', '典', '風', '清', '楚', '趣', '福', '優', '端', '正', '簡', '白', '餘', and '裕'.
- '狷' is connected to '福', '端', '正', '眞', '厚', '鈍', '拙', '質', '儉', '尚', '高', '貴', '色', '典', '風', '清', '楚', '趣', '福', '優', '端', '正', '簡', '白', '餘', and '裕'.
- '澹' is connected to '眞', '厚', '鈍', '拙', '質', '儉', '尚', '高', '貴', '色', '典', '風', '清', '楚', '趣', '福', '優', '端', '正', '簡', '白', '餘', and '裕'.
- '素' is connected to '眞', '厚', '鈍', '拙', '質', '儉', '尚', '高', '貴', '色', '典', '風', '清', '楚', '趣', '福', '優', '端', '正', '簡', '白', '餘', and '裕'.
- '拙' is connected to '眞', '厚', '鈍', '拙', '質', '儉', '尚', '高', '貴', '色', '典', '風', '清', '楚', '趣', '福', '優', '端', '正', '簡', '白', '餘', and '裕'.

130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1) - 한옥미학의 기원 -

### 3. 한국 현대건축과 한옥미학

#### 1) 건축계에서의 한국성 논의의 특징

##### □ 건축설계 분야에서의 전통 이데올로기

건축에 있어서의 한국성 또는 전통성에 대한 논의는 학계의 자발적인 움직임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과거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민족문화 말살을 위기를 겪어 온 한국에서는 근대국민국가 체제 이후로도 전통의 계승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가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공건축물은 전통의 계승을 모방 혹은 구성요소의 직접적인 인용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것을 강요했다.

국립종합박물관(현 국립민속박물관) 설계공모시 교부된 유의서에서는 ‘그 자체가 어떤 문화재의 외형을 모방한 것으로서 콤포지션 및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게 할 것이며 여러 동의 조화된 문화재 건축을 모방해도 좋음’과 같은 지침이 내려졌고, 독립기념관의 응모지침에는 ‘목조형식을 석탑으로 이행시킨 양식의 진화에서 보이는 창조적 방법’, ‘작고 간결히 생략된 구배가 적은 처마곡선’, ‘돌의 중력을 승화시킨 경쾌한 추녀선’ 등을 ‘한국적 상징조형물’이라 설명하고 있다.<sup>46)</sup>

건축가들은 전통의 직접적 모방을 강요하는 독재정권의 발주형식에 반발을 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이러한 요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이더라도 작가의 원안대로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발주처의 추가요구 사항 반영이 강요되었고, 그 결과 누구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무책임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었다. 기와지붕, 목구조 등 건축 형태의 차용에 치우친 전통 계승 방식은 근대 작가주의 건축을 지향하던 건축가들로 하여금 한옥에서 멀어지게 하는 한편, 근대건축에 있어서의 전통성 표현에 대한 건축계의 논쟁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 건축학에서 한옥미학 논의의 정체

학계에서도 한국성, 전통성 등의 한옥미학 논의는 학자들과 일정한 거리감이 있었다. 검증이 가능한 경험적 사실만을 다루는 실증주의 학문방법론이 우세했던 당시의 풍조에 따라 관찰에 의해 얻어지는 사실만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사물의 본질

46) 이범재(1987), “독립기념관 준공에 즈음한 몇가지 생각”, 『건축문화』, 1987.07

보다는 사물 그 자체에 대한 관찰이 지향되었고, 한옥 가치의 탐구와 같은 미학적 접근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방법론으로 여겨져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한 결과는 건축을 단순히 審美的인 눈으로, 이를테면 心理學的인 관찰에만 머물게 함으로써 건축적 본질에 접근하려는 길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sup>47)</sup>

또한 국제주의 보편학문이 강조되던 당시의 건축사조는 한옥이라는 한국의 지역건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 전통을 모티브로 한 주요 건축물 사례

전통의 계승을 주요 모티브로 한 주요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기념관, 공연장부터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초기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거대한 스케일과 기와지붕, 콘크리트로 모방한 목구조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기와지붕과 콘크리트 목구조 등의 직접적인 형태 차용에서 벗어나 마당, 곡선, 중첩 등 한옥을 구성하는 요소의 특성을 현대건축에 재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작품에서는 건물 외관에서 한옥의 형태적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배치의 형태, 공간 구성 등 추상적 공간구조로서의 한국성을 담은 작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한옥 설계와 기존 한옥의 리모델링 등 현대건축가에 의한 한옥 작품도 발표되고 있다.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해마다 한국적 설계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적 조화미를 나타내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을 설계한 건축가를 선정하여 협회 특별상을 수여하고 있다. 협회 특별상인 ‘아천상’은 아천 김경환 선생이 기증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1986년 제1회 수상작으로는 ‘세종문화회관’(엄덕문, 1978)이 선정되었다. 아천상 작품 추천과정에서 상의 당위성과 그 선정기준이 논의가 되었는데, 그 결과 추천작품의 선정기준은 첫째, 직설적인 모방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인용 또는 변형된 작품이어야 하며, 둘째, 지역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며 현대의 시대감각과도 잘 조화되어야 한다<sup>48)</sup>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47) 박용숙(1975), “우리들의 옛 建築과 그 현대화”, 『건축사』, 1975.04, p.34.

48) 안영배(1990), “한국전통주택의 이미지”, 『건축문화』, 1990.02, p.48

[표 4-2] 전통을 모티브로 한 주요 공공건축물 사례

준공 연도	건축가	작품	이미지
1961	김중업	주한 프랑스대사관	
			[출처] PA 김중업 (1999)
1966	강봉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출처] 육군사관학교
1966	김중업	UN기념공원 정문	
			[출처] 유엔기념공원
1967	김수근	부여박물관 (현 부여고도문화사업소)	
			[출처] 정인하, 김수근건축론(1996)

준공 연도	건축가	작품	이미지
1968	강봉진	국립묘지 현충문	 <p>[출처] 국립서울현충원   두산백과</p>
1968		광화문 복원	 <p>[출처] 경복궁 광화문   두산백과</p>
1972	강봉진	국립중앙박물관 (현 국립민속박물관)	 <p>[출처] 국립민속박물관   두산백과</p>
1972	이희태	국립경주박물관	 <p>[출처] 국립경주박물관   두산백과</p>

준공 연도	건축가	작품	이미지
1972	이희태	국립공주박물관 (현 충남역사박물관)	 <p>[출처] 국립공주박물관   두산백과</p>
1975	설계위원회 협동설계	국회의사당	 <p>[출처] 여의도   두산백과</p>
1977		통일전	 <p>[출처] 통일전   두산백과</p>
1978	박춘명	국립광주박물관	 <p>[출처] 국립광주박물관   두산백과</p>

준공 연도	건축가	작품	이미지
1978	엄덕문	세종문화회관 1986 아천상	 <p>[출처] 세종문화회관</p>
1979		보문관광단지	 <p>[출처] 보문관광단지   두산백과</p>
1983	김기웅	전주시청사	 <p>[출처] 전주시청   두산백과</p>
1984	김원	국립국악원	 <p>[출처] 국립국악원</p>







준공 연도	건축가	작품	이미지
1984	김홍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p>[출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두산백과</p>
1984	김수근	국립진주박물관	 <p>[출처]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p>
1986	류춘수	삼하리주택 1989 아천상	 <p>[출처] 종합건축사사무소이공</p>
1986	김태수 김인석	국립현대미술관	 <p>[출처] 국립현대미술관   두산백과</p>

준공 연도	건축가	작품	이미지
1987	원정수	한국은행 별관 1987 아천상	 <p>[출처] 한국은행 별관   AURIC</p>
1987	김수근	국립 청주박물관 1988 아천상	 <p>[출처] 국립청주박물관   두산백과</p>
1988	김기웅	독립기념관	 <p>[출처] 독립기념관   두산백과</p>
1988	김기웅	윤봉길기념관	 <p>[출처] 윤봉길기념관   AURIC</p>

준공 연도	건축가	작품	이미지
1989	김한섭 + 김홍식	강남출판문화센터 1990 아천상	 <p>[출처] 강남출판문화센터   AURIC</p>
1989	김석윤	제주 탐라도서관 1991 아천상	 <p>[출처] 김석윤건축사사무소</p>
1992	민현식	국립국악중고등학교 1992 아천상	 <p>[출처]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건축문화</p>
1992	승효상	수졸당	 <p>[출처] 이로재</p>

준공 연도	건축가	작품	이미지
1992	우규승	환기미술관	
			[출처] 환기미술관   건축과환경
1993	김석철	예술의전당	
			[출처] 예술의전당   두산백과
1994	차운기	택형이네 집 1995 아천상	
			[출처] 택형이네 집   AURIC
1994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출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준공 연도	건축가	작품	이미지
1996	장세양	경기도립박물관 1996 아천상	 <p>[출처] 경기도립박물관   건축문화</p>
1997	조병수	일산 ㄱ자집 1997 아천상	 <p>[출처] Bcho architects</p>
1999	방철린	미제루 1999 아천상	 <p>[출처] 미제루   건축문화</p>
2000	정기용	영월 구인현 2000 아천상	 <p>[출처] 구인현   건축세계</p>

준공 연도	건축가	작품	이미지
2002	이종호	박수근 미술관 2002 아천상	 <p>[출처] 박수근미술관</p>
2002	류재은 + 한철수	김종영 미술관 2003 아천상	 <p>[출처] 김종영미술관   아트밥</p>
2004	배병길	학의제 2004 아천상	 <p>[출처] 학의제   건축문화</p>
2004	민규암	세한가 2005 아천상	 <p>[출처] 세한가   건축문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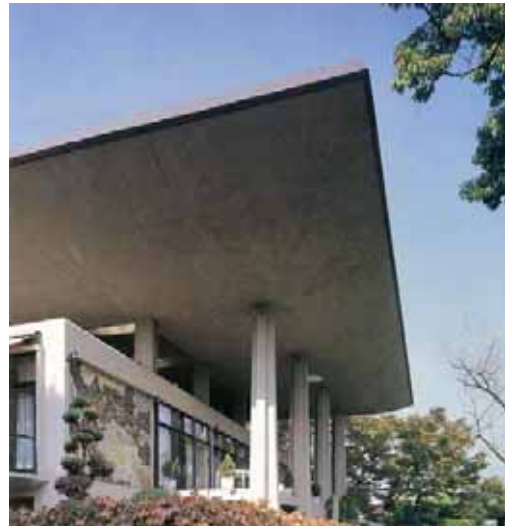
준공 연도	건축가	작품	이미지
2004	조병수	ㄱ자집	 <p>[출처] 조병수건축연구소</p>
2006	황두진	가회헌+구르메 2007 아천상	 <p>[출처] 가회헌   AURIC</p>
2007	조정구	안동군자마을회관 외 2008 아천상	 <p>[출처] 군자마을회관   건축문화</p>
2007	박제유 + 김상식 + 김용미	국립 남산국악당 2010 아천상	 <p>[출처] 제이유건축사사무소</p>

준공 연도	건축가	작품	이미지
2011	임형남 + 노은주	금산주택 2012 아천상	 <p>[출처] 금산주택   조선일보</p>
2011	조성룡	이응노기념관	 <p>[출처] 이응노기념관   와이드AR</p>



## 2) 한옥미학이 적용된 현대건축의 사례

### ① 주한 프랑스대사관 (김중업, 1961)



[그림 4-28] 주한 프랑스대사관  
출처: 건축세계(1997), 「PA01 KIM CHUNG UP」

- 모티브 : 지붕, 처마, 궁전건축 요소, 구축미, 면분할, 구조미, 곡선미
- 효과 : 조형상의 변형을 통한 고전과 근대의 조화, 육중한 규모와 달리 가볍고 사뭇한 느낌의 지붕

#### □ 주요 서술

- 한국의 명건물<13> 주한 프랑스 대사관, 경향신문, 1985.01.08
  - 고유건축에서 얻은 테마를 의식적으로 반영시키고 조형상의 변형을 통해 고전과 근대를 조화시키려한 작품이다.
  - 날을 듯 하늘을 향해 있는 콘크리트 처마가 인상적이다. 한옥 처마가 서양콘크리트건물에 자리를 잡아 멋진 조화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지붕은 한식기와지붕처럼 하늘로 치켜 올려져 콘크리트재질이나 그 규모와는 달리 가벼운 느낌을 풍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관저에는 우리의 궁전건축 요소를 도입했고 대사관건물에는 민가건축의 요소를 가미했다는 설계

자 김씨의 귀뜸이다.

- 관저를 파티가 많이 열리는 만큼 경복궁의 경회루와 같은 유곽의 느낌을 부여하려 했다. 콘크리트로 된 지붕이 그 육중한 규모와는 달리 가볍고 사뿐한 느낌을 주는 것도 한식지붕의 특징을 가미한 결과였다. 또 관저 앞에 넓은 테라스와 인공호수를 만든 것도 전통궁중건축을 이어받은 것이다.

- 한국현대건축의 대들보, 경향신문, 1988.05.13

- 불국사 대석단의 구축미와 면분할, 다보탑의 구조미, 조선 백자의 우직한 곡선을 추영시킨 대 걸작이다.

- 정길협, 작품론, 공간, 1967.03

- 일본의 현대건축이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목조감각으로 모방했다면,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김종업은 입체성을 뚜렷이 갖고 있으며, 선과 선으로 구성되는 한국의 조형을 콘크리트를 통해 선화했다.

- 안병의, 김종업의 작품과 건축관에 대해, 건축문화, 1993.04

- 한국의 고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붕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그 특성을 현대감각으로 잘 표현한 걸작이다.

- 〈신건축 기행〉 주한 프랑스 대사관, 매일경제, 1997.11.14

- 현대건축의 경향과 한국적 전통을 결합한 뛰어난 건축물
- 대사관저의 지붕은 무겁고 육중한 곡선으로 힘차게 솟아 오른 기둥과 함께 역동적이다. 업무동의 지붕은 본래 얇고 날렵한 콘크리트 판의 네 모서리가 들려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형태이다. (중략) 특히 지붕이 사뿐히 하늘을 떠받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한양대 정인하교수의 ‘김종업 건축론’, 경향신문, 1998.09.03

- 불국사 대석단의 구축미와 면분할, 다보탑의 구조미, 조선백자의 우직한 곡선을 살려냈다. 특히 건물을 향해 들어갈 때 보이는 각도에 따라 건축물의 표정이 달라지도록 만든 점은 최대 압권이다.

② 국립중앙박물관/현 국립민속박물관 (강봉진, 1972)



[그림 4-29] 고 국립중앙박물관  
출처: 서상우(1995),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 모티브 :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 비 판 : 박제화된 고건축, 껍데기만 있는 모뉴먼트

□ 주요 서술

- 전개: 모집공고에서 기공식까지, 공간, 1967.02
  - (설계조건에 대한 유의서) 그 자체가 어떤 문화재의 화형을 모방한 것으로써 콤포지션 및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게 할 것이며 여러 동의 조화된 문화재 건축을 모방해도 좋음. (중략) 단, 내부시설은 한식을 가미한 초현대식 시설로 한다, (후략)
  - (설계취지서)인용한 건물명칭은 다음과 같다,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밀양 영남루, 삼척 죽서루, 남원 광한루, 정읍 피향정, 여수 진남관, 무량사 극락전, 명정전, 회랑. 이러한 건물군을 적선 조합배치하고 그 양식수법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였으니 완전 우리나라의 문화재건축을 일양에 모아놓은 일대 야외박물관의 성격을 띄게 한 것이다.
  - 기공식에서 발표된 투시도는 당선안과는 또 다른 것이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후략)
- 김원, 우리시대의 거울 - 국립종합박물관의 경우, 현대건축, 1970.09/10
  - 박물관의 모든 기능을 기단부에 몰아넣고 이 발상의 근원이 되었던 콘크리트

의 팔상전을 껍데기만 있는 모뉴먼트로 전락시킴

- 서상우,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기문당, 1995

- 현상설계 당초부터 건축계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로서 기록되고 있다. 물의의 부분은 박물관 현상설계의 지침이 한국의 고건축을 그대로 모사, 표현내용의 주체로 삼는다는 요강에서 촉발되었다. p65
- 구례 화엄사 각황전,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의 형태를 그대로 모사하여 집합시킨 일군의 구성이다. p65
- 처음 강봉진의 개념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서 상징성뿐만이 아니라, 가급적 상세한 모사를 통해 한국 고건축의 실체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축실체는 물리적 재현이 가능하였으나, 그 환경성, 장소성, 그리고 원래의 건축들이 가지고 있던 관계성을 상실한 조건에서, 이 박제화된 고건축의 의미가 비판되어 온 것이다. p67

- 강봉진, 국립민속박물관, 공간, 1989.10

- 종합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을 기단부로 하고 옥상에 국보급 문화재중 대표적 건물인 판상전, 미륵전, 각황전을 원형대로 재현시켜 박물관으로서의 시각적 효과를 도모하였다.
- 기단층에는 대표적인 석조문화재로 경주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를 도입하였고, 그 위에 대표적인 목조문화재인 팔상전, 미륵전, 각황전 등을 배치하여 우리나라 문화재를 한곳에 모아 놓은 야외박물관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③ 세종문화회관 (엄덕문, 1978, 1986년도 아천상 수상)



[그림 4-30] 세종문화회관  
출처: 세종문화회관

- 모티브 : ㄷ자형 배치, 8각 돌기둥, 배흘림기둥, 창살문양
- 효 과 : 기와를 씌우지 않고 전통 느낌 재현

□ 주요 서술

- 엄덕문, 제한된 여건 속의 전통과 기능의 조화, 공간, 1978.05
  -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세종문화회관은 장엄한 화강석 기둥과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2개의 비천상, 만(卍)자형 창살 등이 옛과 발전된 오늘날의 조화감을 느끼게 한다.
- 배문환, 피와 땀 4년, 동양최대의 예술전당, 공간, 1978.05
  -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세종문화회관은 장엄한 6개의 화강석 돌기둥, 쭉 뻗은 추녀, 줄지은 서까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2개의 비천상, 그리고 만(卍)자형 창살이 옛과 발전된 오늘을 함께 느끼도록 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건축양식의 주체성을 부각시켰다는 의의를 지니게 한다.
- 한국의 명건물<21> 세종문화회관, 경향신문, 1985.03.19
  - 이 건물의 특징은 전통건축 양식을 재해석함으로써 전통 속에 현대적 기능을 담았다는 점이다.
  - 세종문화회관은 고건축의 형태를 모방하지 않고 추상화시킴으로써 대중을 기

반으로 하는 현대적 기능을 전통적 분위기 속에 담아낼 수 있었다.

- 전통의 재해석이 가장 뚜렷이 나타난 부분은 ㄷ자형의 한옥배치법이다. 이 건물은 한옥의 안채와 사랑채 부분에 각각 대강당과 소강당을 배치하고 그 사이를 회의장으로 연결해 놓았다. 이런 배치법은 단순히 전통의 표현방법이라기 보다는 협소한 대지에 주문받은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묘안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8각 돌기둥은 우리 전통가구에 즐겨 쓰인 8각형을 연상케 한다. 또 돌기둥 상부에 걸쳐놓은 격자창살이나 완자창살은 이런 전통의 맛을 부각시키고 있고 처마 밑 서까래장식도 한옥의 맛을 자아내고 있다.
- 특히 이런 전통적 요소에 집착하여 모양만 낸 것이 아니라 기능성을 살리는 데도 성공했다.

• **엄덕문의 세종문화회관, 한겨레, 2012.07.02**

- 당대한 기단과 강당의 배흘림기둥, 열린 계단 마당으로 꾸려진 열개의 단아함이 우리 눈을 감싸 안는다.
- “기와의를 씌우지 않고도 전통을 살릴 수 있다”고 고집한 그는 대강당, 소강당을 안채·사랑채처럼 ㄷ자형으로 갈라 세우고 사이에 회랑과 안마당을 차린 전통공간을 빚어냈다.

④ 국립청주박물관 (김수근, 1987, 1988년도 아천상 수상)



[그림 4-31] 국립청주박물관

출처: (좌) 청주박물관, (우) 서상우(1995),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 모티브 : 분산 배치, 지형에 순응, 지붕의 중첩, 내외부의 상호관입
- 효 과 : 내외부 흐름의 연속성, 전통마을의 주택군을 바라보는 듯 한 원경, 산사와 같은 분위기

□ 주요 서술

- 서상우,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기문당, 1995
  - 경사진 대지 위에 다양한 높이의 단을 설치하여 변화로운 외부공간과 함께 건물은 분산 배치하면서 우회적인 동선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 상의 다채로운 시퀀스는 전통 건축체계에서 밝혀지는 것이고 가급적 건축의 분화된 스케일과 휴먼스케일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p175
  - 대소의 전시공간들을 분동형식으로 지형에 따라 배치하고 이들을 회랑으로 엮어가는 변화로운 구성체계를 보인다. p175
  - 크고 작은 직방형의 전시공간들은 중정 혹은 반개방적 외부공간과 빈번히 접촉되며 시각적으로 내외부 흐름의 연속성을 갖게 하였다. p176
  - 공간은 수평적 연결형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도 거대한 내부공간을 얻을 수 없지만, 공간의 연속성이 운율적일 수 있게 되었다. p176
  - 배치 형식에 따라 건축의 전모도 수평적인 확산형을 취하게 된다. 다만, 대지가 구릉이라는 조건이므로 전면에서 보면 앞건물 지붕 위에 뒷 건물 지붕이

중첩된다. 이와 같은 전경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주택군과 같이 지붕들이 중첩되어 만드는 마을의 원경을 보는 듯하다. p176

- 김수근, 청주박물관, 건축가, 1987.05/06

- 전체적 조형도 단일건물이 아니라 여러 단위로 군집되어서 전체가 하나의 산사 같은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배치 및 조형개념을 이루고 있다.

- 박소현, 공간의 또다른 자연물입 공간, 건축과환경, 1987.10

- 청주박물관의 단면은 주어진 경사지에 차곡차곡 앉히는 것을 기조로 삼으며 단층의 가옥 꼴을 취한다. (중략) 그것이 지형에 순응한 모습을 갖추게 해주며 조용하면서도 정리된 꼴을 취하게 해준다.
- 청주박물관에서 느껴지는 전체적 조화로움은 자연에 대해 두드러지려 하지 않은 건축개념에서부터 얻어진 형태의 겸손함과 더불어 재료와 색채의 절제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 박물관 건물에서 흔히 요구되었던 경직된 과시성을 벗어나, 박물관 자체의 요구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장소에서 자연 조건에 합당하게 연출되는 건축으로, 우리의 성정에 맞는 규모의 ‘인간적인 건축’을 이루어 가려는 노력이라고 보고 싶다.

- 김수근, 국립청주박물관, 공간, 1989.10

- 적절한 크기로 분절된 매스들은 자연지형에 따라 배치되고, 이 각기 다른 높낮이를 갖는 매스들의 연결은 전체적으로 중첩된 집들의 마을을 연상시킨다. 이 중첩되면서 분절된 매스와 지형을 자연스레 접합시키기 위해, 매스에서 빠져나온 벽과, 건축에서 솟은 담이 적절한 비례로 연결되어지면서, 지형과 건축은, 자연과 인공은 절로 연결짓게 되어 서로 서로 파로가 아닌 합일체의 환경으로 우리의 주변에 존재해 있는 것이다.
- 이 건축은 자연 속에 있으며 또한 자연도 건축 속에 있도록 하였다.

- 좌담: 승효상 · 임창복, 국립청주박물관, 공간, 1987.09

- 전체 배치형태가 산사의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듯한 인상



- 건물의 연장인지 조경인지 모르게 자연과 연계되어 전체가 건축으로, 조경으로 혹은 환경으로 접속되어 있는 거죠
- 벽체의 요소뿐만 아니라, 외부, 내부에 중정을 곳곳에 배치한 것은 기능적으로 어두운 박물관 내부를 보다가 다른 전시실로 이동할 때마다 중간중간 자연 - 버려진 자연, 한정된 자연, 인공적인 자연 - 을 끌어들이며 내외부 공간이 상호 관입하도록 했습니다.
- 주어진 장소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공간으로 환원하는 작업, 각기 분절된 건축의 내부와 외부로 적절한 스케일로 구성되는 공간 조직이 서로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생명체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우리의 옛 건축에서도 보이는 수법일 뿐 아니라, 경계와 피막보다는 내부와, 외부에 담겨지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귀히 여긴 우리네의 고결한 정신을 잇는 것이라 여겨 집니다.

⑤ 독립기념관 (김기웅, 1987)



[그림 4-32] 독립기념관  
출처: “독립기념관”, 『건축과환경』(1987.11)

- 모티브 : 맞배지붕, 중심축 강조, 대칭, 고대성벽, 회랑, 위계의 반복, 중첩효과
- 효과 : 옛 성곽 같은 중후감, 역사적 기념성
- 비판 : 전통건물의 이식

□ 주요 서술

- 전통 · 현대 조화에 심혈, 동아일보, 1983.11.09
  - 기념홀 벽은 화강암으로 처리해 고대성벽을 연상케했고 (후략)
  - 기념홀과 전시관 사이의 기초광장 주위에는 한국 전통건축에 자주 나타나는 회랑을 둘러 한국적 특색을 살렸고 (후략)
  - 이 모든 건물에 한국건축양식의 특징인 ‘위계의 반복’ 수법을 적용 했고 조형적으로는 축선을 따라서 전통건축의 처리선과 기와면의 중첩효과를 노렸다
  - 이번 사례는 전통과 현대화를 복합적으로 응용한 것
- 다시 위용 드러낸 독립기념관, 동아일보, 1987.08.04
  - 겨레의 집을 비롯해 7동의 전시관, 원형극장, 편의시설 등 (중략) 그리고 각종 상징조형물들이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가꾸어진 자연조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한식전통 맞배지붕에 현대식 건축기법을 접목한 겨레의 집은 기념관의 상징적 건물로 (중략)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이 시대 한국인의 문화척도를 가늠하는 영조물이다.
- 국산화강압으로 지어진 전시관은 옛 성곽 같이 중후감을 한층 더해준다.

• 김광현, 독립기념관의 한국성과 기념성, 건축사, 1987.08

- 겨레의 집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물을 그대로 이식시켜 놓은 것이지 이를 변형하거나 또 다른 한국건축의 이미지를 전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 서상우,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기문당, 1995

- 흑성산의 자연축을 중심축으로 삼고, 그 축상의 일직선상에 건축과 외부공간을 대칭으로 배치하고 있다. p158
- 진입방향의 축선상에 기조광장을 중심에 두고 겨레의 집을 통해 분동된 각 전시공간들로 연결되는 집합적 구성이다. p158
- 겨레의 집은 맞배지붕의 스케일을 확대시켜 얻은 거대한 공간감으로 방문객을 압도한다. p158
- 본관은 장대한 맞배지붕의 한옥을 가급적 사실적 어휘로 하여 기념성을 대신하고 있다. 작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국적 어휘화를 도모하던 작품의 시기에 서 이 건축도 모더니즘의 구범으로부터는 일탈하고자 하였다. p161
- 전체적으로 중심축이 강조되는 접근경로에서 대변하게 되는 이러한 수평적 이분의 볼륨은 단순하지만, 역사적 기념성의 어휘를 전통과 결부시키려는 의도이다. p161

• 김기웅, 독립기념관, 건축가, 1987.06

- 우리의 조상들은 짐짓 모르는척, 보이지 않는 허의 건축을 지어보임으로써 여유를 찾았고 융통성을 주었으며 숨통을 틔어 주었었다. (중략) 독립기념관에서는 「허의 개념」이 상징홀과 전시관에 다같이 도입되어 있다.

⑥ 수졸당 (승효상, 1992)



[그림 4-33] 수졸당

출처: (좌) 「건축과환경」(1993.01), (우) 이로재

- 모티브 : 마당, 도시형 한옥의 구조(ㄷ자), 숨겼다 보여주는 공간전개, 창살문과 흡사한 대문, 기와를 얹은 나지막한 돌담
- 효과 : 빈자의 미학, 절제와 긴장, 선비정신, 무용의 공간, 사소한 불편을 느끼면서 사는 방식, 외부공간이 집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

□ 주요 서술

- 주택설계전, 경향신문, 매일경제, 1994.02.26
  - ‘옛’과 ‘현대’가 서로 만나 이루어진 작품, 옛 담과 풍경 등을 활용해 밝으면서도 안온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
- [건축기행 20] 학동 수졸당, 1996.06.19
  - 한옥의 창살문과 흡사한 대문하며 기와를 얹은 나지막한 돌담이 그렇고 흙마당이 딸린 사랑방과 거실 앞 안뜰, 안뜰너머의 장독대를 둘 수 있는 뒤뜰이 우리의 옛 전통가옥을 연상케한다.
  - 대지에 비해 여러개의 마당이 있고 집은 안뜰을 둘러싸는 한옥의 전통적인 ㄷ자 모양
  - “좋은 집이란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가서 대문을 열어주고 빗자루로 마당을 쓸

고 걸레로 훑칠 수 있는 집” (승효상)

- 마당과 그 너머의 흰벽,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가 주는 것은 절제와 긴장의 미학이다
- 여러 조정물로 가득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다른 정원에 비해 단순한 이 공간이 오히려 더욱 풍요롭고 여유로운 사유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일명 청빈한 삶 속에서 높은 이상을 추구했던 우리 조상들의 선비정신을 닮아 있기도 하다.

• 배형민, **감감의 단면**, 2007, 동녘

- 건축가 자신도 완공 당시 수출당이 ‘빈자의 미학’을 구현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p152
- 집주인인 유홍준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수출당은 도시형 한옥의 구조와 닮은 꼴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p160
- 마당의 구성방식과 구성요소들은 승효상이 말하는 “무용의 공간”의 핵심이다. 건축가가 비워낸 벽으로 마당에서 다양한 장면들이 연출된다. 이 벽이 바로 〈빈자의 미학〉의 끝을 장식한 “침묵의 벽”이다. p160
- 수출당의 ‘ㄷ’자형 담은 집과 외부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안의 평면 질서를 구축해주고 있다. p162
- 평면 체계 내에서 벽을 구성하여 섬세한 공간의 시퀀스를 연출한 환기미술관과 수출당은 모두 중정을 가운데 두고 움직이면서 체험하는 공간이다. p180
- 정제된 벽과 담장이 명료한 경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벽체가 기하학적 원리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다. 수출당의 벽은 공간의 긴장감을 불어넣지만 환기미술관의 컴퍼지션과는 대조적으로 평면 전체의 질서와 통합되어있지 않다. 수출당에서는 이질적인 공간들이 체계적인 틀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단위로 조율되어 있다. p182
- 수출당은 가볍게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꽉 차 있는 느낌을 준다. 다시 말해서, 건축의 텅어리와 촉감이라는 감각적 자질들이 공간을 지배한다. p182
- 수출당의 벽과 담은 다양한 공간의 흐름 안에서 짜임새 있게 구성된 감각의 단편들이다. p196
- 하나의 시각적인 퍼스펙티브가 있는 집, p228

- 수졸당의 공간을 연속적이라 부른다면 수백당의 공간은 연계적이다. p232
- 평면은 수직 벽의 배치에 의해 결정되었다, 수졸당 안에서 걸어 다니며 마주치는 중정은 이러한 공간의 전개과정 내에 설정된 “무용의 공간”이다. 이 무용의 공간이 인위적인 “풍경”처럼 보이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p232
- 수졸당의 공간들이 연속적이고 위계적으로 뗫어져 있다면, 수백당의 공간들은 연계적이고 동시적인 관계로 엮여 있다. p234
- 수졸당에서는 무용이 일정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 p234

• 네이버캐스트, 승효상 / 웅진 지식하우스

- 선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을 매 순간 발견할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옛 집에는 다 있어요. 초가집이건 기와집이건. 우리가 회복시켜야 하는 기능이죠. 다시 말하자면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해요.
- 예컨대, 방과 방 사이를 뒹굴 수 있는 한 떨어뜨립니다. (중략) 그 사이 바깥 풍경이 보여요, 그 사이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만큼 공간은 풍부해져요.

• 구본준, 빈자의 미학으로 서도동기를 추구한 기와 없는 한옥 ‘수졸당’, 구본준의 한국의 현대 건축(<https://otalk.kbstar.com/quics?page=C025700&cc=b041958:b041958>)

- ‘꾸밈없는 수수함을 고집하는 집’이란 뜻의 수졸당(守拙堂)에 딱 맞아떨어진다. 그런데도 수졸당이 유례가 없는 주목을 받았던 것은 ‘양옥의 탈을 쓴 한옥’이란 데 있었다. 수졸당은 한옥의 유전자를 되살린 새로운 ‘도시형’ 단독주택이었다.
- 수졸당은 가회동 한옥처럼 마당이 가운데 있는 ㄷ자 모양이다. 그러나 구성은 훨씬 복잡하다. 마당이 중심이 되면서도 마당을 세 개로 쪼개 곳곳에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좁은 안뜰이 나오고, 그 뒤 전통 사괴석 담장이 등장한다. 내부 공간을 나누는 담으로, 바로 집을 보여주지 않고 숨겼다고 보여주는 한옥의 특징을 되살린 장치다.
- 마당은 바닥 전체에 나무를 깔 마루 마당이다. 전통 주택에도 마당을 비워놔던 것처럼 감나무 한 그루만 고요하게 서 있을 뿐이다.

- 어디로 눈을 돌리나 외부 공간인 마당이 보이고, 어느 한 곳 넓게 트이지 않고 꺾이고 들어간다.
  - 집 중간 중간을 비워내 안과 밖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당은 한옥 처럼 외부 공간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건물 자체도 큰 덩어리 하나로 집을 짓기보다 일부러 채를 나누는 한옥처럼 3부분으로 쪼갠 구성이다.
  - 거주자의 생활감각도 한옥 그대로다. 건축가는 거주자가 ‘사소한 불편’을 느끼면서 사는 방식을 제안했다.
- [부부 건축가 임형남 · 노은주의 키워드로 읽는 건축과 사회] 9 전통논쟁, 세계일보, 2010.05.18
    - 형태로 계승하려던 한국성을 이제는 공간으로 재현하려는 의도
    - 그 마당에 한국은 없다, (중략) 공간은 마치 막힌 연못에 고인 물처럼 흐르지 못한다. 한국건축 공간의 특징은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갇히지 않고 흐르는 데 있다. (중략) 그러나 수출당의 ‘긴장된 마당’ 이후 믿어 의심치 않고, 담과 나무로 긴장감이 감도는 마당이 한국의 전통이 되었다.

⑦ 환기미술관 (우규승, 1992)



[그림 4-34] 환기미술관

출처: (좌) 「건축과환경」(1994,02), (중·우) 「플러스」(1994,02)

- 모티브 : 다채로운 외장재료, 자연과의 조화, 건물의 분절, 지형에 따른 가변적 배치, 중정, 성채, 성곽, 창호지
- 효 과 :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기교를 부리고 있지 않다, 수수하되 격조, 단순해 보이되 공간적 풍부함

□ 주요 서술

- 환기미술관 오늘 개관, 한겨레, 1992.11.06
  - 아기자기한 공간활용과 적극적인 자연채광의 활용으로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
- 우규승, 환기미술관, 플러스, 1994.02, pp124-137
  - 산, 달, 구름, 바위, 나무 같은 자연과 어울리고 한국의 정취가 있으며 현대적인 세련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건물은 분절시켜서 여러 개의 건물이 모이는 집합 형태를 취하는 설계 개념을 설정
  - 규모가 크지 않은 건물들을 지형에 따라 가볍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은 궁궐건축이나 사찰 건축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지형의 여건을 다뤄야 했던 한국 전통 건축에서 흔히 쓰여온 수법이다.



- 중정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며 계곡의 흐름에 따라 축을 형성
- 큰 흐름 속의 작은 변화들은 계곡 안의 크고 작은 질서를 반영
- 건물의 재료는 전통 한국 건축과 같이 땅에 접하는 부위는 조적의 의미를 가진 석재로 하고 그 위는 판재로 표현된 석재, 그리고 지붕은 납을 입힌 동판으로 처리
- 각 전시실과 중심 공간과의 연결 부위에는 접속공간의 영역을 설치하여 각 공간의 독립된 의미를 강조

• 민현식, **환기미술관의 실패와 성공, 플러스**, 1994.02, pp138-141

- 외부 재료 쓰임새의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장중함과 화려함으로 경도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김환기의 고도의 정심 세계와는 깊은 괴리감을 줄 뿐 아니라 절제되고 긴장된 내부 공간과의 갑작스러운 전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당혹감을 금치 못하게 한다.
- 통속적인 안목으로 이 집은 자연에 대한 근본 태도에서 설명과는 달리 아니라 니컬하게도 오히려 서구적이다. 한국의 전통 건축이 자연 속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 우리의 정서와 미감에 익숙해져 온 고전적 비례감에서 떠나 있다.
- 부암동 계곡의 자연 질서에 저항하는 듯한, 계곡공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거대하고 전혀 익숙치 않은 어쩌면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한 화강암의 덩어리에서 회화적 미감을 찾을 수 없다.

• 강혁, **공간과 빛이 주인공인 미술관, 건축과환경**, 1994.02

- 건물의 배치가 전체 지세에 자연스럽게 순응하여 서있어 어떤 위압감이나 부담감이 없다.
- 건물의 외관은 얼핏보기에 과거의 성채나 성곽을 연상시킨다.
- 면과 매스가 잘 분절되어 있어 위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주변의 담이나 경관, 조경과 잘 조화되어 있다. 매스의 계단식 상승이나 전시장 상부의 볼트로 지세에 잘 순응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적당한 스케일과 단순한 형태로 단아하고 차분한 감을 준다

- 첫 대면에서부터 쉽사리 어떤 한국고유의 정서를 감지하게 된다. (중략) 외관 그 어디에서도 전통 건축의 형태 자체나 그 변형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구체적인 전통 요소의 직설적인 인용이나 문양의 도입 같은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 전통건축을 텍스트 삼아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환기미술관에 적용하고 있다.
- 그러한 예를 배치와 조경, 스케일의 처리와 매스의 분절, 동선의 흐름과 공간의 형성, 재료의 취급 등 도처에서 발견하게 된다.
- (울담) 주변의 주택가와 분리시켜서 영역을 규정하고, 까다로운 경사지 땅을 묶어 건물과 일체화시켜 주며, 뒷산의 경관을 끌어오는 데 담은 매우 효과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 담벽의 재료로 블럭과 함석을 사용했으니 전통 건축의 그것을 쉽게 연상시키는 것이다.
- (내부의 유리벽돌) 모래로 갈아서 뿌엩게 된 유리 벽면은 과거 한국 건축에서 빛을 여과하여 통과시키던 창호지의 역할
-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기교를 부리고 있지 않다. 수수하되 격조가 있고, 단순해 보이되 공간적인 풍부함이 있다.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미감이 스며들어 있다.

• 서상우,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기문당, 1995

- 외장 재료는 한국의 전통 건축과 같이 땅에 접하는 부위는 조적의 의미를 가진 석재로 하고, 그 상부는 판재로 처리하였으며, 지붕은 납을 입힌 동판으로 마감하였다. p294
- 진입부분의 별관은 본관의 축에 맞추어 큰 흐름 속에 작은 변화들을 주고 있다. p294
- 각 전시실과 중심공간과 연결부위는 접속공간의 영역을 설치하여 각 공간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p294
- 비교적 단아한 조형성에 많은 공간적 어휘를 담고 있다. p295

-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 . 한겨레, 2004.12.15
  - 전통 돌담길을 연상하게 하는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
  - 김환기의 작품 세계처럼 건물 역시 전통미와 현대미가 교묘히 녹아들어 있다.
  - 가파른 산비탈에 서 있는 이 건물은 반지하로 설계 됐다. 산과 땅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넓은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가의 세심한 배려
  - 밖은 안으로, 안은 밖으로 통하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원형 계단의 신비로움
- 배형민, 감각의 단면, 2007, 동녘
  - 평면 체계 내에서 벽을 구성하여 섬세한 공간의 시퀀스를 연출한 환기미술관  
과 수조당은 모두 중정을 가운데 두고 움직이면서 체험하는 공간이다. p180

⑧ 국립국악중고등학교 (민현식, 1992, 1992 아천상 수상)



[그림 4-35]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출처: (좌) 「건축문화」(1992.04), (우) 민현식(1998), 「땅의 공간」

- 모티브 : 비어있는 마당, 가구형식, 전통건축의 공간배치 수법
- 효과 : 병산서원의 마루에 앉아 만대루를 통해 산과 강을 보는 느낌

□ 주요 서술

- 조권섭, <건축비평>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공간, 1992.04
  - 학습동의 매스와 가벽이 결합하는 방법은 원기둥과 보가 만드는 가구형식으로 전통적 체계를 차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가벽의 모양새는 전통건축에 있어 소슬대문을 원근법에 의한 투시로 2차원화시킨 모양으로 보인다.
  - 가벽에 의한 위장된 구심성에서 오는 실체적 형태미는 곧바로 전통건축에 있어 공간배치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 안마당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면서 그 형식이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논리를 인지하기 시작한다.
  - 학습동과 예술동의 날개벽은 광선과 바람을 컨트롤할 수도 있으며 음향조절에도 용이하게 되어있다. 다시 말해 건물형에 의한 자연적 조건을 조절하는 경우라고 보여진다. 이는 전통건축에서 처마와 뒷마루가 담당했던 역할이기도 한 것이다.

- 전통건축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연속성」이라는 목적은 「면의 전래하는 중첩」의 수단으로 담지하고 있다고 본다. 전통건축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연속성은 원근법에 의하여 결국에 장방형의 단순화된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한계를 「시각에 대한 부정의 개념」으로 작업함으로써 날개벽의 패턴으로 처리한 것 같다.
- 판형을 강조키 위하여 가능한 한 벽이나 창이 동일면상에 있게 함으로써 전통건축의 벽면구성에서 기인한 비례감으로 전체는 보와 기둥으로 격자를 이루고 그 격자내부는 창과 벽으로 메꾸었다.
- 전통성을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전통건축의 공간배치 수법과 이에 의한 형태구성에서 장소성의 제공을 통하여 전통적 이미지와 학교시설군이라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조화하려는 시도를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 전통건축에 있어서 공간배치 수법의 덕택으로 외관의 형태적 상징성과 내부공간에 있어 빛의 다양한 연출 등으로 공간의 깊이 있는 체험을 가능케한다.

• 민현식, 땅의 공간, 미건사, 1998

- 「마당을 비워둔다」 또는 「비어있는 마당」이 이 집의 주제가 된다. 그리고 이 주제는 이 집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내·외공간에도 적용된다. 「비워둔다」는 것은 공간의 기능을 중성화하려는 것이고 「비어 있음」은 공간이 건축의 절대 미감이 부여된 고유한 질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p11
- 우리 전통건축의 내·외공간은 특정한 하나의 기능이 주어진다고 보다는 항상 중성적으로 남아 있다가 때에 따라 어떤 특유의 기능 또는 행위가 도입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비어 있게 한다. 따라서 영역만으로만 크게 분할되면서 각각 공간의 기능보다 공간의 질, 그것들의 연계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우리의 전통철학과 자연관에 따라 빛과 마당, 그리고 자연환경과 그것의 변화와 적절히 조우하게 하는데 힘쓰게 된다. 해서 비어있음이 그냥 비어있음이 아니라 조용함, 명료함, 채울 수 있는 잠재력, 완성으로의 열림에 도달하는 것이다. pp13-15

• 이종건, 해방의 건축, 발언, 1998

- 민현식은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주제가 ‘비어있는 마당’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 주제는 그 집을 구성하는 모든 내부, 외부공간에 적용되었다고 쓰고 있다.

pp108-110

-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마당은 아름답다. 비워 낸 다섯 칸을 통해 건물에 들어서면 숨어있듯 보이는 마당, 그리고 아스라이 먼 데서 오는 빛줄기처럼 청아한 뒷마당은 이 작품의 백미다. 학교의 문턱을 밟으면 즉각 한 눈에 들어오는 단아한 외관의 인상 덕인가? 다섯 개의 원기둥과 판형으로 서 있는 모 둥근 기둥들 사이로 펼쳐지는 텅 빈 공간. p110
- 마당 안에서 기둥들을 통해 밖을 보는 맛 또한 일품이다. 병산서원의 마루에 앉아 만대루를 통해 산과 강을 보는 느낌이라 할까? p111

⑨ □자집 (조병수, 2004)



[그림 4-36] □자집  
출처: bcho architects

■ 모티브 : 정사, 군더더기 없는, 비건축, 막사발

■ 효 과 : 청빈의 윤리의식, 반듯하고 검박하지만 초라하지 않은 품위, 실용의 미, '거칠 속의 세련, 세련 속의 무심함'

□ 주요 서술

- 민현식, 건축에게 시대를 묻다, 2006, 돌베개
  -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 유형인 '정사'에 관한 역설적 대안이다, 콘크리트 박스는 오로지 하늘을 향한 구멍만을 뚫어놓았다. p168
  - 재료의 사치와 시각적인 쾌락에 대하여 지극히도 엄격하고, 그래서 청빈의 윤리의식이 이 집의 공간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p168
  - 얼핏, 기교와 세련을 외면하고 있는 듯이 아주 단순하다, 아무것도 없는 듯하다. p173
  - 지붕에 오르면 군더더기 없는 평평한 사각의 콘크리트 판이 새로운 땅이 되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의 대지환경과 대응하여 마음과 영혼을 편안하게 받쳐준다. p174
  - 오늘날 풍요한 건축에 반하는 비건축이다. (중략)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이 정작 이 시대에 다시 되새겨야 할 가치임을 역설하고 있다. p175

- 바로 현대의 기오현이다. 선비의 오기로 마음을 다잡아 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기오현은 (중략) 창덕궁 내의 다른 화려한 정자와는 달리 작지만 반듯하고 검박하지만 초라하지 않은 품위 있는 집이다. p175
- 드넓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은 가능한 작고 검소하게 하여, 오로지 자연을 경외하는 데 힘을 쏟는 공동성의 발현과 청빈의 미덕이 여실히 드러나는 집이며, 이를 통해 천지인이 합일한 근원의 세계에 이르려는 조선 선비들의 의지가 구현된 집이다. p176
- 임진영, [특집] 건축가 조병수, 공간, 2007.04
  - 기능과 재료 본연의 특성에 충실하면서도 그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을 발견
  - 대지와 건물, 안과 밖, 건물과 주변에 대한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다.
- 네이버캐스트, 건축가 조병수 / 임진영
  - 건축가 조병수가 추구하는 건축은 굳이 비교하자면 막사밭과 닮았다. 고려청자나 백자처럼 기교나 공예적 완성도는 없지만 담백한 실용의 미가 있다. 집으로 치면 시골 길가에 놓인 창고나 옛 건물 같다. (중략) 절제된 형태에서 느껴지는 성스러움이나 무심하게 만들어진 사발의 기품이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그의 건축을 두고 ‘거칠 속의 세련, 세련 속의 무심함’이라고 표현한다.
  - “단순한 박스지만 주변과 연계가 중요해요. 하늘과 땅과 주변 자연과 어울리게 하는 거죠”
  - 조병수의 건축은 한국적 감성을 지니면서도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한다. 절제된 형태와 모던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외부 공간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비평가들은 “후기 모더니즘의 추상성과 동양사상의 연계 속에 ‘유기성과 추상성’을 포용한다”고 평한다.



⑩ 이응노기념관 (조성룡, 2011)



[그림 4-37] 이응노기념관  
출처: 「와이드AR 28」(2012.07-08)

- 모티브 : 산 중심의 배치, 전통조경방식, 코스모스케이핑, 채와 채 사이 틈을 통한 주변과 소통, 틈새, 비움
- 효 과 : 자연공간과 인공공간의 경계 와해

□ 주요 서술

- 구본준, ‘이응노의 풍경화처럼’ 터와 교감하는 건물, 한겨레, 2011.11.23
  - 꾸민 듯 꾸미지 않아 보이는 너른 마당과 연못
  - 주변 농가들과 완만한 산세를 압도하면서 홀로 튀지 않도록 건물을 나눠 배치해 과시보다 장소와 교감하는 느낌을 추구
- 김미상, 경관과 환경 속의 집, 와이드AR 28, 2012.07/08
  - 로비와 기획 전시실은 정확하게 용봉산과 일원산을 연결하는 축, 즉 북동-남서 방향 축선상에 배치되었다.
  - 산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수법은 숭산사상, 주역이론, 풍수이론, 기이론 등등이 복합적으로 얹혀 적용되어 온 전통적인 방식
  - 월산, 용봉산, 태백산맥, 백두산, 그리고 하늘로 이어지는 맥, 그리고 한반도의 기의 정점에 이르는 배치로써 국토적인 스케일, 우주적인 스케일과 연관지

어지고 있는 것이다.

- 우리의 전통 조정 방식, 그리고 그에 의거한 조성룡의 조정 행위는 우주의 질서를 염두에 두는 까닭에 코스모스케이핑이라고 불려도 무난할 것이다.
- 물리적 구조체인 벽은 땅의 연장처럼 해석이 가능하고 표피에 씌운 목재, 그리고 석재를 연상케 하는 콘크리트는 그리 어색하지 않다.
- 혼동적 배치에도 불구하고 (중략) 기본적인 합리주의적 평면은 엄연히 존재하여 질서를 암시
- 공간의 흐름을 단속적으로 차단하여 불연속성을 조성하는 동시에 각 공간은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완전한 공간성과 장소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배치 수법을 형태적으로 유사한 장 누벨의 리움 등 현대의 서양 건축가에게서 발견하기보다는 우리의 전통 건축에서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친숙하고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단일채의 가소성보다는 전반적인 주변 환경과의 어우러짐을 꾀하며 각 채와 채 사이의 틈을 통하여 주변과 소통한다.
- 비교적 성격이 확실히 부여되지 않은 다목적의 실들을 배치
- 우리 건축에서의 공간은 허, 즉 틈새, 비움 등을 통하여 공간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으며, 눈에 감지되지 않은 공간 역시 실재의 공간만큼이나 살아 생생한 것으로 고려되곤 한다.
- 전통적인 건축 사상의 맥은 그로 하여금 경관, 자연, 역사와의 연결을 잇는 주요한 기저가 되고 있다.

• 민현식, **풍경의 아크로바트, 와이드AR 28**, 2012.07/08

- 지형 공간은 북측으로 크게 열리면서 저 멀리 굽게 그려졌을 능선과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지는 ‘용봉산’이 갑자기 눈에 다가온다
- 건물들, 보리밭과 연지 그리고 용봉산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지 (중략) ‘관계 맺기’가 이곳에서 행산 선생의 첫 건축행위
- 들어섰으나 아직도 집 안이 아니다. (중략) 아직도 외부와 크게 구별되어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본래의 지문과 지형을 따라 그것의 형상과 기억을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인 듯

- 건축을 하나의 오브제로 보기보다는 환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인자로 보는 것
  - 이미 있어 온 풍경에 하나의 집을 보태어 또 다른 새로운 건축적 풍경을 영조
  - 자연과 인간, 그리고 자연 공간과 인공 공간의 경계가 와해되고, 인공물과 자연물의 구별 또한 무의미
- 조성룡 + 정귀원, 조성룡 인터뷰, 와이드AR 28, 2012.07/08
    -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어느새 풍경 속에 내가 있는 것
  - 조성룡, '이응노의 집, 이야기' , 이응노의 집, 수류산방, 2012
    - 전시실의 전면벽은 땅이 그대로 이어진 듯 황토가 켜켜이 자연스런 결을 이루고, 전시실 사이사이 난 창과 만나는 안쪽 벽으로 햇빛과 바람이 결을 드리운다. p125
  - 김미상, '이응노의 집 - 문화 문명의 교차점' , 이응노의 집, 수류산방, 2012
    -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느껴지는 소박한 외양과 배치, 건물이 들어설 터가 지닌 기존 지형의 적절한 적용, 또는 그 자신이 건축물 안팎에 인공적으로 지형을 조성하면서 연출해 내는 무리 없는 이동 경로는 유연하고 자연스런 공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곤 한다. p138
    - 산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수법은 숭산사상, 주역, 풍수, 기이론 등이 복합적으로 얹혀 적용되어 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주론을 근본으로 하는 정신적 배경에서 출발한다. p142
    - 땅에서 나무처럼 박스가 솟아 나오는데, 이 박스들은 자원의 상태인 혼돈을 상징하듯 아무렇게나 던져진 것처럼 배치되었다. 그러나 기본이 되는 합리주의적 평면은 엄연히 존재하여 질서를 암시한다. (중략) 건물 전체로 본다면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얹혀 있다기보다는 자의적이라고 할 만큼 부수적인 평면들이 들러붙어 있는 형국이다. (중략) 이런 배치 수법을 형태적으로 유사한 장누벨의 리움 등 현대의 서양식 건축물에게서 발견하기보다는 우리 전통 건축에서 발견하는 것이 더 친숙하고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pp157-158
    - 우리나라 건축의 특징을 단일체의 가소성 자체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어우러짐을 꾀하며 각 채와 채 사이의 틈을 통하여 주변과 소통한다. 그러므로 한옥의

배치는 자연과 하나처럼 어우러질 수밖에 없다. p158

- 비교적 성격이 확실히 부여되지 않은 다목적의 실들을 배치하는 까닭에 서양의 경우처럼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간감은 약한 경우가 많다. 우리 건축에서 공간은 허, 즉 틈새, 비움 등을 통하여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으며, 눈에 감지되지 않는 공간 또한 실재의 공간만큼이나 살아 생생한 것으로 고려되곤 한다. pp158-159
- ‘이응노의 집’에서 건축물이 작게는 앞의 마당, 연밭과 들판, 멀리는 더 큰 스케일의 자연,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은, 전통적인 건축 사상과 우주관을 잘 반영한 것이며 오브제 중심의 건축보다 경관적이고 다분히 생태를 고려하고 있는 건축이라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p161

⑪ 금산주택 (임형남+노은주, 2011, 2012 아천상 수상)



[그림 4-38] 금산주택

출처: 박영채 촬영, 임형남+노은주(2011), 「작은 집 큰 생각」

■ 모티브 : 공간의 흐름, 도산서당

■ 효 과 : 군더더기 없이 단정한 기품, 누추하지 않으면서 사치스럽지도 않은 소박함

□ 주요 서술

• 임형남·노은주, 작은 집 큰 생각, 교보문고, 2011

- 한국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이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건축은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 동영상처럼 공간과 공간 사이로 끊임없는 흐름이 있다. 그리고 내·외부의 방들은 그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빛과 바람 같은 자연의 요소들이 지나가는 흔적을 담는다. pp6-7
- 우리는 집의 주인에게 진악산을 바라보는 동서로 긴 집을 권했다. 집의 여러 가지 조건이 육백 년 전의 위대한 철학자 이황의 집 ‘도산서당’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도산서당’은 일자형의 단순하고 작은 집이지만, 큰 생각을 담고 있다. p7
- 침실과 손님방과 최소한의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서재가 되는 다락방을 담은 금산주택은 ‘도산서당’의 구성을 그대로 닮았다. p10
- 그 단점(단조로움)을 보완하는 방법은 하나다. 가변적이고 서로 엮이며 조화를

가지는 방법밖에 없다. 문을 열어 놓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공간들이 엮이는 방법, 그림으로써 그런 느슨한 관계 속에서 공간이 자연스럽게 흘러 다니는 방법을 취했다. 공간들뿐이 아니라 초록이나 바람이나 빛도 자연스럽게 넘나들게 된다. p82

- **홍승재, 2012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아천건축상 심사평**

- 금산주택은 도산서당을 모델로 하였다. 퇴계가 추구한 선비의 이상이 담겨있는 도산서당과 같이 이 집도 군더더기 없이 단정한 기품이 느껴진다.
- 열린 마루는 바람을 담고, 앞뒤로 열린 창은 여러 커로 중첩되는 산을 담는다. 집은 누구나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은 단순한 일자형 집일뿐이지만, 그 내용은 풍부하다.
- 도산서당과 같이 누추하지 않으면서 사치스럽지도 않은 소박한 이 집은 한국의 산천에 어울리는 조형의지와 최소의 공간으로 한국적 공간구성과 특성을 잘 풀어낸 수작이라는 것이 심사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 4. 소결

이 장에서는 현대 한옥미학 술어의 계통을 정리·분석하기 위해 한옥미학의 주요 개념들을 형식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미학술어는 저자의 인명, 건축적 근거가 되는 대상과 함께 관계도로 도식화되어 술어와 술어의 관계, 술어와 건축적 근거의 관계가 정의된다. 이렇게 문헌별로 정의된 도식들을 결합해나가면 한옥미학지도가 구성된다.

한옥미학지도는 방대한 양의 문헌의 상호관계를 통합하는 도구로서 한옥미학의 계통 분석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그래픽 유틸리티를 활용해서 시각화되는 한옥미학지도의 기본형태는 크게 유기적 형태와 위계적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유기적 형태에서는 관계성이 집중되는 술어가 중앙에 위치하게 되며, 위계적 형태는 상위개념과 파생개념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한옥미학지도를 통해 술어의 위상학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한 술어로부터 상위 단계 혹은 하위 단계의 술어로의 브라우징이 가능하며, 건축사례를 중심으로 술어들을 모아볼 수도 있다. 특히 노드가 집중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개념의 집중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술어들의 개념적 크기, 즉 내용의 풍부함을 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이웃한 유사 개념들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고유섭, 주남철, 안영배, 윤장섭, 김성우, 김수근, 장경호, 김동현 8인의 저술에 근거한 한옥미학지도에서 독보적인 비중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자연과의 조화’와 ‘비대칭성 균형’이다. 이 두 술어는 한옥미학의 근간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제3장의 대상별 서술 분석에서 구분한 범주인 ‘자연’과 ‘공간’에 해당하는 특징이며,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조형적 형태를 강조하는 서술어는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 두 술어 또한 높은 비중으로 등장하는 것일 뿐 한옥미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는 없다.

한옥미학지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한옥미학 술어의 전개 방향은 먼저 동의어 및 유사어로 확장되어 나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균제성’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확장되어 ‘비대칭성 균형’과 연결된다. 다음으로 ‘자연과의 조화’와 ‘인간적 스케일’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단아한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처럼 끊임없이 생성되는

열린 체계이다. 이는 ‘순후’와 ‘질박’이 결합하여 ‘순박’을 생성하고, ‘순박’이 ‘구수한 큰 맛’의 ‘구수한’을 대체하면서 ‘순박한 큰 맛’이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한옥미학을 표현하는 문장들은 하나의 술어로 완결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술어가 서로 만나 해체되고 결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각각의 술어들은 공통적인 종착점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술어으로써 한옥미학의 본질을 확신하고 모든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초월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옥미학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한옥미학지도에 표현된 각각의 술어는 그 근거사례들의 실존을 통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이들 술어는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 스스로 설명이 미치지 못하는 사례에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된 의미 네트워크는 항상 열려있는 체계로서 건축에서의 한국성을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옥미학은 가족유사성의 확장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유사성이란 모두가 공통되는 특징은 없지만 서로 교차한 유사성 때문에 그들을 가족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을 가리킨다. 한옥미학에 적용해보면, 건축에서의 한국성은 본질적 정의가 불가능하지만 그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들의 유사성에 의해서 정의가 가능하며, 그 유사성을 대표하는 술어들의 집합이 곧 한옥미학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옥 미학의 기원과 전개는 초기의 선구자들의 초석이 가족유사성의 기초를 형성하고 후학들의 해석이 보태지면서 대마로 발전해가는 바둑 대국으로 비유될 수 있다. 각축을 거듭하는 술어들의 경쟁은 미학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로 일부 수렴되었고, 건축적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는 비대칭적 균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한편 한옥미학 논의를 지속해 온 가장 큰 원동력은 현재적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발생 이래 국가적, 민족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동되어 온 전통의 계승이라는 명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굴레였으며, 특히 제국주의와 반민주독재 치하를 겪어 온 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강령으로 군림했다.



건축가들은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수주하기 위해, 또한 자기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옥미학의 추종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기와지붕이라든지 목구조, 담장 등을 직접 차용하는 전통의 계승에는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가를 작가로 간주하고 건축물을 작품으로 정의하는 근대 작가주의의 사고 아래 건축물은 건축가의 창의력이 십분 발휘된 독창적인 작품이어야 했는데, 관습적인 형태와 기법을 가지고 있는 한옥은 건축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졌다. 더구나 독재정권의 대규모 건축사업이 전통의 직접 모방을 강요하면서 그 반발은 더욱 심화되었다.

건축학자들 역시 한옥미학에 일정한 거리감이 있었다. 실증주의 학문방법론이 우세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만 건축물이 기술되었고, 미학적 가치 서술은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서 건축적 본질에서 떨어진 것으로 기피되었다. 또한 국제주의 건축사조에 대비되는 토속건축의 미학을 논하는 것이 각광받는 일이 될 수는 없었다.

위와 같은 건축계의 입장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개발될 수 있었던 한옥미학은 형태를 철저히 무시한 한없는 추상화의 방향으로만 전개되었다. 전통논쟁의 효시가 되었던 김수근의 부여박물관으로부터 강봉진의 국립중앙박물관, 김기웅의 독립기념관, 김석철의 예술의 전당, 승효상의 수졸당, 우규승의 환기미술관, 조병수의 ㅁ자집, 조성룡의 이응노기념관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건축에서의 한국성 논의는 물질적 형태와 추상적 공간구조의 대결로 압축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추상적 공간구조의 승리로 판정난 듯이 보인다. 건축가들에 의해 한옥건축은 ‘텅 빈’ ‘무용의 공간’이면서 ‘청빈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정의되었고, 나지막하게 배치되거나 매스를 분절하거나 마당을 만드는 행위들은 모두 한옥미학을 계승한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구체적인 질감이나 형태가 드러나는 경우는 점점 더 배제되어왔다.



## 제5장 현대 한옥미학의 외연과 참조

1. 한국문화 분야에서의 한국미 논의
2. 민족건축미학 서술의 해외사례
3. 소결

### 1. 한국문화 분야에서의 한국미 논의

#### 1) 미학 개념어의 번역과 발굴

현대미학은 실상 서구 미학에서 출발했다. 서양의 학문이 수입되면서 아름다움을 규정하는 다양한 개념이 함께 들어왔으며, 그것은 전통적으로 묘사되던 어휘와는 다른 것이었다.

서양의 미학개념은 번역을 통해 수입되었다.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학술용어의 번역은 필수 조건이었고, 이에 따라 번역된 새로운 어휘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번역은 서양의 개념을 한자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의미의 굴절과 왜곡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처음에 서구의 미학 개념어가 번역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일은 다른 모든 연구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번역을 통해 서구의 학문을 받아들였으나, 일본, 중국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였다. 일본, 중국이 원서를 직접 번역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우리는 그 원서를 번역한 일본어 혹은 중국어 문헌을 다시 번역하는 ‘이중 번역’에 크게 의존하였다.<sup>49)</sup> 그 결과 한국에서의 번역은 일본이나 중국 번역자에 의해 선택된 어휘를 다시 한국어로 고쳐놓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삼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

49) 김옥동(2010), 「번역과 한국의 근대」, p.55

는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유입된 일본어 문헌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오늘날 한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서양 학문 유래의 단어들은 일본어로 번역된 어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때, 미학분야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 ① 미(beauty)

미(美)는 현대 미학의 핵심개념이고, 한자 용례가 많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쓰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는 미의 개념은 beauty의 번역으로부터 출발한 근대적인 개념이다.

일본에서 미(美)와 관련된 서양어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하루마와해(ハルマ和解)」(1796)<sup>50)</sup>라는 네덜란드-일본어 사전에서였다. 이 사전에서 네덜란드어 ‘schoon’을 ‘미려(美麗)’, ‘좋음’으로 번역하였고, 「영화사전(英華辭典)」(1866-1869)<sup>51)</sup>에서는 ‘beauty’를 ‘색(色)’, ‘미(美)’, ‘미려(美麗)’ 등으로 번역하였다.

서양 번역어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일본에는 ‘미(美)’와 유사한 개념이 있었다. 제아미(世阿彌, 1363?-1443?)<sup>52)</sup>의 ‘화(花)’<sup>53)</sup>, ‘유현(幽玄)’<sup>54)</sup>, 센노 리큐(千利休, 1522-1591)<sup>55)</sup>의 ‘와비(侘び)’<sup>56)</sup>,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sup>57)</sup>의 ‘풍아(風雅)’<sup>58)</sup>, ‘사비(寂

50) 稲村三伯, 宇田川玄隨, 岡田甫説(1796), 「ハルマ和解」, 일본 최초의 네덜란드-일본어사전으로, 프랑소와 하루마(François Halma)의 「네덜란드-프랑스어사전」(1792)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51) Wilhelm Lobscheid(1866-1869), 「英華辭典(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홍콩에서 간행된 총 4권의 영어-중국어 사전으로, 영어-일본어사전 편찬에 큰 영향을 미쳤다.

52) 무로마치(室町)시대(1336-1573) 초기의 전통예능극(현재의 노(能)사, 오늘날의 노(能)를 완성한 인물이다.

53) 世阿彌의 「風姿花伝」(1400-1420)에 나오는 표현. 「風姿花伝」은 1400년부터 약 20여년에 걸쳐 집필, 개정된 총 7편의 노(能)의 이론서로 그간 비밀문서로 전해내려오다 1909년 요시다 토고(吉田東伍)에 의해 학회에 발표되면서 널리 읽히기 시작했다. 노(能)의 수행법, 마음가짐, 연기론, 연출론, 역사, 노의 미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미학의 고전으로도 불린다. 관객에서 감동을 주는 힘을 ‘화(花)’로 표현하고 있다.

54) 노(能)가 표현하는 미적 개념으로 「花鏡」(世阿彌, 1424)에서는 ‘우아함을 가지는 것, 여성적 아름다움’이라 하였다. 정숙미와 우아미가 합쳐진 개념이 노(能)에서의 유현이라 할 수 있다.

55) 전국(戰国)시대부터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에 걸쳐서의 다인(茶人)으로 와비차(わび茶)의 완성자로 알려진 다도의 대가.

56) 센노 리큐가 활약하기 전부터 있었던 개념으로 본래 ‘조야(粗野)한, 변변치 않은, 뒤떨어지는’ 등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다가, 센노 리큐에 의해 화려함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다도에 접목되면서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졌다. 여기서는 ‘불필요한 것을 없앤 간소한 아름다움’, ‘소박하고 수수하지만 청초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 등을 칭하는 개념이다.

57) 에도(江戸)시대 전기에 활약한 일본 최고의 하이쿠 시인(俳諧師).

58) 시, 문예, 서화 등의 예술 일반을 일컫는 개념으로, 마쓰오 바쇼(松尾芭蕉)문류 하이쿠(俳句)의 기본이념 중 하나이다. ‘품위가 있고 우아한 취향과 맛이 있는 것’, ‘속되지 않고 우아한 것’의 뜻.

び)<sup>59)</sup>,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sup>60)</sup>의 ‘모노노아와래(もののあわれ)’<sup>61)</sup>와 같은 개념들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번역어 ‘미(美)’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며 하나의 관념을 넘어 가치관, 정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 ‘미(美)’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국어학자 이희승(1896-1989)의 ‘멋’,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인 이양하(1904-1963)의 ‘오시어시티(otiosity)’, 시인 조지훈(1920-1968)의 ‘아름다움’, ‘고움’, ‘멋’, 문학평론가 천이두(1930-)의 ‘한’, 철학자 조요한(1926-2002)의 ‘신명’ 등을 들 수 있다.

## ② 자연(nature)

‘자연’이라는 단어는 동아시아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말이지만, 근대 이후 번역어로서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면서 이중성을 띠게 되었다. 번역어로서의 ‘자연’은 독일어 ‘natur’에서 온 것으로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인공·인위로 이뤄진 것으로서의 문화에 대하여 인력에 의해 변경·형성·규정되지 않고 저절로 생성·전개에 의해 이뤄진 상태, 정신적이 아닌 외적 경험 대상의 총체, 물체계 및 물체계의 여러 현상’이라는 명사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자연’은 노자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저절로 그렇게 된 모습, 천연 그대로로 인위적인 것이 가해지지 않은 모습’이라는 형용사를 뜻한다.<sup>62)</sup>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인위’적인 것과 대립한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고유어로서의 ‘자연’은 ‘인위’와 양립하지 않지만 번역어로서의 ‘자연’은 ‘인위’와 대립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이다.

‘nature’는 분야에 따라 다른 어휘로 번역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래의 뜻과 번역어의 뜻이 서로 혼용되어 ‘nature’의 번역으로서의 개념이 아닌 고유어의 개념을 빌려와 번역어가 만들어지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natural selection’, ‘naturalism’과 같은 어휘가 그 예이다.

59) ‘와비(侘び)’와 마찬가지로 본래 개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화함, 사람이 없어 조용해짐’ 등의 뜻이었으나, 「초래즈래구사(徒然草)」(1330-1331?)에서 오래된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의식이 엿보이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으로는 무로마치(室町)시대(1336-1573) 이후 하이쿠(俳句)에서 중시되면서 이론화되기 시작했다. 마츠오 바쇼(松尾芭蕉) 이후 하이쿠에서는 중심적 미의식으로 등장하나, 마츠오 바쇼 본인이 직접적으로 남긴 이론은 남아있지 않다.

60) 에도(江戸)시대 후기의 국학자이자 문헌학자, 의사.

61)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가 「紫文要領」(1763)과 「源氏物語玉の小櫛」(1799)에서 제창한 개념으로, ‘사람이 보고 듣고 닿는 것에 감동하고, 그 정취를 깊게 느끼는 마음의 움직임’을 뜻한다. 그 정점을 찍는 작품이 「源氏物語」(紫式部, 저작년도 미상)라고 하였다.

62) 柳父章(2011), 「번역어의 성립」, p.134

### ③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은 18세기 영국 사상가 샤프츠베리(Shaftesbury, 1671-1713)의 개념으로, 무관심적이란 ‘자기 이해가 동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미를 바라보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본래 윤리학에서 다뤄졌으나 미학연구에서도 감각론적 경험론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미에 대한 논의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개인의 이익, 욕망과 같은 감정은 순수한 미적 감상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고, 이러한 감정이 배제된 상태를 무관심적이라 하였다. 칸트(Kant I., 1724-1804)는 순수한 미적 판단에서 느끼는 만족은 일체의 관심과 무관한 만족이라 보았는데, 여기서의 관심이란 ‘어떤 대상의 현존의 표상과 결합되어 있는 만족’으로 선(善)이나 쾌락에서 얻는 만족과는 다른 만족이다. 즉,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익적 동기로부터 유발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얻는 만족은 관심이 배제된 관조적 만족이다.

이와는 달리 한국미 논의에서 언급되는 무관심성은 미적 가치의 근원으로 자연을 보는 태도를 일컫는 것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가공을 하지 않은, 자연 본연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는 미의식이다. 고유섭(1905-1944)은 구부러진 목재를 반듯하게 다듬지 않고 휘어진 채로 사용한 기둥이나 보,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초석으로 사용한 덩벙주초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한국미의 특징을 찾아냈다. 한국미에서 말하는 무관심성은 계획된 규격에 ‘무관심한’ 자연스러움으로, 완전한 미감, 균형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양식적 규격을 거부하는 미완성적 혹은 자연성으로 드러난다.

## □ 미학 술어 번역어의 특징

번역어의 특징은 의미의 중첩과 혼재를 통한 새로운 의미의 탄생시킨다는 점에 있다. 기존의 한국어가 번역어로 사용되면서 의미의 이중성이 만들어지고, 나아가 본래의 뜻과 번역어의 뜻이 더해져 제3의 뜻을 갖게 되기도 한다.

또한 번역어는 ‘카세트 효과’에 따라 사회적 유통이 되는 특징을 가진다. ‘카세트 효과’란 야나부 아키라(柳父章, 1928-)가 만들어 낸 개념으로, 어떤 말이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을 것만 같은 느낌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현상을 뜻한다.

### ■ 카세트 효과<sup>63)</sup>

“카세트(cassette)란 작은 보석상자를 의미하며, 내용물이 원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매혹하고 끌어당기는 물건이다.

‘사회’도 그리고 ‘개인’도 일찍이 이런 ‘카세트 효과’를 발휘한 단어였으며, 그 효과는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오늘날의 일본인들에게도 여전히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현대미학이 번역을 통해 구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서양의 미학개념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전통문화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다른 맥락에서 쓰이던 어휘를 미학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가치 발굴의 과정은 전통미학의 확장과 체계화에 기여한 측면이 크며, 특히 서구 미학과 상호 교환·소통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63) 柳父章(2011), 「번역어의 성립」, p.49

## 2) 한국 미학의 모색

### □ 미학 교육의 탄생

한국에서 미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온 것은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서이다. 이에 앞서 일본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동경제국대학에서 페놀로사(Fenollosa E., 1853-1908)에 의한 헤겔미학을 중심으로 한 강의, 모리 오가이(森鷗外, 1862-1922)에 의한 하르트만미학 등 동시대의 독일미학에 대한 강연, 어용학자였던 라파엘 본 케벨(Raphael von Koeber, 1848-1923)에 의한 칸트철학, 미학 및 미술사 강의 등이 이루어졌다. 1899년에는 동경제국대학 문학부에 미학강좌<sup>64)</sup>를 개설하고, 초대 교수로 오오츠카 야스지(大塚保治, 1869-1931)<sup>65)</sup>를 임명하였다. 유우겐(幽玄), 아와레(哀れ), 후우가(風雅), 사비(さび), 와비(わび) 등 일본미의 개념 정리가 주된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7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미학 강좌가 개설된 것이 최초의 미학교육이다.<sup>66)</sup> 독일 유학파인 우에노 나오테루(上野直昭, 1882-1973)가 강의를 맡았으며, 그 해 경성제대 법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한 고유섭도 우에노에게 미학을 배웠다. 해방 이후인 1946년,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해 서울대학교로 이전되었으나, 학과의 소속이 문리과대학이 아닌 예술대학으로 편입되었다. 1953년, 예술대학이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으로 분리되면서 문리과대학으로 소속을 옮겼으나 학사행정상의 이유로 미술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관장하였으며, 문리과대학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1960년이 돼서야 이루어졌다. 미학은 철학에 뿌리를 둔 학문으로, 학문의 성격이 전혀 다른 예술대학에 속해있는 동안 학문의 발전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문리과대학으로의 복귀 후, 학과로서의 짜임새를 갖추면서 대학원이 활성화되고, 1968년에는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중심으로 한 한국미학회<sup>67)</sup>가 창립되는 등 발전의 흐름을 보였다. 그 후 1979년,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철학과 내의 전공 과정으로 편입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1981년, 대학원 과정이 먼저 독립되었고 이어서 1984년에는 학부과정도 미학과로 복귀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외국 유학파들이

64) 여기서의 강좌는 대학원 또는 대학에 설치되는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조직을 뜻하는 것으로, 교수, 조교, 강사, 조수 등의 인적구성으로 이루어짐.

65) 동경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 후, 1896년부터 4년간 유럽 유학. 동경제국대학 미학과에 최초의 일본인 교수로 임용됨.

66) 장미진(2005), “한국의 미학과 한국미학의 방향성”, 『미학·예술학 연구』 v.21

67) 미학의 학술적 연구 및 학술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둔 조직으로, 국내외 미학 연구 활동의 교류를 위해 외국 학자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1971년에는 연구 성과의 발표와 공유를 위해 학술지 『미학』을 창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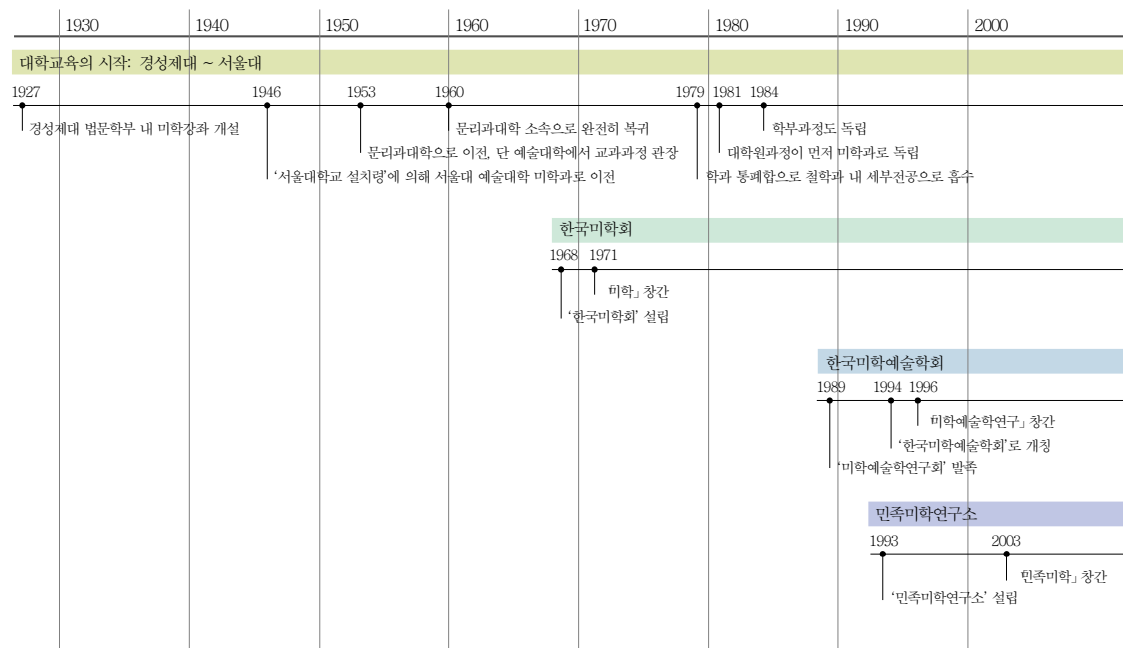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학문적 성장을 보이게 되었다.<sup>68)</sup>

‘한국미학예술학회’는 이러한 흐름을 속에서 미학·예술학 및 그 인접 학문에 관한 연구 활동과 그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1989년, ‘미학 예술학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하였다. 1994년에 ‘한국미학예술학회’로 개칭, 보편적인 미와 예술 개념에 관한 연구, 다양한 예술 장르의 고유성에 관한 연구, 작품·작가·제도 등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구를 추구하는 한편, 학제간 네트워킹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1996년에는 학술지 「미학 예술학 연구」를 창간하였다.

그 밖의 학술조직으로는 1993년에 설립된 민간연구소인 ‘민족미학연구소’가 있다. 미학, 예술학, 민속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민족미학의 정초를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2003년부터는 학술지 「민족미학」을 발행하고 있다.

[표 5-1] 해방 이후 미학교육과 학회의 움직임



68) 서울대학교 미학과 학과사 (이창환, 2000.03.15) 참고(<http://plaza.snu.ac.kr/~meehak/>)

## □ 미학의 대상으로서 한국미 논의

한국미학예술학회에서는 1999년, ‘한국예술의 해석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한국미학의 정초를 위하여 여러 분야의 학자들을 초빙하여 매년 봄 학술대회에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총 5회에 걸친 심포지엄은 음악, 미술, 종교, 문학, 무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예술을 탐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학제 간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미의식에 대한 연구의 총체적 전망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sup>69)</sup> 제1회부터 제3회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예술의 해석가능성’이라는 대주제 하에 각 분야에서의 한국미학 논의를 살펴보고, 제4회부터는 ‘무속과 한국예술’(2002), ‘한국미의 심층적 구조’(2003) 등 더욱 구체적인 주제를 갖고 접근하였다. 2005년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미학 연구의 방향성’을 주제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총 다섯 차례의 심포지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한국미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표 5-2] 한국미 모색을 주제로 한 한국미학예술학회 학술대회

제15회 학술대회(1999.5)	
<b>한국예술의 해석가능성 1</b>	한국미의 탐구를 위한 서론 (조요한) 한국음악의 미적 유형 (한명희) 전통연행 속에 숨어 있는 미학적 단초-줄당기기와 줄타기 (채희완) 한국미술의 미적 특징 (김임수) 조선불화의 미-하단탱화의 알레고리와 해학 (장미진)
제17회 학술대회(2000.5)	
<b>한국예술의 해석가능성 2</b>	한국예술의 해석가능성-한국미술에 나타난 미의 탐색 (지순임) 조선조 중인음악의 미의식 (전인평) 한국 고대예술 원형질 탐구방법 시론-제천의식을 중심으로 (김양동) 풍류사상의 미학적 의의 (민주식) 변증법과 생극론의 소설미학 토론 (조동일)
제19회 학술대회(2001.6)	
<b>한국예술의 해석가능성 3</b>	정체성 규명과 해석가능성의 모색 사이 (이인범) 한국의 불교와 예술-불교에서 예술사상 읽어내기 (심재룡) 한국전통음악의 조(調)에 대한 미의식의 형성-역사적 고찰 (이성천) 탈춤 ‘침놀이’ 마당에 구현된 신명 풀이 (김현선) 건축미학에서 본 한국성 문제 (김경수)

69) 장미진(2005), “한국의 미학과 한국미학의 방향성”, 『미학·예술학연구』, v.21

제21회 학술대회(2002.5)

- 무속과 한국예술**      무속과 한국미학의 단초 (장미진)  
한국의 종교문화와 민간신앙 (정진홍)  
무속과 한국미술-3기능체계의 서장을 열며 (박용숙)  
산조의 미학과 무속신앙 (김열규)  
진도씻김굿의 미적 경험과 의미화 (박미경)

제23회 학술대회(2003.5)

- 한국미의 심층적 구조**      한국 전통미학사상의 구조 (민주식)  
한국예술의 심층구조로서 정(情)과 한(恨)의 아우름 (이도흠)  
한국미의 수리적 조화의 원칙 (권오성)  
태극음양론과 한국전통예술의 미의식 (조민환)  
동양철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미의 심층 이해 (조민환)  
‘예술성의 기’의 관점에서 본 한국예술의 생명력 (김인환)  
한국예술과 유가사상: 유가적 문예관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하정화)  
풍류도와 한국음악의 연관성 (한홍섭)  
한국 춤의 원류와 미적 세계 (채희완)

제28회 학술대회(2005.4)

- 한국미학 연구의 방향성**      한국의 미학과 한국미학의 방향성 (장미진)  
‘흰 그늘’의 미학을 찾아서 (김지하)  
동양철학과 한국미학의 구도 (김형효)  
전통예술 연구와 한국미학 (민주식)  
한국미학 연구의 문제와 방향 (권영필)

2005년도에는 한국미의 범주 연구(연구과제명: 민족미학의 기초개념 연구-한국미의 범주 체계론)가 한국학술진흥재단<sup>70)</sup>의 인문사회분야 심화연구로 채택되었다.<sup>71)</sup> 연구책임자 김지하(영남대 석좌교수) 외 채희완, 문무병, 정병훈, 김수현, 염재철, 신나경, 하정화, 김현희, 장희창 등이 공동연구자로 함께 참여하였으며, 그 성과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민족미학회 학술지인 「민족미학」에 발표하였다.<sup>72)</sup>

70) 현 한국연구재단

71) 연구기간(2005.09.01 - 2007.08.31), 연구수행기관(민족미학연구소)

72) 「민족미학의 기초개념 연구-한국미의 범주 체계론」(2008)이 연구결과보고서로 출판됨.

[표 5-3] 「민족미학의 기초개념 연구—한국미의 범주 체계론」 연구 성과물

한국미 범주 연구
김수현(2005), “한국미의 범주 체계론을 위하여”, 「민족미학」, v.4
문무병(2005), “한국미의 범주로서의 ‘한’ ”, 「민족미학」, v.5
장희창(2005), “한국미의 범주로서의 ‘해학’ ”, 「민족미학」, v.5
김수현(2007), “한국미의 범주로서의 ‘멋’ ”, 「민족미학」, v.6
신나경(2007), “한국미의 범주로서의 ‘자연’ ”, 「민족미학」, v.6

#### □ 한국미 논의에서 새로운 개념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미, 한국성 등에 대한 미학적 탐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한국의 미적 특성을 서술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개념이 되었던 소박, 단순, 비애, 섬약, 곡선 등의 개념 외에 멋, 신명, 한, 해학, 풍류 등이 새로이 도출되기 시작했다.

#### ① 멋

일찍이 ‘멋’은 ‘맛’과 함께 고유섭에 의해 한국미술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등장했던 개념이다. 당시 고유섭은 ‘멋’을 “멋이라는 것이 부려져 있는 작품”과 같이 인위적인 기교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한편, ‘맛’에 대해서는 ‘구수한 큰 맛’, ‘순박한 맛’, ‘순후한 맛’ 등으로 표현하며 한국미술 고유의 특성으로 꼽았다.<sup>73)</sup> 고유섭이 인위적이고 사치스러운 표현으로 ‘멋’을 ‘맛’과 구분해서 사용했다면, 신석초는 ‘멋’이 비실용적인 사치나 유희의 산물이기는 하나, 직접 사치의 대상은 아니며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유유자적, 안빈낙도, 음풍영월 등 내적인 절제와 은일의 생활에 비중을 두는 풍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74)</sup>

이후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일어난 ‘멋’의 논쟁은 미적 개념으로서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논쟁은 이희승이 우리 문화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멋’이라 하고, 이를 ‘흥청거림’, ‘필요이상의 것’으로 본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한복의 고름, 버선코, 저고리 회장, 한옥의 추녀곡선 등에서 멋을 찾았으며 멋이야말로 실용성을 떠나 통일을 깨고 균제를 벗어나는 한국미의 특색이라고 하였는데<sup>75)</sup>, 이 주장에 대해 조운

73) 고유섭(1949), “조선미술문화의 몇날 성격”, 「조선일보」, 1940.07.26-27

74) 신석초(1941), “멋設”, 「문장」, pp.147-153

제는 ‘멋’은 정서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일 뿐 우리나라 고유의 것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sup>76)</sup> 이에 이희승은 ‘다시 멋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될만한 독특한 정서나 문화를 지녔다면, 그 민족은 그 감성이 남달리 발달되었다는 뜻이고 언어 역시 그에 맞는 방향으로 발달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멋’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어휘임과 동시에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적절히 표현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며, 우리 민족만이 가지는 특이한 정서라고 하였다.<sup>77)</sup> 이 논쟁은 마지막으로 조운제가 이희승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되었으며, ‘한국인의 멋’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인의 ‘멋’은 은근하고 애처로운데 그 본질이 있어 화려하고 풍성한 맛을 없으나 단아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이 있는 풍류와도 같은 것이라 하였다.<sup>78)</sup>

조지훈(1968)은 ‘아름다움’과 ‘고움’과 ‘멋’을 혼동(조용만), 생활풍속에 대한 애정, 익숙한 감정과 혼동(조운제), 멋과 맛을 혼동(정병욱, 신석초) 등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논쟁의 결과를 종합하고 이후의 미학적 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sup>79)</sup> ‘멋’은 한국의 고유한 미의식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으며, ‘아름다움’이나 ‘고움’과는 달리 다른 민족의 미의식에서 이에 대응하는 개념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들며, 한국적 미의식 규명이 ‘멋’의 특질을 찾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② 신명

신명은 한과 대비되는 개념이자 한 미학을 완성하는 개념이다.<sup>80)</sup> 비극적 상황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얻어내는 해방의 정서는 한국미와 예술의 진정한 특성으로, 한에 머무르지 않고 한을 승화시켜 신명으로 풀어낸다.<sup>81)</sup>

한편 신명은 명신, 신바람, 신기 등으로 불리며, 접신 체험, 환희심의 발현, 흥의 발현, 무아지경과 관련된 현상 등으로도 설명된다. 이는 초인간적인 것이 인간의 몸과 마음

75) 김수현(2005), “한국미 범주로서의 ‘멋’”, 『민족미학』, v.5,

76) 조운제(1958), “멋이라는 말”, 『자유문학』, v.3(11)

77) 이희승(1959), “다시 멋에 대하여”, 『자유문학』, v.4(2)

78) 조운제(1962), “한국인의 멋”, 현대인강좌편집회 엮음, 『한국의 발견』

79) 조지훈(1968), “멋의 연구”, 김봉구 외, 『한국인과 문학사상』

80) 문무병(2005), “한국미의 범주로서의 ‘한’”, 『민족미학』, v.5, p.135

81) 이주명(2011), 『미학특강』, p.121

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며, 유량성, 살풀이, 초월성, 상생과 같은 내재적 속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82)</sup> 이처럼 신명은 예술이나 놀이 영역에서는 ‘흥’, ‘한의 승화’의 개념으로, 종교 영역에서는 ‘신기’, ‘접신’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예술과 종교, 생활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동체 농경사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가 함께하는 굿판은 일종의 종교적 행위이자 그들의 삶의 일부인 민속예술이며, 탈춤은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과 분노, 갈등 등 억압된 감정을 춤으로 풀어내는 놀이이다. 이렇듯 쌓여있던 한을 풀어내는 행위를 관찰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술이 아닌 놀이로 다가오게 되고, 집단이 함께함으로 인해 신명풀이의 전염성은 폭발적으로 증대한다. 우리가 ‘흥’과 ‘신명’이 넘치는 민족이라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유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③ 한(恨)

한은 원만스럽거나 억울하여 슬퍼 응어리진 마음을 의미한다.<sup>83)</sup> 문무병(2005)은 ‘한’은 젖어있는 아름다움이며, ‘한’의 미학은 절인 배추 같은, 혹은 삭인 아름다움, 삭임의 미라 하였다. 한편, 신명은 한(恨) 미학의 완성이라면서 부정을 통해 현실을 극복해 내고, 비극적 상황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얻어내는 해방의 정서라 주장하였다.<sup>84)</sup>

천이두(1993) 역시 ‘한’의 내재적 기능으로 ‘삭임’을 언급하고 있다. ‘삭임’을 통해서 원(怨), 탄(嘆)과 같은 공격적, 퇴영적 속성이 정(情), 원(願)과 같은 우호적, 진취적 속성으로 질적 변화를 이루게 되며, ‘한국적 한’이란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는 ‘삭임’의 기능에 연유한 것으로 보았다.<sup>85)</sup>

### ④ 해학

해학은 서양미학에서의 유머와 통하는 개념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미의식이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선천적으로 해학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태에 초연한 자세와 융통성을 가진 해학적 이환

82) 채희완(2005), “민족미학의 기초 개념 I -신명-”, 김수현 외, 「한국미의 범주 체계론을 위하여」

83) 이주명(2011), 「미학특강」, p.121

84) 문무병(2005), “한국미의 범주로서의 ‘한’ ”, 「민족미학」, v.5, p.135

85) 천이두(1993), 「한의 구조 연구」

의 자유를 만끽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sup>86)</sup> 후천적으로도 사계절을 가진 자연 기후와 주변 국가로부터의 침입 등의 비행상성이 순회하고 순환하는 초연한 자세를 가지게 하였다고 보는 등<sup>87)</sup> 미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삶에 임하는 태도로도 해석되고 있다.

고유섭은 인위적이거나 기교적이지 않은,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에서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찾았는데, 권하진·김민자(2010)는 무기교의 기교, 자연스러움, 무관심성과 같은 관조적 태도가 곧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자하는 해학적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88)</sup> 최순우는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익살의 아름다움을 반영하여 조형 위에 구현하는 재주야 말로 관조미의 세계이며 해학미의 세계라고 하였다.<sup>89)</sup> 이러한 익살의 표현은 대담한 생략과 왜곡, 과장을 자연스럽게 다룬 솜씨, 둥근 것이 지니는 좌우 대칭에 대한 무신경, 이지러진 둥근 맛이 주는 공간 등 한국 공예 전반에 나타나며, 최준식(2000)은 이러한 조선후기의 총체적 예술정신을 자유분방성으로 보고, 이 자유분방한 미적 정서에 해학미가 공존한다고 하였다.<sup>90)</sup>

## ⑤ 풍류

풍류란 ‘바람의 흐름’처럼 분방하고 자유로운 정신을 뜻하는 것으로, 환경의 자유로움과 풍격의 고상함을 지닌 자유인의 생활이다.<sup>91)</sup> 이는 실천보다 이론을 학문의 우위에 둔 서양미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동양미학 특유의 개념으로, 한국과 더불어 중국, 일본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풍류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주라이상(周來詳)<sup>92)</sup>에 의하면, 서양의 미학은 재현, 모사, 철학적 인식을 강조하는 반면, 동양의 미학은 표현, 정서의 표출, 윤리학 및 심리학과 통합을 강조한다.<sup>93)</sup> 즉, 동양에서의 미학은 인격과 실천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며 풍류는 그 중심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병훈(2005)은 한국의 풍류가 자연을 완상하고 멋스럽게 노는 운치있는 태도를 칭한다면, 중국은 자유로운

86) 한국문화교류연구회(1998), 「해학과 우리」, p.12

87) 심영옥(2000), “전통 미술 속에 나타난 해학미에 대한 연구”,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v.2

88) 권하진·김민자(2010), “조선후기 풍속화에 표현된 여성복식의 해학미”, 「복식」, v.60(2)

89) 최순우(1993), 「최순우 전집 5」, p.49

90) 최준식(2000),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91) 민주식(2000), “풍류사상의 미학적 의의”, 「미학·예술학연구」, v.11, p.63

92) 산둥(山東)대학교 교수로, 중국 미학계의 원로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논중국고전미학」, 「중국현대미학」, 「주래상미학논집」 등이 있다.

93) Lai-Xiang Zhou(1985), *A Comparison between Eastern and Western Classical Aesthetic Theories*, Univ. of Ottawa Press, pp.465-468

정신과 태도, 이것이 표출된 풍속 및 자태를 뜻하고, 일본에서는 화려함을 더해 꾸민 대상과 그 동작을 칭한다고 설명했다.<sup>94)</sup> 한국의 풍류는 자연, 멋, 놀이, 해학 등의 요소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풍류는 미적 생활방식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멋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멋 역시 ‘정신적인 자유’, ‘현실에 구속되지 않은 생활’과 같이 예술적인 가치 이상으로 생활이념에 대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식(2000)은 풍류가 귀족 계급이나 교양있는 문인의 미의식이나 생활태도를 나타나는 것이라면, 멋은 서민들의 풍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였다.<sup>95)</sup>

---

94) 정병훈 외(2005), “한국미의 범주 체계론을 위하여”, 『민족미학』 v.4, pp.48-53

95) 민주식(2000), “풍류사상의 미학적 의의”, 『미학·예술학연구』, v.11, pp.73-74



### 3) 문화예술계에서의 한국미 논의

한국 예술은 전반적으로 화려한 인위적 기교보다는 소박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 기하학적으로 계산된 비례가 아닌, 어딘가 일그러지고 균형이 깨진 것 같은 형태 속에서도 조화로움을 찾아볼 수 있고, 사물 본연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연스러운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자세는 한국 미학의 특징으로 굳어졌다. 이러한 특징은 미술 및 건축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의 역사가 그리 깊지는 않지만, 음악, 무용, 음식, 복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 한국음악

음악 분야에서의 한국미 논의는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sup>96)</sup> 한국음악학의 선구자인 이혜구(1973)는 한국음악의 특성을 강유와 농담(정악), 자유분방한 리듬(속악), 생명력의 표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sup>97)</sup> 한편, 황병기는 ‘한국전통음악의 미적 특색’이라는 주제로 전통음악을 분석하고 미적 특색을 찾는 기사를 「공간」지에 1975년부터 3년동안 총 16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권오성(1985)은 한국음악의 미적 특성을 느린 템포, 역동성, 변화성, 즉흥성에서 찾았고, 한명희(1985)는 정악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범주를 장려미, 정관미, 유장미, 노련미, 한아미, 순응미의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황병기(1985)는 산조와 판소리에서 선의미, 역동의미, 연속의미, 멋의미의 네 가지 미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98)</sup> 1990년대 이후로는 조, 장단, 짜임새, 윤희음 등 음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한국음악을 학문으로 다루는 움직임이 보편화되었다.

한국음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궁중음악인 정악(正樂)과 일반 민중들이 즐기던 속악(俗樂)이다.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특징인 정악에서는 유장미, 고요한 정관미, 온화한 화평미를 느낄 수 있고, 흥과 신명의 감정이 자유분방하게 표출되는 민속악에서는 파격미와 질박미, 애련미를 느낄 수 있다. 민속음악의 파격미는 즉흥성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연주되는 장소나 연주자의 기분에 따라 형식을 깨는 다양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sup>99)</sup>

96) 송방송(1991), “한국음악사의 특수성과 미의식 시론”, 『한국학연구』, v.4

97) 이혜구(1973), “한국음악의 특징”, 『한국사상대계』, v.1, pp.673-703

98) 황병기(1985), “판소리와 산조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 『한국전통예술의 미의식』, p.104

한국음악의 미적 특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느린 장단이다. 농악 등 일부 민속악에서 빠르고 경쾌한 곡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음악은 서양음악에 비해 긴 박자를 가진다. 단순히 음을 길게 늘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 느린 음 속에는 강유와 농담의 세계가 담겨있다. 수치화된 템포에 의존하는 서양음악과 달리 한국음악의 한 배는 연주자의 호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연주자의 음악적 감성이 그대로 묻어난다. 이러한 강유와 농담은 농현, 미세음과 같은 시김새로, 성악의 경우 긴 장단을 이어가면서 나타나는 모음의 변화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한국의 음악에는 주종의 관계가 없다. 신대철(2002)은 이러한 특성을 횡적인 진행에 의한 곡선의 음악이라 표현하였다.<sup>100)</sup> 단선율로 이루어진 곡선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 곡 전체가 연주자간의 호흡과 조화에 의존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서양음악도 화성론이 등장하는 바로크시대 이전에는 단선율로 이루어졌으나, 악곡이 순차진행 형식을 취하거나 서로 다른 음높이에 의한 반복으로 구성되는 등 조직화된 구조적 짜임새를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의 음악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흐름은 쉽표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여러 악장으로 구성된 곡이라 할지라도 장과 장 사이에 끊김이 없다. 이러한 특성은 단절 없는 무한연속성을 지님으로써 지속적으로 새로운 곡의 덧붙임을 허용하려는 개방적 성격을 보여준다.<sup>101)</sup>

더불어 우리 음악은 기능성과 전용성, 다양성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한국음악은 음악적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위한 예술로서가 아닌 제례의식을 위한 기능으로서 출발했으며 대부분이 궁중음악이었다. 같은 궁중음악이라고 할지라도 의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연향악(宴享樂)이 거상악(舉床樂)<sup>102)</sup>이 되거나, 회례악(會禮樂)<sup>103)</sup>이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으로 쓰이는 등 한 가지의 기능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전용되어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이러한 전용성의 특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음악은 기존의 곡을 바탕으로 변화와 변통의 과정을 거쳐 끊임 없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 왔다. 그리고 같은 곡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틀에 따라 똑같

99) 한명희(1999), “한국 음악의 미적 유형”, 『미학·예술학연구』, v.9

100) 신대철(2002), “한국음악에서의 한국성”, 『한국음악연구』, v.32, pp.47-69

101) 상계서, pp.47-69

102) 연회 때 상을 받기 전에 아뢰던 음악으로 대개 가곡, 가사, 시조 따위를 부름

103) 조선시대 궁중에서 매년 정월 초하루와 동지에 임금과 신하들이 회합하여 행하는 잔치의식인 회례연에서 쓰이던 음악

이 연주되는 것을 피하고, 연주자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하여 연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연주자의 감정에 따라서 매번 다른 음악이 만들어지는 다양성을 보이는 것이다.<sup>104)</sup>

한명희(1999)는 한국음악의 본질은 일탈의 미학에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05)</sup> 민속악의 특징인 즉흥성과 파격미, 정규 장단에 변형을 가한 엇모리 장단, 곡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급변되는 선율 등은 정해진 틀을 깨는 일탈이다. 그러나 규칙이 깨져도 괴리감이 생기거나 전체의 틀이나 격이 깨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일탈의 아름다움은 불쑥 솟아오른 버선코, 살짝 들어 올려진 처마선, 고요한 동작 끝에 강세를 주는 춤 동작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곡선의 이미지는 음악과 조형예술이 만나는 지점이 된다.

#### □ 한국무용

무용분야에서 미학적 담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였고,<sup>106)</sup> 학자들 간의 논의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한국미를 다루기 시작한 첫 세대 연구자는 민속무용학자 정병호와 이화여대 무용학과 교수였던 김매자라고 할 수 있다. 정병호는 다년간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여러 지방에서 전해져 오던 수십 종의 향토무용을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민속무용학자로, 현장에서 연구조사를 수행하면서 지켜본 여러 민속무용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무용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에 반해, 김매자는 궁중무용을 대상으로 한국무용의 미적 특성을 논의했다. 궁중무용이 지배자 중심의 예술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무용정신 역시 정치계급의 지배사상에 크게 의존하였을 것이라 가정하고, 유교 정치사상 중 예악사상에서 미의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김매자가 지적한 미의식은 궁중무용에 배여 있는 단아한 멋, 음양오행적 구성, 유현미 등이다.

한국무용의 특징은 흔히 곡선미, 정중동, 여백미, 유장미, 자연미 등으로 표현된다. 춤사위에 있어서의 선의 아름다움, 즉,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내면성을 띤 곡선적인 선의 흐름에서 곡선미를 느낄 수 있다. 원형 또는 곡선형 대열을 이루는 춤이 많으며,<sup>107)</sup> 동작에 있어서도 손을 위주로 한 어깨의 움직임이 주가 되어 거기서 만들어지는 원과 곡선의

104) 이주명(2011), 「미학특강」, p.130

105) 한명희(1999), “한국 음악의 미적 유형”, 「미학·예술학연구」, v.9

106)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5), 「한국인의 미의식」

107) 정병호(2004), 「한국무용의 미학」, pp.317

형태가 인상적이며, 긴 장삼 소매가 달린 무복을 통해서 곡선의 공간미는 더욱 강조된다.

또한, 움직이는 율동 속에 숙연한 정지가 있고 그 정지 속에 잠겨 흐르는 미묘한 움직임이 우리 춤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들어 ‘정중동(靜中動)’이라고 한다. 한국무용에는 정 속에동이 있고, 가벼움 속에 무거움이 있는가 하면, 약함 속에 강함이 있다. 대부분의 춤에서 정적인 멋과 역동적인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춤 동작의 기본 형식이 맺고 푸는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역동성은 동작의 크기나 속도보다 그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힘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을 일컫는데, 이는 음악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산조음악에 있어서의 음악적 역동성의 핵심은 긴장과 이완에 있으며,<sup>108)</sup> 무용 역시 겉으로는 동작이 없는 듯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무한한 힘을 통해 정중동의 높은 정지를 보여준다.<sup>109)</sup>

이러한 정중동의 춤사위 중 ‘정’의 순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여백의 아름다움이다. 춤에 있어서의 여백미는 동작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공간,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정병호(2004)는 무용의 무성, 무동의 상태에서 느껴지는 여백미를 ‘형이 보이지 않는 시간성을 가진 마음의 여백미’라 하였다.<sup>110)</sup>

음악과 마찬가지로 무용 역시 호흡의 주기에 기초를 두고 있어 정적인 속성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선율적 선의 미에는 우리의 영혼을 시간적 속박에서 벗어나 무한대의 예술적 경지로까지 도달시켜주는 철학이 담겨 있다. 조용하면서도 역동적인 춤 속에서 유장한 선율과 선의 움직임을 통해 끝없는 공간으로 확산하는 무한대의 유동적 유장미를 느낄 수 있으며,<sup>111)</sup> 한국 무용의 형식을 벗어난데서 오는 자유로움과 표현과 동작의 소박함, 지나치게 동작을 꾸미지 않는데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움에서는 자연미를 찾아볼 수 있다.<sup>112)</sup> 이처럼 곡선미, 자연미 등으로 정의되는 한국무용의 특징 역시 한옥미학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

---

108) 정병호(2004), 「한국무용의 미학」, p.330

109) 정승희(1991), “무용적 측면에서 본 한국 곡선미 연구”, 「상명대학교논문집」, v.27

110) 정병호(2004), 「한국무용의 미학」, p.334

111) 상계서, p.336-337

112) 상계서, p.306

## □ 한복

한복은 한옥과 마찬가지로 근대 이후에 들어 서양에서 들어온 의복과의 구별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한국 복식사는 1970년대 후반에 들어 학문의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했으며, 한복의 복식미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이후 서서히 일어나게 되었다. 김영자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복식의 미의식 고찰’(1982)<sup>113)</sup>, 조규화의 ‘백의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미의식’(1984)<sup>114)</sup>, 이경자의 ‘전통한복의 미적 고찰’(1986)<sup>115)</sup>, 금기숙의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1987)<sup>116)</sup> 등의 연구를 토대로 학문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sup>117)</sup>

김영자(1987)<sup>118)</sup>는 보편적인 미의 기준으로 서양의 황금비를 차용하여 한복의 형태미를 고찰하였다. 당시 한국 여성의 평균 신장과 앉은 키, 한복의 저고리와 허리선, 소매 길이 등의 비례를 시대 별로 분석함으로써 시대적 비례미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한복의 아름다움은 서양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미적 원리의 형식 규범, 즉 균형, 비례, 규칙 등의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서양 의복이 trimming과 detail의 장식적 기교로서 복식미를 추구한다면, 우리의 한복미는 무기교의 기교미, 무장식의 장식미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면서, 한복에는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스며있으며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즐기려는 우리의 정취가 담겨있어 서정적이고 은근하며 그윽한 멋이 있다고 하였다.<sup>119)</sup>

이처럼 한복의 한국적 아름다움을 자연미, 소박미, 절제미 등에서 찾는 한편, 형태적 측면에서는 한복을 구성하는 선과 색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다. 한옥 지붕과 처마에서 느낄 수 있는 사뭇히 치켜 올라간 곡선을 저고리와 버선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한국적인 선으로 보고, ‘여유있는 품위를 지닌 완곡면의 아름다움’, ‘수줍은 듯 주저하고 망설이는 듯한 부끄러움과 다소곳이 안으로 스며드는 애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sup>120)</sup> 한편, 백의민족이라는 칭호가 생길 정도로 흰색이 주로 사용된 배경에는 염색이나 장식과 같은

113) 김영자(1982), “문학작품에 나타난 복식의 미의식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v.6.

114) 조규화(1984), “백의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미의식”, 「아시아 복식학술회의」, v.3.

115) 이경자(1986), “전통한복의 미적 고찰”, 「한국문화연구원논총」, v.51.

116) 금기숙(1987),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7) 김영자(2009), 「한국 복식미 탐구」, p.3

118) 김영자(1987), 「한국 복식미의 연구」, 한국연구원.

119) 상계서, p.250

120) 상계서, pp.125-128

특별한 가공을 가하지 않은 소재 본래의 질소한 맛을 추구하는 미적 취향이 담겨있다고 보았다. 또한 같은 흰색이라고 할지라도 백자의 파사로움을 주는 유백색이나 깔끔한 느낌의 청백색, 고결한 느낌의 설백색, 점잔은 느낌의 회백색, 청량한 느낌의 연옥색과 같이 다양하고 은근한 맛을 즐겼다.<sup>121)</sup> 한복을 설명하는 어휘 또한 한옥미학의 술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무기교의 기교, 자연과의 조화, 소박한 특성 등은 모두 한국미학의 초기단계에서 설정되었던 어휘들로서 한옥미학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개념들이다.

## □ 한식

음식분야는 다른 문화예술분야에 비해 학문적 연구의 역사가 깊지 않고, 한식에 대한 관심도 2000년대 이후에 들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미학적 탐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리법이나 세시풍속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한식을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홍사중(2006)은 듽성듬성 찢어 넣는 국거리를 두고, 한식은 미완의 미에서 그 멋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옛 화가들 작품을 보면 그리다 만 듯한 데가 있는데 이는 사실성의 부족이나 솜씨의 미숙함이 아니라 디테일에서 대범한 맛을 찾는 독특한 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음식에서도 그러한 특성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sup>122)</sup> 또한 한식에는 텅텅한 맛과 함께 감추는 맛이 있는데, 감추는 맛을 멋스럽게 여긴 한국인의 미의식이 여백의 멋을 그리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123)</sup>

한편 정혜경(2009)은 한국음식에서 ‘섞임’, ‘기다림’, ‘배려’, ‘풍류’의 미학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비빔밥을 그 예로 들며, 처음에는 매우 아름다운 음식의 질서를 파괴하고 뒤섞음으로써 아주 다른 음식으로 변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과는 다른 맛을 만들어 내는 신비가 있으며, 이것이 곧 우리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섞임의 미학’이라는 것이다.<sup>124)</sup> ‘기다림의 미학’은 김치, 각종 장류 등 발효식품이 많은 우리 음식의 특성을 나타내며, ‘배려의 미학’은 노약자를 배려한 음식 조리법을, ‘풍류의 미학’에서는 계절과 세시풍속에 따른 음식문화가 발달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121) 김영자(2009), 「한국 복식미 탐구」, pp.105-106

122) 홍사중(2006), 「아름다움을 보는 눈」, p.79

123) 상계서, pp.82-83

124) 정혜경(2009), “한국음식의 문화속성과 미학”, 「세계문화비교학회」.

## 2. 민족건축미학 서술의 해외사례

### 1) 일본건축과 일본성 논의

#### □ 일본 건축미학의 태동

일본에서 건축론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영국인 건축가 조사이어 콘더(Josiah Conder, 1852-1920)가 어용건축가로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에 부임한 시기부터이다. 이때부터 일본은 서양근대건축 시각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며 콘더의 제자로 구성된 제1세대 건축가 그룹으로서 타츠노 킹고(辰野金吾, 1854-1919), 소네 타츠조(曾禰達藏, 1853-1937) 등과 그 제자로 이루어지는 제2세대 건축가 그룹 이토 추타(伊東忠太, 1867-1954) 등에 의해 논의가 발전되어 갔다.

콘더는 강의에서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논하였다. 이는 당시 건축을 기술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던 일본의 풍토에서 서양식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건축은 예술’이라는 기본적 인식을 심기 위한 것이었다. 제1기 졸업생들에게 ‘일본장래의 주택에 대해서’라는 졸업논문 테마를 준 것도 ‘그 나라다운 건축양식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라는 콘더의 교육방식의 연장선상에 놓인 주제였다.

그러나 제1세대 졸업생들의 관심은 일본 근대화를 위한 서양건축법을 습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건축을 예술의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였다. 이토 추타의 졸업논문 「건축철학」(1982)은 건축술과 미술, 파류원론, 건축 파류각론의 3부 구성으로, 제1부인 건축술과 미술에서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깊게 논하고 있다. 또한 이토는 1894년 조가학회지 「건축잡지」에 “Architecture의 본의를 논하여 그 역자를 선정하고 조가학회의 개명을 희망한다”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예술로서의 Architecture’라는 사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Architecture의 역자를 ‘조가’에서 ‘건축’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이후 서구적 개념의 Architecture는 건축으로 번역되어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한편 타츠노 킹고는 1890년, 제국대학에서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열린 강연에서 ‘건축진보의 유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당시 일본 상황을 서양의 여러 양식이 뒤섞인 박람회장으로 비유하며, 이런 혼돈의 상황을 거쳐 일본 고유의 새로운 건축양식이 탄생할 것임을 논하였다.

## □ 브루노 타우트와 카츠라리큐 해석

1933년, 일본 인터네셔널 건축회로부터 초청받아 일본으로 망명한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 1880-1938)는 카츠라리큐(桂離宮, 17세기)와 닛코 토쇼구(日光東照宮, 17세기)의 비교를 통해 카츠라리큐에서 일본의 전통성을 볼 수 있으며 서구의 모더니즘과 통하는 근대성이 담겨있다는 주장을 펼친 저서 「일본」, 「일본미의 재발견」 등을 저술했다. 당시 일본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카츠라리큐의 아름다움을 파르테논 신전에 비유하면서 널리 알렸고, 이는 일본 건축가들에게 전통과 근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sup>125)</sup>.

타우트의 이러한 미학을 근대건축의 이념과 연결시킨 이론은 건축가들에게 엄청난 설득력을 지녀, 카츠라리큐가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영원한 기념비로 간주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이세진구와 카츠라리큐는 모두 텐노(天王) 미학의 구체화였기 때문에 진짜이고, 토쿠가와 쇼군의 사당인 닛코 토쇼구는 가짜라는 설명은 일본 대중들이 다



[그림 5-1] 카츠라리큐

출처: 디자인 집단 j-sense (<http://jsense.exblog.jp>)

125) 당시 일본에서는 외국인 건축가가 처음으로 글을 썼다는 사실을 수치스러워 했다. 예를 들어, 후대의 정원 연구자 모리 오사무(森鷗外, 1905-1988)는 그의 책에서 “타우트의 글이 널리 읽히게 되자, 카츠라리큐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고, 그것의 존재를 예술이나 건축사 분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동등한 수정이 일본인 건축가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었던 것이고, 다만 대중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Arata Isozaki(2006), *Japan-ness in Architecture*, The MIT Press, p.256.에서 재인용



가가기 쉬운 카츠라리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냈다. 그는 카츠라리큐를 근대건축의 용어를 빌어 ‘기능의 건축’ 또는 ‘동기유발의 건축’으로 정의했다.

“그 목적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거나, 혹은 보다 위엄있는 재현의 필요, 아니면 고결하고 철학적인 영적인 힘의 필요였을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신비는 바로 이 세 가지의 목적이 모두 하나로 모아져서, 그 경계를 없애버렸다는 점에 있다.”<sup>126)</sup>

#### □ 테이칸 양식과 근대주의자들의 반발

테이칸 양식(帝冠様式)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절충주의 양식이며 일본 정부에서 인증한 디자인 방법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강령을 갖는다.

“스타일은 반드시 동양적이며 그것은 일본 취향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근대와 민족주의 양식을 연결하는 문제는 1930~1940년대 일본건축가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때마침 전통의 의심스러운 부활과 함께 테이칸 스타일이 새시대의 일본건축으로서 인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타우트에 의한 카츠라리큐 해석은 민족주의 테이칸 양식에 대항하는 합성의 역할을 수행했다. 더구나 타우트가 모더니스트 건축의 선구자이



[그림 5-2] 테이칸 양식으로 지어진 도쿄 국립박물관(1931)

출처: Torben Pedersen

126) Bruno Taut(1937), *Houses and People of Japan*, Sanseido, p.291.

자 사회주의 혁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정부주도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소비에트 연방에 초대받기까지 했다는 것 등이 진보주의자들에게 크게 다가왔다.

테이칸 양식에 마음속으로 반발했으나 반대의견을 낼 수 없었던 특정 모더니스트들은 천왕이 가진 건물의 미학을 이용해서 그것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카츠라라는 이름은 교황의 면죄부와 같아서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정치적 뉘앙스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스트와 보수적인 천왕 숭배자들로부터 동시에 찬양을 받게 되었다.<sup>127)</sup> 새로운 모델로 표면화된 카츠라리큐는 천왕의 정통성과 모더니스트의 원형 둘 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모범도 그것에 비할 수 없었고, 타우트의 이론은 이후 호리구치 스테미와 탄게 켄조 등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 □ 스키야에서 일본성을 발견한 호리구치 스테미

호리구치 스테미(堀口捨己, 1895-1984)는 1930년대부터 일본건축의 다실공간을 깊이 연구하여 그 정수를 추출하고 현대화하는데 이바지한 인물로, 차시츠(茶室)로 대표되는 스키야(数奇屋) 건축을 합리주의, 선과 면에 의한 구성 등 당시 모더니즘의 문맥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전통건축을 근대건축, 즉 새로운 시대의 건축양식과 연결 짓는데 성공하였다. 그의 설계작품 오카다 저택(岡田邸, 東京都品川区, 1933)은 목조로 된 일본식 건물과 콘크리트의 모더니즘 상자가 정원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주택에 통합되어 있다. 공간의 기능



[그림 5-3] 오카다저택(岡田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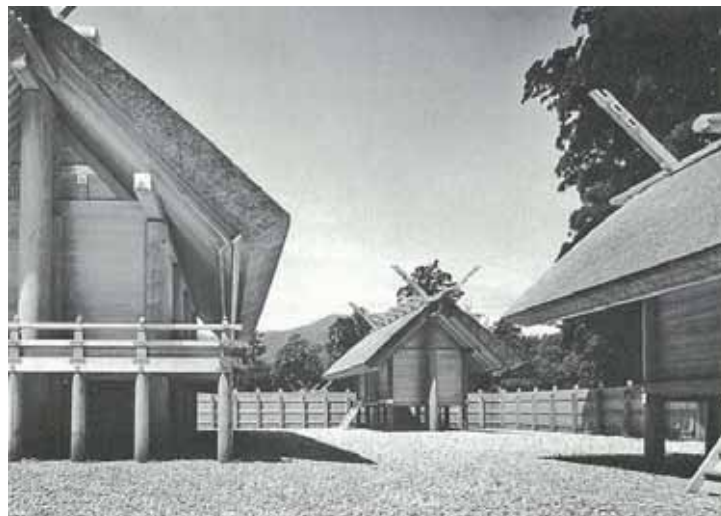
출처: 「現代日本建築家全集〈4〉堀口捨己」(1971), 三一書房

127) Arata Isozaki(2006), *Japan-ness in Architecture*, The MIT Press, p.261

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의 변용, 장식이 절제된 간소한 건축미 등 쇼인즈쿠리(書院造り) 건축의 특징은 앞서 타우트에 의해 지적되었던 일본건축과 서구 모더니즘 건축 사이의 공통점으로 높이 평가되었고, 동시에 일본에서 모더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일본 최초의 근대건축운동이라 평가되는 분리파 건축회 중심 멤버로 활약한 호리구치는 당시 테이칸양식을 비판하는 한편, 서양의 모더니즘과 일본의 스키야 양식 사이에서 두 방식을 병치시키고 간극을 메우는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1934년에 발표한 논문 “건축에 있어서 일본적인 것”<sup>128)</sup>에서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널리 퍼뜨려진 일본적인 것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신사건축, 주택, 다실을 일본건축의 대표로 꼽고, 토다이지(東大寺), 이세진구(伊勢神宮), 다양한 다실 등을 통해 일본적인 것에 대한 이론을 펼쳤다.

‘브루노 타우트 이전 몇몇 외국 건축가들이 카츠라리큐를 보았으나 아무도 크게 감명받지 못했는데, 아직 근대건축이 유럽에서조차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구스타프 프라츠(Gustav Platz, 1881-1947)는 유럽의 근대건축이 일본주택에서 비롯되었다고 했고, 타우트는 독일에서 표현주의 건축가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건축에 대한 근대적인 시각이 성숙해져 세계로 퍼져나갔다. 비대칭 구성의 아름다움과 철골구조와 RC조



[그림 5-4] 이세진구(伊勢神宮)  
출처: 石元素博

128) 堀口捨己(1934), “建築における日本的なもの”, 『思想』 1934.05, 岩波書店

의 참신함에 익숙해진 다음에야 사람들은 카츠라리큐와 같은 건축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sup>1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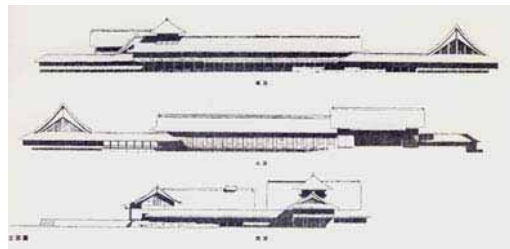
#### □ 근대건축과 일본성을 결합한 탄게 켄조 - 일본국민건축양식의 등장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탄게 켄조(丹下健三, 1913-2005), 마에카와 쿠니오(前川國男, 1905-1986) 등 테이칸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본성을 표현하는 건축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시기에 대동아기념관(1942), 방콕 일본문화원(1943) 등 대규모 공모전에서 잇달아 입상한 탄게는 절충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대신, 일본식 거대한 지붕을 얹고 고전적인 평면계획을 도입하는 등 신텐즈쿠리(寢殿造り)를 직접적으로 모방함으로써 ‘일본국민건축양식’<sup>130)</sup>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완성시켰다. 이러한 민족건축양식은 2차대전 패전과 동시에 민족주의적 요인이 부정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사라지게 되었으나, 거대한 지붕 등 민족양식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 즉 기둥과 보의 비례관계와 평면구성 등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용되었으며<sup>131)</sup>, 일본적 근원의 공간 안에서 근대 건축의 원칙을 재현하는 것이 이후 세대의 목표가 되었다.



[그림 5-5] 日泰文化會館 1등 당선안, 丹下健三  
출처: 建築雜誌, 1944.01



[그림 5-6] 日泰文化會館 2등 당선안, 前川國男  
출처: 建築, 1961.06

129) 堀口捨己(1952), 「桂離宮」, 毎日新聞社

130) 하마구치 류이치(浜口隆一, 1916-1995)는 1944년 잡지 「新建築」에 발표한 “일본국민건축양식의 문제 - 건축학의 입장에서(日本国民建築様式の問題-建築学の立場から)”에서 방콕의 일본문화센터 현상설계 공모전 당선안이었던 탄게 켄조(丹下健三, 1913-2005)와 마에카와 쿠니오(前川國男, 1905-1986)의 디자인으로부터 일본의 ‘국민건축양식’을 분석했다. 이는 서구의 건축 구성이 객관적이며 구축적인 의지를 기저로 함과는 대조적으로, 공간 중심적이고 주관성이 중요시된다고 평했다. 藤井正一郎・山口廣(2011), 「復刻版 日本建築宣言文集」, 彰国社, pp.347-371에 재수록.

131) 대표적인 예로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에서는 더 이상 곡선 지붕과 같은 상징적이고 장식적인 요소가 사용되지 않았다. Arata Isozaki(2006), *Japan-ness in Architecture*, The MIT Press

1950년대 초에 이르러 철골과 RC의 아키텍토닉은 일본 전통적인 목가구조의 비례체제로 순조롭게 옮겨졌고, 근대적 디자인 원리에 바탕을 두었지만 노출된 기둥과 보를 이용한 일본 전통적인 구성방식을 통해 입체적인 볼륨을 형성함으로써 일본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 □ 일본성과 일본건축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 1931-)를 비롯한 현대건축가들에 의해 일본성에 대한 고찰은 계속되고 있다. 이소자키는 *Japan-ness in Architecture*<sup>132)</sup>에서 7~20세기의 건축물에 있어서 ‘일본적인 것’의 본질을 탐구하고, 역사적 건축물로부터 일본적인 것을 찾아내고 현대적인 건축물에 일본 특유의 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 일본 건축가들의 도전과 노력을 서술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적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본래의 ‘일본적인 것’과는 정반대인 것이라 주장하면서 ‘일본양식화’란 문화적 변천의 에너지가 결여되는 것으로 글로벌화의 압력에 대항하는 섬나라 특유의 합리화를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

일본건축이 테이칸양식의 보수적 민족주의로부터 근대주의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카츠라리큐는 항상 같은 것이었지만, 브루노 타우트, 호리구치 스테미, 탄게 켄조 등 각각의 건축가들이 해석을 위해 만들어낸 독해장치에 의해 다양한 맥락에서 각기 다르게 해석되면서 일본건축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는 것이다.



[그림 5-7]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広島平和記念資料館), 丹下健三, 1949  
출처: Tange Associates

132) Arata Isozaki(2006), *Japan-ness in Architecture*, The MIT Press

## 2) 중국건축과 중국성 논의

중국 고대의 발달된 문화와 사회문명은 서양과는 구분되는 문명으로 그 가치는 유럽의 문명과 동급이거나 더 우세하게 여겨졌다. 1920~1930년대 중국 건축학도들에게 서양의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은 중국의 경제와 사회를 재생시켜줄 수 있는 수단으로 잠재력을 가진 것이었으나, 한편으로는 현대화와 중국성 사이에서 갈등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중국의 형태와 서구의 내용(Chinese "form" with modern or Western "content")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주목할만한 저서가 출간되었다. 하와이 대학에서 출간된 *Chinese Architecture and the Beaux-Arts*<sup>133)</sup>는 중국의 초기 건축교육이 미국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 주목하여 이들의 학업과 활동을 미국에서의 건축교육과 관련하여 분석했다. 아래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현대건축에서 중국성 모색과 관련해서 시사점이 있는 부분들을 짚어본다.

미국에서 보자르(Ecole des Beaux-Arts, 이하 Beaux-Arts)식 교육을 받고 귀국한 중국의 현대건축 첫 세대는 이를 중국의 전통건축 양식에 대입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도는 중국의 전통건축과 유럽의 시스템이 비교적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중국건축의 8가지 원칙을 보자르 건축에 대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중국건축 안에 보자르 원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보자르 건축은 형태적으로 정형적이고 돛 형태를 갖췄으며, 정면에 비중을 두는 점 등 중국건축과 유사한 특징을 지녀 중국이 큰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건축양식이었다.

### □ 20세기 서양 건축양식의 유입계기

중국에서 보자르 건축양식은 20세기 초 미국 내 여러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던 약 5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들이 1920~1930년대에 중국으로 돌아와 건축교육과 실무 등의 현장을 직접 담당하면서 중국 실정에 맞게 변화를 거듭하였다. 역사학자 예웨이리(叶维丽, 1950-)에 의하면 중국에는 이러한 유학정책이 두 차례 존재했는데, 첫 번째는 1870~1880년대에 청나라 황실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sup>134)</sup> 그리

133) Cody J. W.(2011), *Chinese Architecture and the Beaux-Arts*

134) Weili Ye(2001), *Seeking Modernity in China's Name: Chi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나 첫 시행은 미국 정부의 반중배척정책(Anti-Chinese exclusionary policies)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두 번째는 1910년대에 역설적이게도 의화단 운동(1900~1901)<sup>135)</sup>의 결과로 인해 일어났다. 1910년대의 중국인들의 미국유학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처음에는 일부 학생만이 참여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시점에는 50여 명의 제1세대 건축가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유학에 나섰다. 당시 실학(實學: Shixue) 사상의 영향을 받아 ‘실업구국(實業救國: Shiye jiugou)<sup>136)</sup>’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중국인들의 미국 건축 유학은 1911년 청의 몰락과 1949년 중화민국 건립에 따른 사회·경제·정치적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현재 중국 건축이론과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진다.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도 중국 내에는 전문 건축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을 통한 실업구국의 목적 달성은 어려워보였으나, 때마침 청의 몰락과 함께 문화·정치·경제 등 사회구조가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건축적 실험들이 장려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유학 후 조국으로 돌아온 젊은 중국 건축가들이 해외의 건축양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게 되었다.

####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의 Beaux-Arts 교육

전문 건축과정을 받기 위해 해외로 유학한 이들은 대부분 의화단 장학 기금의 혜택을 누리거나 미국에서 수학하였다. 최초의 건축전공 의화단 장학생 주양준(庄俊, 1888-1990,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1914년 졸업)을 시작으로 1910년 중반부터 미국정부, 기관, 건축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세 사람은 뤼옌지(呂彥直, 1894-1929, Cornell University), 윌리엄 차운더(William Chaund, Chicago Armour Institute of Technology: 現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주빈(朱彬, 1896-1971, University of Pennsylvania)이다. 뤼옌지는 비록

1900-1927, Stanford Univ Press.

135) 청나라 말기에 의화단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 운동. 청 말의 그리스도교는 서양 군사력을 등에 업고 들어온 종교였기 때문에 보수적 관료, 지방의 신사, 농민들이 모두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1850년대부터 전국에서 반(反) 그리스도교 폭동이 일어났으며 특히 독일의 세력 범위로 사회 불안이 가장 심한 산둥 지방에서는 의화단이라는 종교 결사가 조직되어 부청멸양(扶清滅洋)을 구호로 반 그리스도교·반 제국주의 운동을 일으켰다. 의화단이 베이징에 입성하여 외국 공사관을 습격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8개국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연합군은 청 정부를 압박하여 불평등 조약인 신축 조약을 체결하였다. 여타 국가들이 청정부에 대해 배상금을 요청하는데 비해, 미국 정부는 의화단 배상 기금을 개설하여 미국 대학교들에 중국 학생들을 수학시키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136) 실업 혹은 실학으로 중국을 구함.

[표 5-4] Beaux-Arts와 중국 전통건축의 유사점

1. 4개 면의 차폐
2. 건축 규모의 평면적 확장
3. 대칭적 배치를 통한 균형
4. 독립적 건축이 아닌 집합과 부분으로서의 건축
5. (형태적) 정문 (Formal Gate)
6. 내부공간의 돔과 둥근 천장(Vault)
7. 다양한 색채와 장식
8. 모듈 공법의 목조구조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으나, 그의 건축적 능력은 동료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광저우 출신의 차운드는 1918년에 건축, 모더니즘, 국가주의에 대해 주목할만한 글들을 발표하였으나 아쉽게도 그 이후의 행적이 묘연하다. 이들과는 달리 주빈은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후,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게 된다. 그의 영향으로 많은 중국 유학생들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미국 내 대학들 중 특히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었는데, 이는 주빈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이기도 했지만 펜실베니아 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인 폴 크렛(Paul Philippe Cret, 1876-1945)의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일정부분 작용했기 때문이다. 폴 크렛은 프랑스 건축가로서 보자르식 접근방식에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펜실베니아 프로그램의 첫 졸업생인 판원자오(范文照, 1893-1979)와 주빈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중국인 유학생들을 존중하는 크렛 학장을 비롯한 펜실베니아 교직원의 배려에 힘입어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그 곳에서 수학하게 되었고, 당시 보자르식 건축교육을 하던 펜실베니아의 학풍이 중국으로 전해진 것은 당연하다.

보자르 양식은 자연스럽고 논리적이라는 점에서 중국 건축양식과 공통점을 가진다. 이 같은 유사성은 중국 궁궐 건물과 종교 건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쉽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유학생들 중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유명한 건축가는 비록 랑스청(梁思成, 1901-1972)<sup>137)</sup> 정도 밖에 없으나, 이들이

---

137) 랑스청(梁思成)은 교수이자 연구자, 보존론자로 유명해졌으며 1940년대에는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



중국 내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비록 현재 보자르의 건축적 영향력은 많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중국인 건축가들은 프랑스 건축 및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 □ 중국에서 전문 건축분야의 태동과 보자르 양식의 정착

중국 전통건축은 일반 공예가들이 만들어 내는 예술분야에 가까웠으나, 1세대 건축가들이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 혹은 건축사(建築士)들이 점차 공예가(匠人)의 역할을 대체하고, 건축가에 의한 전문 건축분야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성능면에서 중국 전통 목구조의 취약점이 지적되면서 많은 부분이 서구 건축 양식으로 대체되어 갔다. 이 때, 보자르 양식은 여타 서구 건축양식만큼 배타적이거나 자기완결적이지 않아서 중국 전통건축에 빨리 흡수될 수 있었으며, 특히 장엄함과 같은 중국 전통건축의 엘리트적 특성과 가장 잘 부합했다. 중국 1세대 건축가들이 보자르 건축에 매력을 느낀 이유는 보자르의 통합(Composition)과 장식(Decoration)이라는 특성이 중국 전통건축의 웅장한 시각적 경관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들은 보자르 양식이 1920~1930년대 기존 중국 건축 및 사회 시스템에 큰 변화를 유발하지 않고 수용가능한 양식이라고 판단했다. 중화민국 기간 동안 보자르 양식의 수용과 함께 중국의 커다란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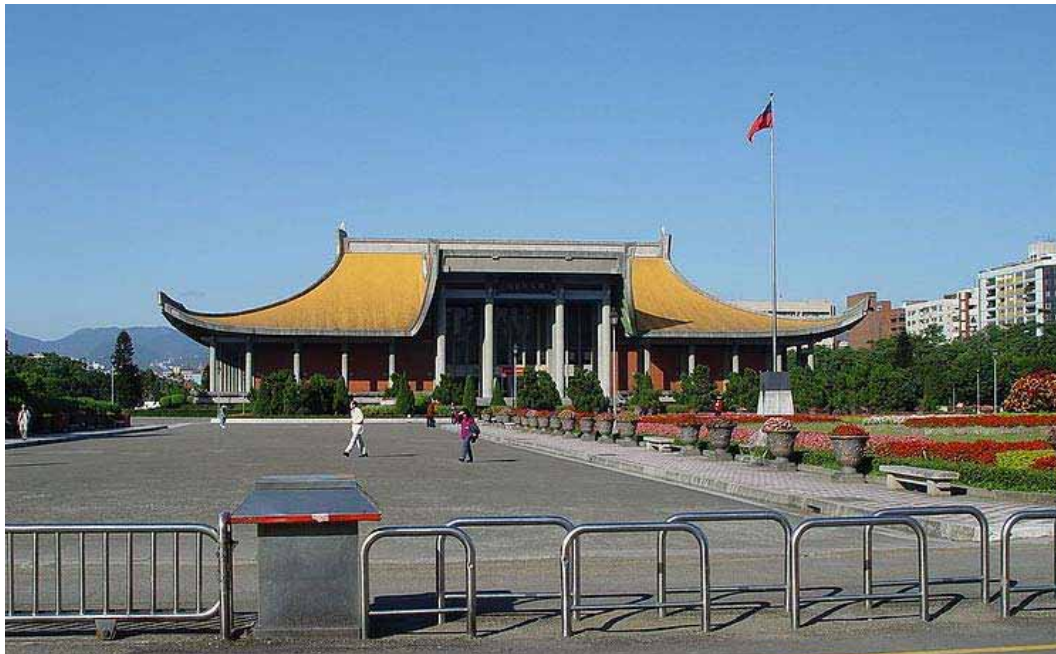


[그림 5-8] 중국 국립미술관 (The National Art Museum of China, 1959)  
출처: Cody J. W.(2011), *Chinese Architecture and the Beaux-Arts*, p.117

축적 변화가 예고되는 듯 했으나, 그 이후 사회주의 등장과 함께 그 힘과 방향을 잃어갔다. 보자르 건축양식은 1950~1960년대의 반엘리트주의 - 노동자운동 속에서 자취를 감출 뻔 했으나, 역설적이게도 보자르 건축양식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 전문가들이 중국 도시 근대화에 참여하면서 살아남게 되었다. 보자르 건축은 중국에서 다른 서구 건축이 유입되는 발판을 마련해줬을 뿐만 아니라 모더니즘의 특성이 중국 건축에 일반화되는데도 기여한 측면이 크다.

#### □ 보자르 양식의 수용과 중국 전통건축의 보전

근대 이전의 중국 전통건축은 비교적 동질적이었으며 건축에 관한 기록이 문자로 된 경우가 많아서 설계안에 대한 자료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송대 문헌인 영조법식(營造法式)에 대한 연구결과가 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19세기 이전까지 중국 전통건축의 요소들이 모두 영조법식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는 전통건축의 규범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중국건축의 관습적 획일성을 타파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림 5-9] 국립국부기념관(National Dr. Sun Yat-sen Memorial Hall, 1972)

출처: <http://zh.wikipedia.org>

1세대 건축가들 역시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량스청(梁思成), 류둔전(刘敦桢, 1897-1968), 양칭바오(杨廷宝, 1901-)을 비롯한 1세대 건축가들은 근대 및 보자르 양식 건축가, 중국 전통건축 복원전문가, 영조법식을 비롯한 문헌 연구가, 중국 최초의 건축역사학자 등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중국 최초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냈고, 근대 이전 중국건축을 조사한 집단 역시 이들이었다. 특히, 근대 이전의 중국 건축에 관한 기초 자료 대부분이 이 시기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때 조사된 건물들이 제2차 세계대전과 문화혁명 등으로 소실되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 3) 영국건축과 영국성 논의

영국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18세기 이후 상대적으로 ‘민족성’이 강조되어 온 전통이 있으며, 그것이 근대시기 발명된 것이라는 비판적 이론도 많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에서 1760년대 제임스 맥퍼슨(James Macpherson, 1736-1796)이 아일랜드 발라드를 수집해 ‘서사시’를 쓰고 배경을 스코틀랜드로 바꾼 것이라든지, 존 맥퍼슨(John Macpherson, 1745-1821)이 「비평론」을 저술에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 것, 또 18세기 제철업자 토마스 로린슨(Thomas Rawlinson)이 발명한 작업복 ‘킬트’가 1822년 조지4세의 방문을 계기로 공식화, 의례화된 것 등이 잘 알려져 있으며,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대영제국의 번영에 따른 왕실의례가 새로 발명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38)</sup>.

한편으로, 미술사 및 건축사 분야에서도 영국성을 논하고 있는 시도들이 발견된다. 저명한 유럽 건축사가 니콜라스 페브스너(Nikolaus Pevsner, 1902-1983)는 1955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영국예술에서의 영국성(The Englishness in English Art)”이라는 주제로 BBC 라디오 특강(Reith Lectures)을 행했으며, 이듬해 이를 보완해서 단행본을 출간한 바 있다.<sup>139)</sup> 토론토대학의 미술사학과 교수인 마크 치탐(Mark A. Cheetham, 1954-)은 18세기 초부터 영국에서 미술이론과 민족정체성, 미술작품이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을 분석하여 미술사의 범주로서 ‘민족’ 문제를 논했다<sup>140)</sup>. 이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영국건축에서의 영국성 논의의 성격, 영국성을 정의하는 미학 술어들의 종류를 분석하여 한옥미학 서술 방식과의 차이를 고찰하고 새로운 글쓰기 방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 영국성 논의의 시작

미술비평에서 처음으로 영국성이 발견되는 것은 18세기 초의 일로 1700년 이전의 영국 작가들은 대부분 이탈리아나 프랑스 미술을 찬양해왔다. 18세기 초 베인브릭 버커리지(Buckeridge B., 1668-1733)의 저작 *Essay Toward an English School of Painting*은 당대 영국에서 활동하던 유명 미술가들을 나열한 것인데 버커리지는 이를 통해 대륙적

138) Hobsbawm E. et al.(2004), 「만들어진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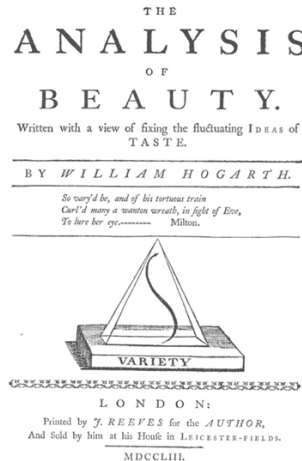
139) Nikolaus Pevsner, *The Englishness in English Art - An Expanded and Annotated Version of the Reith Lectures Broadcast in October and November 1955*, Praeger, 1956.

140) Mark A. Cheetham, *Artwriting, Nation, and Cosmopolitanism in Britain - The 'Englishness' of English Art Theory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Ashgate, 2012.

권위와 대치되는 영국미술의 권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또한 로제 드필(Roger de Pile, 1635-1709)의 *Art of Painting* 번역서가 포함되어있는데, 드필은 영국 국가의 화가들에게는 저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커리지가 이를 제공하였다. 이는 프랑스와 영국의 국제적 대립과 이후에 전개될 국가 관련 담론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버커리지는 최초로 유럽 미술에서 영국적 차별성을 확실히 주장했으며 이는 리처드슨(Richardson J. Senior), 호거스(Hogarth W.)의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 □ 영국미의 발견: William Hogarth

윌리엄 호거스(Hogarth W., 1697-1764)의 저서 *The Analysis of Beauty : Seeing 'in English'*는 영국적 미의 해석과 묘사에 대해 다룬 것이다<sup>141)</sup>. 호거스는 영국의 자유와 상식, 예외적인 특징을 설파하려 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영국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선호가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호거스의 그림은 영국성(Englishness)에 대한 선호가 가득하며, 이는 주로 글과 함께 전달되어졌다. 그는 대중에게 그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관찰의 진실’을 위한 영국적 눈을 교육시키고 대륙적 권위의 허상을 제거하기 위해 글을 썼다.



[그림 5-10] *Analysis of Beauty*, William Hog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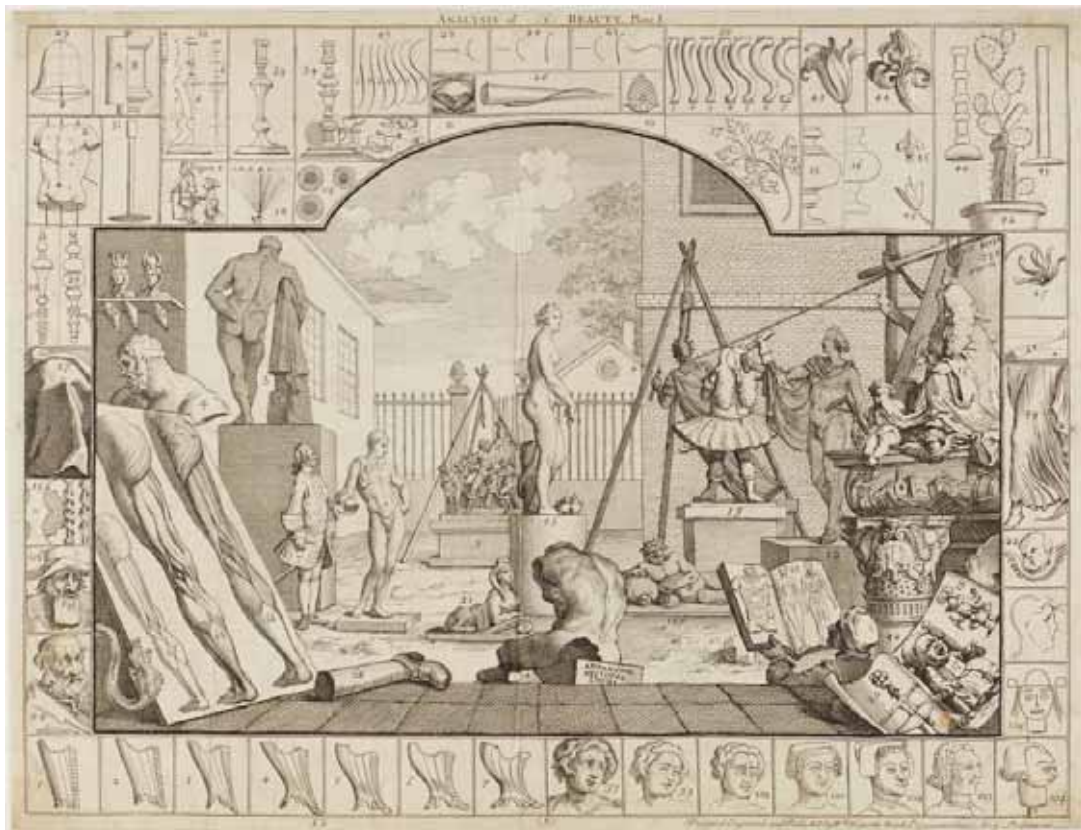
[그림 5-11] *The Painter and His Pug*, William Hogarth

141) 책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였다. [http://www.tristramshandyweb.it/sezioni/e-text/hogarth/analysis\\_html/title-page.htm](http://www.tristramshandyweb.it/sezioni/e-text/hogarth/analysis_html/title-page.htm)



호거스는 *The Analysis of Beauty : Seeing 'in English'*에서 미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S자 곡선의 미와 우아함을 찬양했다. 호거스의 S자 곡선은 로코코의 오지(ogee) 곡선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데, 단순하지만 다양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가치를 두었다. 그의 책에 실린 도판에는 살짝 만곡된 곡선으로부터 크게 휘어진 S자 곡선까지의 형태를 자연으로부터 도출하며 인물의 자세나 표정에 S자 곡선이 적용되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설파하고 있다.

이러한 선을 호거스는 선의 미학(the line of beauty)으로 정의했다. 또한 다양성(variety)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즉, 다양하지 않은 단순함은 그냥 무미건조할 뿐이며, 기껏해야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에 그치지만, 다양성이 결합하게 되면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아짐으로써 큰 기쁨을 준다고 했다. 책 표지의 판화는 S자 곡선의 삼각뿔 안에 두어 그 상징성을 강조하고, 아래 받침대에는 variety라는 설명을 달아두었다.



[그림 5-12] *Analysis of Beauty*, William Hogarth

사실 호거스의 판화들은 독자에게 미의 전형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으며 단지 자연과 대가들의 작품을 통해 독자가 주목해야 할 대상의 종류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총 123개의 그림이 포함된 이들 판화는 ‘감상자 각자의 시각으로 이해하라(See with your own eyes)’는 호거스의 근본적 교육목표와 경험주의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판화의 주제들은 고전 동상이나 춤 등 유럽대륙의 주제였으나 호거스에 의해서 영국적 맥락으로 전환되었다. 즉, 호거스는 예술의 대상과 방법론에서 처음으로 영국성을 등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유럽의 체계적 예술 인식 대신, 영국인들의 시각과 상식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도록 요구했으며, 자신이 직접 미의 ‘근본적 원칙’들을 판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면서 독자들이 자신과 같은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그는 특히 곡선의 미와 우아함을 그림을 통해 설명하는데, 처음으로 미적곡선을 확인 할 수 있는 그의 그림은 'The painter and his pug'로서 여기에는 그의 초상화와 애완견인 트럼프(Trump), 선의 미학(The line of Beauty)이 함께 그려졌다. 퍼그는 가장 영국적인 견종으로서, 그림의 인물과 동물, 그리고 미학 방법론이 모두 영국을 대표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호거스의 국가주의가 잘 드러난다.

#### □ 미학적 제국주의: John Ruskin

19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영국의 미술이론가 존 러스킨(Ruskin J., 1819-1900)은 영국적 이데올로기와 목적의식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러스킨은 픽처레스크(Picturesque)적 관점에서 영국적 관찰을 시도했는데, 이는 새로운 지역을 바라보는 대영제국의 태도와도 일정부분 일치했다. 관찰과 미술을 통해 영국의 정신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러스킨의 의도는 국가주의와 제국주의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가 1870년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맡았을 때, 그의 어조는 애국심을 자극했으며 인종차별적이었다고 한다. 영국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고 교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교화과정에 영국 미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러스킨 역시 경험론적 시각에서 영국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스킨에게 영국적 경험주의(English empiricism)란 자연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실험을 의미하며, 이는 윌리엄 터너(Turner W., 1775-1851)의 작품에 대한 비평에서 잘 드러난다. 러스킨은 미술가의 국적이 곧바로 그의 시각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는데, 터너의 유명한 작품들은

대부분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경치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성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터너의 힘은 바로 국가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가 홀만 헌트(Hunt H., 1827-1910)의 ‘회화 예술은 국가에 대한 글쓰기이자, 서명이자, 자서전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러스킨은 항상 국가의 정신과 미술을 연관지어 고찰했는데, 그가 주목한 또 다른 예는 1851년의 대박람회(Great Exhibition)이다. 여기서 대중은 영국과 인도의 우수한 의복들을 함께 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영국 옷감의 품질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 때, 러스킨은 영국 직물 디자인이 인도의 것보다 앞선다고 주장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자연을 향한 영국인의 의지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인도(혹은 대륙의) 디자인과 차별화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세한 것이었다. 러스킨의 글에서는 확실히 인도의 미술은 섬세하고 세련되었으나 이러한 특성이 다른 요소들에 앞서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고 평가했으며, 문화는 개인과 같이 추상적인 것에 대한 선호에서부터 자연주의(Naturalism)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태도가 더욱 발전된 형태라고 단정했다.

이와 같이 러스킨은 영국의 경험주의적 태도를 미술비평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의 책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1849)<sup>142)</sup>에서는 건축이 갖추어야 할 7가지 요소를 정의하였는데, 희생(Sacrifice), 진실(Truth), 권력(Power), 미(Beauty), 삶(Life), 기억(Memory), 순종(Obedience)을 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국적인 특징으로 순종을 꼽았으며, 특히 영국의 초기 고딕 양식의 장식적 특징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또 유일하게 적절한 양식으로 13세기 유럽 북부의 고딕양식을 꼽았으며, 링컨이나 웰즈 성당의 사례가 이를 대표한다고 하였다.

#### □ 시대정신과 국가적 특성: Nikolaus Pevsner

니콜라스 페브스너(Pevsner N., 1902-1983)는 1933년 나치에 의해 독일에서 추방된 이후 영국에 정착한 저명한 독일인 건축역사학자로서 20세기 영국성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The Englishness of English Art*는 지리적 기준, 즉 국가라는 틀로 미술영역을 분석했다. 미술영역에서 지리적 문제는 국가적 특성이며 이는 미술에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페브스너는 비록 국가주의, 국가적 특성에 근거한 일반화와 인종 이

142)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였다. <http://archive.org/details/1920sevenlamps00ruskuoft>



론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국가적 특성, 인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인종과 관련된 논의가 항상 인종 차별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부가함으로써 논란을 피해갔다.

페브스너는 영국의 건축과 미술에 대해서 광범위한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시도했는데, 이는 국가정체성 재정의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던 1940-1950년대 영국 실정과 잘 맞아 떨어졌다. 당시 영국의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영국에서 활동하던 작가와 미술가들은 지형학, 토지, 공간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 때 주요한 주제들 중 하나는 ‘절제, 합리, 이성, 관찰, 보수성’ 등이며 다른 하나는 ‘상상, 환상, 비합리성’ 등이었다. 즉,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가치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영국미술의 특성을 논증법적으로 도출하고자 한 것이 페브스너의 업적이다.

페브스너에 따르면 영국성의 기저에는 ‘시대정신(Zeitgeist)’과 ‘국가적 특성(National Character)’이 존재한다. 이 두 요소는 호거스의 주장처럼 하나로 통합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근대 영국에서의 근대성과 영국성과 같이 따로 분리되어 발현되기도 한다. 페브스너는 또 다른 영국적 특성으로서 ‘객관화(혹은 분리화, Detachment)’를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객관화란 장면을 이상화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리며, 상투적 원칙이나 패턴을 거부하는 경향으로서, 영국의 ‘뚜렷하게 강한 자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영국 특유의 관찰법에 대해, 실제주의 서술에 대한 선호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며 이에 수반되어 ‘반-미적(Anti-Aesthetic) 성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건축과 디자인 영역에서 실용성과 장식성의 분리에 대한 거부는 자기완결적 사고방식을 강화시키고 미적 관점을 제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8세기부터 제시되어왔던 영국적 관찰의 태도를 긍정하는 자세를 취했다.

### 3. 소결

이 장에서는 한옥미학의 외연을 탐색함으로써 민족미학의 구성원으로서 한옥의 위치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먼저 한국문화 전반에서의 한국미 논의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미학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적인 어휘들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며, 한옥미학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일부 제기되었던 미학 어휘의 번역문제가 다시 등장한다. ‘미’라고 하는 어휘 자체가 서양어의 번역어로서 새로 만들어진 말이고 동양 문화의 특성을 정확히 지칭하기에 부족한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본에서 네덜란드어를 번역할 때부터 대체어를 찾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도 멋, 고음, 아름다움 등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서양의 ‘자연’ 개념과 동양의 자연 개념 역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다 혹은 자연과의 조화라는 명제 역시 지속적인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고유섭이 제시한 ‘무관심성’이라는 어휘 또한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미학 개념으로 발생했을 때의 의미와는 크게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현대 미학이 동아시아에 번역되어 도입되면서 의미의 중첩과 혼재를 통한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는 모습은 매우 일반적이다. 특히 기존에 통용되던 한자어 혹은 한국어가 그 번역어로 채용되면서 의미의 이중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어들은 우월한 근대 신문물과 함께 전파되는 것으로서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어떠한 말이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을 것만 같은 느낌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현상인 소위 카세트 효과는 초기 한국미학의 확산과 정착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을 통해 수입된 미학은 해방 후 정규교육과정으로 미학과가 설치되고 한국미학회 등 관련 학회가 창립됨으로써 자기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국미의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미학은 그 대상을 크게 확대해서 외교관계, 제천의식, 춤과 굿, 전통사상 등으로 해석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멋’, ‘신명’, ‘한’, ‘해학’, ‘풍류’ 등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한층 풍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음악, 한국무용, 한국의상, 한국무술, 한국음식 등 문화예술계에서도 각각 한국미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들 영역에서의 활발한 한국성 논의는 결과적으로 한옥미학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이 되며, 이를 통해 더욱 공고하고 광범위한 미학체계를 구성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한국음악과 무용에서의 곡선성, 즉흥성, 표현성 등은 한옥미학에서의 곡선의 아름다움과 통하는 미학개념으로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족건축미학의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옥미학 전개의 방향성 설정의 참조점을 삼고자 했다. 일본의 경우, 초기의 근대적 건축교육에서 전통건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브루노 타우트(Taut B.) 등에 의해 일본 전통건축이 서구의 모더니즘과 통하는 근대성이 담겨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건축에서의 전통성 계승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신사, 주택, 다실 건축은 합리주의나 선과 면에 의한 구성 등 당시 모더니즘의 문맥으로 재해석되어 일본건축의 정수로 평가받게 되었다. 거대한 지붕을 얹는 등 형태에서 일본 취향을 드러내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절충양식으로서의 테이칸 양식은 2차 대전 패전과 함께 민족주의적 요인이 부정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일본적 근원의 공간 안에서 근대 건축의 원칙을 재현하는 것은 이후 세대의 목표가 되었다. 1950년대 초에 이르러 철골과 RC의 아키텍토닉은 일본 전통적인 목가구조의 비례체제로 순조롭게 옮겨졌고, 근대적 디자인 원리에 바탕을 두었지만 노출된 기둥과 보를 이용한 일본 전통적인 구성방식을 통해 입체적인 볼륨을 형성함으로써 건축적으로 일본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중국 현대건축에서의 전통미 논의는 초기 건축가들의 활동과 관련이 깊다. 1920~1930년대 미국에서 보자르식 교육을 받고 귀국한 중국의 건축가 첫 세대는 보자르 양식의 방법론을 중국의 전통건축 양식에 대입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도는 중국의 전통건축과 유럽의 시스템이 비교적 무난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보자르식 건축은 형태적으로 정형적이고 돔 형태를 갖췄으며 정면계획에 비중을 두는 등 중국건축과 유사한 특징을 지녔으며, 장엄한 외관 등이 중국건축의 엘리트적 특성과 잘 부합했기 때문에 중국이 큰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건축양식이었다.

영국에서는 유럽대륙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식민지 경영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영국성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론적인 대륙의 관점에 대해서 경험적인 감각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영국미의 특징을 정의하고자 했다. 나아가 러스킨(Ruskin J.)은 미술가의 국가가 곧 그 감각을 결정한다는 주장으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페브스너(Pevsner N.)는 영국성의 기저에 시대정신과 국가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들이 통합되고 분리되는 모습으로 영국성이 발현된다고 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 제6장 결론

1. 현대 한옥미학의 기원과 전개
2. 한옥미학 서술의 현황과 과제
3. 한옥미학 서술의 새로운 방향

### 1. 현대 한옥미학의 기원과 전개

한옥미학의 기원을 추적하는 작업은 문자의 발생시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동양 고전에 표현되는 ‘궁실(宮室)’의 특징이라든지 날아갈듯한 처마와 우뚝 솟은 전각의 모습을 묘사한 글에서도 한옥미학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사회는 건축물을 예술작품으로 여기지 않았고, 더구나 한국인의 건축이란 의미에서의 ‘한옥’이라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즉, 여러 건축 중에서 한옥의 경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건축의 특징보다는 동아시아 문명건축의 보편성이 더 크게 드러나며, 아름다움의 차원보다는 권위나 세계관의 표현수단으로서 미적 요소가 활용된 측면이 크다.

다만 조선 후기 민족문화의 자각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축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예학적 공간구조를 만족하는 문명권 차원의 보편건축으로서의 한옥과 양반문화로서 한옥, 생활환경으로서의 한옥 인식이 있었다. 기념비 건축으로서의 한옥은 한국만의 독자성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전적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일반적인 양식을 따랐다. 양반문화로서의 한옥은 호연지기, 신독을 함양하는 자기개발 공간과 통하는 개념으로 장소성을 중시하였다. 생활환경으로서의 한옥은 조선 후기 청나라 건축과의 비교를 통해 비로소 민족건축으로서의 차별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각종 개량에 관한 논의들이 실학사상과 함께 나타났다가 19세기 세도정치 과정에서 축소되었다.

근대적 학문방법에 의한 현대 한옥미학의 서술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건축사학자로서 조선의 건축유적을 조사한 세키노 타다시(関野貞), 민예학을 개창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를 비롯하여 서양인으로서 조선의 건축미술에 매료되었던 에카르트(Eckardt A.) 등이 최초의 한옥미학을 기술하였다. 이들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현대 한옥미학의 형성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일제시기 한국인으로서 한옥미학 서술에 중요한 인물은 고유섭이다. 고유섭은 서구미학을 최초로 수용했다는 점과 그것을 기초로 한국미학의 주요개념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한국미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으며, 한옥미학의 주요 술어 역시 고유섭의 글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상당하다.

해방 후 한옥 미학의 번역과 자기화는 일본인 학자에 의해 쓰여진 연구보고서 및 저서를 번역하는 일로부터 시작했다. 번역한 저서는 교재로 사용되었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 1907-1942)의 「조선상대건축의 연구(朝鮮上代建築の研究)」(1944),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 1906-)의 「고려말조선초의 목조건축에 관한 연구(高麗末朝鮮初の木造建築に關する研究)」(1957) 등이 있다. 또 다른 방향으로서는 한옥 용어의 정비 및 새로운 명명이 진행되었다. 「미술·고고학 용어집 건축편」(1955)<sup>143)</sup>, 「건축용어집」(1958)<sup>144)</sup> 등이 발간되었으며, 새롭게 명명된 한옥 구성요소의 명칭의 예로는, ‘주심포’, ‘다포’, ‘익공’ 등이 있다. ‘주심포’는 1957년 「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에서, ‘다포’나 ‘익공’은 「고고미술」에 봉정사 대웅전과 개심사 심검당 공사 소개하면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신영훈, 안영배 등에 의해서 한옥 미학의 탐구가 시작되었다. 전통논쟁으로 촉발된 한옥의 탐구는 문화재 학자들에 의한 조형적 특징 발굴, 건축가 집단에 의한 구성적 특징의 발굴로 발전해 왔다. 신영훈은 ‘한옥에는 인격이 있다. 한옥의 모든 규칙은 우리 몸과 직결되어 있다’면서 신토불이(身土不二)로 이어지는 한옥의 특성을 규정하였다.<sup>145)</sup> 안영배는 서양 공간론적 해석을 통한 「한국건축의 외부공간」(1980) 연구로 시작해서 건축에서 원칙적으로 정조를 이루되 부분적으로 산조를 병행하는 것을 「+산조」(1997)로 파악했으며, 「흐름과 더함의 공간」(2008)이라 이름지었다.

해방 이후 미술사학계와 고고학계에서는 고유섭을 계승 혹은 비판하면서 한국미의

143) 국립박물관(1955), 「미술·고고학 용어집 건축편」, 을유문화사

144) 장기인(1958), 「건축용어집」, 대한건축학회

145) 신영훈(2000),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한옥」, 현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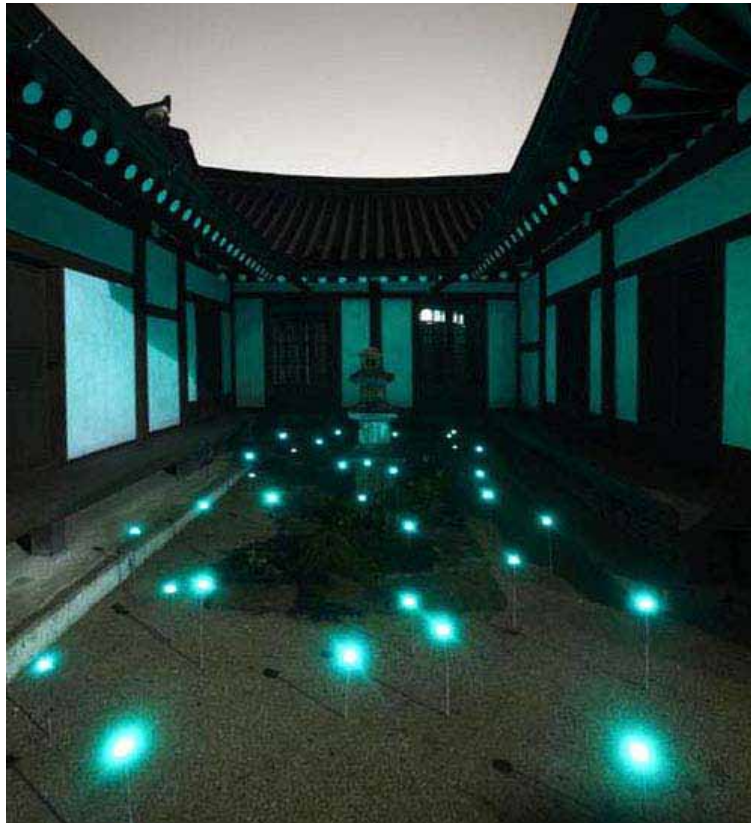
특징을 정립해나갔다. 고유섭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탁월한 문장과 표현을 개발한 최순우를 비롯해서 한국미술에서의 자연주의를 강조한 김원룡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또, 야나기 등에 의한 민예학은 민속학 또는 인류학으로 발달하였다. 민속학의 분야에서는 김광언 등이 전국적인 한옥 주거의 생활 관습을 논했고, 지리학의 분야에서는 장보웅 등이 한옥 주거의 지역적 분포를 확인했다. 이들은 한옥을 미술작품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의 일종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미학 서술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특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학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었다.

건축가들은 보다 실천적인 필요에 의해 한옥미학을 고민하게 되었다. 전통의 계승과 민족적 정체성의 구현이라는 과제는 항상 창작과 모방의 경계에서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건축가들에 의한 한옥미학의 재해석은 공간의 체계와 구성, 자연과의 관계, 전통적인 세계관의 교훈 등 형태로부터 추상화된 정신적인 부분을 지향했으며, 보편적인 설계원리와 한옥미학을 결부시키는데 일조했다.

대중매체는 한옥미학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건축 관련 잡지에 나타난 한옥미학은 건축에서 한국성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천착하고 있다.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 등 1920년대에 창간된 초기의 잡지들에서는 답사의 대상으로서의 고적, 개량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에 한정된 한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글로 쓰여진 잡지는 1955년 대한건축학회의 「건축」, 1966년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등이 먼저 발간되었고, 특히 1966년에 창간된 「공간」은 초기에 한옥미학을 정립하고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순우, 신영훈, 김동현, 안영배 등의 연재물은 한옥의 지적기반 및 해석방식을 제공하였고, 한국성 혹은 전통과 관련된 특집 논쟁들은 한국 건축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1977년에 창간된 「꾸밈」에서는 당시 소장층 학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성 논의를 확장시켰다. 1980년대에 「건축문화」, 「건축과 환경」 등이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한옥 관련 특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이상건축」, 「건축세계」 등의 잡지가 가세하면서 담론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고건축 강좌, 답사기, 한국성 논쟁 등 익숙한 주제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논의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일제시기의 신문 기사 역시 당시 잡지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옥과 관련된 최초의 연재기사는 1922년 동아일보에 실린 야나기 무네요시의 “장차 일케된 조선의 건축을 위하여”이며, 대중들을 위한 신문기사에서는 주로 팔도 순례를 통해 고적을 답사하는 내용을 연재하였다. 6개

월 이상 연재된 기사들은 1960년대 동아일보의 “국보순례”, 1970년대 경향신문의 “한국의 재발견”, 1980년대 경향신문의 “그터 최영희 교수의 한국사 기행”, 1990년대 조선일보의 “우리문화 이웃문화”, 경향신문의 “문화재는 살아있다”, “문화재를 찾아서” 등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이후는 한옥미학의 제안과 유포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세기까지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한 한옥미학의 제안과 후학들의 계승발전, 신문·잡지 등 미디어를 통한 전파가 일반적인 경로였다면, 21세기에는 한류 열풍과 함께 부흥된 한옥에 대한 관심, 인터넷 등 자기표현의 공간 증가 등으로 다양한 비유와 해석이 유통되고 있다. 한옥미학의 지향점 전환은 민족성과 미적 가치보다는 건강과 심리적 안정 효과에 주목하는 서술을 증가시켰고, 공간과 장식을 설명하는 기사에서 재료와 질감을 묘사하는 서술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문명, 전원지향적 의식의 투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림 6-1] 한옥을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김영석, 미야지마 타츠오, 2012)  
출처: 조선일보(2012.06.05.)



## 2. 한옥미학 서술의 어휘와 특징

한국미학과 건축사학 등의 주요 저작의 분석을 통해 추출한 한옥미학의 술어에는 몇 가지 주요한 어휘가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일제시기 일본인 학자 세키노 타다시(関野貞)로부터 유래한 섬세미, 섬약미 계통의 어휘는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의 비애미를 거쳐 고유섭의 적조미로 이어진다. 쓸쓸한 느낌의 술어들은 조형에서 면과 색보다는 선의 미학을 설명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유연한 곡선을 사례로 들면서 울동성을 또 하나의 미학술어로 제시할 수 있었다. 한편, 고유섭에 의해 강조되었던 소박미, 순박미 계통의 어휘는 한국민족에 대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이 반영된 미학개념으로서 어리숙하고 동근 모습과 통했으며, 최순우에 의해 둥글고 너그러운 익살의 미학으로 발전했다. 고유섭의 무기교의 기교는 한옥미학의 생산사적 특징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초석이 되었다. 안영배가 구체화시킨 한옥공간의 내부공간이면서 외부공간인 특징, 한옥 배치의 대칭적 비대칭성 등은 모두 무기교의 기교 혹은 무계획의 계획에서 발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 아담하면서도 격조를 갖는 건축적 특징은 윤장섭 등에 의해 인간적 척도로 정의되었으며, 자연에 순응한 결과로 이해되었다. 자연과의 조화는 초기 한옥미학으로부터 중요시되었던 개념으로서 무기교의 기교가 한국미의 특징이 되어야했던 더욱 근원적인 기초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김원룡은 이를 미추의 세계를 이탈한 미 이전의 미로 파악했으며 한국미의 특색으로서 자연주의를 정의했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 인위적인 기교를 적게 쓰는 시공방식 등은 한옥미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에카르트(Eckardt A.)의 평가처럼 한국미술의 단순하고 견실한 아름다움은 고전적이라는 술어로 표현되었다. 단순하고 견실한 아름다움은 소박미, 순박미 계통의 미학과 통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절제, 절도의 강직함으로 이어졌으며, 유학적 세계의 선비정신과 통할 수 있는 검박함의 미학으로 발전했다.

부석사, 불국사, 병산서원, 소쇄원, 도산서원 등 한옥미학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서술이 가장 많았고, 동적 균제, 공간 전개, 구조, 곡선 등 건축미학에 관한 다양한 술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을 지시하는 대상에 따라 구분해보면 크게 ‘자연’, ‘공간’, ‘형태’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이란 지형, 풍경, 좌향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한국건축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항목이다. ‘공간’은 3차원적 동적 요소에 대한 서술로, 대칭과 비대칭, 축을 이용

한 공간전개의 극적인 효과, 중첩에 의한 입체적 공간감, 공간 사이의 연결관계 등에 대한 서술이 해당된다. ‘형태’는 2차원적 정적 요소에 대한 서술로, 곡선미, 구조미, 비례 및 스케일 등과 관련된 서술이 해당된다. 이들 카테고리에 따라 대표 건축물의 서술을 분석하면, 한옥미학 서술에 있어서 ‘자연’과 ‘공간’은 필수 항목인데 반해 ‘형태’는 사례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형태’에 해당하는 곡선미, 구조미 등은 건축물 자체의 조형적 완결성을 강조하는 어휘인데 이는 건축에서 한국성을 정의할 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병산서원, 도산서원, 소쇄원의 사례에서처럼 건축물의 형태보다는 자연과의 조화와 공간적인 연결 특성이 한옥미학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고유섭, 주남철, 안영배, 윤장섭, 김성우, 김병윤, 장경호, 김동현, 우경국 등의 저술에 나타나는 어휘의 관계를 표시한 한옥미학지도에서 독보적인 비중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자연과의 조화’와 ‘비대칭성 균형’이었다. 이 두 술어는 한옥미학의 근간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상정될 수 있다. 한옥미학 술어의 전개 방향은 먼저 동의어 및 유사어로 확장되어 나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균제성’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확장되어 ‘비대칭성 균형’과 연결된다. 다음으로 ‘자연과의 조화’와 ‘인간적 스케일’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단아한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처럼 끊임없이 생성되는 열린 체계이다. 이는 ‘순후’와 ‘질박’이 결합하여 ‘순박’을 생성하고, ‘순박’이 ‘구수한 큰 맛’의 ‘구수한’을 대체하면서 ‘순박한 큰 맛’이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한옥미학 서술의 어휘들은 초기의 개념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여기서 파생하거나 발달한 어휘들이 주변을 둘러싸면서 발달해왔다. 한 번 생긴 어휘들은 부정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어휘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더욱 강력한 개념을 형성했다. 특히, 무기교의 기교, 비대칭적 균형 등 서로 모순되는 어휘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개념들은 한옥의 이질적인 미학들을 갈등 없이 조화시킬 수 있는 용례로 자리 잡았으며 한옥 미학의 큰 특징이 되었다.

### 3. 한옥미학 서술의 새로운 방향

#### □ 한옥미학의 확장

한옥미학은 확장이 가능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옥미학을 표현하는 문장들은 하나의 술어로 완결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술어가 서로 만나 해체되고 결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각각의 술어들은 공통적인 종착점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술어으로써 한옥미학의 본질을 확신하고 모든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초월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옥미학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한옥미학지도에 표현된 각각의 술어는 그 근거사례들의 실존을 통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이들 술어는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 스스로 설명이 미치지 못하는 사례에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된 의미 네트워크는 항상 열려있는 체계로서 건축에서의 한국성을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옥미학은 가족유사성의 확장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유사성이란 모두가 공통되는 특징은 없지만 서로 교차한 유사성 때문에 그들을 가족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을 가리킨다. 한옥미학에 적용해보면, 건축에서의 한국성은 본질적 정의가 불가능하지만 그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들의 유사성에 의해서 정의가 가능하며, 그 유사성을 대표하는 술어들의 집합이 곧 한옥미학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옥미학은 항상 변할 수 있는 상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문에 끊임없는 한옥미학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옥미학 논의를 지속해 온 가장 큰 원동력은 현재적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발생 이래 국가적, 민족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동되어 온 전통의 계승이라는 명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굴레였으며, 특히 제국주의와 반민주독재 치하를 겪어 온 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강령으로 군림했다. 건축가들은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수주하기 위해, 또한 자기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옥미학의 추종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기와지붕이라든지 목구조, 담장 등을 직접 차용하는 전통의 계승에는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가를 작가로 간주하고 건축물을 작품으로 정의하는 근대 작가주의의 사고 아래 건축물은 건축가의 창의력이 십분 발휘된 독창적인 작품이어야 했는데, 관습적인 형태와 기법을 가지고 있는 한옥은 건축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졌다. 더구나 독재정권의 대규모 건축사업이 전통의 직접 모방을 강요하

면서 그 반발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건축계의 입장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개발될 수 있었던 한옥미학은 형태를 철저히 무시한 한없는 추상화의 방향으로만 전개되었다. 전통논쟁의 효시가 되었던 김수근의 부여박물관으로부터 강봉진의 국립중앙박물관, 김기웅의 독립기념관, 김석철의 예술의 전당, 승효상의 수졸당, 우규승의 환기미술관, 조병수의 ㅁ자집, 조성룡의 이응노기념관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건축에서의 한국성 논의는 물질적 형태와 추상적 공간구조의 대결로 압축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추상적 공간구조의 승리로 판정난 듯이 보인다. 건축가들에 의해 한옥건축은 ‘텅 빈’ ‘무용의 공간’이면서 ‘청빈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정의되었고, 나지막하게 배치되거나 매스를 분절하거나 마당을 만드는 행위들은 모두 한옥미학을 계승한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구체적인 질감이나 형태가 드러나는 경우는 점점 더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모두 한옥미학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폐해이다. 한옥미학을 구성하고 있는 곡선의 아름다움, 질박한 소재가 주는 심리적 효과 등은 보다 가시적이고 가촉적인 미학으로서 새로운 개척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 한옥미학의 연대와 참조

한국문화 전반에서의 한국미 논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국미학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적인 어휘들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며, 한옥미학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일부 제기되었던 미학 어휘의 번역문제가 다시 등장한다. ‘미’라고 하는 어휘 자체가 서양어의 번역어로서 새로 만들어진 말이고 동양 문화의 특성을 정확히 지칭하기에 부족한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본에서 네덜란드어를 번역할 때부터 대체어를 찾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도 멋, 고움, 아름다움 등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서양의 ‘자연’ 개념과 동양의 자연 개념 역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다 혹은 자연과의 조화라는 명제 역시 지속적인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고유섭이 제시한 ‘무관심성’이라는 어휘 또한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미학 개념으로 발생했을 때의 의미와는 크게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현대 미학이 동아시아에 번역되어 도입되면서 의미의 중첩과 혼재를 통한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는 모습은 매우 일반적이다. 특히 기존에 통용되던 한자어 혹은 한국어가 그 번역어로 채용되면서 의미의 이중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어들은 우월한 근대 신문물과 함께 전파되는 것으로서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어떠한 말이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을 것만 같은 느낌에 의해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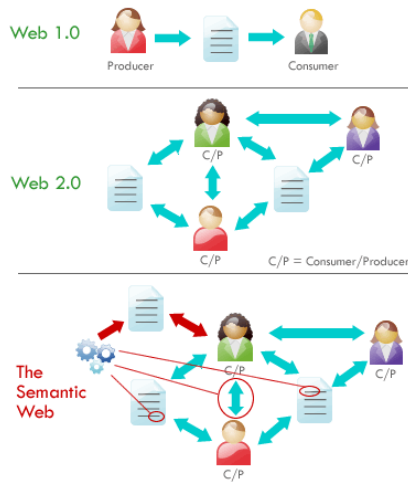
비판적으로 수용되는 현상인 소위 카세트 효과는 초기 한국미학의 확산과 정착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을 통해 수입된 미학은 해방 후 정규교육과정으로 미학과가 설치되고 한국미학회 등 관련 학회가 창립됨으로써 자기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국미의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미학은 그 대상을 크게 확대해서 외교관계, 제천의식, 춤과 굿, 전통사상 등으로 해석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뗏’, ‘신명’, ‘한’, ‘해학’, ‘풍류’, ‘흰 그늘’ 등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한층 풍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음악, 한국무용, 한국의상, 한국무술, 한국음식 등 문화예술계에서도 각각 한국미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들 영역에서의 활발한 한국성 논의는 결과적으로 한옥미학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이 되며, 이를 통해 더욱 공고하고 광범위한 미학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한국음악과 무용에서의 곡선성, 즉흥성, 표현성 등은 한옥미학에서의 곡선의 아름다움과 통하는 미학개념으로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해외 민족미학의 전개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옥미학의 성공은 결국 한옥미학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하여 세계미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달성되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 초기의 근대적 건축교육에서 전통건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부르노 타우트(Taut B.) 등에 의해 일본 전통건축이 서구의 모더니즘과 통하는 근대성이 담겨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건축에서의 전통성 계승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신사, 주택, 다실 건축은 합리주의나 선과 면에 의한 구성 등 당시 모더니즘의 문맥으로 재해석되어 일본건축의 정수로 평가받게 되었다. 거대한 지붕을 얹는 등 형태에서 일본 취향을 드러내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절충양식으로서의 테이칸 양식은 2차 대전 패전과 함께 민족주의적 요인이 부정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일본적 근원의 공간 안에서 근대 건축의 원칙을 재현하는 것은 이후 세대의 목표가 되었다. 1950년대 초에 이르러 철골과 RC의 아키텍토닉은 일본 전통적인 목가구조의 비례체계로 순조롭게 옮겨졌고, 근대적 디자인 원리에 바탕을 두었지만 노출된 기둥과 보를 이용한 일본 전통적인 구성방식을 통해 입체적인 볼륨을 형성함으로써 건축적으로 일본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중국 현대건축에서의 전통미 논의는 초기 건축가들의 활동과 관련이 깊다. 1920~1930년대 미국에서 보자르식 교육을 받고 귀국한 중국의 건축가 첫 세대는 보자르 양식의 방법론을 중국의 전통건축 양식에 대입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도는 중국의 전통건축과 유럽의 시스템이 비교적 무난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보자르식 건축은 형태적으로 정형적이고 돔 형태를 갖췄으며 정면계획에 비중을 두는 등 중국건축과 유사한 특징을 지녔으며, 장엄한 외관 등이 중국건축의 엘리트적 특성과 잘 부합했기 때문에 중국이 큰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건축양식이었다. 영국에서는 유럽대륙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식민지 경영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영국성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론적인 대륙의 관점에 대해서 경험적인 감각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영국미의 특징을 정의하고자 했다. 나아가 러스킨은 미술가의 국가가 곧 그 감각을 결정한다는 주장으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페브스너(Pevsner N.)는 영국성의 기저에 시대정신과 국가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들이 통합되고 분리되는 모습으로 영국성이 발현된다고 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 □ 한옥미학의 체계화

한옥미학의 체계화는 새시대의 방법론에 맞추어 재편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한옥미학지도’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옥미학지도를 작성하는데 IT분야의 방법론을 차용했다. 유통되는 방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며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대 정보기술의 방법론을 차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맨틱 웹(Semantic Web)은 리소스(웹 문서, 각종 화일,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원 사이의 관계-의미 정보(Semantics)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온톨로지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자동화된 컴퓨터가 처리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이자 기술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는 〈Subject, Predicate, Object〉의 트리플 형태로 개념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urn:바나나, urn:색, urn:노랑〉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된 트리플을 컴퓨터가 해석하여 ‘urn:바나나’라는 개념은 ‘urn:노랑’이라는 ‘urn:색’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맨틱 웹은 이러한 트리플 구조에 기반하여 그래프 형태로 의미정보인 온톨로지를 표현한다. 시맨틱 웹으로 표현되는 ‘한옥미학지도’는 사용자의 검색에 개입함으로써 서로 다른 한옥들 간의 미학적 상관관계, 나아가 타 한국문화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2] 시맨틱 웹의 개념  
출처: Frederic Mar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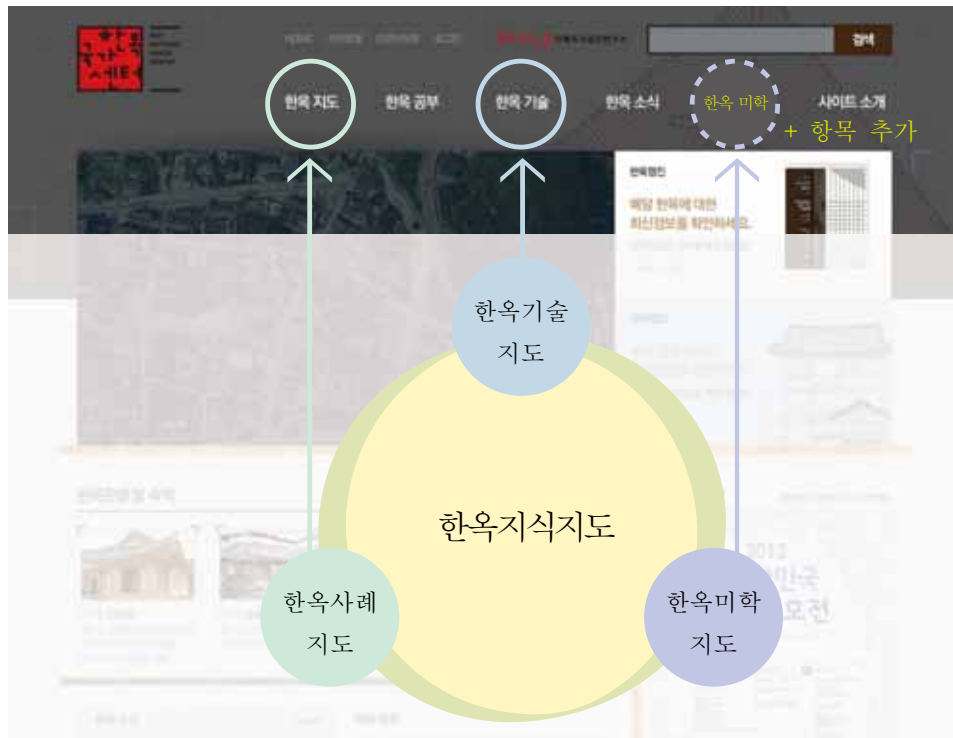
[그림 6-3] 검색 시스템의 발달  
출처: Leo Obrst 외(2010), 「솔트룩스 시맨틱 백서2」

이와 같은 방법론에 의해 한옥미학 서술 문헌정보를 집대성한 한옥미학지도는 먼저 한국건축물들의 미학적 연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학습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쌍계사’와 ‘석굴암’의 관계는 한옥미학지도를 통해 유추된다. 연관 개념들을 잇는 선을 따라 나타나는 술어들을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두 건물의 미학적 설명이 가능하다. 술어들의 관계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가 생성될 수 있다. 다만 엉뚱한 맥락으로 흐를 위험이 있는 것은 감수해야 할 일이다.

[표 6-1] 한옥미학지도를 통해 유추한 쌍계사와 석굴암의 관계

“ ‘쌍계사’ 의 건축은 ‘인간적 스케일’ 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력이다. 이처럼 ‘친근감을 주는 척도’ 는 ‘건축에서 인간미’ 를 느끼게 하며, 동시에 ‘단아한 아름다움’ 으로 나타나는데, ‘순박한 큰 맛’ 과 어우러지면 ‘숙연미’ 를 만들어낸다. 숙연미는 ‘석굴암’ 이나 ‘분황사지탑’ , ‘백제의 탑’ 등에서 볼 수 있는 미적 특징과도 일맥상통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가한옥센터 포털사이트(<http://hanokdb.kr>)의 콘텐츠는 크게 한옥지도, 한옥공부, 신한옥기술, 한옥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지리정보와 결합되어 있는 ‘한옥사례지도’와 한옥기술개발의 성과를 서비스할 예정인 ‘한옥기술지도’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한옥사례지도’는 국가한옥센터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한옥조사 연구 및 사업’의 결과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문화재청의 사례DB, 한옥기술개발사업 중 문화재 한옥의 기술정보DB가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옥지도는 각 사례들을 연계시키는 매개체의 부재로 인해 테마를 갖는 건축물들의 집합을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옥미학지도의 구축은 지리정보를 갖지 않는 미학술어들을 통해 실제 지도상의 개별 한옥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기본 문법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옥미학지도를 한옥사례지도 및 한옥기술지도를 연계시키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종합적인 ‘한옥지식지도’의 완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4] 국가한옥센터 포털사이트의 구성



한옥문화의 세계화란 결국 한옥문화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어 그 정신과 생활양식이 널리 공유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검증과 반성을 통해 한옥문화 자체를 정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오히려 공감을 얻고 수요를 촉발하는 계기는 후자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문화의 전파에는 논리의 힘만큼이나 공감의 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옥문화를 둘러싼 막연한 감상이나 과장된 신화는 벗기되 문학적이고 낭만적인 정서는 보존하는 것, 또한 풍부한 스토리텔링으로써 다양한 장점들을 포괄하는 것은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첩경이 된다.

현대 한옥미학의 기원과 전개를 검토하는 연구는 이와 같은 한옥문화의 인문학적 가치 발굴 작업의 첫걸음으로 적절하다. 한옥미학의 연구는 한옥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 지점을 검출해내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며,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정제된 한옥미학의 기초 개념들은 향후 한옥문화의 서술에서 주요한 술어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만길 (1985),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 강봉진 (1975), “한국건축의 전통과 계승에 관한 소고”, 「대한건축학회 창립30주년기념 논문집」.
- 강영환 (199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 고유섭 (1949), 「조선미술문화사논총」, 서울신문사.
- 고유섭 (1963), 「한국미술사급미학논고」, 통문관.
- 고유섭 (1964), 「조선건축미술사 초고」, 고고미술동인회.
- 고유섭 (1993a), 「고유섭전집 1」, 통문관.
- 고유섭 (1993b), 「고유섭전집 2」, 통문관.
- 고유섭 (1993c), 「고유섭전집 3」, 통문관.
- 고유섭 (1993d), 「고유섭전집 4」, 통문관.
- 공간사 (1985), 「한국의 건축 : 전통건축편」, 공간사.
- 국립박물관 (1955), 「미술고고학용어집」, 을유문화사.
- 국사편찬위원회 (2011), 「삶의 공간과 흔적, 우리의 건축 문화」, 경인문화사.
- 권영걸 (2006), 「한·중·일의 공간조영」, 국제.
- 권영필 (1991), “한국전통미술의 미학적 과제”, 「한국학연구」, v.4.
- 권영필 (1994), 「한국미학시론」,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권영필 (2005), “한국미학 연구의 문제와 방향”, 「미학·예술학연구」, v.21.
- 권영필 (2005),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 돌베개.
- 권하진, 김민자 (2010), “조선후기 풍속화에 표현된 여성복식의 해학미”, 「복식」, v.60(2).

- 김개천 (2004), 「명목의 건축」, 안그래픽스.
- 김경수 (2000), 「건축미학산책」, 발언.
- 김경수 (2001), “건축미학에서 본 한국성 문제”, 「미학·예술학연구」, v.13.
- 김경수 (2011a), “21세기 한국건축의 한 원천으로 본 신한옥”, 「동양예술」(17).
- 김경수 (2011b), “신한옥의 미학적 문제와 지향”, 「동양예술」(16).
- 김광언 (1982), 「한국의 옛집」, 마당.
- 김광언 (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 김동옥 (1993), 「한국건축공장사연구」, 기문당.
- 김동옥 (1997),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 김동현 (1975), 「한국고건축단장 下」, 동산문화사.
- 김동현 (1982), 「한국목조건축기법에 관한 연구」, 정문사문화.
- 김문환 (1985), 「현대미학의 방향」, 열화당.
- 김문환 (1991), “한국근대미학의 전사”, 「한국학연구」, v.4.
- 김봉렬 (1999a), 「시대를 담는 그릇」, 이상건축.
- 김봉렬 (1999b), 「한국건축의 재발견 1」, 이상건축.
- 김봉렬 (1999c), 「한국건축의 재발견 2」, 이상건축.
- 김봉렬 (1999d), 「한국건축의 재발견 3」, 이상건축.
- 김봉구 (1964), 「한국인과 문학사상」, 일조각.
- 김수근 (1975), “전통과 창조적 논리”, 「대한건축학회 창립30주년기념 논문집」.
- 김수근 (1989),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공간사.
- 김수근문화재단 (2006), 「당신이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 입니까」, 공간사.
- 김수현 (2005), “한국미의 범주 체계론을 위하여”, 「민족미학」, v.4.
- 김수현 (2007), “한국미의 범주로서의 ‘멋’”, 「민족미학」, v.6.
- 김영기 (1948), 「조선미술사」, 금용도서.
- 김영자 (1987), 「한국 복식미의 연구」, 한국연구원.
- 김영자 (2009), 「한국 복식미 탐구」, 경춘사.
- 김용준 (1993), 「한국미술대요」, 범우사.
- 김용준 (2001a), 「김용준 전집3 조선시대 회화와 화가들」, 열화당.
- 김용준 (2001b), 「김용준 전집5 민족미술론」, 열화당.

- 김육동 (2010),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 김원룡 (1968), 「한국미술사」, 범문사.
- 김원룡 (1978), 「한국미의 탐구」, 열화당.
- 김원룡, 안휘준 (2003),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아트.
- 김은중 (1994), 「한국의 서원건축」, 문운당.
- 김재원 (1956), 「미술고고학용어집: 건축편」, 을유문화사.
- 김정기 (1964), 「이조시대의 건축」, 예술원.
- 김정기 (1975a), “한국건축의 전통성”, 「대한건축학회 창립30주년기념 논문집」.
- 김정기 (1975b), 「한국미술전집 14 : 건축」, v.14, 동화출판사.
- 김정기 (1979), 「한국목조건축」, 일지사.
- 김정기 (1984), 「한국미술의 미의식」, 고려원.
- 김종현 (2005), “한옥공간의 문화정치학”, 「호남문화연구」, v.36.
- 김중순 (2009), “문화학으로서의 한국학: 특히 동아시아 한국학을 위하여”, 「한국학논집」, v.38.
- 김지하 (2002), 「김지하 전집 3 미학사상」, 실천문화사.
- 김지하 (2004), 「탈춤의 민족미학」, 실천문화사.
- 김지하 (2005), “흰 그늘의 미학 초”, 「미학·예술학연구」, v.21.
- 김형효 (2005), “한국 예술미학의 철학적 접근”, 「미학·예술학연구」, v.21.
- 김홍식 (1992), 「한국의 민가」, 한길사.
- 김희춘 (1975), “한국의 건축적 전통”, 「대한건축학회 창립30주년기념 논문집」.
- 노상규, 박진수 (2007), 「온톨로지」, 가즈토이.
- 단국대학교부설동양학연구소 (2010), 「주거 문화 관련 자료집」, 동양학 총서. 민속원.
- 대한건축학회 (1996), 「한국건축사」, 기문당.
- 대한건축학회 (2006), “고 장기인 대한건축사협회 전임회장을 추모하며”, 「건축」, v.50(2).
- 리여성 (1956),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국립출판사.
-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문명대 (1971), “한국미술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1969-1972”, 「역사학보」, v.50·51
- 문명대 (1978), 「한국미술사학의 이론과 방법」, 열화당.
- 문무병 (2005), “한국미의 범주로서의 한”, 「민족미학」, v.5.
- 문화재관리국 (1969-198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 민족건축미학연구회 (1993), 「한국건축사 문헌목록」, 발언.
- 민주식 (1991), “한국고전미학 단장”, 「한국학연구」, v.4.
- 민주식 (2000), “풍류사상의 미학적 의의”, 「미학·예술학연구」, v.11.
- 민주식 (2005), “전통 예술연구와 한국미학”, 「미학·예술학연구」, v.21.
- 민현식 (2006), 「건축에게 시대를 묻다」, 돌베개.
- 박길룡 (2005), 「한국현대건축의 유전자」, 공간사.
- 박언곤 (1989), 「한국의 정자」, 대원사.
- 박언곤 (1990), 「한국건축사 강론」, 문운당.
- 박용숙 (1975), “우리들의 옛 건축과 그 현대화1”, 「건축사」, v.4.
- 박종홍 (1922), “조선미술의 사적고찰 1”, 「개벽」, v.3(22).
- 배형민 (2007), 「감각의 단면」, 동녘.
- 백효경, 우신구 (2005), “지역 건축 잡지에 나타난 부산성 논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21(6).
- 서상우 (1995),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기문당.
- 서현 (2012), 「사라진 건축의 그림자」, 효형출판.
- 소우화갑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1985), 「소우화갑기념논문집」, 정문사.
- 송방송 (1991), “한국음악사의 특수성과 미의식 시론”, 「한국학연구」, v.4.
- 신나경 (2007), “한국미의 범주로서의 ‘자연’”, 「민족미학」, v.6.
- 신나경 (2011), “야나기 무네요시의 민예론에서 ‘무심의 미’”, 「민족미학」, v.10(1).
- 신대철 (2002), “한국음악에서의 한국성”, 「한국음악연구」, v.32.
- 신문기 (2004), 「테크놀로지와 건축미학」, 발언.
- 신석초 (1941), “멋設”, 「문장」.
- 신영훈 (1953),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 신영훈 (1975), 「한국고건축단장 上」, 동산문화사.
- 신영훈 (1985a), 「한옥의 미학」, 한길사.
- 신영훈 (1985b), 「한옥의 정신」, 광우당.
- 신영훈 (1988), 「한옥의 조형」, 대원사.
- 신영훈 (2000), 「정말 우리가 알아야할 우리 한옥」, 현암사.
- 신영훈, 김대벽 (2000), 「우리 한옥」, 현암사.

- 심영옥 (2000), “전통 미술 속에 나타난 해학미에 대한 연구”, 『현대미술연구소논문집』, v.2.
- 심영옥 (2008), “한국미의 주요 특징 연구 -최순우의 견해를 중심으로-”, 『동양예술』, v.13.
- 안영배 (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 안영배 (1997), 『+ 산조』, 발언.
- 안영배 (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다른세상.
- 안휘준 (2008), 『한국 미술의 미』, 효형출판.
- 오병남 (1995), 『미학강의』, 서울대학교 미학과.
- 오양진 (2006), “한국 미의 술어들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국제어문』, v.37.
- 최몽룡 외 (1999), 『한국미술의 자생성』, 한길아트.
- 유영희 (2005), “실내건축공간에 ‘한국성’ 적용을 위한 디자인개념 추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14(5).
- 유홍준 (199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창비.
- 유홍준 (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창비.
- 유홍준 (199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창비.
- 윤일주 (1966), 『한국 양식건축 80년사』, 치정문화사.
- 윤일주 (1978), 『한국현대미술사 - 건축』, 동화출판공사.
- 윤장섭 (1973), 『한국건축사』, 동명사.
- 윤장섭 (1975), “전통과 한국건축”, 『대한건축학회 창립30주년기념 논문집』.
- 윤장섭 (1983), 『한국건축연구』, 동명사.
- 윤장섭 (1990), 『한국건축사론』, 기문당.
- 윤장섭 (1996),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희순 (1946), 『조선미술사연구』, 서울신문사.
- 윤희순 (1994), 『조선미술사연구』, 동문선.
- 이경성 (1998), “한국근대미술사 서설”, 『한국근대미술사학-이경성선생 팔순기념논총』, v.6.
- 이광노 (1975), “건축과 전통”, 『대한건축학회 창립30주년기념 논문집』.
- 이규수 외 (2004),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이동환 (1997), “한국미학사사의 탐구 1”,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동환 (1997), “한국미학사사의 탐구 2”,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동흙 (2003), “한국 예술의 심층구조로서 정과 한의 아우름”, 『미학·예술학연구』, v.17.

- 이상해 (2004), “한국 전통목조건축 연구의 과제와 방법”, 『미술사학연구』, v.241.
- 이성천 (2001), “한국 전통음악의 조에 대한 미의식의 형성”, 『미학·예술학연구』, v.13.
- 이영환 (2010), 『웹 3.0 세상을 바꾸고 있다』, 보문각.
- 이인범 (1999), 『조선예술과 야나기 무네요시』, 시공사.
- 이주영 (2011), 『미학특강』, 미술문화.
- 이해성 (1975), “건축문화의 전통문제”, 『대한건축학회 창립30주년기념 논문집』.
- 이해옥, 민상충 (2011), “독일과 한국 건축평론에서의 은유”, 『독일언어문학』, v.51.
- 이혜구 (1973), “한국음악의 특징”, 『한국사상대계』, v.1.
- 이희승 (1956), “멋”, 『자유문학』, v.1(1).
- 이희승 (1959), “다시 멋에 대하여”, 『자유문학』, v.4(2).
- 인천문화재단 (2006),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인천문화재단.
- 임석재 (1988), 『고건축미』, 서문당.
- 임석재 (2005),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 임영주 (1987), “비어있는 속 가운데에 가득찬 느낌”, 『미술세계』, v.32.
- 임창복 (2011),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개.
- 장경호 (1992),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 장기인 (1958), 『건축용어집』, 영륜사.
- 장기인 (1985), 『한국건축사전』, 보성문화사.
- 장기인선생회갑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1976), 『장기인선생 회갑기념논문집』.
- 장미진 (2005), “한국의 미학과 한국미학의 방향성”, 『미학·예술학연구』, v.21.
- 장보웅 (1986),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 장희창 (2005), “한국미 범주로서의 ‘해학’”, 『민족미학』, v.5.
- 전진삼 (1997), “21세기의 건축, 왜 다시 ‘한국성’인가”, 『사회평론 길』, v.90.
- 정병호 (2004), 『한국무용의 미학』, 집문당.
- 정병훈 (2005), “한국미의 범주 체계론을 위하여”, 『민족미학』, v.4.
- 정승희 (1991), “무용적 측면에서 본 한국 곡선미 연구”, 『상명대학교논문집』, v.27.
- 정인국 (1974),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 정인국 (1975), “한국건축의 전통문제”, 『대한건축학회 창립30주년기념 논문집』.
- 정인하 (1996), 『김수근 건축론』, 시공문화사.



- 정형민 (1996), “한국미술사에 있어서 근대성의 논의(2)”, 『미술사학연구』, v.211.
- 정형민 (2011), 「근현대 한국미술과 ‘동양’개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혜경 (2009), “한국음식의 문화속성과 미학”, 『세계문화비교학회』.
- 조민환 (2011), “전통 가옥 공간의 미학적 이해”, 『동양예술』, v.17.
- 조성기 (2006), 『한국의 민가』, 한울.
- 조성룡 (2012), 『이응노의 집』, 수류산방.
- 조요한 (1999),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 조요한 (1999), “한국미의 탐구를 위한 서론”, 『미학·예술학연구』, v.9.
- 조운제 (1958), “멋이라는 말”, 『자유문학』, v.3(11).
- 주남철 (1979),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 주남철 (1980),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 주남철 (1983), 『한국건축미』, 일지사.
- 주남철 (1991), “한국전통건축에 나타나는 미적 특징, 미의식, 미학사상”, 『한국학연구』, v.4.
- 주남철 (2000a),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 주남철 (2000b),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 채희완 외 (2003), 『이론과 실천』, 민족미학.
- 천병옥 (1988), 『조선조시대 주택의 장식적 의장』, 보진재.
- 천이두 (1993),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 최공호 (2008),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 미술문화.
- 최광승 (2012), “박정희의 경주고도개발사업”, 『정신문화연구』, v.35(1).
- 최성자 (1993), 『한국의 미 - 선, 색, 형』, 지식산업사.
- 최순우 (1957), “한국미술사”, 『경기도지』.
- 최순우 (1981), 『韓國の風雅』, 成甲書房.
- 최순우 (1992a), 『최순우전집 1』, 학고재.
- 최순우 (1992b), 『최순우전집 2』, 학고재.
- 최순우 (1992c), 『최순우전집 3』, 학고재.
- 최순우 (1992d), 『최순우전집 4』, 학고재.
- 최순우 (1992e), 『최순우전집 5』, 학고재.
- 최순우 (1994),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학고재.

- 최열 (2010),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청년사.
- 최준식 (2000),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
- 최협 (2006), “동아시아담론과 인류학: 인류학적 지역연구에서의 동아시아문화”, 「한국동북아논총」, v.38.
- 한국건축역사학회 (2003a), 「한국건축사연구 1」, 발언.
- 한국건축역사학회 (2003b), 「한국건축사연구 2」, 발언.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8), 「한국인의 삶과 미의식」, 부산대학교출판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한국인의 미의식」.
- 한명희 (1999), “한국 음악의 미적 유형”, 「미학·예술학연구」, v.9.
- 한영대 (1997), 「조선미의 탐구자들」, 박경희 역, 학고재.
- 함성호 (2011), 「철학으로 읽는 옛집」, 열림원.
- 현대인강좌편집회 (1962), 「한국의 발견」, 박우사.
- 홍사중 (2006), 「아름다움을 보는 눈」, 아트북스.
- 황병기 (1985), “판소리와 산조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 「한국전통예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Allemang D., Hendler J. (2008), 「온톨로지 개발자를 위한 시맨틱 웹」, 김성혁 역, 사이텍미디어.
- Anderson B. (2002), 「상상의 공동체」, 윤형숙 역, 나남출판.
- Cheetham M. A. (2012), *Artwriting, Nation, and Cosmopolitanism in Britain*, Ashgate.
- Choay F. (2001), *The Invention of Historic Monu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dy J. W. 외 (2011), *Chinese Architecture and the Beaux-Arts*, University of Hawaii Press.
- Eckardt A. (1929), *A History of Korean Art*, Edward Goldston.
- Ferry L. (1994), 「미학적 인간」, 방미경 역, 고려원.
- Forty A. (2009), 「건축을 말한다」, 이종인 역, 미메시스.
- Hobsbawm E. (2004), 「만들어진 전통」, 박지향 역, 휴머니스트.
- Michelis P. A. (2007), 「건축미학」, 김진현 역, 까치.
- Okakura K. (1903), *Ideals of the East*, E. P. Dutton.
- Pevsner N. (1955), *The Englishness of English Arts*, Penguin Books.
- Taut B. (1937), *Houses and People of Japan*, 三省堂.
- Wittgenstein L. (1994),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서광사.

- 磯崎新 (2006), *Japan-ness in Architecture*, The MIT Press.
- 井上哲次郎 (1901), 「武士道」, 兵事雜誌社.
- 上田篤 (2006), 「日本人の心と建築の歴史」, 鹿島出版会.
- 内村鑑三 (1894), 「Japan and the Japanese」, 民友社.
- 太田博太郎 (1983), 「建築史の先達たち」, 彰国社.
- 太田博太郎 (1994), 「일본건축사」, 박언곤 역, 발언.
- 太田博太郎 외 (1996), 「日本建築の歴史と魅力」, 彰国社.
- 小田内通敏 (1923), 「조선부락조사예찰보고」, 朝鮮總督府.
- 柄谷行人 (2010),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도서출판b.
- 今和次郎 (1924), 「朝鮮部落調査特別報告」, 朝鮮總督府.
- 齊藤孝 (2008a), 「온톨로지 알고리즘 1」, 최석두 역, 한울아카데미.
- 齊藤孝 (2008b), 「온톨로지 알고리즘 2」, 최석두 역, 한울아카데미.
- 佐藤道信 (1996), 「〈日本美術〉誕生」, 講談社.
- 佐藤道信 (1999), 「明治国家と近代美術」, 吉川弘文館.
- 杉山信三 (1957), 「高麗末朝鮮初の木造建築に関する研究」, 杉山信三.
- 杉山信三 (1980), 「韓國の中世建築」, 相模書房.
- 関野貞 (1932),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 関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芸術」, 岩波書店.
- 関野貞 (2003), 「조선미술사」, 심우성 역, 동문선.
- 朝鮮總督府 (1914), 「朝鮮古蹟調査略報告」, 朝鮮總督府.
- 出川直樹 (2002), 「인간 부흥의 공예」, 정희균 역, 학교재.
-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1904),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 中見真理 (2005), 「야나기 무네요시 평전」, 김순희 역, 효형출판.
- 西和夫, 穂積和夫 (1995), 「일본건축사」, 이무희 & 진경돈 역, 세진사.
- 新渡戸稲造 (1900), 「Bushido: The Soul of Japan」, Malvern.
- 野村孝文 (1981), 「朝鮮の民家」, 學藝出版社.
- 藤井正一郎, 山口廣 (1973), 「日本建築宣言文集」, 彰国社.
- 藤島亥治郎 (1930), 「朝鮮建築史論」, 建築雜誌.
- 藤島亥治郎 (1986), 「韓의 建築文化 : 나의 研究六十年」, 이광노 역, 기문당.

藤森照信 (2008), 「建築史的モンダイ」, ちくま新書.  
 堀口捨己 (1934), “建築における日本的なもの”. 「思想」.  
 堀口捨己 (1952), 「桂離宮」, 毎日新聞社.  
 溝口理一郎 (2009), 「온톨로지 공학」, 최기선 역, 두양사.  
 柳宗悦 (1922a), 「朝鮮とその藝術」, 叢文閣.  
 柳宗悦 (1922b), 「朝鮮の美術」, 私家版.  
 柳宗悦 (1981), 「柳宗悦全集 6」, 筑摩書房.  
 柳宗悦 (1996), 「조선을 생각한다」, 심우성 역, 학고재.  
 柳宗悦 (2006), 「조선과 그 예술」, 이길진 역, 신구문화사.  
 柳父章 (2011), 「번역어의 성립」, 김옥희 역, 마음산책.  
 米田美代治 (1944), 「朝鮮上代建築の研究」, 秋田屋.

余英時 (2007),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 김병환 역, 동아시아.  
 李炳海 (2010), 「동아시아 미학」, 신정근 역, 동아시아.  
 李澤厚 (1990), 「화하미학」, 권호 역, 동문선.

#### [잡지]

고유섭 (1941), “조선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 「춘추」, 1941.07.  
 고태우 (1995), “개성의 민속마을”, 「건축세계」, 1995.08.  
 김광언 (1984), “주거생활과 민속”, 「공간」, 1984.11.  
 김동현 (1983), “한국건축의 조형”, 「건축사」, 1983.11.  
 김미상 (2012), “경관과 환경 속의 집”, 「와이드AR」 v.28, 2012.07/08.  
 김병운 (1990), “건축원류의 대상규명을 위한 논의”, 「건축문화」, 1990.02.  
 김석철 (1993), “건축가 김석철의 ‘서울, 건축과 도시’”, 「건축과환경」, 1993.09.  
 김석철 (1993), “토론: 건축가 김석철의 현실과 이상”, 「건축과환경」, 1993.09.  
 김성우 (1987), “동양건축에서의 집과 사람”, 「공간」, 1987.06.  
 김영기 (1977), “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꾸밈」, 1977.06.  
 김원룡 (1975), “전통문화의 형성과 보존”, 「공간」, 1975.05.

- 김일진 (1984), “평면구성”, 「공간」, 1984.11.
- 김종성 (1975), “미국의 관점에서 본 건축과 전통”, 「공간」, 1975.05.
- 김중현 (1986), “전통성 표현에 관한 해석-지붕”, 「꾸밈」, 1986.10.
- 김홍식 (1975), “농촌건축에 있어서의 전통의 계승”, 「공간」, 1975.05.
- 김홍식 (1984), “마을 공간구성의 율동”, 「공간」, 1984.11.
- 동정근 (1993), “상징체계를 찾아서”, 「건축과환경」, 1993.01.
- 민현식 (1975), “전통재고, 그것을 자연으로서”, 「공간」, 1975.05.
- 민현식 (2012), “풍경의 아크로바트”, 「와이드AR」 v.28, 2012.07/08.
- 박언곤 (1984), “공간의 경계선과 개구부”, 「공간」, 1984.11.
- 박언곤 (1994), “자연과 하나되는 선경의 건축, 부용정”, 「건축과환경」, 1994.06.
- 신영훈 (1975), “한국 옛 건축의 향기 1”, 「공간」, 1975.10.
- 안병의 (1993), “김중업의 작품과 건축관에 대해”, 「건축문화」, 1993.04.
- 안영배 (1974), “한국건축의 외부공간1”, 「공간」, 1974.03.
- 안영배 (1974), “한국건축의 외부공간2”, 「공간」, 1974.04.
- 안영배 (1975), “한국건축의 외부공간7”, 「공간」, 1975.03.
- 안영배 (1975), “한국건축의 외부공간8”, 「공간」, 1975.04.
- 안영배 (1990), “한국전통주택의 이미지”, 「건축문화」, 1990.02.
- 안영배, 김광현 (1984), “공간연결수법”, 「공간」, 1984.11.
- 우경국 (1990), “개념으로 본 전통주택과 나”, 「건축문화」, 1990.02.
- 이범재 (1987), “독립기념관 준공에 즈음한 몇가지 생각”, 「건축문화」, 1987.07.
- 임승빈 (1984), “정원구성”, 「공간」, 1984.11.
- 임응식 (1966), “낙선재”, 「공간」, 1966.12.
- 임응식 (1966), “종묘”, 「공간」, 1966.11.
- 임진영 (2007), “건축가 조병수”, 「공간」, 2007.04.
- 임충신 (1984), “마을의 영역”, 「공간」, 1984.11.
- 장경호 (1987), “한국의 전통건축”, 「건축사」, 1987.07.
- 장순용 (1990), “설계원점으로서의 한국전통주택”, 「건축문화」, 1990.02.
- 장순용 (1993),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건축과환경」, 1993.05.
- 장순용 (1994), “세월의 뒤편길에 선 낙선재”, 「건축과환경」, 1994.05.

정충식 (1988), “한국 전통조경 문화의 특징과 변천 및 계승”, 『공간』, 1988.10.  
 조성룡, 정귀원 (2012), “조성룡 인터뷰”, 『와이드AR』 v.28, 2012.07/08.  
 주남철 (1975), “건축에 있어서 전통성 계승과 표현방법론”, 『공간』, 1975.05.  
 최순우 (1955), “우리나라 미술사 개설”, 『새벽』, 1955.01.  
 최창조 (1984), “풍수와 좌향”, 『공간』, 1984.11.

#### [신문]

『경향신문』, (1965.04.05), 이구열, “한국의 숙제(7) 문화재 보존”.  
 『경향신문』, (1972.11.15), “불국사의 복원을 보고”.  
 『경향신문』, (1985.10.24), “그터(18) 자연미 그대로 살린 태백산 부석사”.  
 『경향신문』, (1989.02.23), 김양삼, “전통미 배우며 옛정취 즐긴다”.  
 『경향신문』, (1994.05.13), “한국의 정원(4) 전남 담양 소쇄원(하)”.  
 『경향신문』, (1994.09.02), “문화유산의 재발견(10) 경북안동 병산서원”.  
 『경향신문』, (1996.10.31), “테마여행(27) 천년고찰 부석사 무량수전”.  
 『경향신문』, (1996.12.12), “천년건축(28) 부석사 무량수전”.  
 『경향신문』, (1997.05.03), 윤승아, “문화재를 찾아서(16) 경북 예천 권씨 종택”.  
 『경향신문』, (1997.05.24), 이연재, “문화재를 찾아서(19) 소수서원”.  
 『경향신문』, (1997.07.19), “문화재를 찾아서(27) 담양 소쇄원”.  
 『경향신문』, (1998.11.04), “대숲·자연의 별유천지 ‘소쇄원’”.  
 『경향신문』, (1999.09.29), “송각 정철 가사문학의 고향 소쇄원”.  
 『동아일보』, (1922.08.24), 柳宗悅, “장치 일케된 조선의 한 건축을 위하여 1”.  
 『동아일보』, (1931.03.27), 박동진, “우리 주택에 대하여 9”.  
 『동아일보』, (1937.10.30), “이일소선기 부석사 탐승(중)”.  
 『동아일보』, (1937.11.02), “이일소선기 부석사 탐승(하)”.  
 『동아일보』, (1963.02.07), 한허주, “국보순례(60) 불국사 다보탑”.  
 『동아일보』, (1963.02.15), “국보순례(63) 불국사 연화교·칠보교”.  
 『동아일보』, (1963.05.06), 김용준, “회화로 나타나는 향토색의 음미(下)”.  
 『동아일보』, (1963.01.21), 김재섭, “국보순례(50) 부석사 무량수전”.

- 「동아일보」, (1965.06.17), “부석사”.
- 「동아일보」, (1976.02.03), 박연섭, “한국의 얼굴(6) 국보 제1호 남대문”.
- 「동아일보」, (1967.11.18), “사상의 고향(9) 부석사”.
- 「동아일보」, (1976.03.16), “한국의 얼굴(11) 호국의 절 불국사”.
- 「동아일보」, (1983.07.14), “옛멋이 물씬 전통 정원 소재원”.
- 「동아일보」, (1992.09.30), “조선시대 정통민간정원 담양 소재원”.
- 「동아일보」, (1996.05.24), “천년건축(14) 경주 불국사”.
- 「동아일보」, (1996.12.22), 김석철, “건축가 김석철씨가 본 ‘무량수전’”.
- 「동아일보」, (1998.03.04), “직선의 목재로 빛은 곡선의 미학”.
- 「読売新聞」, (1919.5.20), 柳宗悦, “朝鮮人を想う”.





## Exploring the Values of the Hanok in the Humanities: The Origin of Modern Hanok Aesthetics

Lee, Kang-Min  
Park, Min-Jeong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recognize humanistic values of *Hanok*, Korean House, culture and find a way of sharing them on a global level. Humanistic research can play a role in the globalization of *Hanok* culture by documenting 1) values of *Hanok* culture as the core of East Asian medieval civilization; 2) the excellence of *Hanok* culture that corresponds to global norms and standards. The humanistic values here refer to symbols and meanings that are necessary for storytelling of *Hanok* culture. The values can be specified by consilient methods that would combine architectural theory with history, philosophy, linguistics, literature, anthropology, sociology and ethnology.

At the initial stage of this research, it is required to reexamine the way *Hanok* culture has been valued, narrated, and written. Writing values of *Hanok* emerged in the modern era, and it thus constituted part of modern aesthetics. It is common that the value judgments of architectural culture appear to be aesthetic, because they are dependent on sensual and psychological effects rather than on exploration of truths or ethical judgments. This research examines books, reports, academic papers, newspapers and magazines written about *Hanok* in the twentieth century and extracts predicates thereof that describe aesthetic values of *Hanok*. In doing so, this research attempts to trace their ideological backgrounds and physical evidence. The predicates of *Hanok* aesthetics here indicate vocabularies that are used to interpret the beauty embodied in *Hanok* or the essence of arts by either philosophical or scientific methods.

Primary writings that have suggested theoretical evidence of contemporary hanok aesthetics can largely be categorized by disciplines. *Hanok* aesthetics started to be written for the first time based on modern academic method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writings of Japanese scholars were the majority but there were also some writings of Western scholars. Among Korean scholars, *Ko Yu-Seop* is prominent in that he was the first Korean to accept the Western aesthetics and use it in formulating main concepts of Korean aesthetics.

In the postwar era, art historians and archaeologists identifie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beauty by either accepting or criticizing the colonial academic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beauty were also discussed by ethnologists, anthropologists, and geographers. Architectural historians and heritage researchers who mainly dealt with *Hanok* architecture altered terminologies of the postwar era, attempted a chronological writing based on rational methods, and played a role in connecting the discussion of Korean beauty in art history with that of *Hanok* aesthetics. The architects' reinterpretation of *Hanok* aesthetics helped combine universal design principles with *Hanok* aesthetics.

Mass media played an important part in propagating the *Hanok* aesthetics. Architectural magazines of the colonial era showed interests in *Hanok* as a historical place to visit or as a housing type to be improved. Magazines published in the postwar era also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stablish and disseminate *Hanok* aesthetics at its early stage. The magazines ran stories that would provide the intellectual basis for *Hanok* and its interpretation, while their special issues dealing with debates on 'the Korean-ness' or tradition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subject of Korean architecture of the time. In addition, mass-oriented newspapers published articles on *Hanok* visits by introducing tours of historical sites across the country.

Extracted from primary writings, the predicates of *Hanok* aesthetics contain several characteristic vocabularies. First, predicates about the subtle beauty had changed their emphasis from grief to solitude. Predicates with an air of solitude, again, led to a tendency to explicate forms by emphasizing aesthetics of lines rather than of faces and colors. Such use of the predicates was able to suggest rhythmicity

in fluid curves as another aesthetic predicate. Second, predicates about the rusticity, which gave warm and positive attention to Korean people, developed as an aesthetics of humor that was round and generous. 'An art of the artless' was a concept to explain idiosyncrasies of *Hanok* space that is both interior and exterior and that is symmetrically asymmetric.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Hanok* that is compact and dignified were defined with its human scale and understood as a result of working with nature.

'Harmony with nature' was a concept that wa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early years of *Hanok* aesthetics and has become a superordinate category to 'an art of the artless.' Harmony with nature was defined as beauty before beauty, which breaks away from the dichotomy of beauty and ugliness. In this context, naturalism was suggested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beauty. Meanwhile, the simple and solid beauty of Korean art was described as such predicate as 'classical.' The simple and solid beauty led to the rigidity of moderation and developed as an aesthetics of frugality, which corresponds to an attitude of Confucian scholars.

These predicates are basic vocabularies that constitute *Hanok* aesthetics and have developed influencing one another. It is not, however, necessarily the case that all these predicates are required to explain individual *Hanok*. When analyzing keywords extracted from books and newspaper articles where *Buseoksa*, *Bulguksa*, *Dosan Seowon*, *Byeongsan Seowon*, and *Soswaewon* were considered classics of hanok aesthetics, descriptions regarding harmony with nature were the majority. Predicates as varied as dynamic symmetry, spatial layout, structure and curve are also found with regard to architectural aesthetics.

These predicate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what they indicate: nature, space, and form. Nature is a concept that brings topography, landscape, and orientation together. Space concerns three-dimensional dynamic elements and includes symmetry and asymmetry, dramatic effects of spatial layout by axes, three-dimensional spatiality by superimposition, and the like. Form describes two-dimensional static elements and includes descriptions about the beauty of curve, of structure, and proportion or scale. An analysis on descriptions of representative architectures classified by these categories informs that nature and space were considered essential in the narrative of *Hanok* aesthetics, whereas form was often

omitted on a case by case basis. In other words, it is not a form of architecture but harmony with nature and spatial connection that constituted the core of *Hanok* aesthetics.

This research schematizes key concepts of *Hanok* aesthetics so as to organize and analyze the genealogy of its predicates. The map of *Hanok* aesthetics, a tool that integrates interrelationships among a massive amount of relevant literature, is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diagrams drawn according to documents. It can be used to analyze the genealogy of *Hanok* aesthetics. The map is particularly useful in understanding where concentrated certain key concepts are, because it is capable of expressing with visual emphasis where nodes are concentrated.

‘Harmony with nature’ and ‘asymmetric balance’ are two notions of high frequency in the map of *Hanok* aesthetics. These two predicates can be postulated as the most basic concepts that form the backbone of the map of hanok aesthetics. However, sentences that express *Hanok* aesthetics are not a single predicate that is complete but a combination of several predicates as a result of mutual encounters and disintegra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re is no single, all-encompassing predicate that assures the essence of *Hanok* aesthetics and explain its every case.

In other words, *Hanok* aesthetics can be understood as a system extended from a family resemblance. The family resemblance refers to a characteristic which defines a group of people as a family based not on common traits shared by everyone but on some similarities that emerge among individuals. When applied to *Hanok* aesthetics, it is impossible to provide a conclusive definition of Korean-ness in architecture. However, it can be defined by similarities shared among what the notion indicates. *Hanok* aesthetics, thus, is an aggregate of such predicates that represent the similarities. This research has found that some predicates converged towards ‘harmony with nature’ in terms of aesthetics and others came to emphasize ‘asymmetric balance’ in terms of architectural methods.

Perhaps the biggest impetus for the continuing discussion on *Hanok* aesthetics is contemporary needs. Architects have considered themselves as proponents of *Hanok* aesthetics so that they could either win contracts for major public projects or establish

their own identities as architects. However, they were antagonistic towards direct transmission of tradition such as the use of tiled roof, wooden structure, or mud wall. To some extent, architectural scholars also distanced themselves from *Hanok* aesthetics. The scholars who advocated positivist methods were reluctant to write aesthetic values, because they thought the act of writing 'aesthetic values' was psychological, subjective, and thus irrelevant to what was considered the essence of architecture.

Such dominant approaches of architects and scholars caused *Hanok* aesthetics, which could otherwise have been examined and developed in various aspects, to become extremely abstract without due consideration of its concrete form. The discussion on Korean-ness in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can be compressed as the conflict between material forms and abstract spatial structures, in which the latter seems to have defeated the former. *Hanok* architecture came to be defined as 'the space of the inaction' that is 'empty' with an air of honest poverty and moderation. While an act of using low-built architectural elements, segmenting the architectural mass, or making yards were all described as the transmission of *Hanok* aesthetics, *Hanok*'s specific texture and spatial layout were often disregarded.

To explore the manifestation of *Hanok* aesthetics is to find a way to position *Hanok* as a constituent of a national aesthetics. Among basic concepts of *Hanok* aesthetics are those imported from the West. Such concepts as beauty, nature, and indifference are cases where meanings were duplicated by the double translation of Western concepts into Chinese language. These translations tended to be accepted to Korea in a wholly uncritical manner because they were disseminated with (supposedly) superior modern civilizations. As the development of Korean aesthetics brought attention to such new Korean concepts as *meot* (sapidity), *shinmyeong* (godly fun), *han* (sorrow), *haehak* (humor), *pungnyu* (enjoyment) afterwards, the Korean aesthetics became abundant in vocabularies. Furthermore, the issue of Korean beauty is being discussed in the field of Korean arts including music, dance, costumes, martial arts, and even food. For instance, curves, improvisations, and expressivity of Korean music and dance are aesthetic concepts congruent with the beauty of curves in *Hanok* aesthetics. This recognition enables us to seek a possibility of a new

storytelling.

To examine foreign cases of national architectural aesthetics can provide a point of reference for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Hanok* aesthetics. In Japan,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 in architecture was justified as it was argued that Japa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embodied its own modernity that was comparable with the Western modernism. In the context of the Western modernism, shrines, houses, and teahouses were reinterpreted as embodying rationalism or composition by lines and faces, and redefined as the core of Japanese architecture. In China, the discussion of traditional beauty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is closely bound up with activities of early architects. The first generation of Chinese architects who received the Beaux-Arts styl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1920s and 1930s introduced the Beaux-Arts into Chinese architecture. This attempt showed the possibility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he European system. The Beaux-Arts architecture was similar to Chinese architecture in that both had formal shapes and domes as well as gave weight to facades. Furthermore, it was an architectural style easily acceptable to China due to its grand appearance that fitted well into elitist characteristics of Chinese architecture.

The globalization of *Hanok* culture is defined as a process by which the value of *Hanok* culture gains worldwide attention so that its spirit and mode of living can widely be shared. To do so, it is necessary to demythify *Hanok* culture. Rather, it is required to preserve literary and romantic feelings as well as embrace various virtues of *Hanok* as a rich storytelling. The research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contemporary *Hanok* aesthetics is a first step to recognize the humanistic values of *Hanok* cultur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fining basic concepts of *Hanok* aesthetics so that they can be used as main predicates in writings on *Hanok* culture.

**Keywords : Hanok aesthetics, Hanok culture, Korean beauty, Predicate**

## 부록 1. 한옥미학 잡지기사 목록

### □ 근대기 잡지

No.	발간일	권	호	잡지명	저자	제목
1	1922	1	1	조선과건축	小野二郎	朝鮮に於ける住宅建築の改造
2	1922	1	3	조선과건축	關野貞	朝鮮の古建築に就て
3	1923	2		개벽	김유방	文化生活과 住宅
4	1923	4		개벽	김유방	우리가 選擇할 小住宅, 文化生活과 住宅(其三)
5	1923	8		개벽		一千年 古都 慶州地方
6	1923	9		개벽	김유방	文化生活과住宅(前承)-近代思潮와小住宅의傾向
7	1923	11		조선	關野貞	朝鮮最古の木造建築
8	1923	12		조선	關野貞	朝鮮最古の木造建築
9	1923	2	2	조선과건축	小田省吾	古代朝鮮の民族と其の遺蹟(上)
10	1923	2	3	조선과건축	小田省吾	古代朝鮮の民族と其の遺蹟(下)
11	1923	2	4	조선과건축	谷民藏	鮮銀建築の今昔
12	1923	2	4	조선과건축	藤原源市	温突の改造に就て
13	1923	2	5	조선과건축	佐藤虎次朗	朝鮮の都市と建築
14	1923	2	5	조선과건축		朝鮮と建築(1)
15	1923	2	6	조선과건축		朝鮮と建築(2)
16	1923	2	6	조선과건축	YY生	考古學上より身たる上代の日鮮關係
17	1923	2	7	조선과건축		朝鮮と建築(3)
18	1923	2	8	조선과건축	關野貞	朝鮮最古の木造建築(1)
19	1923	2	8	조선과건축	和田雄治	朝鮮古今地心考
20	1923	3	1	조선과건축	關野貞	朝鮮最古の木造建築(2)

No.	발간일	권	호	잡지명	저자	제목
21	1924	11		조선금만주	石川義一	朝鮮古來の建築
22	1924	3	1	조선과건축	志賀潔	朝鮮の快晴なる天候を利用せよ
23	1924	3	2	조선과건축	岩槻善之	朝鮮民家の家構に就いて
24	1924	3	2	조선과건축	加納博	朝鮮式建築雜録(1)
25	1924	3	5	조선과건축	加納博	朝鮮式建築雜録(2)
26	1924	3	6	조선과건축	加納博	朝鮮式建築雜録(3)
27	1924	3	7	조선과건축	加納博	朝鮮式建築雜録(4)
28	1925	4	1	조선과건축	後藤虎雄	朝鮮建築界の将来
29	1925	4	3	조선과건축	村田次郎	南鮮民家の家構私見(1)
30	1925	4	5	조선과건축	村田次郎	南鮮民家の家構私見(2)
31	1925	4	7	조선과건축	村田次郎	南鮮民家の家構私見(3)
32	1925	4	7	조선과건축	小山一徳	朝鮮の窯業に就て
33	1925	4	11	조선과건축	天沼俊一	李朝の建築は中々面白い
34	1925	4	11	조선과건축	牟田口英亮	朝鮮の建築に對する管見
35	1926	9		조선	富士岡重一	朝鮮の大理石
36	1926	5	3	조선과건축	岩槻生	朝鮮芸術の暗示
37	1926	5	6	조선과건축	藤島亥治朗	湖南地方に於ける朝鮮建築史料(1)
38	1926	5	7	조선과건축	藤島亥治朗	湖南地方に於ける朝鮮建築史料(2)
39	1926	5	11	조선과건축	掛場定吉	温突の改良に就て
40	1927	8		조선농민	박석규	全鮮名勝地緯陰記-新羅 一千年歴史를 말하는 佛國寺
41	1928	5		별건곤	차돌이	上下半萬年の 우리 歴史-縱으로 본 朝鮮의 자랑
42	1928	5		별건곤	박돌이	白頭山에서 漢拏山까지 横으로 본 朝鮮의 美
43	1928	7	8	조선과건축	小清水仙之助	私の見た「朝鮮の新建築物は餘りにに早老か」
44	1929	6		조선금만주	中村誠	新興朝鮮の建築體型
45	1929	6		삼천리	황의돈	過去事研究-新羅의 燦然한 文明과 新羅民衆의 榮華, 그 서울 慶州는 었더하였나(1)
46	1929	8	7	조선과건축	日下喜一郎	朝鮮の古美術に就て
47	1929	8	7	조선과건축	近藤時司	朝鮮の名所と建築(1)



No.	발간일	권	호	잡지명	저자	제목
48	1929	8	8	조선과건축	近藤時司	朝鮮の名所と建築(2)
49	1929	8	10	조선과건축	野次生	朝鮮建築を
50	1930	9	7	조선과건축	N生	朝鮮の家屋
51	1931	8		조선	小河弘道	氣象と朝鮮の建築物
52	1931	10	5	조선과건축	森悟一	朝鮮家屋の改善に就て
53	1931	10	9	조선과건축	中村誠	朝鮮の古建築に就て
54	1931	10	9	조선과건축	大澤三之助	朝鮮の建築物を見て
55	1931	10	10	조선과건축		朝鮮式住宅建築改善座談会
56	1931	10	11	조선과건축	佐野利器	朝鮮の羨ましき数点
57	1933	12	1	조선과건축	伊東忠太	朝鮮建築界の再吟味
58	1935	4		경무회보	陸武哲	高峯里模範衛生部落の神祠堂
59	1935	5		신흥	고유섭	高麗의 佛寺建築
60	1935	9		삼천리	박길룡	大京城의 近代建築物展望
61	1935	10		삼천리	박길룡	大京城뽕딩 建築評
62	1936	6		삼천리		文化住宅 月賦建築 秘法
63	1936	15	5	조선과건축	稲葉岩吉	古代朝鮮の家屋と文化
64	1937	1		조선행정	佐藤春夫	東洋文化の傳統に生きて
65	1937	5		호남평론	정두현	科學的 住宅 建築을 期함
66	1937	12		조선	野村孝文	朝鮮の建築
67	1937	16	1	조선과건축	葛西重男	朝鮮に於ける建築上の諸問題
68	1937	16	3	조선과건축	齋藤忠人	韓国建築調査報告を讀みて朝鮮住宅を想ふ
69	1937	16	8	조선과건축	朴吉龍	朝鮮式住宅改善の問題
70	1938	2		조선	笹慶一	朝鮮に於ける住宅の變遷
71	1940	10		조선총독부 조사월보	善生永助	朝鮮に於ける同族部落の構造(其1)
72	1940	11		조선	鶴見三三	綠樹·水田·建築美
73	1940	11		조선총독부 조사월보	善生永助	朝鮮に於ける同族部落の構造(其2)
74	1940	12		조선총독부	善生永助	朝鮮に於ける同族部落の構造(其3)

No.	발간일	권	호	잡지명	저자	제목
조사월보						
75	1940	19	3	조선과건축	朴吉龍	朝鮮在來溫突の構造
76	1941	20	4	조선과건축	吉田正夫	住宅政策に関する一考察
77	1941	20	4	조선과건축	今城運男	朝鮮独自の建築構造の把握
78	1941	20	4	조선과건축	朴吉龍	朝鮮住宅雜感
79	1941	20	4	조선과건축		朝鮮の風土と建築
80	1941	20	4	조선과건축		礎石
81	1941	20	5	조선과건축		新羅の建築・高麗の建築
82	1941	20	7	조선과건축		李朝の建築
83	1941	20	8	조선과건축		古新羅の建築
84	1941	20	9	조선과건축		朝鮮建築の変遷
85	1941	20	10	조선과건축		李朝の古建築圖抄
86	1941	20	12	조선과건축	張基仁	朝鮮住宅裝飾小考
87	1941	20	12	조선과건축		寶林寺の建築
88	1942	10		조선	杉山信三	朝鮮建築に見る進展の様相
89	1942	21	1	조선과건축		幢竿及幢竿支柱
90	1942	21	6	조선과건축		水原城
91	1942	21	10	조선과건축	野村孝文	朝鮮住宅の変遷の概要
92	1943	7		조선	杉山信三	内地と朝鮮に見る原始的建築(内鮮比較の古建築史)
93	1943	8		조선	杉山信三	内地と朝鮮に見る原始的建築
94	1943	12		조선	野村孝文	朝鮮の煖房と住宅
95	1944	1		조선	杉山信三	内地及朝鮮の佛教隆盛期に於ける建築(上)
96	1944	2		조선	杉山信三	内地及朝鮮の佛教隆盛期に於ける建築(中)
97	1944	3		조선	杉山信三	内地及朝鮮の佛教隆盛期に於ける建築(下)
98	1944	4		조선	杉山信三	内地及朝鮮の近世建築(上)内鮮比較の古建築史
99	1944	5		조선	杉山信三	内地及朝鮮の近世建築(下)
100	1950	5		학풍	김중업	建築 50年(20世紀 文明의 回顧와 展望)
101	1953	11		신천지	김재원	古代建築에 對하여(文化財의 復興策)

□ 학·협회지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1	1956	4	건축	신무성 한식주택 온고지신 평면을 중심으로
2	1956	4	건축	이동진 온돌방과 주방의 배치
3	1959	9	건축	한정섭 서민주택의 평면계획에 대하여
4	1964	6	건축	안영배 건축의미
5	1965	2	건축	주남철 한국주택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연구(1)
6	1965	2	건축	임영배 화엄사 3층사사석탑의 조형비에 관한 연구
7	1965	7	건축	주남철 한국주택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연구(2)
8	1965	7	건축	이경희 한국석탑양식과 그 변천에 관한 계통적 연구
9	1966	9	건축	윤장섭 한국남서지방의 고건축조사
10	1966	9	건축	이경희 한국석탑양식과 그 변천에 관한 체계적 연구
11	1967	9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부여박물관에 대하여
12	1968	1	건축사	장기인 현대건축과 고건축
13	1968	6	건축	강봉진 구례 화엄사 각황전 실측보고
14	1968	7	건축사	이정덕 한국고건축의 양식 연원
15	1968	9	건축	강봉진 부여 무량사 극락전 실측보고
16	1968	9	건축사	강봉진 단청에 대한 소고
17	1968	11	건축사	김지태 온돌의 효율
18	1968	12	건축	강봉진 서울 문조대성전 실측보고
19	1968	12	건축사	강봉진 광화문의 복원에 대하여(1)
20	1969	1	건축사	강봉진 광화문의 복원에 대하여(2)
21	1969	3	건축사	강봉진 한국건축의 사적고찰(1)
22	1969	5	건축사	강봉진 한국건축의 사적고찰(2)
23	1969	7	건축사	강봉진 한국건축의 사적고찰(3)
24	1969	9	건축	강봉진 서울 동묘정전 실측보고
25	1969	9	건축사	강봉진 한국건축의 이두식 술어에 대한 소고
26	1969	11	건축사	김문한 우리나라 목제창호의 구조적인 개량점에 관하여

No.	발간일	집지명	저자	제목
27	1969	12	건축	주남철 이조시대 주택의 공간성
28	1970	3	건축	강봉진 서울 성곽 창의문 실측보고
29	1970	6	건축	강봉진 창덕궁 인정전 실측 보고
30	1970	8	건축사	강봉진 한국건축의 특색에 대하여
31	1970	9	건축	강봉진 덕수궁 중화전 실측보고
32	1970	12	건축	주남철 이조말부터 1945년도까지의 한국의 주택 변천
33	1970	12	건축	강봉진 남대문 실측 보고
34	1971	1	건축	강봉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실측보고
35	1971	5	건축	강봉진 남원광한루 실측보고
36	1971	7	건축	강봉진 수원성곽장안문실측보고
37	1971	8	건축사	강봉진 해방 이후 우리 주택의 변천
38	1971	9	건축	김기호 조선왕조 궁궐 건축의 배치 계획에 관한 연구
39	1971	11	건축	홍봉희 구미건축의 유물들
40	1972	1	건축	김홍식 실학건축사상연구
41	1972	2	건축사	오광수 문화제와 도시계획
42	1972	2	건축사	김홍식 한국건축사상연구(1)
43	1972	3	건축사	김홍식 한국건축사상연구(2)
44	1972	3	건축사	김홍조 민족적 리얼리즘 건축
45	1972	7	건축	윤장섭 한국건축사서설 한국건축사연구
46	1972	7	건축사	윤태현 건축의 멋과 환경
47	1972	7	건축사	이호진 학교건축의 사적고찰
48	1972	9	건축	강봉진 제주 관덕정 실측보고
49	1972	11	건축	김정식 한국주거생활의 특성과 서민주택
50	1972	11	건축	윤장섭 백제건축 및 고신라건축:한국건축사연구
51	1972	11	건축사	최병선 한국 고도읍의 공간구조
52	1973	1	건축	윤장섭 통일신라건축:한국건축사 연구
53	1973	3	건축	윤장섭 고려건축 한국건축사연구
54	1973	3	건축	강봉진 장곡사상대웅전 실측보고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55	1973	5	건축	윤장섭 조선건축 한국건축사연구
56	1973	6	건축사	강도파 사라지는 서울의 근대건축
57	1973	6	건축사	조자용 장수고
58	1973	7	건축	윤장섭 조선건축 한국건축사연구
59	1973	8	건축사	원대연 불국사의 기단
60	1973	9	건축	장기인 건축의 어제와 오늘
61	1973	11	건축사	강봉진 민속에 대한 소고
62	1974	1	건축사	운장변 한국 건축문화의 특징
63	1974	4	건축사	김홍식 한국의 고건축(탐방)-수덕사
64	1974	5	건축사	김홍식 한국의 고건축(탐방)-금산사
65	1974	6	건축사	김홍식 한국의 고건축(탐방)-화엄사(상)
66	1974	7	건축사	김홍식 한국의 고건축(탐방)-화엄사(하)
67	1974	8	건축사	김홍식 한국의 고건축-예남문
68	1974	9	건축	박학재 한국건축가론:전통의부재와모방의한계
69	1974	9	건축사	홍철수 한국의 선미-건축의 미
70	1974	10	건축사	김수근 한국건축개관
71	1974	11	건축사	김홍식 한국의 고건축-법주사
72	1975	4	건축사	박용숙 우리들의 옛 건축과 그 현대화(1)
73	1975	5	건축	이씨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배치에 대한 기초적 연구:주로 내외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74	1975	5	건축	김홍식 마을공간구성 방법에 대한 한국전통 건축사상 연구 충북 괴산군 청안면 운곡일리, 괴실 마을을 중심으로
75	1975	5	건축사	김원 안동 수물지구의 감상
76	1975	5	건축사	박용숙 우리들의 옛 건축과 그 현대화(2)
77	1975	6	건축사	주남철 한국건축의 특색에 대하여
78	1975	6	건축사	신영훈 한옥의 역사와 그 구조
79	1975	7	건축	김희춘 30년회고담:서울을 생각한다
80	1975	7	건축	신무성 30년회고담:역사의 흐름 속에서
81	1975	9	건축	송민구 부석사무량수전의 미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82	1975	9	건축사 송민구	한국 고건축의 미의 원천
83	1975	10	건축사 송민구	한국 고건축의 평면의 비례
84	1975	11	건축사 김희춘	한국의 건축적 전통
85	1976	1	건축 주남철	고문헌에 나타난 개호제상과 초옥토실에 대하여
86	1976	11	건축 윤장섭	[서평] 한국전통 의장 자료
87	1977	1	건축 박영호	조선시대 궁궐의 정전 내부공간에 대하여
88	1977	1	건축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89	1977	3	건축 임영배	미륵사지서탑의 조형계획에 대한 고찰
90	1977	3	건축 윤장섭	한국건축 목조공포형식 발전과정 고찰 : 고대두공의 기원과 발전에 관하여
91	1977	9	건축 윤장섭 주남철	고창첨당사에 관하여
92	1977	9	건축사 한규봉	한국건축전통양식계승을 위한 제언
93	1977	10	건축사 한창진	한국건축의 전통양식계승
94	1977	11	건축 송민구	부석사 무량수전의 미
95	1978	1	건축 주남철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 특성론
96	1978	3	건축 윤장섭	[권두언] 민가건축
97	1978	3	건축 장성준	안동토계동의 주택유형에 대한 연구
98	1978	3	건축 홍대형	전주향교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
99	1978	7	건축 주남철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난간양식에 관한 연구
100	1978	9	건축 김홍곤	한국고건축 의장에 관한 연구삼국시대-고려
101	1978	11	건축 장성준	풍수지리의 국면이 갖는 건축적 상상력에 관한 고찰
102	1979	3	건축 임영배	한국석탑건축의 조형점이에 대한 연구(1)
103	1979	3	건축 김종인 양영성	서민 주공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연구
104	1979	5	건축 윤장섭	[권두언] 전통과 창작
105	1979	5	건축 김희춘	조선조 서원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106	1979	5	건축 윤장섭	한국과 일본의 민가건축 비교 고찰
107	1979	7	건축 임영배	한국석탑건축의 조형점이에 대한 연구(2)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108	1979	7 건축사	강명구	건축과 배색-외국과 우리나라의 색채소고
109	1979	9 건축	김선우	한국 주거난방의 사적고찰 온돌을 중심으로
110	1979	10 건축사	박시익	뜻으로 본 한국건축 양식의 특징과 국민성과의 관계
111	1979	12 건축사	박상호	도시 속에서의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조화
112	1980	2 건축사	김홍식	한국민가의 유형분류
113	1980	3 건축	조성기	한국민가연구서설
114	1980	4 건축사	강봉신	한국전통건축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기본계획안에 대하여
115	1980	5 건축사	정재영	구조와 건축미 통합
116	1980	9 건축	장경호	황룡사지를 중심으로 고찰해본 우리나라의 고대사찰가람(1)
117	1980	9 건축사	김동규	한국의 현대건축과 조국근대화 그리고 전통의 계승
118	1980	10 건축사	조승원 조영무	한국목조건축기법의 특징들
119	1980	11 건축	박언곤 이왕기	조선왕조의 궁조직제에 관한 연구
120	1980	11 건축	장경호	황룡사지를 중심으로 고찰해본 우리나라의 고대사찰가람(2)
121	1980	11 건축사	장기인	한국주택과 주거생활(1)
122	1981	1 건축	안영배	통도사 가람배치에 관한 연구 외도공간의 구성을 중심으로
123	1981	1 건축	김순일	조선후기의 주의식에 관한 연구:<연행록>과 <해행총제>의 주택개량사상을 중심으로
124	1981	1 건축사	장기인	한국주택과 주거생활(2)
125	1981	1 건축사	김제동	한국고건축의 외부공간에 대한 소고
126	1981	3 건축사	장기인	한국주택과 주거생활(3)
127	1981	6 건축사	장기인	조선시대의 단청
128	1981	7 건축	서상우 김상범	조선시대 교육공간에 관한 고찰
129	1981	7 건축	김홍곤	남한강유역의 민가에 대한 취락구조 조사 연구
130	1981	7 건축	조성기	한국민가의 굴뚝유형에 관한 연구
131	1981	7 건축	김진균	전통공간 조직체계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132	1981	9 건축	김정수	황룡사 구층목탑의 형태추정에 관한 연구:문화재와 작도법을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박일남	중심으로
133	1981	12 건축사	김광언	우리나라 집에 관한 민속(1)
134	1982	1 건축	김정수	황룡사구층목탑 내부형태 추정에 관한 연구:단면도를 중심으로
135	1982	1 건축사	김홍식	우리나라 양통집의 평면에 대한 연구(1)
136	1982	1 건축사	김광언	우리나라 집에 관한 민속(완)
137	1982	1 건축사	대한건축 사협회	한국의 전통건축-창호
138	1982	3 건축사	장기인	한국건축개설(1)
139	1982	4 건축사	장기인	한국건축개설(2)
140	1982	4 건축사	장기인	한국건축의 절대특수성에 관한 고찰(1)
141	1982	5 건축	김순일	개화기의 주의식에 관한 연구:1876~1910년간 견문록 신문학회지의 주택론을 중심으로
142	1982	5 건축	김동욱	고려시대 건축공장의 관직제도고:조영체제에서 본 한국건축의 고대와 중세
143	1982	5 건축사	박언곤 김동욱	한국건축의 절대특수성에 관한 고찰(2)
144	1982	6 건축사	박언곤 김동욱	한국건축의 절대특수성에 관한 고찰(3)
145	1982	7 건축	주남철	전통 고정원의 복원에 관한 조사 연구
146	1982	7 건축사	김정강	건축과 회화-한국와옥을 중심으로
147	1982	7 건축사	박언곤 김동욱	한국건축의 절대특수성에 관한 고찰(4)
148	1982	9 건축사	박영호	전통과 창조에 관한 시대영상
149	1982	9 건축사	박언곤 김동욱	한국건축의 절대특수성에 관한 고찰(완)
150	1982	11 건축	박만식 이달훈	백제가람지의 연구 정립사지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151	1982	12 건축사	신영훈	화순 쌍봉사의 삼층전
152	1983	1 건축	이재우 오인옥	농가주택의 건축공간구성과 부속사 변용에 관한 연구: 고궁원취락의 경우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153	1983	3 건축사	신영훈	마루가 있는 집
154	1983	3 건축사	장경호	한국목조건축의 양식과 구조 및 그 특성
155	1983	4 건축사	최상수	한국의 건축의례와 부역인부의 비화
156	1983	5 건축	조성기	한국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157	1983	9 건축사	대한건축 사협회	한국의 전통마을-하동
158	1983	9 건축사	신영훈	돌각담
159	1983	9 건축사	신영훈	창덕궁 가청당
160	1983	10 건축사	최창규	건축양식과 전통
161	1983	10 건축사	김동현	전통건축의 유산
162	1983	11 건축사	김동현	한국건축의 조형
163	1984	1 건축사	송민구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1)
164	1984	1 건축사	김동현	한국의 궁궐 건축
165	1984	2 건축사	송민구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2)
166	1984	2 건축사	김동현	한국의 사찰건축
167	1984	2 건축사	임성수	광화문과 유종열
168	1984	3 건축	유승용 박경립	강원도 민가에 관한 연구:평면형태를 중심으로
169	1984	3 건축	김지민	조선시대 향교건축에 관한 연구 나주향교를 중심으로
170	1984	3 건축사	송민구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3)
171	1984	3 건축사	김동현	한국의 목조건축양식
172	1984	4 건축사	송민구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4)
173	1984	4 건축사	김동현	한국건축의 평면
174	1984	5 건축사	송민구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5)
175	1984	6 건축사	김두현	청의정
176	1984	6 건축사	송민구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6)
177	1984	7 건축	김정수	망덕사 십삼층목탑의 형태추정에 관한 연구 문화재와 현지 답사를 중심으로
178	1984	7 건축사	장기인	김제 금산시 미륵전

No.	발간일	집지명	저자	제목
179	1984	7 건축사	송민구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7)
180	1984	8 건축사	송민구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8)
181	1984	9 건축사	송민구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9)
182	1984	10 건축사	송민구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10)
183	1984	11 건축	김관석	조선시대주거[독락당]일곽에 관한연구(1)
184	1985	1 건축	김관석	조선시대주거[독락당]일곽에 관한연구(2)
185	1985	3 건축	김은중 주남철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1)
186	1985	5 건축	김은중 주남철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2)
187	1985	6 건축사	장기인	수덕사 대웅전
188	1985	6 건축사	이응목	화엄사 목조건물 실측보고
189	1985	9 건축사	김영수	초가 타는데 주택문화는
190	1985	11 건축사	장순용	창녕궁 통명전
191	1986	2 건축사	이응목	추사고택
192	1986	3 건축	윤일주	한국에서의 근대건축의 발전
193	1986	5 건축	김정동	한국의 서구건축 인식단계:한성순보의 수정궁을 중심으로
194	1986	9 건축	김정기	건축학에 있어서 건축사의 위치
195	1986	9 건축	장기인	건축용어의 지스리기(1)
196	1986	9 건축	박언곤	건축사학의 접근방법 소고
197	1986	9 건축	김동현	한국건축연구의 어제와 오늘
198	1986	11 건축	장기인	건축용어의 지스리기(2)
199	1987	1 건축	장기인	건축용어의 지스리기(3)
200	1987	2 건축사	김석철	하회, 안동마을을 찾아서
201	1987	3 건축	장기인	건축용어의 지스리기(4)
202	1987	5 건축사	임충신	묘동마을 조사연구(1)
203	1987	6 건축사	임충신	묘동마을 조사연구(2)
204	1987	7 건축	장기인	건축용어의 지스리기(6)
205	1987	7 건축	이호진	주거생활패턴과 주의식의 변화:서민계층을 중심으로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206	1987	7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1:한국의 전통건축
207	1987	8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2:선사시대의 우리나라 건축
208	1987	9 건축	장기인	건축용어의 지스러기(7)
209	1987	10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3:청동기시대 및 초기 철기시대의 주거
210	1987	11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4:청동기시대 및 초기 철기시대의 주거
211	1987	11 건축	장기인	건축용어의 지스러기(8)
212	1987	12 건축사	박세익	풍수지리설과 주택 설계(2)
213	1988	1 건축	장기인	건축용어의 지스러기(9)
214	1988	2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5:삼국시대의 건축문화
215	1988	3 건축	장기인	건축용어의 지스러기(10)
216	1988	3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6:삼국시대의 건축문화
217	1988	5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7:삼국시대의 건축문화
218	1988	6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8:삼국시대의 건축문화
219	1988	8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9:삼국시대의 건축문화
220	1988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10:삼국시대의 건축문화
221	1988	12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11:삼국시대의 건축문화
222	1989	1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12:삼국시대의 건축문화
223	1989	2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13:통일신라의 건축
224	1989	3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14:통일신라의 건축
225	1989	3 건축	김동욱 이상해	한국주택사연구의 현황과 전망
226	1989	3 건축	김정기	한국주택사연구의 전망
227	1989	3 건축	장경호 배병선	주거지의 발굴과 그 성과
228	1989	3 건축	신영훈	조선조 한양도성의 제택고
229	1989	3 건축	유승용	민가연구의 상황
230	1989	3 건축	강영환	한국전통민가연구의 동향과 과제
231	1989	3 건축	김광언	조선조의 주거풍속
232	1989	3 건축	김홍식	택보요전에 있어서 민가의 간잡이 방법논고

No.	발간일	집지명	저자	제목
233	1989	3	건축 김의원	개화기에서 구한말까지의 도시 발달과정속의 도시와 주택
234	1989	3	건축 임창복	일제시대 주택건축의 경향 고찰
235	1989	3	건축 송주현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주택건조물 현황
236	1989	4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15:통일신라의 건축
237	1989	4	건축사 김태연	한국개화기의 외인관(1)
238	1989	6	건축사 김태연	한국개화기의 외인관(2)
239	1989	6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16:통일신라의 건축
240	1989	7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17:통일신라의 건축
241	1989	7	건축사 김태연	한국개화기의 외인관(3)
242	1989	8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18:통일신라의 건축
243	1989	9	건축사 김태연	한국개화기의 외인관(4)
244	1989	10	건축사 김태연	한국개화기의 외인관(5)
245	1989	10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19:고려시대의 건축
246	1989	11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20:고려시대의 건축
247	1989	12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21:고려시대의 건축
248	1990	1	건축 장기인	건축용어의 지스리기
249	1990	1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22:고려시대의 건축
250	1990	3	건축 임창복	건축설계의 새로운 과제 (전통성과상징성의추구건)
251	1990	3	건축 송민구	현대건축사조와 전통성 구현문제
252	1990	3	건축 성인수	현대건축사조와 전통성의 구현
253	1990	3	건축 김성우	이념추구와 자기표현으로서의 전통구현
254	1990	3	건축 김경수	한국현대건축의 전개과정에서 본 전통구현의 자세와 작품경향
255	1990	3	건축 김난기	한국현대건축의 전개과정에서 본 전통구현의 반성과 과제
256	1990	3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23:고려시대의 건축
257	1990	4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24:조선시대의 건축
258	1990	5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25:조선시대의 건축
259	1990	5	건축사 장순용	정자건축의 실례와 현대적인 응용요소
260	1990	6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26:조선시대의 건축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261	1990	7	건축	장기인 용어의 지스리기
262	1990	7	건축사	장순용 정자건축의 실패와 현대적인 응용요소
263	1990	8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27:조선시대의 건축
264	1990	9	건축	장기인 용어의 지스리기
265	1990	10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28:조선시대의 건축
266	1990	10	건축사	이왕기 박명덕 한국 전통가옥의 재조명(1)
267	1990	11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29:조선시대의 건축
268	1990	11	건축사	이왕기 박명덕 한국전통가옥의 재조명(2)
269	1990	12	건축사	이왕기 박명덕 한국전통가옥의 재조명(3)
270	1991	1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30:조선시대의 건축
271	1991	2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31:조선시대의 건축
272	1991	3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32:조선시대의 건축
273	1991	4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33:조선시대의 건축
274	1991	5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34:조선시대의 건축
275	1991	6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35:조선시대의 건축
276	1991	7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36:조선시대의 건축
277	1991	9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37:조선시대의 건축
278	1991	10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38:조선시대의 건축
279	1991	11	건축사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39:전통건축의 맥락과 그 계승
280	1991	12	건축사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환경과 변용
281	1992	1	건축	이상해 한양도성경관의원형
282	1992	1	건축	신기철 세종로변 역사경관 회복을 위한 소고
283	1992	1	건축	김성균 한국전통마을의 경관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284	1992	3	건축	최창조 풍수사상에서의수
285	1992	3	건축	한필원 전통 농촌마을에서 물의 의미
286	1992	5	건축	정기용 흙건축-잊혀진 정신 한국 전통흙건축의 현주소

No.	발간일	집지명	저자	제목	
287	1992	5	건축	강영환	한국의 민가와 흙의 의미
288	1992	7	건축	김봉건	전통목조건축의 구조해석
289	1992	10	건축사	장순용	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1)
290	1992	11	건축사	장순용	전통건축연구-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2)
291	1992	12	건축사	장순용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3)
292	1993	1	건축사	장순용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4)
293	1993	2	건축사	장순용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5)
294	1993	5	건축	김봉렬	전통건축 속의 공간적 전이
295	1993	5	건축	김정신	한국 근대건축에 있어서 양식의 전이과정
296	1993	9	건축	이경희	한국 전통건축의 자연환경 조절방법과 그 원리의 현대화
297	1994	8	건축사	장순용	한국의 전통건축-강릉 김윤기가옥
298	1994	9	건축사	장순용	한국의 전통건축-강릉 조수환가옥
299	1994	10	건축사	장순용	한국의 전통건축-강릉 남진용가옥
300	1994	11	건축	강병기	새로운 `도시한옥`의 모색을 위하여
301	1995	5	건축사	김지민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1)
302	1995	6	건축사	김지민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2)
303	1995	7	건축사	김지민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3)
304	1995	9	건축사	김지민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4)
305	1996	1	건축사	김지민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5)
306	1996	2	건축사	김지민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6)
307	1996	5	건축사	김지민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7)
308	1996	6	건축사	김지민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8)
309	1996	7	건축	박언곤	도시 속의 역사문화환경
310	1996	7	건축	양상호	파괴된 궁궐의 복원과 활용:궁궐 내의 박물관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311	1996	7	건축	장순용	운현궁의 복원과 남겨진 과제
312	1996	8	건축사	김지민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완)
313	1996	9	건축사	최동호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구성 원리(1)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314	1996	10	건축	김은중 한국적 건축의 모색
315	1996	11	건축	낙선재, 운현궁 견학기
316	1996	11	건축	박창열 낙선재
317	1996	11	건축	장순용 중수전후의 상황으로 본 운현궁
318	1996	12	건축사	최동호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구성 원리(2)
319	1997	2	건축사	최동호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구성 원리(3)
320	1997	2	건축사	정재국 강릉의 전통건축과 그의 현대적 수용
321	1997	5	건축	강화 유적지 견학회
322	1997	6	건축사	최동호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구성 원리(완)
323	1997	9	건축사	양상현 도시의 기억, 도시의 건축
324	1997	10	건축사	신석하 제주의 전통건축
325	1997	11	건축	추계 고적답사:동구릉,광릉,봉선사
326	1997	11	건축	김행자 고건축답사를 다녀와서
327	1998	4	건축	김봉건 경기지역:전통목조건축의 천연덕스러운 가구미 (안성 청룡사 대웅전)
328	1998	4	건축	이왕기 충청지역:계룡산의 단묘건축
329	1998	4	건축	홍승재 전라지역:둔덕 동촌마을의 역사와 촌락구조
330	1998	4	건축	전봉희 전라지역:근대, 그 자유와 향수 (보성기행)
331	1998	4	건축	김지민 전라지역:하의도 초가
332	1998	4	건축	천득염 전라지역:전남지방의 돌다리
333	1998	4	건축	김봉렬 경상지역:자연 속으로 사라짐(비슬산유가사)
334	1998	4	건축	이호열 경상지역:청도 임당리 내관가
335	1998	4	건축	안계복 경상지역:암정으로서 주암정에 대한 소고
336	1998	4	건축	김성균 경상지역:예천지방의 산수와 정자
337	1998	4	건축	백영흠 경상지역:영천 만취당
338	1998	4	건축	강영환 경상지역:호연정:조선장인의 천재성과 예술성
339	1998	4	건축	고영훈 경상지역:합천영암사지
340	1998	4	건축	신석하 제주지역:제주도의 덜 알려진 건축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341	1998	7	건축	박윤성 한국의 온돌방문화
342	1998	11	건축	거조암, 은혜사, 동화사 견학회



□ 건축잡지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1	1967 1	공간	최순우	우리 傳統의 反芻(3):李朝時代의 木工藝1 文房家具
2	1967 2	공간	최순우	우리 傳統의 反芻(4):李朝時代의 木工藝2 櫥籠
3	1967 2	공간	신영훈	海印寺
4	1967 3	공간	진홍섭	우리 傳統의 反芻:韓國의 전답1
5	1967 3	공간	임응식	李朝上流住宅
6	1967 4	공간	진홍섭	우리 傳統의 反芻:韓國의 전답2
7	1967 6	공간	황수영	우리 傳統의 反芻:韓國의 石塔1 三國時代의 始源樣式
8	1967 7	공간	황수영	우리 傳統의 反芻:韓國의 石塔2 新羅의 典型樣式
9	1967 8	공간	황수영	우리 傳統의 反芻:韓國의 石塔3 新羅의 이형석탑
10	1967 9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1 서론
11	1967 10	공간	신영훈	古建築에서의 傳統繼承問題
12	1967 10	공간	김철순	무엇이韓國의인가
13	1967 10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2 配置
14	1967 11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3 平面(上)
15	1967 12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4 平面(下)
16	1968 1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5 基礎와基壇
17	1968 2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6 礎石
18	1968 3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7 기둥
19	1968 4	공간	金正基	우리 美의 再發見:기와
20	1968 4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8 공포(上)
21	1968 5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9 공포(下)
22	1968 6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10 架具(上)
23	1968 7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11 架具(下)
24	1968 8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12 屋蓋
25	1968 12	공간	김충현	우리 美의 再發見:韓國의 篆刻
26	1969 2	공간	맹인재	雙溪寺
27	1969 4	공간	임응식 맹인재	仙岩寺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28	1970 1	공간	편집팀	韓國住宅의 内部空間
29	1970 5	공간	박로수	우리 美의 再發見:吾園張承業의 藝術과 人間
30	1970 9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13 기와(上)
31	1970 10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14 기와(下)
32	1970 11	공간	김동현	민가의 양식과 구조
33	1970 12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15 전돌(벽돌)
34	1971 1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16 벽체와 床
35	1971 2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17 단청(上)
36	1971 3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18 단청(下)
37	1971 4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19 청장
38	1971 5	공간	곽쾌창	한국가구의 장식무늬
39	1971 6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20 창
40	1971 7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21 문
41	1971 8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22 난간
42	1971 9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23 누마루(上)
43	1971 10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24 누마루(中)
44	1971 11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25 누마루(下)
45	1972 2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26 집합
46	1972 3	공간	최순우 김수근	韓國의 草家(1)
47	1972 4	공간	최순우 김수근	韓國의 草家(2)
48	1972 4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27 솟음과 오금법1
49	1972 5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28 솟음과 오금법2
50	1972 5	공간	최순우 김수근	韓國의 草家(3)
51	1972 7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29 조원1
52	1972 8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30 조원2
53	1972 9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31 조원3
54	1972 10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32 조원4
55	1973 1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33 조원5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56	1973 2	공간	신영훈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34 한국건축의 특성
57	1974 3	공간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①
58	1974 4	공간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②
59	1974 6	공간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③
60	1974 8	공간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④
61	1974 10	공간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⑤
62	1974 12	공간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⑥
63	1975 3	공간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⑦
64	1975 4	공간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⑧(完)
65	1975 5	공간	주남철	건축에 있어서 전통성 계승과 표현방법론
66	1975 5	공간	김홍식	농촌건축에 있어서의 전통의 계승
67	1975 5	공간	김종성	미국의 관점에서 본 건축과 전통
68	1975 5	공간	김원용	전통문화의 형성과 보존
69	1975 5	공간	민현식	傳統再考:그것을自然으로서
70	1975 6	공간	현석공	古 建築家 趙勝元의 藝談
71	1975 10	공간	신영훈	韓國 옛 建築의 香氣①
72	1975 12	공간	신영훈	韓國 옛 建築의 香氣②
73	1976 2	공간	신영훈	韓國 옛 建築의 香氣③
74	1976 4	공간	신영훈	韓國 옛 建築의 香氣④
75	1976 5	공간	신영훈	韓國 옛 建築의 香氣⑤
76	1976 8	공간	신영훈	韓國 옛 建築의 香氣⑥
77	1976 9	공간	신영훈	韓國 옛 建築의 香氣⑦
78	1976 10	공간		空間對照:한국의자연과調和되는形態的要素
79	1976 10	공간	이귀열	書評:韓國의古建築 「秘苑」
80	1976 10	공간	신영훈	韓國 옛 建築의 香氣⑧
81	1977 1	공간	신영훈	韓國 옛 建築의 香氣⑨
82	1977 2	공간	신영훈	韓國 옛 建築의 香氣⑩
83	1977 4	공간	신영훈	韓國 옛 建築의 香氣⑪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84	1977 4	꾸밈	김영기	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1
85	1977 6	꾸밈	김영기	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2
86	1977 7	공간	신영훈	韓國 옛 建築의 香氣⑫
87	1978 5	공간	강신표 김환 소흥렬 이귀렬	더堂堂한韓國의公共建物を:共同討論.한국現代建築의民族文化論
88	1978 5	공간	김홍식	전통의 이해와 표현
89	1978 12	공간	민현식	傳統考:그것을自然으로서
90	1978 12	공간	우제상	傳統的意匠보다생활에따른空間形成
91	1978 12	공간	유재현	직접살면서느끼는傳統과現代
92	1979 7	공간	양호일	韓國의돌길-절길:龍珠寺·松廣寺·興國寺·仙岩寺
93	1979 8	공간	양호일	韓國의돌길-절길:孤雲寺·雙溪寺·海印寺·金山寺·傳燈寺
94	1979 8	공간	김수석	한국적鬼面문양의造形:그시대적변천에관한분석고찰
95	1981 2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1 충화 탑평리사지
96	1981 3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2 당근리사지
97	1981 4	공간	정병호	馬岾마을의部落祭:傳統의現場
98	1981 4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3 禪門九山の 하나, 忠南 保寧 聖住寺址
99	1981 5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4 가야산 가야사지
100	1981 6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5 高麗 初期의 國刹, 崇善寺址
101	1981 7	공간	이재준	韓國의廢寺6옛黃驪縣의大刹法泉寺址
102	1981 9	공간		1920年以後의古宮殿-仁政殿-郭·誠正閣·秘苑·明正殿
103	1981 11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1
104	1981 11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9 桃原里寺址
105	1981 12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2
106	1982 1	건축문화	박언곤	韓國古建築講座1
107	1982 1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3
108	1982 1	공간	이재준	韓國의廢寺10高麗의 國刹 天護山 開泰寺址
109	1982 2	건축문화	박언곤	韓國古建築講座2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110	1982	2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4
111	1982	2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11 淨土寺址
112	1982	2	공간	송민구 現代建築論考·最終回:傳統의 계승
113	1982	3	건축문화	박언곤 韓國古建築講座3
114	1982	3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5
115	1982	3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12 竹山 奉業寺址
116	1982	4	건축문화	박언곤 韓國古建築講座4
117	1982	4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6
118	1982	4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13 普願寺址
119	1982	5	건축문화	박언곤 韓國古建築講座5
120	1982	5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7
121	1982	5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14 文東里寺址
122	1982	6	건축문화	최창규 建築과民主化
123	1982	6	건축문화	김홍식 내가 본 韓國의 民家1
124	1982	6	건축문화	장기인 良洞마을民家들
125	1982	6	건축문화	안병의 어느 對話:建築의 새로운 傳統
126	1982	6	건축문화	이명기 李朝上流住宅小考1
127	1982	6	건축문화	박충신 잃어버린 遺構:번남댁
128	1982	6	건축문화	장기인 河回마을民家들
129	1982	6	건축문화	박언곤 韓國古建築講座6
130	1982	6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8
131	1982	6	공간	김홍식 韓國建築史研究의 反省
132	1982	6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15 옛 陰城縣의 巨刹 中洞里寺址
133	1982	7	건축문화	편집부 鳳凰閣
134	1982	7	건축문화	편집부 서기수씨덕
135	1982	7	건축문화	편집부 손병희선생생가
136	1982	7	건축문화	이명기 李朝上流住宅小考2
137	1982	7	건축문화	박언곤 韓國古建築講座7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138	1982 7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9
139	1982 7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16 新羅의 地方伽藍 深妙寺址
140	1982 8	건축문화	김홍식	내가 본 韓國의 民家2
141	1982 8	건축문화	이명기	李朝上流住宅小考3
142	1982 8	건축문화	박언곤	韓國古建築講座8
143	1982 8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10
144	1982 8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17 法水寺址
145	1982 9	건축문화	박언곤	韓國古建築講座9
146	1982 9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11
147	1982 9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18 문경 내화리사지
148	1982 10	건축문화	김홍식	내가 본 韓國의 民家3
149	1982 10	건축문화	박언곤	韓國古建築講座10 [最終回]
150	1982 10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12
151	1982 10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19 중원경 김생사지
152	1982 11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13
153	1982 11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20 서원경 전목우사지
154	1982 12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14
155	1982 12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21 덕천사지
156	1983 1	건축문화		한국 온돌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157	1983 1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15
158	1983 2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16
159	1983 2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22 新羅 吉同郡 傳品官寺址
160	1983 3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17
161	1983 3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23 統一新羅 盛代 쌍塔伽藍 傳長淵寺址
162	1983 4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18
163	1983 4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24 百濟의 山地가람 新耕里寺址
164	1983 5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19
165	1983 5	공간	이재준	韓國의 廢寺25 新羅 法光寺址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166	1983	6	건축문화	김정기 우리의 전통건축
167	1983	6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20
168	1983	6	꾸밈	글자:한글글자표현의용어연구
169	1983	7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21
170	1983	8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22
171	1983	8	꾸밈	국립경기장 단지계획 현상공모
172	1983	8	꾸밈	대한건축사협회 신축회관 현상설계
173	1983	8	꾸밈	독립기념관 및 독립공원 현상설계
174	1983	8	꾸밈	서울 목동·신정동 신시가지개발 기본설계 현상공모
175	1983	8	꾸밈	아시아선수촌 및 공원 기본계획 국제현상공모
176	1983	8	꾸밈	최창규 오늘 우리들에게 현상설계란
177	1983	8	꾸밈	을지로2가구역 재개발사업 건축계획
178	1983	8	꾸밈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179	1983	8	꾸밈	한국건축설계경기운용위원회 규정 및 내규
180	1983	9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23
181	1983	10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24
182	1983	10	공간	장경호 新羅「東宮」의 推定復元案
183	1983	10	꾸밈	건축과모형:모형으로재현한신라동궁
184	1983	10	꾸밈	김홍식 한국의 민가1
185	1983	11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25
186	1983	11	공간	김광현 住宅演慶堂의形態分析
187	1983	12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26
188	1983	12	꾸밈	이왕기 한국의 건축연장1
189	1983	12	꾸밈	김홍식 한국의 민가2
190	1984	1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27
191	1984	2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28
192	1984	2	공간	윤승중 근대건축과 한국의 현대건축
193	1984	2	공간	近代建築史 年譜(1851-1980)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194	1984	2	공간	안영배	여유와 멋이 깃들어진 건축
195	1984	2	꾸밈	타임	고전적 가치, 새로운 형태
196	1984	2	꾸밈	김홍식	한국의 민가3
197	1984	2	꾸밈	이왕기	한국의 건축연장2
198	1984	3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29
199	1984	4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30
200	1984	4	공간	김봉렬	韓國傳統建築의 體驗1 전라남도
201	1984	4	꾸밈		타운스케이프:사라지는건축물을찾아서
202	1984	4	꾸밈	이왕기	한국의 건축연장3
203	1984	4	꾸밈	김홍식	한국의 민가4
204	1984	5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31
205	1984	5	공간	김봉렬	韓國傳統建築의 體驗2 서울지역
206	1984	6	건축문화	김정기	우리의 전통건축
207	1984	6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32
208	1984	6	공간	방근택	體驗으로본韓國現代美術史①
209	1984	6	공간	김봉렬	韓國傳統建築의 體驗3 경기도
210	1984	6	꾸밈	이왕기	한국의 건축연장4
211	1984	7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33
212	1984	8	건축문화	김정기	韓民族의 住居34
213	1984	8	공간	김봉렬	韓國傳統建設의 體驗4 경상북도
214	1984	8	꾸밈		타운스케이프:도심속의전통가옥
215	1984	8	꾸밈	이왕기	한국의 건축연장5
216	1984	8	꾸밈	김홍식	한국의 민가5
217	1984	9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1
218	1984	9	공간	김봉렬	韓國 傳統建築의 體驗5 경남, 충북, 제주지역
219	1984	9	공간	안재락	韓國近代建築의保存에대하여
220	1984	10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2
221	1984	10	공간	김봉렬	韓國傳統建築의 體驗6 전북, 강원지역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222	1984 10	꾸밈	이왕기	한국의 건축연장6
223	1984 10	꾸밈	김홍식	한국의 민가6
224	1984 11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3
225	1984 11	공간	안영배 김광현	공간연결수법
226	1984 11	공간	박언곤	공간의 경계선과 개구부
227	1984 11	공간	김홍식	마을 공간구성의 율동
228	1984 11	공간	임충신	마을의 영역
229	1984 11	공간	임승빈	정원구성
230	1984 11	공간	김광언	주거생활과 민속
231	1984 11	공간	김일진	평면구성
232	1984 11	공간	최창조	풍수와 좌향
233	1984 11	공간		韓國傳統住宅의 構成方法
234	1984 12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4
235	1984 12	공간		草地에 깔린 너와古家
236	1984 12	공간	이왕기	한국전통건축의 샤머니즘적 象徵性
237	1984 12	꾸밈	장석하	상류주택의 부제비례와 공간
238	1984 12	꾸밈	정무웅	시각:건축작품과 전통성
239	1984 12	꾸밈	성인수	입체오행론과 모듈개념
240	1984 12	꾸밈	김동욱	한국건축의 설계방법과 모듈
241	1984 12	꾸밈	김홍식	한국의 민가7
242	1985 1	건축문화		낙선재
243	1985 1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5
244	1985 1	공간	김광현	창경궁의 형태분석
245	1985 1	공간	김봉렬	韓國傳統建築의體驗7
246	1985 2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6
247	1985 2	꾸밈	홍익대 건축사 연구실	생활 속의 전통과 주거
248	1985 3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7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249	1985 4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8
250	1985 4	꾸밈	이왕기	대전의 고건축
251	1985 4	꾸밈	김정동	대전의 근대건축
252	1985 4	꾸밈	김지민	향교건축 연구1
253	1985 5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9
254	1985 6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10
255	1985 6	꾸밈	김진현	퍼니처:의자디자인50년
256	1985 6	꾸밈	김지민	향교건축 연구2
257	1985 7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11
258	1985 8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12
259	1985 9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13
260	1985 10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14
261	1985 10	꾸밈	김정태	메스와 디테일:창 디자인
262	1985 10	꾸밈	김중엽	올림픽 기념 상징조형물
263	1985 10	꾸밈	김지민	향교건축연구3
264	1985 11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15
265	1985 12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16
266	1985 12	공간	김동욱	古建築의 復元과 文化財의 認識
267	1986 1	건축문화	이응묵	牙山郡 外岩里마을 調査
268	1986 1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17
269	1986 2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18
270	1986 3	건축문화	장순용	慶州斷想
271	1986 3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19
272	1986 3	건축문화	장경호	皇龍寺址의 유적과 그 보존 활용
273	1986 4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20
274	1986 4	꾸밈	김지민	향교건축의 연구4
275	1986 4	꾸밈	조성기	흙으로 빛은 살림집
276	1986 4	꾸밈	이시웅	흙집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277	1986	5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21
278	1986	5	건축문화	서정남 한국고건축:銀海寺 百興庵
279	1986	6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22
280	1986	7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23
281	1986	8	공간	최영기 安東知禮마을 水沒地域 復元計劃
282	1986	8	공간	조계순 전통주거 이미지의 구현
283	1986	8	꾸밈	김지민 향교건축의 연구5
284	1986	9	건축문화	장순용 창경궁
285	1986	9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25
286	1986	9	건축문화	문영빈 한국고건축:禪雲寺
287	1986	9	공간	오기수 金壽根語法의 發芽와 韓國建築
288	1986	9	공간	김의원 韓國傳統都市構成의 原理
289	1986	10	건축문화	박재환 전통건축에 대한 인식
290	1986	10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26
291	1986	10	꾸밈	김성우 동양건축에서의 건축
292	1986	10	꾸밈	한재수 오늘 우리건축을 생각하며
293	1986	10	꾸밈	김종현 전통성표현에 관한 해석-지붕
294	1986	10	꾸밈	김란기 조선조 상류주택의 주거공간 의미 분석 고찰1
295	1986	10	꾸밈	타운스케이프:지워져가는 근대-안국동에서 화신까지
296	1986	10	꾸밈	이정근 한국 건축교육에 있어서 학문성과 전문성
297	1986	11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27
298	1986	11	건축문화	김일진 한국고건축:日休堂
299	1986	12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28
300	1986	12	건축문화	김일진 한국고건축:경주맛배집
301	1986	12	꾸밈	김란기 조선조 상류주택의 주거공간 의미 분석 고찰2
302	1987	1	건축과환경	정양순 누정건축에 있어서의 마루
303	1987	1	건축과환경	김홍수 대청과 거실-현대화의 측면
304	1987	1	건축과환경	김란기 마루의 공간적 의미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305	1987	1 건축과환경	이호열	마루의 구조와 유형
306	1987	1 건축과환경	김봉렬	마루의 구조와 의미
307	1987	1 건축과환경	차명렬	상류주택 누마루의 권위성과 상징성
308	1987	1 건축과환경	류춘수	어제의 마루와 오늘의 예
309	1987	1 건축과환경	장경호	우리나라 마루의 발전과 그 특성
310	1987	1 건축과환경	이왕기	의례건축으로서의 마루공간의 상징성
311	1987	1 건축과환경	천의영	전통주택에서 대청마루의 역할
312	1987	1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29
313	1987	2 건축문화	이상해	건축사에 보이는 풍수적 내용들
314	1987	2 건축문화	현두용	건축적인 측면에서 풍수의 이해
315	1987	2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30
316	1987	2 건축문화	지창룡	한국의 지세와 연혁 및 주택의 길흉
317	1987	3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31
318	1987	4 건축과환경	김봉렬	조선후기 상류주택 실측조사 연구1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319	1987	4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32
320	1987	4 꾸밈	박순관	김중업과 김수근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능주의 개념의 건축적 표현
321	1987	4 꾸밈	박소현	미술관건축의 현대적 특성과 과천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소감
322	1987	4 꾸밈	이공희	오늘, 한국건축가의 항성문제
323	1987	4 꾸밈	박대준	한국 건축문화에 있어서 전쟁의 역할
324	1987	4 꾸밈	송인호	한국현대건축형태에 있어서의 전통성의 표현
325	1987	4 꾸밈	라인매스	한국적인 것을 위하여-라인매스 제3회건축전
326	1987	5 건축과환경	김란기	고창의 발전과 인촌생가
327	1987	5 건축과환경	김봉렬	살아나야할 과거 -선운사와 내소사
328	1987	5 건축과환경	김봉렬	조선후기 상류주택 실측조사 연구2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329	1987	5 건축과환경	박길룡	합목적성으로서의 건축-고창 읍성
330	1987	5 건축문화	장순용	고건축:禮安郷校
331	1987	5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33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332	1987 5	공간	황기원	朝鮮時代都邑의公共空間
333	1987 6	건축과환경	김봉렬	조선후기 상류주택 실측조사연구3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334	1987 6	건축문화		樂安邑城민속마을
335	1987 6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34
336	1987 6	공간	한재수	건축의 한국적 원형과 본질을 생각하기 위한 몇 가지 관점에 대한 소고
337	1987 6	공간	김성우	동양건축에서의 집과 사람:하나의 동양적 관점으로서의 한국성
338	1987 6	공간	이승우	韓國의 現代建築家論7
339	1987 6	꾸밈	박명덕	조선후기 북학파들의 중국기행문에 나타난 실용건축관
340	1987 6	꾸밈	한재수	한국건축사학의 인식과 변천과정에 대한 소고
341	1987 6	꾸밈		한국건축성의 흔적:근원과 변이
342	1987 6	꾸밈	조영무	한국 고전건축의 풍토성과 원형구명대상
343	1987 6	꾸밈	부정정현	한국의 주택양식과 그 공간구성
344	1987 6	꾸밈	권태문	현대건축과 한국건축성
345	1987 7	건축과환경	이상현	1920년대 한국건축과 오늘날 한국 현대건축의 상황
346	1987 7	건축과환경		문화재지정 전통건조물 10선
347	1987 7	건축과환경	문영빈	전통건조물의 지정과 보존
348	1987 7	건축문화	한도룡	독립기념관 상징조형물
349	1987 7	건축문화	이범재	독립기념관 준공에 즈음한 몇가지 생각
350	1987 7	건축문화	최기원	독립기념관 추모의 자리
351	1987 7	건축문화	김기웅	독립기념관:본관, 전시관 외 다수
352	1987 7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35
353	1987 8	건축과환경	유승용	관동지방의 전통민가에 관한 연구
354	1987 8	건축과환경	김일진	남부지방의 전통민가
355	1987 8	건축과환경	조용훈	민가연구의 현대적 계승을 위하여
356	1987 8	건축과환경	강영환	민가의 개념
357	1987 8	건축과환경	이광규	인류학적 민가론
358	1987 8	건축과환경	김광언	전남남, 서해도서지방 민가의 형태적, 공간적 특성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359	1987	8	건축과환경	장보웅	지리학적 민가론
360	1987	8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36
361	1987	8	건축문화	손정호	한국고건축:화엄사
362	1987	8	공간	원정주	韓國의 近代建築家論8
363	1987	8	꾸밈	김병윤	근대건축의 새로운 인식을 위해
364	1987	8	꾸밈	곽중단	대만 근대건축사
365	1987	8	꾸밈	니시자와	일본의 근대건축사 연구의 발전과정
366	1987	8	꾸밈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극복과 수용문제
367	1987	9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37
368	1987	9	건축문화	장순용	한국고건축:여수진남관
369	1987	9	공간	오상수	古建築:南漢山城의 現況과 歷史的 背景
370	1987	10	건축과환경	강행생	제주도의 민가
371	1987	10	건축과환경	김정기	주택사적 민가론
372	1987	10	건축과환경	박태근	진보적 관점에서 본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성 전개
373	1987	10	건축과환경	김경수	한국현대건축언어의 확립을 위하여
374	1987	10	건축과환경	김기석	현대주거계획에 있어서의 민가의 의미
375	1987	10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38
376	1987	11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39
377	1987	11	건축문화	장순용	한국고건축:壽陀寺
378	1987	12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40
379	1987	12	공간	이규목	韓國建築의 韓國性에 대한 하나의 假定
380	1987	12	꾸밈	김병윤	2000년대를 향한 건축조류의 개관
381	1987	12	꾸밈	김순일	근대건축을 찾아서
382	1987	12	꾸밈	김란기	전통건축:진도의역사와건축유산
383	1987	12	꾸밈	조영무	한국건축의 원류 규명을 위한 서설
384	1988	1	건축문화	이왕기 박명덕 김란기	안동지방 반가실축조사1 川前洞과 陶山마을을 중심으로
385	1988	1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41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386	1988	1	건축문화	장순용 한국고건축:승주仙儼寺
387	1988	2	건축문화	이왕기 박명덕 김란기 안동지방 반가실측조사2 천전동과 도산마을을 중심으로
388	1988	2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42
389	1988	3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43
390	1988	4	건축문화	강봉진 古宮의 門:홍화문과 대한문
391	1988	4	건축문화	이왕기 박명덕 김란기 안동지방 반가 실측조사3 천전동과 도산마을을 중심으로
392	1988	4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44
393	1988	4	꾸밈	세미나:한국현대건축에서의 전통성 표현의 문제
394	1988	4	꾸밈	작품:예술의 전당
395	1988	4	꾸밈	조영무 한국상고도시건축역사초본1 환국시대
396	1988	5	건축과환경	강혁 역사 속의 건축이론
397	1988	5	건축과환경	김석철 예술의 전당
398	1988	5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45
399	1988	6	건축과환경	류춘수 전통의 수용이란 무엇인가
400	1988	6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46
401	1988	6	꾸밈	조영무 한국상고도시건축역사초본2 배달국시대1
402	1988	7	건축과환경	정무용 건축문화와전통성
403	1988	7	건축과환경	이상해 전통과 건축문화:그와 상관되는 보편적인 문제점들
404	1988	7	건축과환경	임창배 전통논의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하여
405	1988	7	건축과환경	김기웅 퇴색된 주장으로부터의 탈피
406	1988	7	건축과환경	안영배 한국전통건축의 공간특성과 구성수법
407	1988	7	건축과환경	김광현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적 표현과 그 파생개념비판
408	1988	7	건축과환경	정진수 현대건축과 전통
409	1988	7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47
410	1988	7	공간	김병중 韓國性的의 概念과 方法論
411	1988	8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48
412	1988	8	꾸밈	조영무 한국상고도시건축역사초본3 배달국시대2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413	1988	9 건축과환경	정기철	모더니즘으로서의 근대건축의 의미와 그 한계
414	1988	9 건축과환경	한재수	한국근대건축을 위한 몇가지 과제의 검토
415	1988	9 건축과환경	김란기	한국근대건축의 발아와 사회경제적 역사인식
416	1988	9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49
417	1988	9 공간	정무웅	建築文化와傳統性
418	1988	9 공간	김성우	땅과 氣
419	1988	9 공간	이상해	韓國傳統文化에서의 풍수적 환경인식
420	1988	10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50
421	1988	10 공간	이규목	都市環境에서의 傳統과 現實:6個의 二重星
422	1988	10 공간	정충식	韓國傳統造景文化의 특징과 변천 및 계승
423	1988	10 꾸밈	조영무	한국상고도시건축역사초본4 단군조선시대1
424	1988	10 꾸밈	김인철	전통의 여과-건축·공간·전통·조형론
425	1988	11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51
426	1988	12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52
427	1988	12 꾸밈	이구열	서평:조선조시대 주택의 장식적 의장
428	1988	12 꾸밈	조영무	한국상고도시건축역사초본5 단군조선시대2
429	1989	1 건축과환경	이필훈	시대정신의 표현
430	1989	1 건축과환경	박순관	역사적 실마리와 그 재현문제
431	1989	1 건축과환경	김기웅	윤봉길의사 기념관
432	1989	1 건축과환경		좌담:80년대 한국건축과 90년대의 과제
433	1989	1 건축과환경	이용재	한국건축의 아이러니
434	1989	1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53
435	1989	2 건축과환경	김동욱	고려시대 건축에 대한 비교 시각
436	1989	2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54
437	1989	2 꾸밈	조영무	조선상고도시건축역사초본6 단군조선시대3
438	1989	3 건축과환경	김봉렬	시대구분론을 통해 본 조선후기 건축사관의 문제
439	1989	3 건축과환경	이강근	조선초기의 건축
440	1989	3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55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441	1989	4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56
442	1989	4	꾸밈	세미나:‘전통문화지대보전’에 관한 학술토론회
443	1989	5	건축과환경	풍토성의직설적현시
444	1989	5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57
445	1989	6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58
446	1989	6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1
447	1989	6	꾸밈	김병윤 건축의 세계성-갤러리 마의 한국전 소고
448	1989	6	꾸밈	심포지엄-동아시아의 건축적 전망
449	1989	6	꾸밈	이대준 일본측 참여건축가들과의 대담
450	1989	7	건축문화	김정기 韓國建築史概說59
451	1989	7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2
452	1989	8	건축과환경	김기환 근대에서의 탈피와 전통논의의 발화
453	1989	8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3
454	1989	8	꾸밈	윤인석 개방시대에 생각해보는 우리의 가까운 과거
455	1989	8	꾸밈	후지모리 테루노부 동아시아 근대건축사연구의 동향과 과제
456	1989	9	건축과환경	김수근 부여박물관
457	1989	9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4
458	1989	10	건축과환경	임창복 비평:건축가의 이상과 전통구현
459	1989	11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5
460	1989	12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6
461	1989	12	꾸밈	이일훈 80년대 우리를 떠난 건축가들
462	1989	12	꾸밈	김홍기 80년대 한국 건축문화의 단층
463	1989	12	꾸밈	임창복 80년대 한국현대건축의 동향
464	1989	12	꾸밈	류춘수 서울올림픽과 한국건축의 국제화를 위하여
465	1989	12	꾸밈	장기철 현단계 건축운동의 반성과 그 전망
466	1989		건축과환경	이영범 민족정신의 건축적 구현-건축가 박동진의 사상과 작품
467	1990	1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7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468	1990	2	건축과환경	최관영 건축에 있어서 전통성과 한국적 표현에 관한 소고
469	1990	2	건축문화	원정수 전통건축언어
470	1990	2	건축문화	김인철 전통의 감상
471	1990	2	건축문화	강철구 전통의 새로운 추구
472	1990	2	건축문화	안영배 한국 전통주택의 이미지
473	1990	3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8
474	1990	4	건축과환경	이희택 국립공주박물관
475	1990	4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9
476	1990	4	꾸밈	김성기 관광요소적 측면에서의 민속마을
477	1990	4	꾸밈	윤홍로 문화재로서의 민속마을 보존
478	1990	4	꾸밈	김왕직 민속마을의보존현황연구① 승주낙안읍성
479	1990	4	꾸밈	장순용 민속마을의보존현황연구② 안동하회마을
480	1990	4	꾸밈	김영돈 민속마을의보존현황연구③ 제주성읍마을
481	1990	4	꾸밈	이정근 민속마을의보존현황연구④ 월성양동마을
482	1990	4	꾸밈	이응묵 민속마을의보존현황연구⑤ 송악외암마을
483	1990	4	꾸밈	유승용 민속마을의보존현황연구⑥ 고성왕곡마을
484	1990	4	꾸밈	이왕기 전통 마을의 현재적 의미
485	1990	4	꾸밈	김봉렬 전통마을의 가치와 보존방향
486	1990	4	꾸밈	이동식 현지인의 입장에서 본 민속마을
487	1990	5	건축과환경	한국 고건축 특별강좌
488	1990	5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10
489	1990	5	공간	임정의 韓國의 空間1 연경당
490	1990	6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11
491	1990	6	공간	임정의 韓國의 空間2 임청각
492	1990	6	꾸밈	장순용 시각:서울의옛궁궐을생각하며
493	1990	6	꾸밈	이즈마다 히데오 아시아의 근대(식민지)건축2
494	1990	7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12
495	1990	7	공간	임정의 韓國의 空間3 선교장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496	1990 8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13
497	1990 8	공간	임정의	韓國의 空間4 부석사
498	1990 9	건축과환경	조건영	건축계의 민주화는 윤리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499	1990 9	건축과환경	전영일	건축의 민주화와 건축유관 단체
500	1990 9	건축과환경	정기철	건축의 위기와 매개된 변혁
501	1990 9	건축과환경	함인선	누구를 위한 건축계의 민주화인가
502	1990 9	건축과환경	김지민	대정각사 금강보좌탑
503	1990 9	건축과환경	신기철	해체와 재구성-도시건축운동을 향한 전략
504	1990 9	건축과환경	최창규	현대건축과 민주화와의 관계
505	1990 9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14
506	1990 9	공간	임정의	韓國의 空間5 무첨당
507	1990 10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15
508	1990 10	공간	임정의	韓國의 空間6 종묘
509	1990 11	건축과환경	이왕기	대동의 고건축:운강석굴, 선화사, 상·하화엄사, 불국사, 석가탑
510	1990 11	건축과환경	이호열	이화원, 대동관음당, 섬서성박물관
511	1990 11	건축과환경	이배화	전통은 고귀한 것, 보편성과는 차원이 달라
512	1990 11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16
513	1990 11	공간	임정의	韓國의 空間7 관가정
514	1990 12	건축과환경	김란기	조선봉기 봉건 해체기의 건축 생산제도 고찰
515	1990 12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17
516	1990 12	공간	임정의	韓國의 空間8 고산 윤선도 고택
517	1991 1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18
518	1991 1	공간	임정의	韓國의 空間9 草澗亭
519	1991 2	건축과환경	김병윤	내일의 한국건축가 10인
520	1991 2	건축과환경	김문덕	세대교체기의 80년대 건축가와 작품
521	1991 2	건축과환경	이상해	시대상황과 한국건축의 위상
522	1991 2	건축과환경	송인호	유형과 도시건축
523	1991 2	건축과환경	박길룡	전환의 세대와 그들의 역할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524	1991	2 건축과환경	김경수	한국 현대 건축가 5인
525	1991	3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19
526	1991	4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20
527	1991	5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21
528	1991	6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22
529	1991	7 건축문화	김인철	가회11
530	1991	7 건축문화	동정근	가회동 11번지 6계획안
531	1991	7 건축문화	이종상	가회동 11번지 은행나무골
532	1991	7 건축문화	강병기	가회동 11번지 주거계획의 의의
533	1991	7 건축문화	조성룡	가회동 11번지 주거계획
534	1991	7 건축문화	임창복	가회동 주거계획안에 대한 소고: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목표인가?
535	1991	7 건축문화	이광일	가회동: 도시계획의 새 지평?
536	1991	7 건축문화	승효상	가회동의 6개 공간
537	1991	7 건축문화	백문기	골목길
538	1991	7 건축문화	우경국	기억의 축제로서의 길과 마당
539	1991	7 건축문화	장세양	길, 마당... 그리고 마을
540	1991	7 건축문화	송인호	도시건축으로서의 가회동 11번지 계획안
541	1991	7 건축문화	양윤재	도시주거환경의 측면에서 보는 가회동 11번지 주거계획
542	1991	7 건축문화	김광현	우리는 왜 가회동 11번지 주거계획을 제안하였는가?
543	1991	7 건축문화	유재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회동 11번지 개발계획의 경제적 측면
544	1991	7 건축문화	이회봉	주민자치 운동에 의한 건축
545	1991	7 건축문화	권영덕	한옥보존지구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가능성
546	1991	7 공간	우경국	가회마을에서의 건축적 딜레마
547	1991	7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23
548	1991	8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24
549	1991	9 건축과환경	김홍식	민족건축과 젊은 건축가의 과제
550	1991	9 건축과환경	최명철	법제도 개선현황과 2000년대 건축정책
551	1991	9 건축과환경	성인수	우리시대의 작품을 바라보며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552	1991	9	건축과환경	한국 건축역사학을 위한 광장-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 좌담
553	1991	9	건축과환경	김란기 한국건축사학회 창립에 바란다-현단계 한국건축사학의 과제
554	1991	9	건축과환경	김기환 한국현대건축의 대안-지역주의 건축
555	1991	9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25
556	1991	10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26
557	1991	11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27
558	1991	12	공간	신영훈 韓國建築史28
559	1992	1	건축문화	승효상 1991년 한국의 건축, 건축가 그리고 나
560	1992	1	건축문화	방철린 80년대의 한국현대건축
561	1992	1	건축문화	백문기 건축에 대한 대중문화:인식의 가치변화
562	1992	1	건축문화	임창복 한국포스트모더니즘의 반성과 과제
563	1992	6	건축과환경	강병기 시간환경으로서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564	1992	6	건축과환경	양윤식 안동의 건축역사
565	1992	6	건축과환경	박명덕 안동지방 내앞마을 의성김씨들의 입지에서 나타나는 조영사상
566	1992	6	건축과환경	장경호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전이념과 방법
567	1992	6	건축과환경	이상해 역사적 문화환경의 생태학
568	1992	6	건축과환경	김동욱 한·일 목조건축의 비교론
569	1992	6	건축과환경	김정기 한국의 목조건축
570	1992	6	건축과환경	김동현 한국의 목조건축-고려말 조선초의 건축을 중심으로
571	1992	7	건축과환경	이희봉 한국건축역사연구의 비판과 방향모색
572	1992	7	건축문화	이정근 경희국의 생과 사
573	1992	7	공간	정양모 경복궁과 서울의 축
574	1992	8	건축문화	박명덕 서울定都 600년:위례에서 경성까지
575	1992	12	이상건축	신용재 개항기 서양인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인의 주의식
576	1992	12	이상건축	조성기 한국의 주거문화와 주의식
577	1993	1	건축과환경	김인철 4.3그룹의 시말
578	1993	1	건축과환경	김병윤 건축전 탐구
579	1993	1	건축과환경	우경국 관계항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580	1993	1 건축과환경	곽재환	귀·탈
581	1993	1 건축과환경	조성룡	도시의 풍경
582	1993	1 건축과환경	방철린	동자이의
583	1993	1 건축과환경	이종상	백문의 건축을 찾아서
584	1993	1 건축과환경	민현식	비움
585	1993	1 건축과환경	승효상	빈자의 미학
586	1993	1 건축과환경	동정근	상징체계를 찾아서
587	1993	1 건축과환경	이일훈	성·속·도
588	1993	1 건축과환경	백문기	신의 감성
589	1993	1 건축과환경	이성관	지상 43m의 가상
590	1993	1 건축과환경	성인수	참관기: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591	1993	1 건축과환경	김인철	초공간의 의미
592	1993	1 건축과환경	도각	파통의 각
593	1993	1 이상건축	김봉렬	부산 경남의 전통건축을 위하여
594	1993	1 이상건축	김화봉	창녕의 전통건축
595	1993	2 건축과환경	김경수	건축가 김석철 서론
596	1993	2 건축과환경	김석철	건축의 두 기둥
597	1993	3 이상건축	김화봉	밀양의 전통건축
598	1993	5 건축과환경	한재수	고전건축의 이해-한옥편
599	1993	5 건축과환경	장순용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600	1993	5 건축과환경	이상해	해인사
601	1993	5 이상건축	이천효	전통의 문화적 의미
602	1993	6 건축과환경	이상해	건축계의 타산지석
603	1993	6 건축과환경	유걸 박순관	대담:변화하는 건축의 논리-오늘을 깨닫는 작업
604	1993	6 건축과환경	유걸	삼청동 생활 소고
605	1993	6 건축과환경	김기웅	자유형태의 탐색
606	1993	6 건축과환경	김경수	한국현대건축사의 한 새벽
607	1993	7 건축과환경	길성호	따짐:설계경기를 통해 형성된 관청사 건물의 의의 전형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608	1993	7 건축과환경	정기용	맺음:사회와 건축
609	1993	7 건축과환경	김영섭	바람:건축문화와 설계경기
610	1993	7 건축과환경	김수근	서울 시청사 계획안
611	1993	7 건축과환경	이정덕	서울시청 신축계획
612	1993	7 건축과환경	김진균	서울시청사 현상설계에 대하여
613	1993	7 건축과환경	김우성	성공적 현상설계
614	1993	7 건축과환경	김원	전통문화동네 조성계획
615	1993	7 건축과환경	김창수	정도 600년, 서울의 새집들이
616	1993	7 건축과환경	정한수	찾음:시청사 건축의 개념
617	1993	7 건축과환경	최동규	훌륭한 시청건물을 갖기위한 나의 제안
618	1993	7 공간	문범	인사동, 둔주곡풍으로
619	1993	8 공간	송인호	도시형 한옥의 ㄷ자형 평면과 마당
620	1993	8 공간	신흥경	주거 공간과 가구-그 시대적 역할
621	1993	8 공간	전진삼	학동 수졸당을 통해서 본 뿌리 깊은 건축의 메시지
622	1993	11 건축과환경	한재수	고전건축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623	1993	11 건축과환경	신바나 윤	문화재의 보존과 보존의 법칙
624	1993	11 건축과환경	최문규	미국 박물관에 관하여
625	1993	11 건축과환경	강내희	박물관- 그 역사 및 실천의 의미
626	1993	11 건축과환경	김용승	유럽박물관의 건축적 발달과 개념의 변화
627	1993	11 건축과환경	김승희	현대사회와 박물관의 역할
628	1993	12 건축과환경	김봉렬	한국성을 다시 생각한다
629	1993	12 건축문화	이광노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에 관하여
630	1993	12 건축문화	임영숙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지조건
631	1993	12 건축문화	이각범	도시 내의 박물관
632	1993	12 건축문화	신기철	새 국립박물관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633	1993	12 공간	손영식	전통의 옛다리
634	1994	1 이상건축	성인수	전통과 현재:건축에 있어서 한국성 탐구
635	1994	2 이상건축	안창모	유엔묘지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636	1994	3	건축문화	최윤경 건축역사, 이론, 비평
637	1994	3	건축문화	이호정 근대이후의 건축과 이데올로기
638	1994	3	건축문화	전봉희 이론과 실천을 위한 한국건축역사
639	1994	3	건축문화	정인하 제1기계시대와 제2기계시대의 건축미학:기술의 변증법
640	1994	3	건축문화	임석재 현대건축과 역사의 해석
641	1994	4	이상건축	정연근 목구조의 교훈
642	1994	4	이상건축	김란기 새로운 목조건축의 세계:서
643	1994	4	이상건축	김홍식 전통 목조건축의 현대적 계승과 현대 목조건축의 재창조
644	1994	4	이상건축	강혁 한국 현대건축에서 목조건축의 가능성
645	1994	5	건축과환경	정기용 개방화시대의 한국건축
646	1994	5	건축과환경	이상해 죄담:다시보는 고전
647	1994	5	건축과환경	이상해 한국건축의 길, 고전을 찾아 나서자
648	1994	6	건축과환경	이왕기 고고한 선비의 기품이 배어있는 동춘당
649	1994	6	건축과환경	박언곤 자연과 하나되는 선경의 건축, 부용정
650	1994	6	건축과환경	이정근 전통의 굴레로부터 창조적 파괴
651	1994	6	건축과환경	유길 토속건축으로서의 한국건축
652	1994	7	건축과환경	김경수 고전의 의미
653	1994	7	건축과환경	김봉렬 고전읽기 I - 다양성, 집합성, 회통성
654	1994	7	건축과환경	이상해 고전읽기 II - 한국건축 고:한국건축의 고전읽기와 연관하여
655	1994	7	건축과환경	이성관 전쟁기념관
656	1994	7	이상건축	이강근 경주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성화
657	1994	7	이상건축	김봉렬 경주건축탐방
658	1994	7	이상건축	홍광표 경주의 경관적 정체성 제고를 위한 역사경관 보존의 기본방향
659	1994	7	이상건축	이상해 역사도시 경주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현재적 과제
660	1994	7	이상건축	김경대 역사도시, 관광도시로서의 경주도시개발전략
661	1994	7	이상건축	한삼건 조선시대 이후 경주의 도시공간변화
662	1994	8	건축과환경	김봉렬 공간의 집합:병산서원
663	1994	8	건축과환경	황의수 배움공간의 격식, 옥산서원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664	1994	8	건축과환경	김선범	역사 속의 도시성:그 의미와 보전
665	1994	8	건축과환경	김성우	한양과 서울, 도시의 역사성과 근대성
666	1994	8	이상건축	곽동석	경주박물관의 현황과 미래 박물관의 위상
667	1994	8	이상건축	김경대	경주박물관의 현황과 미래 박물관의 위상
668	1994	8	이상건축	허만형	역사도시의 보존과 개발
669	1994	9	건축과환경	이강근	가장 한국적인 궁,창덕궁
670	1994	9	건축과환경	김관석	비평:새로운 세대의 개별적 건축과 이론
671	1994	9	건축과환경	김봉렬	비평:새로운 세대의 개별적 건축과 이론
672	1994	9	건축과환경	김종규	비평:새로운 세대의 개별적 건축과 이론
673	1994	9	건축과환경	김준성	비평:새로운 세대의 개별적 건축과 이론
674	1994	9	건축과환경	김홍일	비평:새로운 세대의 개별적 건축과 이론
675	1994	9	건축과환경	김홍수	비평:새로운 세대의 개별적 건축과 이론
676	1994	9	건축과환경	이종호	비평:새로운 세대의 개별적 건축과 이론
677	1994	9	건축과환경	조병호	비평:새로운 세대의 개별적 건축과 이론
678	1994	9	건축과환경	최옥	비평:새로운 세대의 개별적 건축과 이론
679	1994	9	건축과환경	박순관	비평:한국건축의 세대성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재고
680	1994	9	건축과환경	김동욱	수원성-18세기의 신건축
681	1994	9	건축과환경	박언곤	신선의 풍류를 담은경회루
682	1994	10	건축과환경	황호균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야외 예배 공간, 운주사 천불천탑
683	1994	11	건축문화	박민철	한국건축탐구1 한국건축의 꽃 단청
684	1994	12	건축과환경	우경국	몽학재
685	1994	12	건축과환경	우경국	무설당
686	1994	12	건축과환경	이상해	산을 풀이해 낸 종교건축물, 해인사
687	1994	12	건축과환경	이선희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
688	1995	1	건축과환경	김태수	건축가의 생각
689	1995	1	건축과환경	황두진	김태수와 한국적 전통
690	1995	1	건축과환경	김태수 이강현	대담:합리적 상자에서 역사적 은유로
691	1995	1	건축과환경	김석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692	1995	1 건축과환경	토마스 피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사이:김태수 파트너즈의 건축
693	1995	1 건축문화	박민철	한국건축탐구2 도심속의 종묘제당 실측
694	1995	2 건축과환경	천득염	선암사의 공간전개
695	1995	2 건축과환경	양윤식	화엄사 역사읽기
696	1995	2 건축문화	박민철	한국건축탐구3 1천3백여 년 전 단절된 목조탑 세우기 보탑사 현장답사
697	1995	3 건축과환경	박명덕	예학공간의 실천, 우복종가
698	1995	3 건축과환경	전봉희	해남녹우당:윤선도 고택
699	1995	6 건축과환경	최지은	자연을 닮은 건축, 개심사
700	1995	7 건축세계	강병근	동양인의 세계관과 한국인의 건축관
701	1995	7 건축세계		일산 밤가사 초가
702	1995	7 공간	신영훈	KOREA WISDOM① 절수구
703	1995	8 건축세계		북한건축:개성의민속마을
704	1995	8 공간	신영훈	KOREA WISDOM② 돌다리의 난간
705	1995	9 공간	신영훈	KOREA WISDOM③ 두공
706	1995	10 건축세계	이은희	생태건축과 한국전통건축
707	1995	10 건축세계		진흙으로 만든 지붕 아래서의 거주와 그 효용
708	1995	10 공간	신영훈	KOREAWISDOM④ 大廳과마루
709	1995	11 공간	신영훈	KOREA WISDOM⑤ 大門
710	1995	11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1 한국건축의 계획과정
711	1995	12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2 목조건물의 시대사-봉정사
712	1996	1 건축문화	박명덕	한국에서의 흙이 가지는 특성과 상징적 의미
713	1996	1 건축문화	박재희	흙과 한국인의 마음
714	1996	1 건축문화	최영철	흙과 함께하는 한국인의 주거
715	1996	1 건축문화	무세중	흙에 대한 철학적 인식
716	1996	1 건축문화	이을호	흙은 살아있다
717	1996	1 건축문화	정동훈	흙의 맛과 멋
718	1996	1 건축세계		참건축담론:양동마을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719	1996 1	공간	신영훈	KOREA WISDOM⑥ 부경
720	1996 1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3 집합이 건축이다-병산서원
721	1996 2	공간	신영훈	KOREA WISDOM⑦ 목탑
722	1996 2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4 불교적 건축이론-통도사
723	1996 3	공간	신영훈	KOREAWISDOM⑧ 창살
724	1996 3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5 성리학의 건축적 담론-도동서원
725	1996 4	공간	신영훈	KOREAWISDOM⑨ 담장
726	1996 4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6
727	1996 5	공간	신영훈	KOREAWISDOM⑩ 구들
728	1996 5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7
729	1996 6	건축문화	양상현	門, 들어가기
730	1996 6	건축문화	박명덕	역사도시 서울의 강북지역이 가지는 건축사적 의미
731	1996 6	건축문화	황선옥	우리 것 찾기
732	1996 6	건축세계	이왕기	참건축담론:제주성읍마을
733	1996 6	공간	신영훈	KOREAWISDOM⑪ 기와지붕
734	1996 6	이상건축	신영훈	한옥의 이상성
735	1996 6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8
736	1996 7	건축세계	김도경	전통건축의 세부(기둥)
737	1996 7	건축세계	천득염	참건축담론:낙안읍성마을
738	1996 7	공간	류춘수	나의 건축의 한국성 그리고 세계성
739	1996 7	공간	김원석	벽돌문화의 思想
740	1996 7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9
741	1996 8	공간	신영훈	KOREA WISDOM⑫ 方壇建築
742	1996 8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10
743	1996 9	건축세계	김도경	전통건축의세부(가구)
744	1996 9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11
745	1996 10	건축세계	김란기	목수 고택영의 한평생 조선집 짓고 산 이야기
746	1996 10	건축세계	김도경	전통건축의 세부(처마)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747	1996 10	건축세계		참건축담론:아산외암리마을
748	1996 10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12
749	1996 11	건축문화	고성룡	가든한 마음으로 옛집 둘러보기1
750	1996 11	건축세계	심대섭	전통건축의 세부(지붕)
751	1996 11	건축세계		참건축담론:안동하회마을
752	1996 11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13
753	1996 12	건축문화	고성룡	가든한 마음으로 옛집 둘러보기2
754	1996 12	건축세계		참건축담론:마당풍경
755	1996 12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14
756	1997 1	건축문화	고성룡	가든한 마음으로 옛집 둘러보기3
757	1997 1	건축세계	김도경	전통건축의 세부(수장:바닥, 천장)
758	1997 1	건축세계	박명덕	참건축담론:웃골마을
759	1997 1	이상건축	정인하	한국건축, 그 수용하는 법과 창조하는 법
760	1997 1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15
761	1997 2	건축문화	고성룡	가든한 마음으로 옛집 둘러보기4
762	1997 2	건축세계	심대섭	전통건축의 세부(수장:벽체, 창호, 난간, 조각)
763	1997 2	건축세계	김란기	참건축담론:수원의 화성
764	1997 2	이상건축	이상정	세계 속의 한국건축문화
765	1997 2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16
766	1997 3	건축문화	고성룡	가든한 마음으로 옛집 둘러보기5
767	1997 3	건축세계	천득염	참건축 담론:남도의 동족마을(방촌마을)
768	1997 3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17
769	1997 4	건축문화	고성룡	가든한 마음으로 옛집 둘러보기6
770	1997 4	건축문화	박명덕	韓國建築樣式論
771	1997 4	건축세계	김도경	전통건축의 세부(굴뚝, 담장)
772	1997 4	건축세계	서경원	참건축담론: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거리 관훈·인사동
773	1997 4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18
774	1997 5	건축문화	고성룡	가든한 마음으로 옛집 둘러보기7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775	1997 5	건축세계	심대섭	전통건축의 세부(단청)
776	1997 5	건축세계	박명덕	참건축 담론:건축에서의 시간읽기(한개마을)
777	1997 5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19
778	1997 6	건축문화	김란기	민족건축미학연구회
779	1997 6	건축세계	김도경	전통건축의 세부(난간)
780	1997 6	이상건축	이원교	전통건축에서 자연성의 단편-구조성과 일체성
781	1997 6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20
782	1997 7	건축세계	김용승	참건축담론:경북봉화해저마을
783	1997 7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21
784	1997 8	건축세계	김승제	참건축담론:경북봉화황전마을
785	1997 8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22
786	1997 9	건축문화	이호열	금시당십이경도와 밀양 영남루
787	1997 9	건축문화	송인호	옛 그림에서 읽는 건축
788	1997 9	건축문화	김재식	조계산 선암사 대각국사 중창건도기
789	1997 9	건축문화	양상현	진경산수화에서 보이는 사찰건축
790	1997 9	건축세계	이현희	참건축담론:경북봉화선돌마을
791	1997 9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1
792	1997 9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23
793	1997 10	건축세계	김란기	목조전통의 재구축:전통을 살린 현대 목구조건축을 찾아서
794	1997 10	건축세계	정재국	참건축담론:삼척대아리너와, 굴피집
795	1997 10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2
796	1997 10	건축세계	문영식	한국전통건축의 대중화
797	1997 10	공간	가와무카이 마사토	열려진 전통을 향하여-일본건축의 국제화와 전통과의 관계
798	1997 10	공간	이영일	한국과일본사이
799	1997 10	이상건축	김열규	전통 한국인의 공간:추상에 떠오르는 것
800	1997 10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24
801	1997 11	건축과환경	민현식	대담:마당의 비상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802	1997	11 건축과환경	민현식	땅의 공간
803	1997	11 건축문화	이영한	전통건축 답사와 物活論
804	1997	11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3
805	1997	11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25
806	1997	12 이상건축	김봉렬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26 최후와 최고-선암사
807	1998	1 건축과환경	이상해	먼 집 가까운 집:어느 원로 전통건축 장인의 칠순잔치
808	1998	1 건축세계	김왕직	건축가의 집이야기 시리즈:한옥짓기, 한옥의 마음1
809	1998	1 건축세계	전봉희	참건축담론:보성강골마을
810	1998	1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4
811	1998	2 건축세계	김왕직	건축가의 집이야기 시리즈:한옥짓기, 한옥의 마음2
812	1998	2 건축세계	이호열	참건축담론:작은씨족마을-대구남평문씨본리세거지
813	1998	2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5
814	1998	3 건축과환경		전통가구 되살리기-한국가구의 현대성 제언
815	1998	3 건축세계	김왕직	건축가의 집이야기시리즈:한옥짓기, 한옥의 마음3
816	1998	3 건축세계	심대섭	참건축 담론:남산 한옥마을
817	1998	3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6
818	1998	4 건축문화		한국도시건축의 탐방:도시와 문화유산 수원
819	1998	4 건축세계	서경원	참건축담론:한국의 도시 일번지 종로
820	1998	4 건축세계	김왕직	건축가의 집이야기시리즈:한옥짓기, 한옥의 마음4
821	1998	4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7
822	1998	5 건축과환경		회복의 공간, 회복의 시간-삼도수군통제영복원
823	1998	5 건축과환경		흙건축, 실험에서 실제로
824	1998	5 건축세계	김왕직	건축가의 집이야기시리즈:한옥짓기, 한옥의 마음5
825	1998	5 건축세계	홍승재	참건축담론:둔덕 등촌마을
826	1998	5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8
827	1998	6 건축과환경	유걸	한국성 만들기
828	1998	6 건축세계	김왕직	건축가의 집이야기시리즈:한옥짓기, 한옥의 마음6
829	1998	6 건축세계	서경원	참건축담론:건축도에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830	1998	6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9
831	1998	7	건축과환경		우리땅읽기-한국의옛지도전
832	1998	7	건축문화	조용준	광주적 역사성의 의미와 좌표, 그리고 과제
833	1998	7	건축세계	김종현	참건축담론:봉화답설마을
834	1998	7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10
835	1998	8	건축세계	강혜연	참건축 담론:풍수 사진전
836	1998	8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11
837	1998	9	건축세계	김경표	참건축담론:보은고석리마을
838	1998	9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12
839	1998	10	건축세계	한필원	참건축담론:김천원터마을
840	1998	10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13
841	1998	11	건축과환경	이범재	도시의 이야기를 찾아서-경복궁에서 비각까지
842	1998	11	건축세계	유걸	전통적 컨텍스트 속에서의 현대건축
843	1998	11	건축세계	서경원	참건축 담론:안동 지례 예술촌
844	1998	11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14
845	1999	1	건축세계	김효만	참건축담론:건축의뿌리를찾아서
846	1999	1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15
847	1999	2	건축과환경	서길수	한국건축의 원형, 고구려산성전
848	1999	2	건축세계	박항섭	참건축을지향하는:양식과 한국현대건축의한국성표현
849	1999	2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16
850	1999	3	건축세계	김낙중	참건축담론:역사 , 전통, 기술적 진보에 의한 건축물
851	1999	3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17
852	1999	4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18
853	1999	5	건축과환경	이상해	먼 집 가까운 집:전통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854	1999	5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19
855	1999	6	건축세계	장산객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20
856	1999	9	건축문화		불교와 유교문화의 옛건축을 찾아서(안동지역)
857	1999	10	건축과환경	민현식	벽과 마당과 길의 3차원적 조직 그리고 그것과 서울 땅의

No.	발간일	잡지명	저자	제목
형국과 관계맺기				
858	1999 11	이상건축	강혁	근대성과 정체성, 그리고 타자
859	1999 11	이상건축	김석철	동서양을 넘어서는 건축
860	1999 11	이상건축	타이캥순	문화, 건축, 환경에 끼치는 인간조건의 탐구
861	1999 11	이상건축	이상해	문화·공간도식와한국전통건축
862	1999 11	이상건축	우규승	전망이 있는 안마당
863	1999 12	이상건축	이상해	20세기의 한국건축과 반성
864	1999 12	이상건축	김봉렬	한국성, 지역성과 현대



## 부록 2. 한옥미학 신문기사 목록

No.	년월일	신문명	필자	기사제목
1	1920.04.19	동아일보		鄉村에來住하야
2	1922.08.24	동아일보	柳宗悅	장차 일케된 朝鮮의 한 建築을 爲하야 (一)
3	1922.08.25	동아일보	柳宗悅	장차 일케된 朝鮮의 한 建築을 爲하야 (二)
4	1922.08.26	동아일보	柳宗悅	장차 일케된 朝鮮의 한 建築을 爲하야 (三)
5	1922.08.27	동아일보	柳宗悅	장차 일케된 朝鮮의 한 建築을 爲하야 (四)
6	1922.08.28	동아일보	柳宗悅	장차 일케된 朝鮮의 한 建築을 爲하야 (五)
7	1923.01.02	동아일보		研究할溫突裝置
8	1923.10.02	동아일보		京城의美觀,李朝의遺寶光化門의運命은如何
9	1924.02.04	동아일보		發展되는京城 家屋新築의傾向
10	1924.02.11	동아일보		家屋의建築은 如何히할가
11	1924.09.16	시대일보		中東線 周家堡, 풍족한 생활, 조선식 가옥에서 거주, 비옥한 토지에 농작
12	1926.11.01	동아일보		겨울과조선부엌
13	1927.12.04	매일신보		紅葉의 佛國寺에
14	1927.12.06	조선일보		[今後의경성은零落乎발전乎(전14회)](11)오막살이초가시내에1만5천.평수가작은단층으로협작한초가집은모두가조선인주택.10평미만이1만3천여
15	1928.04.04	중외일보		가옥제한령보다도蓋屋개선
16	1928.08.07	중외일보		통속강화,실내의벽(1),벽은두껍고그속에공기가더많이든것이
17	1928.08.08	중외일보		통속강화, 실내의 벽(2), 커튼 재료로 맞든 것이라도 그 방향을 따라 다
18	1928.08.09	중외일보		통속강화,실내의벽(4)

No.	년월일	신문명	필자	기사제목
19	1928.10.01	중외일보		강경가옥 瓦葺계획
20	1928.11.17	조선일보		古蹟巡訪:燦爛한新羅文化.(一)古蹟陳列館을보고(二)世界第一의靈鍾(三)東洋最高의天文臺(四)三奇八怪와巫山十二峯(五)五陵과鮑石亭(六)太宗王과金庾信(七)藝術의極致인佛國寺(八)石窟庵과掛陵(全8回)
21	1928.11.25	조선일보		(7)예술의극치인불국사
22	1929.04.06	매일신보	한봉순	하로밧비 곤처야 할 조선가옥제도 능룡이 나고 위싱에 조코 아름답게 (一)
23	1929.04.08	매일신보	장금산	하로밧비 곤처야 할 조선가옥제도 능룡이 나고 위싱에 조코 아름답게 (二)
24	1929.11.11	조선일보		(21)경복궁근정전
25	1929.11.15	조선일보		(25)불국사다보탑
26	1929.12.28	조선일보		(57)경성남대문
27	1930.04.09	매일신보	유령숙	하로밧비 곤처야 할 조선가옥제도 능룡이 나고 위싱에 조코 아름답게 (三)
28	1930.04.10	매일신보	전혜원	하로밧비 곤처야 할 조선가옥제도 능룡이 나고 위싱에 조코 아름답게 (四)
29	1930.06.05	매일신보		朝鮮의 文明은 發達된 지 이미 오래다 가옥구조와 쌀밥에 맞부친 佛國 몬살빌博士談
30	1930.09.30	동아일보	김윤기	주택문제 유일한 휴양처 안락의 홈은 어떠하게세울가(一)
31	1930.10.02	동아일보	김윤기	주택문제 유일한 휴양처 안락의 홈은 어떠하게세울가(二)
32	1930.10.03	동아일보	김윤기	주택문제 유일한 휴양처 안락의 홈은 어떠하게세울가(三)
33	1930.10.04	동아일보	김윤기	주택문제 유일한 휴양처 안락의 홈은 어떠하게세울가(四)
34	1930.10.09	동아일보	김윤기	주택문제 유일한 휴양처 안락의 홈은 어떠하게세울가(五)
35	1930.10.10	동아일보	김윤기	주택문제 유일한 휴양처 안락의 홈은 어떠하게세울가(六)
36	1930.10.11	동아일보	김윤기	주택문제 유일한 휴양처 안락의 홈은 어떠하게세울가(七)
37	1931.03.14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一)
38	1931.03.15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二)

No.	년월일	신문명	필자	기사제목
39	1931.03.17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三)
40	1931.03.18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四)
41	1931.03.19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五)
42	1931.03.20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六)
43	1931.03.25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七)
44	1931.03.26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八)
45	1931.03.27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九)
46	1931.03.28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十)
47	1931.03.29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十一)
48	1931.03.31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十二)
49	1931.04.02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十三)
50	1931.04.03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十四)
51	1931.04.04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十五)
52	1931.04.05	동아일보	박동진	우리住宅에對하야 (十六)
53	1931.05.19	매일신보	森悟一	朝鮮家屋에 改善에 對하야 (一)
54	1931.05.20	매일신보	森悟一	朝鮮家屋에 改善에 對하야 (二)
55	1931.05.21	매일신보	森悟一	朝鮮家屋에 改善에 對하야 (三)
56	1931.11.28	중앙일보		B기자의수기,空家空家空家와 토굴에 사는 백성들, 장안에는 빈집이
57	1932.01.01	매일신보	전지자	구식가옥과 그 개량 第一回
58	1932.01.05	매일신보	송금선	구식가옥과 그 개량 第二回
59	1932.01.07	매일신보	승경애	구식가옥과 그 개량 第三回
60	1932.01.08	매일신보	김현실	구식가옥과 그 개량 第四回
61	1932.01.12	매일신보	최경진	구식가옥과 그 개량 第五回
62	1932.08.08	동아일보	박길용	廚에對하야(一)
63	1932.08.10	동아일보	박길용	廚에對하야(二)
64	1932.08.11	동아일보	박길용	廚에對하야(三)
65	1932.08.12	동아일보	박길용	廚에對하야(四)

No.	년월일	신문명	필자	기사제목
66	1932.08.13	동아일보	박길용	廚에對하야(五)
67	1932.08.14	동아일보	박길용	廚에對하야(六)
68	1935.08.16	조선중앙일보	박길용	생활의 과학, 취미의 과학, 주택과 장독대
69	1935.08.22	조선중앙일보	전창일	생활의 과학, 취미의 과학, 暑氣와 주택
70	1936.01.01	동아일보		행랑은 집뒤에 두고 마루는 응접실로
71	1937.11.12	동아일보		家屋建築의 必須常識 (一)
72	1937.11.13	동아일보		家屋建築의 必須常識 (二)
73	1937.11.14	동아일보		家屋建築의 必須常識 (三)
74	1937.11.16	동아일보		家屋建築의 必須常識 (四)
75	1937.11.17	동아일보		家屋建築의 必須常識 (五)
76	1937.11.18	동아일보		家屋建築의 必須常識 (終)
77	1938.01.01	매일신보	이천승	우리들의 住宅은 이러케 改良하십시다 1
78	1938.01.01	동아일보	박길용	生活改善私案 부엌에 대하여
79	1938.01.04	매일신보	이천승	우리들의 住宅은 이러케 改良하십시다 2
80	1938.01.04	매일신보	이천승	우리들의 住宅은 이러케 改良하십시다 3
81	1938.01.05	매일신보	이천승	우리들의 住宅은 이러케 改良하십시다 4
82	1938.01.06	매일신보	이천승	우리들의 住宅은 이러케 改良하십시다 5
83	1938.01.07	매일신보	이천승	우리들의 住宅은 이러케 改良하십시다 6
84	1938.01.20	매일신보		“天然그대로”를 尊重 人工施設은 不許
85	1939.01.06	동아일보		우리生活에서  찾아질 憂鬱情緒
86	1939.01.06	동아일보	박길용	건축가입장에서 온돌만은 절대 유지합시다
87	1939.01.06	동아일보	이숙종	취미보다도 정서
88	1939.01.06	동아일보	유자후	주택의 조선식은 이러케 살립시다
89	1940.01.01	조선일보		창을 남으로내자! 조선가옥의 근본결함은 안방과 부엌에 있다.
90	1941.01.29	매일신보	박길용	家庭-가정부인과문화상식 ⑨-마음맞는가옥 아담,명랑하게꾸미자

No.	년월일	신문명	필자	기사제목
91	1942.08.04	매일신보	브리히테	家庭-채광이 부족한 안방 아깝게 놀리는 대청-개선했으면하는 몇가지 희망-盟邦獨逸女性이 본 朝鮮家屋制度 劉在晟氏夫人 브리히테女史談
92	1942.08.05	매일신보	브리히테	盟邦獨逸女性이 본 朝鮮家屋制度-劉在晟氏夫人 브리히테女史談-맥당한 부엌아궁이 불합리한점이 많다-음식조리에 도시간관념을
93	1943.04.14	매일신보	박길용	家庭 - 내지가옥의 장치 - 장치보다 단차가 많은 조선집 황민화는 생활양식에서부터
94	1943.07.16	매일신보		朝鮮住宅을內地化 衛生,經濟的으로 훨씬便利
95	1946.04.28	자유신문		明 29일부터 주택보호 강조주간, 우리들 안식의 집 만들자
96	1957.01.01	조선일보	김재원	[우리문화의재인식.먼저우리의얼을찾자(전2회)](1)석굴암. 불국사
97	1957.01.03	조선일보	김재원	[우리문화의재인식.먼저우리의얼을찾자(전2회)](2)불국사- 석굴암
98	1959.03.08	조선일보		(3)남대문
99	1962.12.15	동아일보		國寶巡禮(28) 中興山城双獅子石燈
100	1963.01.03	동아일보		傳統的 韓國式古風家屋의 창살(樂善齋서)
101	1963.01.21	동아일보		國寶巡禮(50) 浮石寺無量壽殿
102	1963.01.22	동아일보		國寶巡禮(51) 浮石寺無量壽殿앞石燈
103	1963.02.06	동아일보		國寶巡禮(59) 銀海寺居祖庵靈山殿
104	1963.02.07	동아일보		國寶巡禮(60) 佛國寺 多寶塔
105	1963.02.08	동아일보		國寶巡禮(61) 佛國寺三層石塔
106	1963.02.12	동아일보		國寶巡禮(62) 佛國寺 靑雲橋·白雲橋
107	1963.05.01	동아일보		國寶巡禮(107) 法住寺捌相殿
108	1963.06.05	동아일보		韓國家屋의 지붕
109	1966.04.21	매일경제		建設 절충식家屋이漸增
110	1966.05.07	동아일보		國寶등固有의線美본떠
111	1967.08.29	매일경제		우람한藝術教科書佛國寺
112	1969.05.24	매일경제		新羅千年의얼이담긴佛國寺

No.	년월일	신문명	필자	기사제목
113	1972.04.17	경향신문		“古典美풍기계景福宮보수를”
114	1976.01.20	동아일보	정연춘	韓國의 얼굴 <4> 「千年風雨」 버틴 南漢山城
115	1976.02.03	동아일보	박인섭	韓國의 얼굴 <6> 國寶第1號 南大門
116	1976.03.16	동아일보	이용수	韓國의 얼굴 <11> 護國의 절 佛國寺
117	1976.04.13	동아일보	전만길	韓國의 얼굴 <15> 南原의 廣寒樓
118	1976.04.27	동아일보	이상하	韓國의 얼굴 <17> 求禮 華嚴寺
119	1976.06.29	동아일보	최일남	韓國의 얼굴 <26> 晉州 축석루
120	1976.08.10	동아일보	최일남	韓國의 얼굴 <32> 寶物 第147號 密陽 嶺南樓
121	1976.08.31	동아일보		韓國의 얼굴 <33> 德壽宮
122	1976.09.30	조선일보		「서울한옥민속경관지정」 이렇게해봤으면
123	1977.03.22	조선일보		<문화재>한옥이 지방 문화재로 된다. 사대부집등 서울 4대문 안 17동
124	1979.06.11	동아일보		한국文化(문화)구조의 特性 밝혀 河回부락의 習俗종합연구
125	1979.10.19	동아일보		“佛國寺지붕보고 日·中國과다른固有美느껴”
126	1980.07.01	경향신문	배주선	江原道산골부락에 「마을民俗館」 15평남짓작은굴피집속祖上
127	1983.09.17	동아일보		韓國의 살림집 韓屋
128	1984.05.15	경향신문	김유경	우리의 傳統家屋 食事文化和 밀집
129	1988.03.21	동아일보		韓屋의 아름다움을 소재로
130	1989.02.23	경향신문	김양삼	民俗마을 찾기 傳統美 배우며 옛情趣 즐긴다
131	1989.03.10	동아일보	강상헌	민속마을 민족정취 담긴 마음의 고향
132	1991.01.28	조선일보		한옥보존은이렇게(사설)
133	1992.10.25	한겨레	김도식	새로운 공간문화를 위하여③ 경주 불국사
134	1992.11.01	한겨레	조성륜	새로운 공간문화를 위하여④ 한옥인가 양옥인가
135	1992.11.22	한겨레	조건영	새로운 공간문화를 위하여⑦ 인사동 골목
136	1992.12.12	조선일보		한국전통건축계보정리화제절-궁궐등사진
137	1992.12.13	한겨레	김영섭	새로운 공간문화를 위하여⑩ 북촌서 살자 예스런 한옥은 산 교육장

No.	년월일	신문명	필자	기사제목
138	1992.12.31	조선일보	임영방	한국의 색깔 임영방(일사일언)
139	1993.01.28	조선일보	신영훈	한옥의 위기 신영훈(일사일언)
140	1993.02.22	조선일보		퇴락하는 서울의 한옥(사설)
141	1993.12.09	조선일보	렌데스	하회마을 프랑스인 장마르크렌데스씨(나의코리아) 인간과 자연 하나된 곳 훼손 안타까워
142	1993.12.23	조선일보		경주불국사-석굴암에 매료 미국인 이안브루이스씨(나의코리아) 고친구조물부조화“티”
143	1994.07.17	한겨레	최익림	전통가옥 빼어난 멋·실속과 만난다
144	1995.03.07	조선일보		한옥식 실내장식 아파트 한일건설 수원에 사랑방-뿔마루 갖춰
145	1995.10.24	매일경제		전통·현대성이 접합된 전원주택 흙과 나무사용 전통가옥 멋 가미
146	1996.05.24	동아일보	김석철	건축가가 본 불국사 金錫澈씨(아키반 대표)
147	1996.12.03	동아일보		전통-현대美 조화“새 단장”
148	1996.12.22	동아일보	김석철	千年건축(28)부석사
149	1997.04.22	조선일보	차학봉	디자이너 유정환씨의 아파트식 한옥 50년 넘는 기와집 겹은 전통미 살리고 속은 실용 위주 개조
150	1997.05.03	경향신문	윤승아	문화재를 찾아서 (16) 경북 예천權(권)씨 종택
151	1997.05.23	조선일보	최홍렬	고건축 전문가 신영훈씨 「우리문화이웃문화」 펴내
152	1997.05.24	경향신문	이연재	문화재를 찾아서 (19) 소수서원
153	1997.06.14	경향신문	박구재	문화재를 찾아서 (22) 내소사 문살문양
154	1997.08.02	경향신문	유인화	문화재를 찾아서 (29) 경북궁 십장생·아미산굴뚝
155	1997.09.27	경향신문		문화재를 찾아서 (37) 전남 장흥 보림사
156	1997.10.11	경향신문	윤승아	문화재를 찾아서 (39) 덕수궁 궁중유물 전시관
157	1997.10.25	경향신문	도재기	문화재를 찾아서 (41) 전북 김제 금산사
158	1997.11.01	경향신문	조운찬	문화재를 찾아서 (42) 서울 부암동‘石坡亭’
159	1997.11.06	동아일보	이현진	해라시아문화연구소 「한국의 살림집」 배울수록 빠져드는 한옥의 멋
160	1997.11.15	경향신문	윤승아	문화재를 찾아서 (43) 전남 화순 운주사
161	1998.01.08	동아일보	조현주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No.	년월일	신문명	필자	기사제목
162	1998.02.18	조선일보	박광민	일사일언초가집예찬
163	1998.11.03	조선일보	박중현	“남산골 한옥 옛 모습과 달라” 「서울의 한옥…」 책 펴낸 서울대 이상억교수



### 부록 3. 한옥미학 어휘 분류

#### □ 소박 · 순박

소박(素朴)	순박(淳朴, 醇朴)	담소(淡素)	간소(簡素)
검소(儉素)	질소(質素)	질박(質朴)	간박(簡朴)
졸박(拙朴)	단순(單純)	단조(單調)	순후(淳厚, 醇厚)
둔후(鈍厚)	순진(純眞)	순정(純正)	순진(純眞)
투박	어수룩	둥근	구수
평범(平凡)	조야(粗野)	어리석음	

#### □ 아담 · 고담

아담(雅淡)	고담(枯淡)	고고(高古)	고색(枯色)
고풍(古風)	고전(古典)	고상(高尚)	고귀(高貴)
온아(溫雅)	아취(雅趣)	단아(端雅)	단정(端正)
우아(優雅)	청아(清雅)	청초(淸楚)	세련(洗練)
심미(審美)	수려(秀麗)	품위(品位)	사뿐
유려(流麗)	풍아(風雅)	우려전아(優麗典雅)	맵자

#### □ 자연

자연(自然)	태연(泰然)	유연(悠然)	순진(純眞)
순응(順應)	순리(順理)	순직(順直)	솔직(率直)

#### □ 섬약 · 적조

섬약(纖弱)	적조(寂照)	적막(寂寞)	적요(寂寥)
섬세(纖細)	정세(精細)	섬쓸	쓸쓸
비애(悲哀)	고뇌(苦惱)	호젓	

□ 조화

조화(調和)	동화(同和)	친화(親和)	해화(諧和)
관용(寬容)	융합(融合)	평화(平和)	너그러움

□ 담백

담백(淡白)	여백(餘白)	여유(餘裕)	
--------	--------	--------	--

□ 해학

해학(諧謔)	익살		
--------	----	--	--

□ 운율

운율(韻律)	율동(律動)	유동(流動)	유창(流暢)
--------	--------	--------	--------

□ 겸허

겸허(謙虛)	겸손(謙遜)	절제(節制)	절도(節度)
점잖음	의젓	덤덤	묵직
절약(節約)			

□ 은은

은은(隱隱)	은근(慇懃)	은일(隱逸)	고요(古謠)
--------	--------	--------	--------

□ 웅장

웅장(雄壯)	장중(莊重)	강경(強勁)	창경(蒼勁)
견실(堅實)	당당(堂堂)	웅려(雄麗)	장려(壯麗)
화려(華麗)			

□ 아늑

아늑  
정감(情感)

따스함  
온화(溫和)

완만(緩慢)

토실토실

□ 활기

활기(活氣)  
찬란(燦爛)

명랑(明朗)  
경쾌(輕快)

선명(鮮明)

비상(飛翔)

□ 기타

공교(工巧)  
모순(矛盾)  
로맨틱  
유연(柔軟)

다양(多樣)  
애매(曖昧)  
번잡(煩雜)  
유양(悠揚)

착실(着實)  
동경(憧憬)  
오밀조밀

꼼꼼  
풍성(豐盛)  
입체(立體)